RM 2010-6-383

논술교육 길라잡이 V

인문계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RM 2010-6-383

논술교육길라잡이V

인문계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논술연구회

연 구 위 원 강영기(남주고등학교)
김평원(마포고등학교)
김흥규(광신고등학교)
서정인(서울고등학교)
이명수(대광고등학교)
이효근(하나고등학교)
정형식(하나고등학교)
최병기(영등포여자고등학교)
최진규(서령고등학교)
황충일(서도고등학교)

자 문 위 원 윤희원(서울대학교)
조완영(충북대학교)

연구협력관 양정호(입학전형지원실장)
구완규(입학관리팀장)

논술교육길라잡이Ⅴ를 펴내면서

2006년에 새로운 논술 유형으로 선보인 통합논술이 출제된 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출제 유형 및 개념에 대한 초기의 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름 대학별로 정형화된 통합논술은 2011년 대학 입시에서도 상위권 대학의 수시 전형에 있어 영향을 끼칠 결정적 요소가 되리라 전망됩니다.

더욱이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을 고려할 때 수시 선발 비중이 높아진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 통합논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는 통합교과논술이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지, 단순히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논술연구회에서는 공교육이 주도하는 논술 교육만이 논술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하에 각 대학교에서 제공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상세하게 제시한 〈논술교육길라잡이〉 시리즈를 2006년부터 계속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각 대학 논술 출제를 담당하는 교수 및 현장 논술 지도 교사의 다양한 의사소통과정을 반영하여 공신력 있는 자료로 거듭나고자 노력한 점이 〈논술교육길라잡이〉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논술교육길라잡이Ⅴ〉는 2011학년도 수시 전형을 대비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 책에서는 각 대학교에서 제시한 2010학년도 대입 수시 2학기 출제문항 분석과 함께 출제되었던 주제 또는 개념을 종합하여 2011학년도 출제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학별 기출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통합교과논술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지향하고 있지만, 각 대학마다의 나름의 정형화된 방향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논술교육길라잡이Ⅴ〉는 이러한 거대한 흐름과 더불어 각 대학의 다양한 방향성을 인문계 논술, 수리논술, 과학논술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논술교육길라잡이〉 시리즈는 수시 전형을 대비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논술 학습의 안내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논술 지도 교사와 학생 모두 통합논술의 교육적 의미에 공감하고,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0.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논술연구회

목 차

➢ **대학 논술 기출문제 해설** ····· 1

1. 건국대학교 ····· 3
2. 경기대학교 ····· 15
3. 경희대학교 ····· 29
4. 고려대학교 ····· 48
5. 광운대학교 ····· 65
6. 덕성여자대학교 ····· 79
7. 동국대학교 ····· 98
8. 서강대학교 ····· 117
9. 서울대학교-수시 ····· 131
10. 서울대학교-정시 ····· 139
11. 성균관대학교 ····· 162
12. 성신여자대학교 ····· 173
13. 숙명여자대학교 ····· 186
14. 아주대학교 ····· 212
15. 연세대학교 ····· 223
16. 이화여자대학교 ····· 233
17. 인하대학교 ····· 249
18. 한국외국어대학교 ····· 274
19. 한국항공대학교 ····· 282
20. 한양대학교 ····· 297

논술교육길라잡이 V

인문계열

대학 논술 기출문제 해설

1 건국대학교

가. 개 요

분석대상 : 2010학년도 수시 1차 인문계열 문제

시험시간 : 180분

문 항 수 : 3문항

답안 분량 : 문제1) 501~600자, 문제2) 501~600자, 문제3) 901~1,100자

출제 형식

지문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문제를 출제하며, 이해력, 논증력, 창의력, 표현력을 평가한다. 다양한 내용의 지문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사고를 측정하는 통합교과형 논술을 실시하며, 사고의 최종적인 결과물 외에 학생들의 사고 과정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한다.

출제의도

이번 논술 문제의 기본 화두는 '소통'이다. 개인간, 가족간, 세대간, 집단간, 국가간의 교류에서 소통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소통'을 공통적인 주제로 하여,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 및 조건, 언어를 통한 소통과 비언어적 소통, 국가간 교역에서 소통이 차지하는 중요성, 의사소통의 필요성과 다양한 양태 등을 다루는 제시문을 선택하였다.

❍ **논제 1**

제시문 [가]는 공병혜의 논문을 고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가]에서는 칸트의 '공동감'이 어떻게 타인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즉, 타인의 마음을 읽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나]는 널리 알려진 앤서니 기든스의 『현대

사회학』에서 발췌하였다. [나]에서는 일상적 대화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있으며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짐을 설명하고 있다. 이 두 제시문에서 나타난 '소통'에 대한 관점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문제 1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 **논제 2**

최윤희의 논문에서 뽑은 [다]에서는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언어적인 것의 영향보다 비언어적인 요소의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문화의 대표적인 비언어적 코드로 예의범절을 들고 있다. [라]는 북미 및 EU 15개국과 미국의 교역규모를 각 나라의 GDP규모와 비교하여 도표로 제시하고 아울러 유럽 각국의 영어소통능력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견 서로 무관해 보이는 자료들을 서로 연결지어 도표를 분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문제 2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주문하는 내용이다.

❍ **논제 3**

[마]와 [바]는 문학 작품으로 [마]는 여러 문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입센의 「인형의 집」이고, [바]는 2009년 가을에 출간된 신경숙의 신간 베스트셀러 「엄마를 부탁해」의 일부이다. 두 지문을 통해서 '헬메르'와 '노라', 딸과 엄마 그리고 딸과 장님 사이의 소통 양식을 다양하게 보여 주고 있다. [마]에서는 부부의 소통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바]에서는 언어를 통한 소통뿐 아니라 비언어적 소통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소통의 양태는 자연스럽게 [가]~[다]에서 언급된 내용들과 연결되고 있다. 이들 자료들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여 정리하고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는 것이 문제 3에서 묻고 있는 내용이다.

■ **주제 : 소통**

나. 논제 분석

[가]

칸트는 감정을 통해 자신의 판단에 대한 보편적인 전달과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소통능력을 가정하는데, 이를 '공통감'이라고 한다. 아렌트는 이러한 공통감을 불편부당성(impartiality)—어떤 사태나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결부시키지 않고 공정하게 바라보는 개방된 태도—을 통해서 실현되는 보편적 소통능력이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공통감은 개인적 판단 기준에 따른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타자의 입장에서 사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이렇듯 타자를 등장시켜 사고의 확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성찰적 능력이 바로 상상력이다. 자유로운 상상력은 우리 자신을 편협한 사적 이해관계를 떠나 타자의 입장에 놓이게 하여 다른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상상하게 만든다. 그리고 지성은 이에 대한 반성을 통해 우리를 공감적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한다. 즉, 공통감을 통해 우리는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서 타인의 입장을 반영한 이미지를 떠올려 성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감정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상호 소통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상대방을 향해 열린 주관이 마주하는 현실은 상상력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정서적이며 상황적인 세계이다. 이 주관은 자신의 직접적인 감응에 따른 욕구에 속박되지 않으며,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경험에 근거해 미세한 신체적 지각이나 움직임, 시선, 표정, 몸짓과 비유적 표현 등을 포착한다. 나아가 이에 대한 기억과 연상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타인의 특수한 상황과 마음의 상태를 읽어내게 된다.

인간은 이렇게 자유로운 상상력과 지성의 상호촉진활동이라는 인간 본연의 중요한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가능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주관이 직접적인 감응이나 욕망에 붙잡혀 있거나 특정 개념 내지 이론에 구속받는다면, 또는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적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한다면 소통의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이때 우리의 상상력은 상대방을 향한 열린 연상과 이미지 형성을 멈추게 되는 것이다.

– 공병혜, 「미감적 의사소통을 통한 배려의 윤리의 가능성」에서

[나]

우리가 일상 대화를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배경 공유의 기대'는 사회학자 가핀켈이 몇몇 자원봉사 학생들과 함께 수행한 실험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학생들에게는 친구나 친지와 대화를 하되 어떤 보편적인 표현이라도 그 의미를 분명히

밝혀내도록 과제가 부과되었다. 무심코 한 말이나 혹은 일반적인 말일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정확히 밝히라고 지시한 것이다. 만약 상대편이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라고 한다면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즐겁게라는 말씀이세요?" 혹은 "오늘 하루 중 언제를 말입니까?" 등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교환된 한 예는 다음과 같다.

A : 잘 지냈니?
B : 어떤 의미에서 잘 지냈냐고 묻는 거야? 내 건강, 직장상태, 학교 일, 내 마음의 상태 혹은 내……
A : (얼굴이 붉어지고 갑자기 흥분하여) 야! 나는 단지 너에게 예의 있게 행동하려고 한 것뿐이야. 솔직히 말하지만, 네가 잘못 지냈길 바라고 저주한 건 아니야!

사소한 대화의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A는 왜 그렇게 흥분하는가? 해답은 우리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의 안정성과 의미는 무엇을 왜 말하는가에 대해 진술되지 않은 문화적 가정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의사소통은 불가능할 것이다. 어떤 질문이나 대화든, 가핀켈의 연구를 도와준 학생들이 상대편의 각 진술에 대해 제기했던 것과 같은 막대한 '탐색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면 상호작용은 그저 중단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언뜻 보기에 사소한 것 같은 대화의 관행이 사회생활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 바탕이 되며, 따라서 이를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의 이유가 밝혀진다.

– 앤서니 기든스, 『현대사회학』에서

[다]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의논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미를 말이나 몸짓, 신체 접촉, 표정 및 시선으로 표현한다. 만나서 헤어지는 순간까지 사람들은 상대방의 억양, 의복과 장신구, 표정, 단어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관찰한다. 이러한 비언어의 단서를 관찰한 후 자신의 주장을 펼 것인가 동의할 것인가, 아니면 웃을 것인가 얼굴을 붉힐 것인가, 또는 대화를 계속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인간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비언어 코드가 전달하는 의미의 영향은 언어 코드를 능가한다. 메라비언(Mehrabian)의 주장에 따르면 면대면의 일상적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메시지의 총체적 영향은 '총체적 영향(100)=7(언어)+38(음성적 요소)+55(얼굴)'의 등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한다. 언어 코드보다 비언어 코드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는 위의 등식은 서양 사람들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설명하는 것이기에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대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비언어 코드의 중요성은 한국 문화라고 해서 적다고 볼 수는 없다.

'예의범절'로 표현되는 우리 문화의 독특한 규범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비언어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예의범절은 다른 사람과의 면대면 접촉에서 가져야 될 말씨와 행동거지, 몸가짐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와 장소에 따라 갖는 일정한 순서와 절차, 몸가짐의 방향과 모양, 일정한 복식과 그 색깔, 일정한 거리의 유지 등과 같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비언어적 요소들은 유교가 갖고 있는 질서관에 부응하도록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가짐으로써 이 같은 의식과 범절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의 양식으로 제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의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비언어적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이것이 정보의 전달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비중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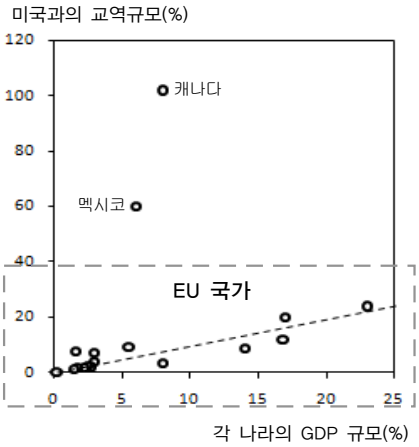
– 최윤희,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서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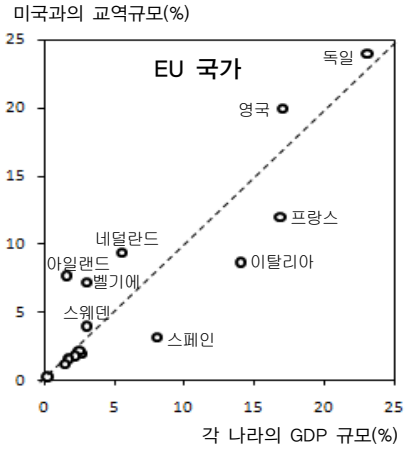
다음의 〈도표 1〉과 〈도표 2〉는 지리적 · 경제적 · 문화적 요인들이 경제 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유럽연합(EU) 주요 15개국을 대상으로 교역과 GDP의 규모를 도표로 나타냈다. 도표의 가로축은 각 나라의 GDP 규모이고 세로축은 미국과의 교역규모이다(GDP 및 교역규모는 모두 EU 지역 총액 대비 비율로 계산함). 〈도표 1〉은 EU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접국인 캐나다, 멕시코를 함께 표시한 것이고, 〈도표 2〉는 〈도표 1〉의 아래쪽에 있는 EU 나라들만을 확대하여 보인 것이다.

[출처 : Krugman & Obstfeld(2006), 『국제경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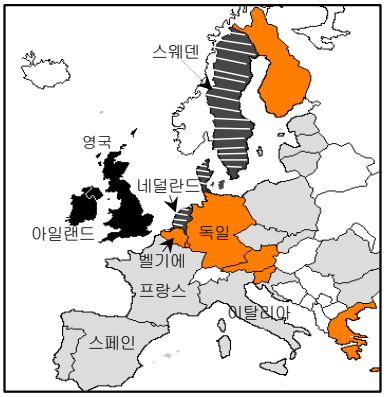
〈도표 1〉



〈도표 2〉



〈도표 3〉



유럽 각국의 영어소통능력
(출처 : Fidrmuc & Fidrmuc, 2009)

90% 이상 / 50-90% / 30-50% / 10-30% / 자료 없음

[마]

노　라 : 중요한 점은 그것이에요. 당신은 저를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부정의 희생을 오래 당해온 거예요. 첫째로는 아버지로부터, 둘째로는 당신한테서.

헬메르 : 뭐라고? 우리들한테서? 다른 누구보다도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왔던 우리들한테서 말야?

노　라 : (고개를 흔든다.) 당신들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들에게는 다만 재미에 지나지 않았어요.

헬메르 : 여보, 노라, 그게 무슨 말이오!

노　라 : 그래요, 사실이에요, 토르발트. 제가 아직 친정에서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 아버지가 여러 가지 자기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바로 제 의견이었어요. 만일 제가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진 경우에는 저는 그것을 숨겼어요. 제 자신만의 의견이란…… 아버지에게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자기 인형이라고 부르시고 제가 인형을 가지고 놀듯이 저와 놀아 주셨어요. 그 후 당신 집에 와서…….

헬메르 : 우리들 결혼을 그런 말로 표현하다니!

노　라 : (동요하지 않고) 제 말은, 그때 저는 아버지의 손에서 당신 손으로 인계되었다는 말이에요. 당신은 모든 것을 당신 취미에 맞도록 꾸몄고, 또 그래서 저는 당신과 똑같은 취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렇게 하는 체만 했는지…… 거기까지는 확실히 분간하기 어려워요. ……아마 그 양자를 겸해서 어느 때는 이쪽이고 또 어느 때는 저쪽이고 했는지도 모르지요. 지금 여기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저는 이 집에서 가엾게도…… 그날 벌어 그날 먹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당신의 노리개 감이 되어서 그걸로 밥을 먹고 살아왔어요. 토르발트, 당신이 저한테 그걸 바랐거든요. 당신과 아버지는 저에게 큰 죄를 지은 것이에요. 제가 쓸모없이 된 것은 당신들 책임이에요.

헬메르 : 당신은 왜 그렇게 지각이 없고, 은혜를 모른단 말이오! 당신은, 여기서 행복하지 않았단 말이오?

노　라 : 천만에,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헬메르 : 행복하지 않았다! 그런…….

노　라 : 그럼요, 다만 재미있었다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저에게 친절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 가정은 다만 유희실(遊戱室)에 불과했어요. 친정아버지한테서 제가 어린 인형으로 취급되었다면 여기서는 큰 인형 취급을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 아이들이 또한 저의 인형들이었어요. 저는 당신이 저를 가지고 놀아 주었을 때는 정말 즐거웠어요. 이것은 마치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놀아 주면 아이들이 좋아하던 거와 다름없어요. 그것이 우리들 결혼이었어요, 토르발트.

헬메르 : 당신이 말한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야. 물론 다소의 과장도 있고, 지나친

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될 거야. 놀이의 때는 지났어. 이제는 교육을 할 때가 되었으니까.

노 라 : 누구 교육 말예요? 제 교육 말예요? 아이들 교육 말예요?

헬메르 : 양쪽 다지, 우리 귀여운 노라.

노 라 : 아아, 토르발트. 당신은 저를 당신에게 알맞은 아내로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돼요.

헬메르 : 그런 소리를!

노 라 : 그리고 저는,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겠어요?

헬메르 : 노라!

노 라 : 앞서 당신이 말하지 않았던가요? 그 임무는 저에게 맡길 수 없다고요.

헬메르 : 흥분 속에서 그런 거야! 그 말을 그렇게까지 중요시하다니!

노 라 : 아녜요, 당신이 옳은 말 했어요. 그 임무를 맡을 자격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지요. 저는 저 스스로를 교육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당신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는 저 혼자서 제 자신을 꾸려 나가야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신 곁을 떠나는 거예요.

헬메르 : (벌떡 일어선다.) 무슨 소리를!

– 입센, 「인형의 집」에서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바]

너는 그들의 감긴 눈을 보며 그들이 만들어준 점자책에 실린 작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책을 쓰게 된 동기와 그 책을 쓰는 도중에 너의 마음이 겪은 일들과 다 쓴 뒤에 그 책에 대해 네가 가지게 된 소망들을. 너는 놀랐다. 그들은 그동안 네가 만난 어떤 사람들보다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이 너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몸짓에서 느껴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한 발을 앞으로 내밀고 누군가는 상체를 앞사람 쪽으로 바싹 당겨놓고 듣고 있었다. 너는 그들의 문자를 단 한 문장도 해독할 수 없는데 그들은 네가 쓴 책을 읽고 질문을 하고 소감을 말했다. 그 책에 대해 그들처럼 우호적인 감정을 내비치는 사람들을 그때껏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엄마에게 말해주었다. 너의 얘기를 가만 듣고 있던 엄마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네가 쓴 책을 읽었구나,라고 말했다. 엄마와 너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다. 엄마가 더 말해 보라고 했다. 너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들 중 어떤 이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해도 되느냐 말했다. 너는 그러라고 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인데도 그는 여행 다니는 게 취미라고 했어, 엄마. 엄마는 너의 얘기에 다시 귀를 기울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가 여행을 하는 곳은 어디일까? 너는 순간 멍해졌다. 그는 네가 아주 오래전에 쓴 글 중에 페루가 배경인 작품이 있다고 했다. 그 작품 속의 화자가 마추픽추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 기차가 뒤로 가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자기는 그 작품을 읽고 페루에 가서 그 기차를 타보고 싶은 꿈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네가 직접 그 기차를 타보았는가? 물었다. 네가 십여 년도 전에 쓴 작품을 두고 하는 얘기였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무엇을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려 안에서 흘러나오는 찬 공기에 얼굴을 내맡긴 채 한참을 서 있다가 도로 닫기 일쑤인 네가 십여 년 전 그 작품을 쓰기 직전에 여행한 페루 이야기를 술술 하고 있었다. 페루의 수도 리마, 우주의 배꼽이라 불리던 쿠스코, 첫 새벽에 마추픽추 행 기차를 타러 갔던 산 페드로 역. 후진했다 전진했다를 십수번 반복하다가 마추픽추를 향해 출발하던 기차에 대해서. 잊고 있던 지명과 나라 이름과 산맥 이름이 생생히 발음되어 나왔어,라고 엄마에게 얘기해 주었다. 너는 여태 본 적이 없는 눈, 너의 어떤 결핍이라도 다 이해해 주고 받아들여줄 것 같은 그런 눈들의 호의를 느끼며 너도 모르게 그 작품에 대해 여태 단 한번도 해보지 않은 말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다. 엄마가 그게 무슨 말이었느냐? 물었다. 너는 다시 쓰면 그렇게 쓰지 않을 것 같다고 했어,라고 대답했다. 그게 그리 중한 얘기냐? 엄마가 다시 물었다. 그건 나 스스로 지금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엄마! 너는 외로워져서 엄마의 손을 찾아 쥐었다. 엄마는 어둠속에서 너를 물끄러미 보더니 그런 말을 왜 숨기고 사느냐? 느끼는 대로 내뱉고 살아라,며 너에게 잡힌 손을 빼내 너의 등짝을 쓸어내렸다.

–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에서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소통'에 대한 관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문제 2] 제시문 [라]의 〈도표 1〉과 〈도표 2〉를 통해, 지리적·경제적·문화적 요소가 경제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분석하시오(〈도표 3〉을 보조 자료로 활용할 것).

[문제 3] 제시문 [가]~[다]를 참고하여 [마]와 [바]에 나타난 소통의 양상을 살피고, 깊은 이해와 공감이 있는 진정한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 논제 분석

• **논제 1 :**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소통'에 대한 관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what	how
'소통'에 대한 관점	비교 분석하시오.

• **요구사항(requirement)**
  – '소통'에 대한 관점은 제시문 [가]와 [나]를 대상으로 할 것
  –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여 비교할 것

• [가]는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원리를, [나]는 소통의 방식을 설명한다. 따라서 두 제시문은 소통이이루어지기 위한 기본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가]의 핵심어는 '공통감'이다. 즉 소통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소통감'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이 공통감은 편협한 사적 이해관계를 떠나 타자의 입앙을 공유함으로써 공감의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본다. 타자의 입장에서 사고할 때는 상상력과 지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 [나]의 핵심어는 '배경 공유의 기대'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화적 가정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같은 문화적 전제들을 수용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이는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두 제시문 간의 차이점은 소통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가]는 소통이 가능하게 된 원리를 '공통감'이라는 개인적 의사 관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면, [나]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주목하고 있다.

• 인간의 존재 자체는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사회에 속해 있고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개인은 주관적 특성과 함께 사회적 특성도 함께 갖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 **논제 2 :** 제시문 [라]의 〈도표 1〉과 〈도표 2〉를 통해, 지리적 · 경제적 · 문화적 요소가 경제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분석하시오(〈도표 3〉을 보조 자료로 활용할 것).

what	how
– 지리적 · 경제적 · 문화적 요소가 경제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	분석하시오.

• **요구사항(requirement)**
  – 지리적 · 경제적 · 문화적 요소가 경제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은 제시문 [라]의 〈도표 1〉과 〈도표 2〉를 대상으로 할 것.
  – 경제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표 3〉을 보조 자료로 활용할 것

• 먼저 도표에 나타난 내용을 파악해 보자. 〈도표 1〉과 〈도표 2〉는 가로축인 GDP 규모는 각 나라의 경제적 규모를 나타내며, 세로축인 미국과의 교육규모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도표 3〉의 유럽각국의 영어소통능력은 문화적 용인이라고 할 수 있다.

• 〈도표 1〉은 지리적 요인을 보여준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인 인접한 국가로서 EU 국가들에 비해 미국과의 교역규모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도표 2〉는 경제적 요인을 보여준다. 즉 GDP 규모가 큰 국가들일수록 미국과의 교류 규모도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영국과 프랑스의 GDP 규모가 비슷한 데 영국이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이유가 무엇이냐는 점이다. 이 때 필요한 자료가 바로 〈도표 3〉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영국이 영어 소통능력이 프랑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경제 교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어 소통 능력은 경제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경제 교류는 각국의 경제 규모 등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만 지리적 위치나 문화적 요인도 부수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논제 3 :** 제시문 [가]~[다]를 참고하여 [마]와 [바]에 나타난 소통의 양상을 살피고, 깊은 이해와 공감이 있는 진정한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what	how
– 진정한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 **요구사항(requirement)**
– [마]와 [바]에 나타난 소통의 양상을 설명하되 [가]~[다]를 참고할 것
– 소통의 양상을 바탕으로한 진정한 소통 방안을 찾을 것

• [마]와 [바]에 나타난 소통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는 '헬메르'와 '노라' 즉 부부 사이의 소통이 단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타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바]는 딸고 엄마 그리고 딸과 장님 사이의 의사소통을 다루고 있다. 진정한 의사소통은 굳이 말이 아니더라도 비언적 요소에 의해 얼마든지 정신적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가]~[다]에 나타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가]는 의사소통은 자신과 타인의 '공통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나]는 '배경공유의 기대'를 통하여 의사소통의 문화적 전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다]는 의사소통에 있어 언어적 요인보다 비언어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 논제에서 제시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있는 진정한 소통'에 대하여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의사소통의 문제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그 문제 상황은 [마]에 나타난 소통 단절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고 그 이유는 타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공동감'의 결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마]에서 찾아야 한다. 즉 진정한 의사소통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감정을 공유하는 데서 출발하고 그 방법은 굳이 말이 아니더라도 비언어적 요소에 의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이다. 진정한 의사소통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의 내면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심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 경기대학교

가. 개 요

■ 분석대상 : 2010학년도 수시 인문계열 문제

■ 시험시간 : 120분

■ 문 항 수 : 2문항

■ 답안 분량 : 문항당 800자 이내

■ 출제 방향 및 지침

- ❍ 교과서에 나온 제시문이나 주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 ❍ 교과서 외의 동서양 고전, 명저, 학술논문 등의 지문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용하지 않는다.
- ❍ 고등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제시문은 배제하며, 제시문이 가급적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 교과서 외의 지문을 제시하는 경우라도, 동 · 서양 고전, 전공 논문,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문 등은 피하도록 한다.
- ❍ 수험생의 학업성취도 즉, 누가 각 교과의 지식을 더 깊고, 더 넓게 배웠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 ❍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막연한 논제나 가벼운 말잔치에 그칠 수 있는 논제는 피하도록 한다.

■ 출제의도

- ❍ **논제 1**
  - 세 개의 제시문은 창작 시기와 사회적 배경이 모두 다르지만 자유로운 인간 의지에

반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 작품에 투영된 현실 인식은 서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 또한 각각의 현실에서 화자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등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 수험생의 인문학적 수학 능력을 평가하려고 출제한 논제이다.

❍ 논제 2

- 공리주의가 한계효용체감의 성향과 결합되는 경우 도달할 수 있는 공리주의적 분배원리를 유추해보고
- 이에 근거해 성장과 분배, 또는 효율과 형평이라는 경제적 선택 문제에 대해 공리주의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을 논증하게 함으로써
- 수험생의 정보 통합능력 및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출제한 논제이다.

■ **주제 :** 두 논제가 별도의 문항으로 주제와 연관이 없음

■ **평가기준 :** 두 논제의 논리적 연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논제별 평가기준을 분석할 예정

나. 문항 1

■ **제시문 분석**

[문항 1]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불화의 대상으로서 현실의 모습과 이에 대한 화자들의 태도를 대비하시오.

[가]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 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 숲을 이륙하는 흰 새 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렬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나] 아버지는 철거 계고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바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그 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 또 – 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나는 공장에서 이상한 매매 문서가 든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짜기 위해 나는 열심히 손을 놀렸다. 〈婢 金伊德의 한 소생 奴 今同 庚寅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金今伊 丁卯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德水 己巳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存世 辛未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永石 癸酉生, 奴 金今伊의 양처 소생 奴 鐵壽 丙戌生, 奴 金今伊의 양처 소생 奴 今山 戊子生〉 나는 그 때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 판을 짜고 다음 판을 짜나가다 겨우 알았다. 노비 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었다.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조판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 천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 왔는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할 날 없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역은 같았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다. 우리의 조상은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두어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었다. 천 년을 두고 우리의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씨종의 자식이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대에 노비제는 사라졌다. 증조부 내외 분은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였다. 할아버지는 달랐다. 할아버지는 유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다. 증조부 대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나 할아버지 대에는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었다.

"할아버지도 난장이였어?"

언젠가 영호가 물었다.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좀 큰 영호는 말했다.

"왜 지난 일처럼 쉬쉬하는 거야? 변한 것이 없는데 우습지도 않아?"

나는 가만 있었다.

–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다] 나는 아침을 먹었다. 할 일이 없다. 그러나 무작정 널따란 백지 같은 '오늘'이라는 것이 내 앞에 펼쳐져 있으면서, 무슨 기사(記事)라도 좋으니 강요한다. 나는 무엇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연구해야 된다. 그럼—나는 최 서방네 집 사랑 툇마루로 장기나 두러 갈까? 그것 좋다.

최 서방은 들에 나갔다. 최 서방네 사랑에는 아무도 없나 보다. 최 서방의 조카가 낮잠을 잔다. 아하 내가 아침을 먹은 것은 열 시 지난 후니까, 최 서방의 조카로서는 낮잠 잘 시간에 틀림없다.

나는 최 서방의 조카를 깨워 가지고 장기를 한 판 벌이기로 한다. 최 서방의 조카로서는, 그러니까 나와 장기 두는 것 그것부터가 권태다. 밤낮 두어야 마찬가질 바에는 안 두는 것이 차라리 낫지—그러나 안 두면 또 무엇을 하나? 둘 밖에 없다. 지는 것도 권태여늘 이기는 것이 어찌 권태 아닐 수 있으랴? 열 번 두어서 열 번 내리 이기는 장난이란 열 번 지는 이상으로 싱거운 장난이다. 나는 참 싱거워서 견딜 수 없다.

한 번쯤 져 주리라. 나는 한참 생각하는 체하다가 슬그머니 위험한 자리에 장기 조각을 갖다 놓는다. 최 서방의 조카는 하품을 쓱 한 번 하더니 이윽고 둔다는 것이 딴전이다. 으레 질 것이니까, 골치 아프게 수를 보고 어쩌고 하기도 싫다는 사상이리라.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장기를 갖다 놓고, 그저 얼른얼른 끝을 내어져 줄 만큼 져 주면 이 상승장군(常勝將軍)은 이 압도적 권태를 이기지 못해 제 출물에 가 버리겠지 하는 사상이리라. 가고 나면 또 낮잠이나 잘 작정이리라.

나는 부득이 또 이긴다. 이제 그만 두잔다. 물론, 그만 두는 수밖에 없다. 일부러 져 준다는 것조차가 어려운 일이다. 나는 왜 저 최 서방의 조카처럼 아주 영영 방심 상태가 되어 버릴 수가 없나? 이 질식할 것 같은 권태 속에서도 사세(些細)한 승부에 구속을 받나? 아주 바보가 되는 수는 없나?

내게 남아 있는 이 치사스러운 인간 이욕(人間利慾)이 다시없이 밉다. 나는 이 마지막 것을 면해야 한다. 권태를 인식하는 신경마저 버리고 완전히 허탈해 버려야 한다.

– 이상, 〈권태〉

▌ 제시문 분석

❍ **제시문 가 :**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삼천리 화려 강산’을 떠나 줄지어 ‘이 세상 어디론가 날아’ 가는 흰 새떼의 영상을 보며 화자는 우리도 대열을 이루어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따라서, 여기서의 ‘삼천리 화려 강산’은 차라리 반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는 애국가 끝 구절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서둘러 각각 자기 자리에 주저앉는다.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다.
- ‘주저앉는다’라는 좌절감의 표현으로 끝맺고 있다.

❍ **제시문 나 :**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발췌

- 노예제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세습 노예라고 자책하는 내용

❍ **제시문 다 :** 이상, 《권태》에서 발췌

- 일상을 권태로워 하면서도 '치사스러운 인간이욕(人間利慾)'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는 내용

논제 분석

• **논제 :**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불화의 대상으로서 현실의 모습과 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대비하시오.

what	how
- 세 제시문에 나타난 불화의 대상으로서의 현실의 모습과 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대비하라.

• **요구사항(requirement)**

-

❍ 수험생의 인문학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서 출제된 논제인데, 상당히 까다로운 논제이다.

❍ 먼저 세 제시문에 나타난 불화의 대상으로서의 현실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 그 다음으로 각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설명해야 한다.
- 여기에서 '대비하라'고 한 것은 각각을 대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각 제시문에 나타난 불화의 대상으로서의 현실의 모습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설명하라는 것이다.
- 제시문 순서대로 '현실의 모습-화자의 태도'를 서술하면 되는 것이다.

❍ 세 제시문에서 현실은 모두 고정성 또는 불변성을 띄고 있다.

- 즉, 세 제시문 모두에서 화자는 현실이 결코 변하지 않거나 변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특성이 화자로 하여금 현실과 불화하게 만드는 것이다.

❍ 그 이유는 현실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화자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다.
- 중요한 것은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이러한 불화가 '사회적 인간'인 자신에게 언제나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 각각의 제시문에는 이러한 잠재적 문제가 현실화되는 여러 양상을 보여준다.

❍ 제시문 [가]에서 불화의 원인은 정치적 강박이다.
- 제시문 [가]에서의 현실은 낄낄댈 수도 떠날 수도 없이 화자를 강박하는 정치적 공간인 것이다.
- 따라서 화자의 처지는 자유롭게 비판하고 떠날 수 있는 새 떼들과 대비된다.
- 제시문에서 화자는 비록 '주저앉는' 체념의 자세를 보이지만,
- 화자 자신을 객관화함으로써 현실을 고발하고, 야유하며, 조롱하고 있다.

❍ 제시문 [나]에서 불화의 원인은 사회적 강박이다.
- 제시문 [나]에서의 현실은 노예제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자와 화자 선조에게 천민의 지위만을 지속하게 하는 사회적 강박의 공간인 것이다.
- 화자는 노비 매매 문서를 인쇄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대한 역사성을 이해한다.
- 그것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이면서 영속적인 것이다.
- 화자는 이런 현실 앞에서 그것을 고칠만한 능력이 없으며, 본인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무기력하다.

❍ 제시문 [다]에서 불화의 원인은 무의미한 일상이다.
- 제시문 [다]에서의 현실은 화자가 아무런 자극도 받을 수 없는 일상적인 정체의 공간이다.
- 화자는 무한히 반복되는 일상에 염증을 느끼고 있지만, 장 서방의 조카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화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다.
-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이 반복과 지속을 통해 개인에게 변화의 주도권이나 필요를 용납하지 않는 폐쇄성을 띤다는 점이며,
- 이것이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당면한 현실의 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 화자는 이러한 정체된 현실과 반복되는 일상의 무료함에 매몰되어 염증으로 느끼고 권태로워 하고 있다.

■ 평가 기준 및 항목

❍ 평가 항목

① 세 제시문에서 화자에게 현실은 불화의 대상으로서, 고정성·불변성 등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이해력)

② 세 제시문에서 불화의 원인이 각각 정치적 강박(제시문 [가])), 사회적 강박(제시문 [나]), 무의미한 일상(제시문 [다])에 있음을 추론했는가?(추리력, 이해력)

③ 세 제시문에서 화자의 대응 태도를 각각 조롱·풍자·야유(제시문 [가]), 체념·자괴·무기력(제시문 [나]), 권태·싫증(제시문 [다]) 등으로 구별했는가?(추리력, 이해력)

④ 세 제시문에 나타난 현실의 유사점과 차이점, 화자의 태도의 차이점 등으로 글 전체를 구성하여 문단을 나누었는가?(구성력, 표현력)

⑤ 어문 규정 및 정해진 원고 분량을 잘 지켰는가?

❍ 평가 기준

등급		요건
A	상	위 항목에서 ①, ②, ③ 모두를 충족하고 있다.
	중	위 항목에서 ①, ②, ③ 중 하나가 미흡하다
	하	위 항목에서 ①, ②, ③ 중 하나가 기술되지 않았다.
B		위 항목에서 ①, ②, ③ 중 둘 이상이 미흡하다.
C		위 항목에서 ①, ②, ③ 중 둘 이상을 기술하지 않았다.
감점 처리		④나 ⑤를 지키지 않으면 한 등급 낮춘다(A상→A중. A하→B)

다. 문항 2

■ 제시문 분석.

[문항 2] 제시문 [가]의 상황에서 [나]의 입장을 가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다]와 [라]를 토대로 논술하시오.

[가] 시민 사회에서 개인은 경제 활동의 주체이자 단위이며 자유 경쟁을 하는 경제인이다. 따라서, 시민 사회가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경제 체제는 경제 활동이 자유로운 시장 경제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소유권의 절대성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소유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장소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유 시장 경제를 통하여 형성된 개인의 이기심은 창의성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으며, 시장은 누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자율 체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은 자본을 소수에게 집중시킴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자본의 집중은 투자 효율성을 높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의 편재를 초래하여 사회 전체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켰다.

– 고등학교 《시민윤리》

[나] 산업혁명과 더불어 자본주의 경제가 점차 발전해 가던 영국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일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공리주의가 등장하였다.
그 대표자라 할 수 있는 벤담(Bentham, J, 1748~1832)은 행복이란 다름 아닌 쾌락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며,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이른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모든 쾌락이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한 벤담은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계산법까지 제시하였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다] 효용이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소비하면서 얻는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다. 〈중략〉 한계효용이란 사람들이 마지막 추가분 재화를 소비할 때 얻는 효용이다. 그리고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란 소비단위가 커지면서 각 단위의 재화로부터 얻는 만족 정도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총효용체감은

의미를 구별해야 한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서 총효용은 계속 증가한다. 다만 한계효용이 체감함에 따라 총효용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 임의로 가정한 특수상황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규칙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주 굶주린 상황에서 먹은 최초의 빵은 말할 수 없이 큰 희열을 안겨줄 것이다. 그 빵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산해진미보다 맛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두 개째 먹을 때, 역시 맛있다는 생각은 들겠지만 첫 번째 빵과 비교하면 만족도가 훨씬 적을 것이다. 세 개째를 먹을 때는 아마도 '빵 맛이 다 그렇지 뭐'라고 생각할 것이다. 세 번째 빵의 효용(만족도)은 두 번째보다 훨씬 못하며, 첫 번째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화폐를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면, 화폐의 한계효용도 분명히 체감한다. 똑같은 100원이라도 거지와 백만장자에게는 그 중요도가 크게 다르다.

부의 재분배를 중요시하는 정부정책은 대부분 부자들에게서 조금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을 나누어 준다. 이 사업의 이론 근거가 바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다.

– 《이코노믹 액션》

[라] 신자유 : 민주주의 사회는 개인의 권리가 보호되는 사회야. 그리고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지. 따라서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해. 부의 분배도 이러한 원리에 따라야 해. 나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그리고 능력에 따라 부가 분배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해.

최복지 :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물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단지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의식주 등 인간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무 비정한 사회가 아닐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능력이 있어도 사회적 여건 때문에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신자유 : 사회적 여건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은 보장되어야 해. 하지만 만일 능력과 업적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니?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의 부 자체가 작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어.

– 고등학교 《정치》

■ 제시문 분석

❍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시민윤리》에서 발췌

- 시민 사회에서 개인은 경제 활동의 주체이자 단위이며 자유 경쟁을 하는 경제인이다.
- 시민 사회가 취하고 있는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이다.
- 자본주의는 소유권의 절대성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소유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장소를 제공한다.
-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은 자본을 소수에게 집중시킴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했다.
- 자본의 집중은 투자의 효율성을 높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의 편재를 초래하여 사회 전체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켰다.
- 즉, 제시문 [가]는 자율적 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 즉,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 **제시문 나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서 발췌

- 벤담의 공리주의에 관한 내용
- 행복이란 다름 아닌 쾌락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된다.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
- 즉, 이는 행복의 양이 계산 가능하며, 사회 전체의 행복의 총량이 도덕과 입법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제시문 다 :** 크리스토퍼 시, 《이코노믹 액션》에서 발췌

- 효용 :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소비하면서 얻는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 한계효용 : 사람들이 마지막 추가분 재화를 소비할 때 얻는 효용
-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 소비단위가 커지면서 각 단위의 재화로부터 얻는 만족 정도가 점점 감소하는 것
-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서 총 효용은 계속 증가한다.
- 단, 한계효용이 체감함에 따라 총효용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는데, 이는 절대 임의로 가정한 특수 상황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규칙을 반영한 것이다.
- 부의 재분배를 중요시하는 정부 정책은 대부분 부자들에게서 조금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을 나누어주는데, 이의

이론적 근거가 바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다.

- 즉, 화폐에 대한 한계효용은 체감하는 경향이 있어 동일한 화폐액의 증감에 따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느끼는 한계효용의 크기는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제시문 라 :** 고등학교 《정치》에서 발췌

- 부의 분배와 관련된 논쟁
- 신자유 : 시장주의적 입장. 능력에 따라 부가 분배되는 것이 옳다. 부를 인위적으로 재분배를 하려 한다면 오히려 사회 전체의 부 자체가 작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 최복지 : 분배주의적 입장. 경제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경우에도 능력은 있지만 사회적 여건 때문에 발휘할 수 없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 논제 분석

• **논제 :** 제시문 [가]의 상황에서 [나]의 입장을 가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다]와 [라]를 토대로 논술하시오.

what	how
- 제시문 [가]의 상황에서 [나]의 입장을 가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논술하라.

• **요구사항(requirement)**

- 제시문 [다]와 [라]를 토대로 논술하라.

❍ 수험생의 경제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논제인데, 이 논제 역시 상당히 까다로운 논제이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각 제시문의 정확한 논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제시문 [가]의 상황은 자본주의의 효율성이 경제적 불평등과 상충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 제시문 [나]에서는 공리주의의 도덕 및 입법원리인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의

의미가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 극대화'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시문 [다]는 동일한 화폐액의 증감에 대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느끼는 한계효용의 크기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부의 재분배와 관련하여 제시문 [라]에서는 사회정의의 견지에서 분의 재분배가 바람직하다는 분배주의의 입장과 인위적 재분배는 오히려 사회 전체의 부를 감소시켜 구성원 전체에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재분배를 반대하는 시장자유주의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이를 통해서 제시문 [나]의 입장을 가진 정부는 소득 재분배를 통해 제시문 [가]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 상황을 해소함으로써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즉, 동일한 부의 증감에 대해 부자의 한계효용이 가난한 사람의 한계효용보다 작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소수의 부자들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재분배함으로써 사회 젖체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라 이러한 재분배에 찬성할 것이다.
- 그러나, 이는 재분배가 사회 전체의 부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제시문 [라]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위적 부의 재분배가 근로의욕의 저하를 가져와 사회 전체의 부의 크기를 감소시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부의 재분배를 반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즉, 공리주의의 입장을 가진 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 전체의 행복(효용)의 총량'이 증대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공리주의의 입장을 가진 정부의 적절한 대응은 '부의 재분배'가 '사회 전체의 행복의 총량'을 얼마나 증대시키고 감소시키는지를 엄밀하게 계산하여 재분배 실행 여부와 정도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 평가 기준 및 항목

❍ 평가 항목

① 제시문 [가]의 상황이 자본주의의 효율성이 경제적 불평등과 상충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이해력)

② 제시문 [나]에서 공리주의의 도덕 및 입법 원리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의미를 정확히 유추하였다. 즉, '사회 전체의 행복의 총량 극대화'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유추하였다.(유추력)

③ 제시문 [나]의 공리주의가 [다]의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결합되는 경우 부의 분배에 관련해 어떠한 입장을 가질 것인지를 논리적 전개과정을 통해 제시하였다.(창의력, 논리력)

④ 제시문 [라]에서 제기된 재분배의 문제점이 존재할 때 공리주의는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였다.(논리력)

⑤ ③과 ④의 논의를 종합하여 효율성과 경제적 불평등이 상충하는 상황에 대해 공리주의는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적절한 논리 전개 과정을 통해 제시하였다.(창의력, 논리력)

⑥ 어문규정, 원고 분량, 문단 나누기 등을 잘 지키고 있다.(구성력, 표현력)

❍ **평가 기준**

등급		요건
A	상	위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중	위 항목 중 ⑥이 미흡하다.
	하	위 항목 중 ②가 미흡하다.
B		위 항목 중 ③ 또는 ⑤가 미흡하다.
C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3 경희대학교

가. 개 요

■ **분석대상 : 2010학년도 수시 1차 인문·예체능계열 문제**

■ **출제유형 : 통합교과형중 자료제시논술형**

■ **시험시간 : 150분**

■ **문 항 수 : 4문항**

■ **답안지 양식, 작성 분량 : 원고지 양식 2000자 내외**

■ **출제 방향 및 지침**

2010년도 경희대 인문/예체능계 수시 논술 문제는 〈논제 Ⅰ〉과 〈논제 II〉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각 2문제씩 총 4문제가 출제되었다. 모두 고등학교 학력수준에 맞추어 논리적·분석적 추론 및 수리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논제 Ⅰ〉의 경우 지문에 대한 이해력 및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치중하였으며, 〈논제 II〉는 고등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마친 학생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분석력과 수리력을 평가하는 데 주력하였다.

■ **평가 기준**

1) 논술Ⅱ

❍ 논제 I-1

① 제시문 [가] 1, 2 두 작가의 논지를 각각 제대로 제시하면 가점

② 제시문 [가] 1, 2 두 작가의 논지가 결국 자신을 중심으로 타자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점을 제대로 제시하면 가점

③ 유사한 문장을 단순 반복하지 않고 문장 간의 구성이 긴밀하고 논리적으로 연결되면 가점

❍ 논제 I-2

① 제시문 [나], [다], [라]의 공통점을 제대로 정리하면 가점

② 제시문 [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지적하면 가점

③ 제시문 [가]의 문제점을 극복 방안을 제대로 지적하면 가점

④ 유사한 문장을 단순 반복하지 않고 문장 간의 구성이 긴밀하고 논리적으로 연결되면 가점

2) 논술Ⅱ

❍ 논제 Ⅱ-1

① 정확한 두 지표를 찾아서 산포도를 올바로(X축의 지표를 포함) 그렸을 경우 기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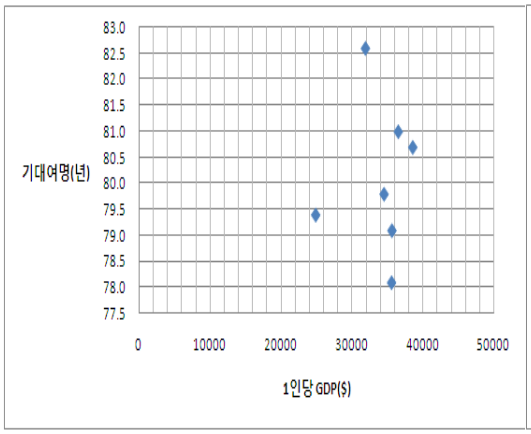
(X축 각각의 지표명 : 성인 흡연율, 성인 비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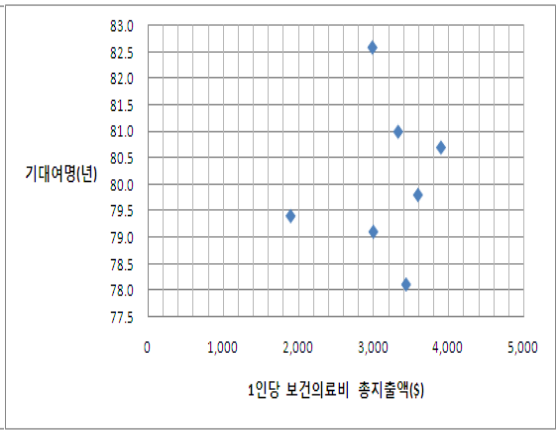
② 제시문[가]의 밑줄 친 부분의 핵심인 의료공급의 확충이나 의료의 소비량을 늘리는 것은 기대여명 증가에는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국민 개개인의 건강 증진 행동이 중요하는 것을 부각하고 정부의 정책도 여기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논리에 맞게 제시하면 기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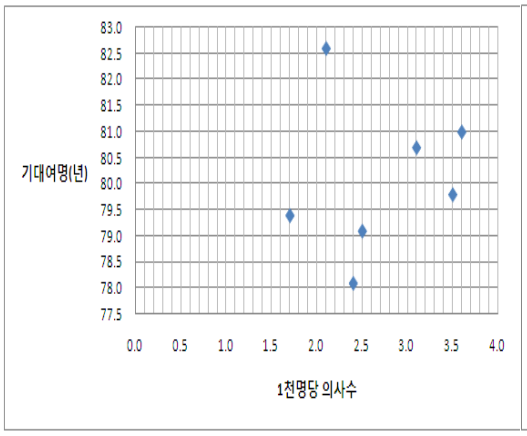
⇒ 핵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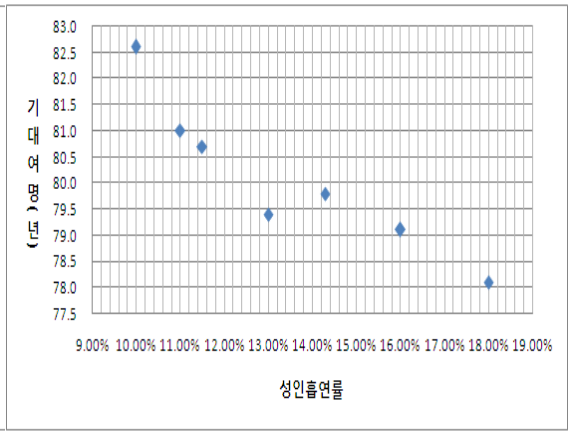
- 의료공급 확대(예, 의사수 및 병상수 확충 등)와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는 기대여명을 증가시키는 데 별 영향이 없음(부적절함): 가점
- 국민 개개인의 건강한 행동 인식 및 태도변화(성인 흡연율 및 비만율 감소)의 중요성 (가점)
- 건강한 행동 유도를 위한 정부 정책의 전환: 가점
- 논리에 맞게 서술하면: 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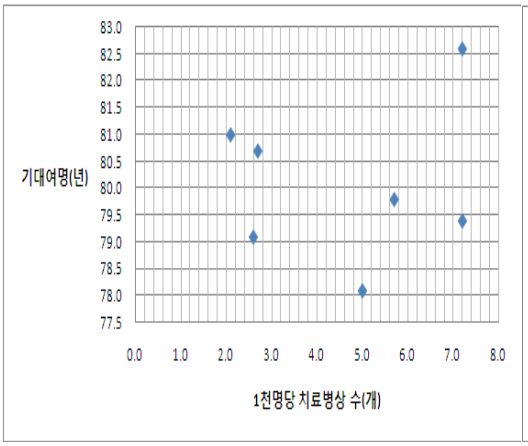
채점교수의 편의를 위해 참고로 6개 각각의 산포도는 다음과 같다. 이중 성인 흡연율과 성인비만율이 기대여명과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산포도에서는 확연한 추세를 확인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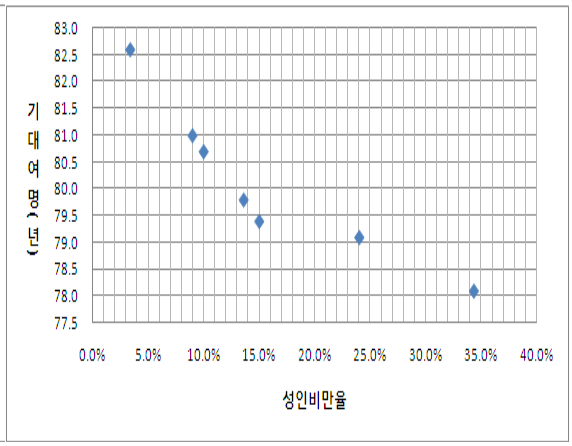












❍ 논제Ⅱ-2

① 프로젝트 참여 최대 흡연자수의 풀이과정이 올바르고, 해답(500만 명)이 정확한 경우 기준점수

② 2009년 성인 흡연율 목표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풀이과정과 흡연율의 추세를 고려한 목표달성 여부(⇒ 실패/불가능)를 제시한 경우 기준점수

나. 제시문 및 논제 분석

■ 문항 1

[가]

두 명의 이탈리아 작가들이 함께 인도로 휴가를 다녀와서 각자 자신의 여행에 대한 책을 쓴다.

1 한 작가는 『내가 보는 인도』라는 책에서 인도가 얼마나 자신들과 다른지를 설명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는 가장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서만 그리고 일련의 동어반복을 통해서만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실망한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유럽인들이 왜 유럽인이며, 인도인들이 왜 인도인인지를 가르쳐 준다. 그러나 그것은 말로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는 종교의 차이가 그것을 다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인도는 빼어난 종교의 땅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인도의 종교들은 우리 종교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도에서는 종교가 삶의 전부를 감싼다. 종교적 이념은 체험을 완전히 파고든다. 인도인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낯설고 이해 불가능한 의식(儀式)들 속에서 자신들의 종교를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는 이 살아 있는 종교적 이념이라는 관념 역시 차이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인도의 차이는 그와 같은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 사실상, 표현하기가 이렇게 극히 어렵다는 점을 통해 그는 인도의 차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된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나의 이탈리아인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인도를 묘사해 줄 수 없다. 여러분은 그곳에 가서 여러분 스스로 인도의 수수께끼를 겪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인도는 인도라는 것이다.

2 또 다른 작가는 자신의 책 『인도의 향기』에서 인도가 얼마나 자신들과 유사한지를 설명하려고 애쓴다. 그는 밤에 봄베이의 붐비는 거리들을 걷는다. 대기는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냄새들로 가득하다. 일일시장에서 팔다 남은 썩은 채소들, 보도 위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노점상의 뜨거운 기름 그리고 숨이 막힐 듯한 하수 냄새. 작가는 강기슭에서 과일, 쌀, 꽃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공들여 의식을 수행하는 한 가족에게 다가간다. 이것 역시 그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고국 이탈리아의 프리울리의 농민들도 이와 유사한 풍습들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물론, 소년들이 있다. 작가는 거리 구석에 모여 있는 소년들의 무리와 서툰 영어로 쾌활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마침내

그는 코친(Cochin)에서, 더 나이든 소년들에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돈을 빼앗기는, 가난하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 고아 레비와 친구가 된다. 마을을 떠나기 전에 작가는, 가톨릭 사제에게 그 소년을 받아들이고 보호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돈을 꼭 보내겠다고 약속한다. 마치 고국에서 꼭 그렇게 했을 것처럼 말이다. 이 소년들 모두가 로마나 나폴리의 모든 가난한 이웃의 소년들과 다를 게 하나 없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나의 이탈리아인들이여, 인도인들은 우리와 똑같다. 사실상, 그의 눈에는 인도의 모든 차이들이 녹아 사라지며, 남아 있는 것이라곤 또 다른 이탈리아뿐이다.

[나]

아시아는 다양성의 바다이다. 그 드넓은 해원(海原)은 형형색색으로 시시각각 변하면서 천변만화(千變萬化)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 격랑의 너울 밑에는 수천 년간 변함없이 존재해 온 문화라는 심해수가 가없이 흐르고 있지 않은가. 바로 이것이 극히 제한된 체험밖에 없는 내가 갖고 있는 아시아의 이미지이다.

아마 아시아가 하나의 지역으로서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양성이라는 것 그 하나에 불과하리라. 이는 물론 아시아를 일체로 파악할 수 없음을 뜻한다. 아니 아시아의 일체성은 고사하고 '12마일마다 언어가 다르다'는 인도처럼 대부분의 나라들이 복합 다민족국가로 존립하고 있다. 하나의 정치사회가 다양한 민족 · 언어 · 종교 · 문화로 구성된 것이 아시아의 일반적인 모습이며, 한반도나 일본 열도의 국가가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런 다양성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반드시 아시아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본 같은 나라들까지 포함한다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도 아시아는 다양하고 다원적인 존재인 것이다.

이처럼 아시아를 다문화적이고 다중심적인 콜라주(collage)로 파악하더라도, 그 지리적 경계 영역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귀속 의식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아시아 사람들은 좋든 싫든 그 지리적 구분의 틀 안에서 아시아에 대해 발상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에 의해 지구 규모로 세계의 구역 분할이 이루어질 때, 아시아가 현재 모습대로의 아시아일 수 있다고는 잘라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예컨대 '동남아시아'라는 지역 개념이 그랬듯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미국이 군사적 관점에서 설정한 지역 구분이 정치적 · 경제적인 필요성도 있어서 하나의 통일성과 실체성을 지닌 지역 단위로 바뀌어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

들에 꽃이 / 산에 나무가
가르쳐 줬어요

그 흔한 꽃이 / 산에 나무가
가르쳐 줬어요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다고
강아지풀도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에

저 긴 강이 / 넓은 바다가
가르쳐 줬어요

세월의 강이 / 침묵의 바다가
가르쳐 줬어요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다고
강아지풀도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에

[라]

오래 전 내가 어떤 공적 목표가 강한 집단에 '헌신'하고 있었을 때 나는 내 일에 대해 '황홀한' 보람을 느꼈다. 나의 헌신을 멋있는 명분에 기대서 해석하고 자족했다. 그리고 그러한 헌신이 떨어지는 사람, 그 목표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규정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그 일에 열중했던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명분은 정말 명분일 뿐이고 사실은, 당시에 역사에 대한 부채를 갚으려는 도덕적 의무감도 작용했겠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내 삶이 공허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나에 내 모든 것을 거는 '헌신'을 떠나서는 삶이 지탱되기 어려웠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비판은 상당 부분 내 다혈질적인 성격, 강한 질투심과 경쟁심, 관념적 과시욕, 지적 오만함, 무의식적인 권력 의지에서 나온 것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대체로 모든 논쟁과 비판에서 내 개인사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오고 간 것은 오로지 유려하고 날카로운 개념적 언어들

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나를 공격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다. 그들은 '부르주아', '자유주의', '이념적 철저함의 부족' 등의 딱지를 내게 내밀었지만 사실은 그런 식의 비판 뒤에는 그들의 개인사, 즉 여러 연유로 생긴 공격적인 성향, 반서구적인 문화, 권력 주도권에 대한 경쟁심, 소외감 등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었을 수 있다. 그 이면을 더 파고 들어가면 정신분석학적인 해부가 필요할지도 모를 일이다.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 동원한 정연한 논리 밑에는 아마도 억압적인 어머니 혹은 아버지, 고등어 한 마리조차 못 먹었던 어린 시절의 고통,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을 때 생겨난 콤플렉스, 언니 혹은 형에 대한 경쟁의식, 게으른 혹은 일벌레 천성 등이 잠복해 있을 수 있다.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정말 정리하기 어렵고 분류하기 복잡한 차이인 것이다.

〈논제 Ⅰ-1〉

제시문 [가] 1, 2의 작가들이 대상을 바라보는 입장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201자 이상 300자 이하: 20점)

〈논제 Ⅰ-2〉

제시문 [나], [다], [라]의 공통점을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제시문 [가]의 문제점에 대한 극복 방안을 논술하시오.(601자 이상 700자 이하: 30점)

■ 분석

❍ 출제 방향

〈논제Ⅰ〉의 주제는 '소통'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나와 다른 타인 나아가 다른 대상과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이 주제는 개인 또는 사회 나아가 국가가 자신과 다른 타자를 이해하고 소통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논제Ⅰ〉의 제시문은 총 4개이다. 제시문 [가]는 두 명의 이탈리아 작가가 함께 인도로 여행을 다녀온 후 각자 자신의 여행에 대한 경험을 쓴 것으로 이탈리아의 저명한 학자 안토니오 네그리의 저서 『다중』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글에서 두 명의 이탈리아 작가는 인도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인도는 이탈리아와 다르다라는 입장과 인도는 이탈리아와 동일하다는 상반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제시문 [나]는 도서출판 창비의 '비판적 지성이 만드는 동아시아' 시리즈의 하나인 야마무로 신이치의 저서 『여럿이며 하나인 아시아』에서 발췌한 것이다. 여기에서 저자는 우리가 막연히 하나의 통일체로 부르는 아시아는 매우 다양하고 다원적인 세계이며, 그 범주 내의 존재(개인, 민족, 국가 등등)는 각각 개별적인 고유성을 띄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홍성관의 〈나처럼 사는 건〉이라는 시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시는 '나'라고 하는 화자를 통해 모든 존재는 각각 자신만의 개별성과 고유성이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권혁범의 『국민으로부터의 탈피』에서 발췌한 것이다. 우리는 타인을 평가할 때 외부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행위나 말 등을 가지고 파악한다. 그렇지만 사람의 내면에는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역사와 경험을 쌓아 온 것이므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매우 복잡하고 개별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표면적이고 추상적인 몇몇 기준으로 쉽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 제시문 출처

· 제시문 [가] : 안토니오 네그리 지음, 조정환 · 정남현 · 서창현 옮김(2008), 『다중』
· 제시문 [나] : 야마무로 신이치 지음, 임성모 옮김(2003), 『여럿이며 하나인 아시아』
· 제시문 [다] : 홍순관 시, '나처럼 사는 건'
· 제시문 [라] : 권혁범(2004), 『국민으로부터의 탈피』

❍ 논제 Ⅰ-1

• **발문 :** 제시문 [가] 1, 2의 작가들이 대상을 바라보는 입장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201자 이상 300자 이하: 20점)

논제 분석	
what	how
제시문 [가] 1, 2의 작가들이 대상을 바라보는 입장	공통점을 서술하시오

• **요구사항(requirement)**
  – 제시문 [가] 1, 2에 나타난 작가들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할 것
  – 여러 가지 입장 가운데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과 분석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특히 표면적으로는 두 작가가 상이한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동일한 전제를 바탕으로 대상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제시문 [가] 1,2에 나온 두 이탈리아 작가의 여행기는 인도라는 대상에 대해 표면적으로 정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자기중심(여기에서는 유럽중심주의)의 시각에서 타자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논제 Ⅰ-2

• **발문 :** 제시문 [나], [다], [라]의 공통점을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제시문 [가]의 문제점에 대한 극복 방안을 논술하시오.(601자 이상 700자 이하: 30점)

논제 분석	
what	how
제시문 [나], [다], [라]의 공통점 정리	이를 근거로 제시문 [가]의 문제점에 따른 대안 제시

• **요구사항(requirement)**
  – 제시문 [나], [다], [라]에 나타는 주제를 파악할 것.
  – 제시문 [가]의 논지를 문제점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것.

☞ 이해력과 더불어 텍스트 간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 대상에 대한 비판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우선 제시문 [나], [다], [라]에서 내포하는 바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제시문이 담고 있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세 제시문은 언급하고 있는 주요 대상은 다르지만(아시아, 나, 차이(관계)), 모든 개체가 자신만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통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한 공통점을 근거로 해서 제시문 [가]의 이탈리아 작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문 [가]는 자신을 중심으로 타자를 이해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주의(유럽중심주의)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서로 연결될 때 진정한 의미의 소통과 공존의 길이 열릴 것임을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항 2

[가]

일반적으로 집단 또는 국가의 건강수준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는 보통사망률, 연령보정 사망률, 영아사망률, 기대여명 등이다. 비록 사망률이 최근 만성질환 등의 증가로 점점 그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가간 비교연구에서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출생시 기대여명은 사망의 분포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노년까지 생존함에 따라 기대여명은 증가할 수 있다. 국민 건강수준의 결정인자는 '의료체계의 선진화'라는 믿음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국민 건강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목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자원의 확대공급에 투자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이러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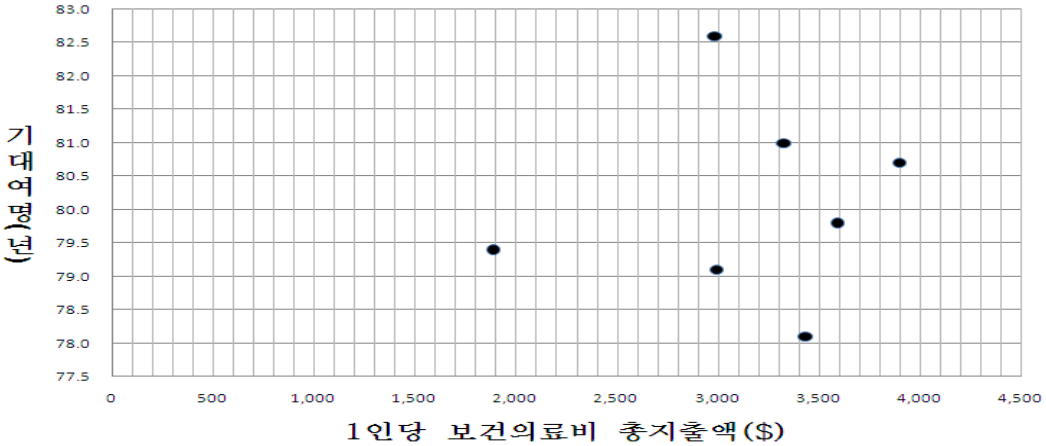
〈표 1〉 각국별 1인당 국내총생산 및 건강 관련 지표

	A국	B국	C국	D국	E국	F국	G국
1인당 국내총생산[1]	$35,562	$34,500	$38,564	$36,516	$35,619	$31,864	$24,823
1인당 보건의료비 총지출액[2]	$3,430	$3,588	$3,895	$3,323	$2,992	$2,980	$1,888
1천명당 의사 수	2.4명	3.5명	3.1명	3.6명	2.5명	2.1명	1.7명
성인 흡연율[3]	18.0%	14.3%	11.5%	11.0%	16.0%	10.0%	13.0%
1천명당 치료병상 수[4]	5.0개	5.7개	2.7개	2.1개	2.6개	7.2개	7.2개
기대여명[5]	78.1년	79.8년	80.7년	81.0년	79.1년	82.6년	79.4년
성인 비만율[6]	34.3%	13.6%	10.0%	9.0%	24.0%	3.4%	15.0%

1)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미국달러로 환산한 값
2) 민간과 정부 보건의료비 지출의 총합을 구매력평가를 이용하여 미국달러로 환산한 값
3) 성인 전체 인구에서 매일 흡연하는 인구의 비율
4) 의료기관에 있는 환자치료용 침대 수
5) 출생자 기준으로 향후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
6) 성인 전체 인구에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30 이상인 인구의 비율

[다]

〈그림 1〉 기대여명과 1인당 보건의료비 총지출액과의 관계에 대한 산포도의 예



[라]

〈표 2〉 H국의 성인 흡연율1)

(단위: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성 인 흡 연 율	28	27	26	25	23

1) 성인 전체 인구에서 매일 흡연하는 인구의 비율

〈논제 II-1〉

제시문 [다] 〈그림 1〉은 제시문 [나] 〈표 1〉의 기대여명과 1인당 보건의료비 총지출액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산포도의 예이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표 1〉에서 기대여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표 두 가지를 찾아 산포도를 각각 그리시오. 또한 이 두 지표와 기대여명 간의 영향관계가 의미하는 바를 근거로 제시문 [가]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논술하시오.(501자 이상 600자 이하: 30점)

※ 유의사항

1. Y축은 기대여명이며, X축의 지표 이름을 명시할 것.
2. 두 개의 산포도 그림은 모두 답안지 200자 분량 이내로 작성할 것.

〈논제 II-2〉

2008년 현재 성인 인구가 4,000만 명인 H국가의 보건담당 부서는 성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금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 부서는 본 프로젝트에 필요한 비용(예, 금연 패치 보조금 지급, 홍보비 등)을 추정하기 위해 특정 연구소에 용역을 위탁한 결과, 필요한 비용이 $0.002 \times Q^2$(원)으로 보고되었다(Q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흡연자 수). 단, H국가의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본 프로젝트의 소요 예산을 참여 흡연자 1인당 10,000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비용은 예산을 초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금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흡연자 수는 최대 몇 명인지 풀이 과정을 포함하여 논술하시오. 또한 H국의 2009년 성인 흡연율 목표를 20%로 하였을 경우, 제시문 [라] 〈표 2〉의 성인 흡연율 변동 추이를 감안해서 이 프로젝트의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하여 논술하시오.(301자 이상 400자 이하: 20점)

※ 유의사항

1. 일반적으로 금연 프로젝트 참여시 금연 성공률은 5%라고 가정함.
2. 2009년도 성인 인구는 2008년도와 동일하다고 가정함.
3. 백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사용할 것.

분석

❍ 출제 방향

〈논제 Ⅱ〉의 주제는 '건강과 관련된 국가 정책의 효율성'이다. 〈논제 II-1〉에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이슈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슈로는 도농(都農) 간의 의료공급 불균형, 소득에 따른 의료소비의 불균형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제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의료체계 또는 질병의 치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일부분이며, 도리어 일반적인 믿음(의료공급 및 의료소비량의 증대)과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후진국의 경우 기본적인 의료체계 및 질병 치료체계의 확립이 중요하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한 행동 관리가 건강상태의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산포도로 전환하고 이를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또한 〈논제 II-2〉는 건강한 행동 유도를 위한 금연 프로젝트에 대해 예산과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가능한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숫자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목표한 흡연율 감소치를 달성할 수 있는 지를 자연 감소분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하였다. 본 문제는 학생들의 수리적 이해력과 도표분석 능력을 동시에 파악하는 문제이다.

〈논제Ⅱ〉의 제시문은 총 3개이다. 제시문 [가]는 집단 또는 국가의 건강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 설명과 함께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의료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문 [나]는 2009년 OECD Health Data의 자료를 일부 변형한 표로, 여기에는 1인당 GDP, 1인당 보건의료비 총지출액, 1천 명당 의사 수 및 1천 명당 치료 병상 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건강과 관련된 지표로는 기대여명, 흡연율, 비만율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기대여명과 1인당 보건의료비 총지출액과의 관계에 대한 산포도를 예시한 것이다.

제시문 [라]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성인흡연율을 약간 변형하여 제시한 것이다.

❍ 제시문 출처

· 제시문 [가]: 김영치. 남북한 주민의 건강수준 비교 연구. 보건행정학회지 1997;7(1)

· 제시문 [나]: OECD. OECD Health Data 2009, 2009년 8월을 다소 변형하였음.

· 제시문 [라]: 통계청. 성인흡연율

○ 참고문헌 : 노형봉, 김형욱.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한 새 경영과 수학. 시스마 프레스. 2008

❍ 논제 Ⅱ-1

• **발문 :** 제시문 [다] 〈그림 1〉은 제시문 [나] 〈표 1〉의 기대여명과 1인당 보건의료비 총지출액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산포도의 예이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표 1〉에서 기대여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표 두 가지를 찾아 산포도를 각각 그리시오. 또한 이 두 지표와 기대여명 간의 영향관계가 의미하는 바를 근거로 제시문 [가]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논술하시오.(501자 이상 600자 이하: 30점)

※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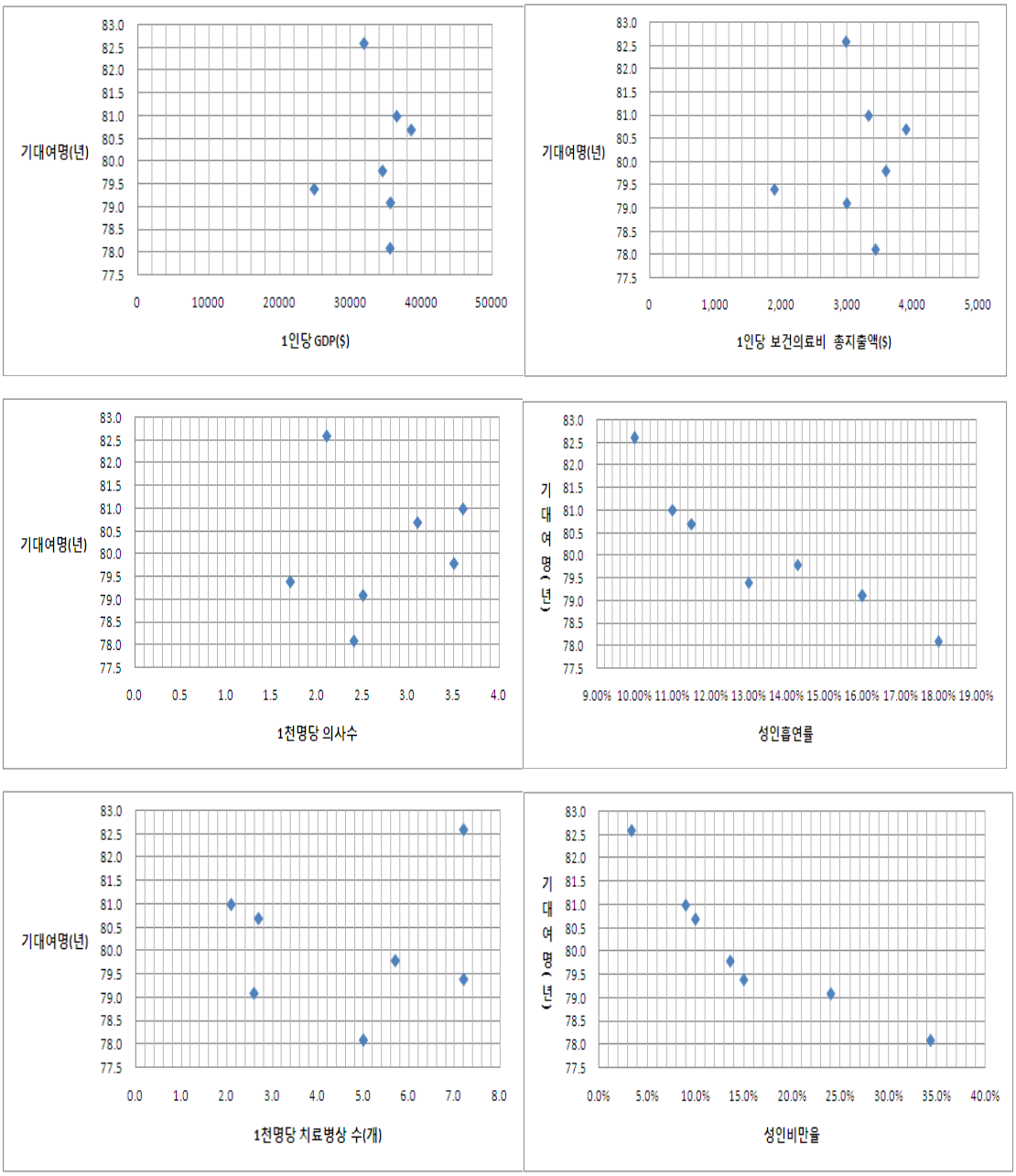
1. Y축은 기대여명이며, X축의 지표 이름을 명시할 것.
2. 두 개의 산포도 그림은 모두 답안지 200자 분량 이내로 작성할 것.

논제 분석	
what	how
1.제시문 [다] 〈그림 1〉은 제시문 [나] 〈표 1〉의 기대여명과 1인당 보건의료비 총지출액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산포도의 예로	2. 〈표 1〉에서 기대여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표 두 가지를 찾아 산포도를 각각 그릴 것
3. 이 두 지표와 기대여명 간의 영향관계가 의미하는 바를 근거로	4. 제시문 [가]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타당성 논술

- **요구사항(requirement)**
  - 제시문 [다] 〈그림 1〉과 제시문 [나] 〈표 1〉의 관계를 산포도의 개념으로 이해할 것
  - 제시문 [가]의 밑줄 친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것

☞ 도표에 대한 분석력 및 이를 근거로 한 이해력·판단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대여명과 각 지표 수치를 산포도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중에서 정(正; +) 또는 부(否; −)의 추세를 보이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산포도를 보면, 다른 지수들은 전체적으로 퍼져 있거나 한곳에 뭉쳐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기대여명과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없다. 그러나 성인흡연율과 성인비만율이 기대여명과 부(−)의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부(否)의 추세를 보이는 산포도는 X축의 지표가 '성인흡연율'과 '성인비만율'인데, 다른 지표가 아닌 이 두 지표가 기대여명과 맺는 관계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부(否)의 추세를 보이지 않는 보건의료비 총지출액, 의사수, 치료병상 수 등은 제시문 [가]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의료체계 선진화 및 의료자원 공급 확대와 관련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성인흡연율, 성인비만율은 개인적 차원의 건강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가 개입하는 의료체계 선진화나 의료자원 공급 확대가 기대여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로 개인의 건강한 행동이 기대여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참고]각 지표에 따른 산포도



❍ 논제 Ⅱ-2

• **발문 :** 2008년 현재 성인 인구가 4,000만 명인 H국가의 보건담당 부서는 성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금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 부서는 본 프로젝트에 필요한 비용(예, 금연 패치 보조금 지급, 홍보비 등)을 추정하기 위해 특정 연구소에 용역을

위탁한 결과, 필요한 비용이 $0.002 \times Q^2$(원)으로 보고되었다(Q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흡연자 수). 단, H국가의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본 프로젝트의 소요 예산을 참여 흡연자 1인당 10,000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비용은 예산을 초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금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흡연자 수는 최대 몇 명인지 풀이 과정을 포함하여 논술하시오. 또한 H국의 2009년 성인 흡연율 목표를 20%로 하였을 경우, 제시문 [라] 〈표 2〉의 성인 흡연율 변동 추이를 감안해서 이 프로젝트의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하여 논술하시오.(301자 이상 400자 이하: 20점)

※ 유의사항

1. 일반적으로 금연 프로젝트 참여시 금연 성공률은 5%라고 가정함.
2. 2009년도 성인 인구는 2008년도와 동일하다고 가정함.
3. 백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사용할 것.

논제 분석	
what	how
1. H국가의 예산담당 부서에서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3. H국의 2009년 성인 흡연율 목표를 20%로 하였을 경우, 제시문 [라] 〈표 2〉의 성인 흡연율 변동 추이를 감안해서	2. 금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흡연자 수는 최대 몇 명인지 풀이 과정을 포함하여 논술 4. 이 프로젝트의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하여 논술

• **요구사항(requirement)**

– H국가의 대규모 금연프로젝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것

–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제시문 [라] 〈표 2〉의 성인 흡연율 변동 추이를 정확히 파악할 것

☞ 논리적 계산 능력 및 이를 근거로 한 정책에 대한 판단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금연 프로젝트의 최대 참여자수는 비용함수인 $0.002 \times Q^2$과 예산함수인 $10,000 \times Q$가 교차하는 지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0.002 \times Q^2 = 10,000 \times Q$를 이용하면 2차방정식 형태인 $0.002 \times Q^2 - 10,000 \times Q = 0$로 표현할 수 있다.

$0.002 \cdot Q \cdot (Q - 5,000,000) = 0$이 되며, 그러므로 최대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500만 명이 된다.

2008년도 성인 흡연자 수는 4,000만 명의 23%인 920만 명이다. 금연 성공률 5% 고려할 때, 500만 명의 5%인 25만명이 본 프로젝트를 통해 금연하게 된다. 2009년도 예상 성인 흡연자수는 920만에서 25만 명을 차감한 895만 명이 된다. 2009년도 인구수가 4,000만명이므로, 성인 흡연율은 895만/4,000만인 22.375%가 된다. 또한 〈표 2〉를 보면, 성인 흡연율은 4년간 5% 감소하여 연간 1.25% 자연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2009년도 성인 흡연율 예측치는 22.375%-1.25%=21.125%가 된다. 이 수치는 목표 흡연율인 20%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 답안 예시

▌ 논제 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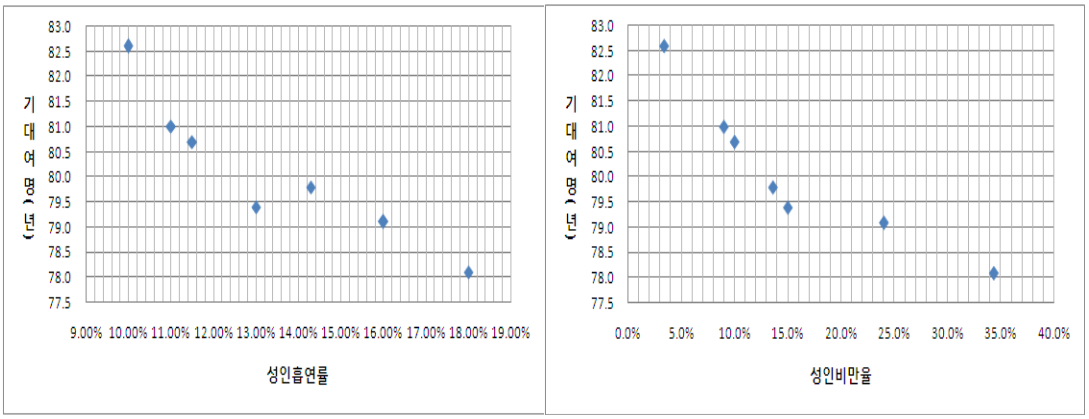
제시문 ①, ②의 두 작가는 같은 대상을 경험하면서도, 한 사람은 대상과 자신과의 차이만을 찾으려 하고, 다른 사람은 동일성만을 찾으려고 한다. 차이를 찾으려는 사람은 그 차이를 다 표현하지 못하고, 동일성을 찾으려는 사람은 단지 대상과 자신이 동일하다고 선언한다. 표면적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두 입장이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바탕에는 자신들의 세계를 중심으로 타자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두 작가 모두 자신들의 정체성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대상을 평가할 뿐이다.(288자)

▌ 논제 I-2

제시문 [나]는 아시아가 하나의 균질적이고 통일된 지역으로 인식될 수 없는 다양하고 다원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고유한 특이성과 개별성을 갖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제시문 [라]도 사람의 태도나 성격의 바탕에는 각기 다른 개인사가 복합적으로 깔려 있어서 사람 간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거나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세 제시문은 모든 개체가 자신만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쉽게 대상들 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아 이들을 분류하거나 배제하지만, 이 분류나 배제의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다. 각 개체는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동일성이나 차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성을 갖고 다른 존재와 교류한다. 이렇게

고유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다른 존재와의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도리어 각각의 개별성을 인정할 때 서로 다른 존재와의 진정한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제시문 [가]와 같이 자신을 중심으로 타자를 이해한다면, 다른 쪽은 무엇인가 결여되었거나 과잉된 것일 수밖에 없다. 다른 존재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는 소통은 일방적인 억압으로 작용하게 된다. 서로 다른 존재들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인정할 때 진정한 소통과 공존이 가능할 것이다.(668자)

논제 II-1



본 산포도 분석의 결과, 기대여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성인 흡연율 및 비만율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국가의 경제력 규모를 반영하는 1인당 국민총생산량은 기대여명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의료소비와 관련된 보건의료비 지출액과 의료공급을 의미하는 병상수 및 의료제공인력의 증가 등과 같은 요소 역시 기대여명의 증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 비만율과 흡연율의 감소를 통한 기대여명 증가는 국민 각자가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 각자의 건강 증진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200자 포함하여 562자)

논제 II-2

최대 참여자수는 비용 $0.002\times Q^2$과 예산 $10,000\times Q$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찾는다. 이는 2차방정식 $0.002\times Q^2-10,000\times Q=0$로 구하며 $0.002\cdot Q\cdot(Q-5,000,000)=0$이 되어, 최대 참여자수는 500만 명이다.

성인 흡연자 수는 4,000만 명의 23%인 920만 명이다. 금연 성공률 5% 고려시, 500만 명의 5%인 25만 명이 금연하여 2009년도 예상 흡연자수는 920만에서 895만 명이다. 2009년도 인구수가 4,000만 명이므로, 흡연율은 895만/4,000만인 22.375%가 된다. 흡연율은 4년간 5% 감소하여 연간 1.25%씩 감소한다. 따라서 2009년도 흡연율 예측치는 22.375-1.25=21.125(%)가 되어 프로젝트는 실패라고 할 수 있다. (397자)

4 고려대학교

가. 개 요

■ **분석대상 : 2010학년도 수시 2차 인문계열 문제**

■ **출제유형 : 통합교과형 중 자료제시논술형**

■ **시험시간 : 180분**

■ **문 항 수 : 3문항**

■ **답안 분량 : 500±50자 ~ 1400±100자 이내**

■ **출제의 기본 방향**

고려대학교의 2010학년도 수시 논술시험은 지난 몇 해 동안 채택해 온 통합 논술형을 유지하고 있다. 교과 통합의 정합성 정도는 이제까지의 논술시험들과 동일하지만 각 지문의 난이도와 논제의 수준은 약간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험생들의 이해력과 논리적이고 수리적인 사고력 및 표현력을 심도 있게 평가하고자 하였다.

고려대학교 논술출제본부는 대학입학을 위한 논술시험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함을 계속 강조해 왔다.

첫째,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나 수능시험 성적에 대한 보정에 적합한 문제를 출제한다.

둘째, 수험생들의 수준 및 응시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논술시험이 변별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난이도 면에서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운 문제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평가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채점의 기준을 최대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아무리 그 자체로 좋은 문제라 하더라도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는 대입시험을 위한 문제로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번 수시 논술시험 또한 이런 조건을 충족하고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었다.

①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② 주어진 자료와 자신의 생각을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창의적 능력을 고르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도록 한다.

③ 자신의 견해를 정해진 시간 안에 제한된 분량으로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한다.

④ 고교 내신이나 수능에서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하는 부분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히 통합형 논술 형식 속에서 여러 교과목에서 각기 단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연결시켜 종합적이고 추론적인 판단으로 유도하는 방식의 문제를 출제하도록 한다.

⑤ 예시문제에 제시된 소재(부끄러움)와 같이 사회적 중요 현상 가운데 간과해온 구체적 사안을 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고려를 통해 수험생들로 하여금 조금은 손쉽게 논제를 풀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더불어 인문학적 측면과 사회과학적 요소가 어우러질 수 있는 소재와 제시문을 채택하고자 노력하였다.

■ 출제의도 및 주제 선정의 이유

❍ 출제의도

2010학년도 고려대학교 인문계 수시 논술시험은 수험생들의 학력수준에 비추어 크게 무리가 없는 주제 및 제시문을 선택하는 데 유의하였다. 또 통합논술의 성격에 맞도록 인문학적 접근과 사회과학적 측면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주제와 제시문들을 선택하였고, 특정 상황에 대한 논리적이고 수리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제시문도 채택하였다. 통합적 사고에 대한 이런 강조는 고려대학교가 지난 수년 동안 행해온 논술시험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며, 2009년 5월의 예시문제를 통해 제시한 방향과도 일치한다.

❍ 주제 선정의 의유

2010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논술시험은 '운'이라는 큰 주제 하에 논의할 수 있는 다섯 개의 제시문을 활용하고 있다. '운'은 개인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사회와 문화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왔으며, 인간은 이를 사회제도적으로 적극 활용하거나 보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첫째 제시문은 인간의 행복에서 차지하는 운의 위치에 대해 논한 글이고, 두 번째 제시문은 추첨을 정치제도 가운데 적극 도입하여 사회적 갈등을 조정한 역사적 사례를 담고 있고, 세 번째 제시문은 운을 개인의 책임성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면서 한층 정교한 공평성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며, 네 번째 제시문은 동양적 명(命)이 갖는 윤리적 의의를 논하고, 다섯 번째 제시문은 개인적 노력뿐만 아니라 운을 반영하는 것으로서의 개인적 배경을 감안하여 국가가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원칙으로 공평성과 공리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사회적 상황을 논리적 · 수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한 글이다.

단순한 암기나 기계적인 연습에 의존하지 않고 평상시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독서하고 논리적 ·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사고하는 습관을 가진 수험생들만이 모든 제시문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모든 논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논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제자들이 수험생들의 답안에서 기대하는 것은 조금은 복잡한 제시문들을 정확하게 읽고 그 논지를 파악하며 전체적으로 중요한 요점을 지적해 내는 것, 그리고 제시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논제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부합하는 내용을 주어진 분량 속에 적절하게 논술해내는 것이다. 수험생들은 각 제시문의 논지 및 그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중점 평가 영역

수험생들의 독해능력과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논술시험에서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에서는 통합적 측면을 위하여 제시문들을 함께 묶어서 제시하되, 논제를 개별화하여 구체적인 항목마다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있다.

논술의 성격상 특정한 정답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논술문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답이 없다고 해서 오답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특히 유의할 경우에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요구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신 없는 부분이라고 빼놓고 답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답안 전체의 평가가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다.

둘째, 논제에서 요구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고, 그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주어야 한다. 논제에서 요약을 요구하는 경우와 논평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설명이나 논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각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고, 논리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상투적인 견해나 예를 드는 것보다는 주어진 제시문 및 논제의 이해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제시문을 참고하되, 제시문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다시피 해서는 안된다. 제시문의 내용이 갖는 의미를 이해한 후 이를 자신의 표현으로 정리하여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분량 등 글의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 논제 및 제시문 분석(2010학년도 수시)

논제

[가] 인간의 모든 행위와 선택은 어떤 좋음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세상 만물이 좋음을 추구한다는 규정은 온당하다. 좋음은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띤다. 의술이 추구하는 좋음과 병법이 추구하는 좋음이 다르듯 기술마다 고유한 좋음이 존재한다. 각각의 좋음이란 그것을 위해 행위와 선택이 수행되는 것을 일컫는다. 가령 의술의 좋음은 건강이고 병법의 좋음은 승리이며 건축술의 좋음은 집이다. 분야마다 다른 행위와 선택을 통해 추구되는 목적이 곧 좋음이다. 인간은 그 목적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좋음은 행위로 성취되는 모든 목적일 것이다. 그런데 목적은 여러 가지이고 그중 어떤 목적은 다른 목적을 위해 선택된다. 따라서 모든 목적이 다 완전할 수 없지만 최상의 좋음은 분명 완전한 그 무엇이다. 만일 어떤 하나만이 완전하다면 그 하나가 우리가 찾는 것이겠다. 여럿이 완전하다면, 그것들 중 가장 완전한 것이 우리가 찾는 것이겠다.

우리는 그 자체로 추구되는 것이 다른 것 때문에 추구되는 것보다 완전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언제나 그 자체로 선택될 뿐 결코 다른 것 때문에 선택되지 않는

것이 완전하다. 그 무엇보다도 행복이 그렇게 완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행복을 언제나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하지 다른 무엇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다. 인간의 기능을 이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좋음은 훌륭함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고, 그 활동 자체가 곧 행복이다.

물론 행복은 외적인 좋음도 필요로 한다. 일정한 뒷받침이 없으면 고귀한 일을 행하기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좋은 태생, 훌륭한 자식, 준수한 용모와 같은 요소가 결핍되면 지극한 복에 흠집이 나기도 한다. 행복에는 그런 요소들이 더해져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행운이 행복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행복은 배움, 익힘 등과 같은 인간의 활동을 통해 획득되는가, 아니면 신적인 운명이나 우연에 의해 생겨나는가? 신들이 인간에게 선물을 준다고 한다면, 행복 또한 신들의 선물일 수 있다. 그러나 행복이 신들의 선물이 아니고 모종의 배움이나 익힘을 통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인간 안의 신적인 것들 중 으뜸일 것이다. 행복은 훌륭함에 따른 인간 영혼의 활동이므로 인간의 행위로 성취되거나 소유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소나 말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동물은 행복을 추구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 또한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어린이는 나이가 어려서 아직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행복에 대한 희망을 말한 것일 뿐이다. 행복하려면 완전한 훌륭함뿐 아니라 완전한 생애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생 동안 많은 변화와 갖가지 우연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로이아 전쟁의 프리아모스처럼 가장 성공적으로 살던 사람도 노년에 엄청난 불행에 빠진다. 그렇다면 인간들 중 누구도 살아 있는 동안에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고, 솔론의 말처럼 삶의 끝을 보아야만 하는가? 인간은 죽은 다음에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물론 솔론이 한 말의 본뜻은 인간은 죽어서야 비로소 온갖 악과 불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논란의 소지가 여전히 남는다. 자손들의 번성과 불운처럼 죽은 사람에게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복되게 살고 이치에 맞게 삶을 마감했다 하더라도 그의 자손들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우여곡절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자손들 중 일부가 좋은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누려도 다른 일부는 그와 반대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만약 죽은 사람까지 자손들의 이 같은 우여곡절에 함께 휘말려 어떤 때는 행복하다가 어떤 때는 도로 비참하게 된다면,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후손들의 일이 조상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어떤 사람의 주변을 돌고 도는 갖가지 운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이내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그는 필경 '기반이 취약한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운에 따라 인간의 행복 여부를 판단해도 좋을까? 인간이 운에 의해 잘되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운이 인간적 삶에 더해질 뿐이다. 훌륭함에 따르는 활동이 행복이고, 그 반대의 활동은 분명 불행을 불러온다. 그러나 추가되면 좋을 것이 추가되지 않는다 하여 행복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들 중 훌륭함에 따르는 활동만큼 안정성을 갖는 것은 없다. 그 활동은 학문적 인식보다 더 지속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극히 복된 사람들은 그 활동을 누리며 가장 연속적으로 그들의 삶을 이어간다. 그러한 활동에 대한 망각은 그래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많은 일이 우연에 따라 일어나며 일의 크기에도 차이가 있다. 작은 행운은 작은 불운과 마찬가지로 삶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다. 좋은 쪽으로 큰 일이 많이 일어난다면 더 큰 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그 일들이 삶을 아름답게 꾸며주기 때문이다. 반면 나쁜 쪽으로 큰 일이 많이 일어난다면 지극한 복을 짓눌러 상하게 한다. 그 일들이 삶에 고통을 불러오고 많은 활동들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성이 고귀한 사람은 그러한 불운들을 침착하게 견딘다. 그가 고통에 무뎌서가 아니라 고결하고 의연한 성품의 소유자이기에 그럴 수 있다. 인간의 삶에서 훌륭함을 따라가는 영혼의 활동이 결정적인 것이라면, 지극히 복된 사람들 중 누구도 비참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모든 운을 품위 있게 견디고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한 가장 훌륭한 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훌륭한 장군이 주어진 부대를 전략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꾸려가고, 좋은 제화공이 자기가 가진 가죽으로 가장 훌륭한 구두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물론 프리아모스가 당한 것과 같은 비운이 덮친다면야 지극히 복될 수는 없겠지만, 결코 비참하게 되지는 않는다. 행복한 사람은 실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운수는 이리저리 몰아치며 변화무쌍한 얼굴을 드러내지만, 완전한 훌륭함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은 늘 그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특정한 기간만이 아니라 그의 온 생애에 걸쳐 행복하다.

[나] 추첨은 켄투리아회와 민중의회에서 누가 첫 번째로 투표하는지와 어떤 투표가 먼저 계산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쓰였다. 켄투리아회는 5개의 계급에서 뽑힌 193개의

백인대(百人隊, 투표의 단위)로 구성되었다. 기원전 3세기 말, 추첨을 통해 '우선투표 백인대'를 뽑는 관습이 정착되었다. 첫 번째로 투표할 백인대를 의미하는 우선투표 백인대는 상위계급 가운데 하나인 70개의 일급보병 백인대 중에서 추첨으로 뽑혔다. 그 추첨의 결과는 신의 계시로 여겨졌고, 나아가 이 백인대가 투표하는 것 역시 종교적 의미를 가졌다. 우선투표 백인대의 투표는 최종적 결과를 미리 알려 준다는 의미를 가졌을 뿐 아니라, 그 뒤에 투표하는 백인대들의 선택까지도 규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결국 추첨은 우선투표 백인대의 투표 행위에 종교적 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투표 과정에서의 의견 불일치 혹은 경쟁을 피하게 하거나 완화시켰다. 왜냐하면 추첨은 적어도 계시적이고, 중립적이며, 불편부당한 무엇을 따른 것처럼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추첨은 민중의회에서도 사용되었다. 법률 제정이나 재판을 위한 민중의회의 모임에서, 각 부족들은 차례차례 투표했다. 어떤 부족이 가장 먼저 투표할지는 추첨을 통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나머지 부족들의 투표 순서도 결정되었다. 제일 먼저 투표하는 부족에게는 '첫 번째'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는 어떤 점에서는 켄투리아회의 우선투표 백인대에 상응한다. 각 부족의 투표 결과는 그 부족이 투표를 행하자마자 발표되었으며, 그 동안에도 다른 부족들의 투표는 계속되었다. 법안의 통과나 판결을 위한 과반수가 확보되자마자 투표는 종결되었다. 결과적으로 민중의회의 추첨은 켄투리아회의 추첨과 동일한 효과를 가졌다. 추첨의 종교적 성격과 중립성은 표가 첫 번째 투표 쪽으로 결집되도록 도왔으며, 투표를 하지 못한 부족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

[다] 운은 선택적 운과 비선택적 운으로 나뉠 수 있다. 선택적 운은 숙고와 계산을 거친 모험의 결과에 관련된다. 가령 주식 투자에서처럼 피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수익을 거두거나 손실을 입는 경우가 선택적 운에 해당된다. 비선택적 운은 예측이 불가능하여 피할 수 없는 결과에 관련된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맑은 날 길을 걷다가 벼락을 맞는 경우가 비선택적 운에 해당된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선택적 운 때문에 수입의 차이가 생기고 그로써 재산이 증감한다면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떤 농부가 실패할 위험이 크지만 성공적으로 수확했을 경우 고수익이 보장된 작물을 심었고, 다른 농부는 안전한 수확이 가능한 작물을 심었다고 하자. 그리고 전자의 농부는 나쁜 날씨에 대비해서 보험에 들거나 들지 않을 수 있다고 하자. 그 경우 농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안전을 지향하는 선택은 위험을 무릅쓰는 선택보다 더 큰 소득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부가 선택한 작물의 종류와 보험 가입의 여부에 따라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비선택적 운이 초래한 결과는 선택적 운의 결과와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 매우 유사한 조건 속에서 살던 두 사람 중 하나가 갑자기 맹인이 된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 경우 맹인이 된 쪽이 애초에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했다고 규정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생긴 수입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왜냐하면 맹인이 되는 것은 그 당사자의 선택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보험 가입의 가능성을 통해 비선택적 운을 선택적 운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맹인이 될 가능성을 동등하게 지닌 두 사람이 그러한 가능성을 저마다 충분히 인식한다고 전제하고서 그들에게 보험에 가입할 기회가 똑같이 제공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한 가정 하에서 한 사람은 보험에 들고 다른 한 사람은 보험에 들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전자는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셈이고 후자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선택을 한 셈이다. 그 경우 두 사람 모두 눈이 머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어떤 온정주의적 관점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자원 배분의 공평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 미가입자에게 소득을 이전시키는 보상 방식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록 두 사람이 비선택적으로 악운을 겪게 되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양자 간의 소득 격차를 선택적 운에서 비롯된 것이 되도록 한다. 따라서 선택적 운에서 비롯한 결과를 교란시킬 근거가 없다는 기존의 주장은 여전히 성립한다. 그러한 주장은 앞에서 설정한 가정 하의 모든 경우에 합당하다. 동일한 위험에 당면한 사람들이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선택의 결과는 분배의 공평성에 아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가정과 다르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재앙의 위험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회인으로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장애가 온 사람도 있다. 그들은 보험에 들 자금을 마련하기 전에 장애인이 되었다. 게다가 장애가 있는 사람은 보험에 들 수조차 없다. 장애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에게도 보험에 들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의 유전적 가족력까지 조사하는 보험회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요구할 것이다. 재앙의 위험이 모두에게 동일하다고 가정한 보험의 상황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공평성의 문제에 대해 좋은 지침을 제공한다.

사람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보험을 들 경우에 누렸을 혜택을 전제하고 그 조건에 사람들을 위치시키는 복지체계를 통해 공평성은 확보될 수 있다. 사회가 그 구성원들을 진정으로 공평하게 배려하려면 동등하게 조성된 조건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을 선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 그렇게 해야 마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의(義)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되는 것은 명(命)이다. 성인(聖人)은 의를 따르면 명이 자연히 그 가운데 있고, 군자는 의를 행함으로써 명에 순응하며, 보통 이상의 사람은 명이 있음을 앎으로써 의에 따라 행할 것을 결단하고, 보통 이하의 사람은 명이 있음도 모르고 의를 행함도 없다.

그러므로 명을 모르고서 의를 편안하게 행할 수 있는 자는 드물고, 의에 이르지 않고 명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없다.

명에 대해서는 언급할 것 없을 때가 있으나, 의는 어떤 상황에서든 반드시 행해야 한다. 예컨대 효성스럽게 어버이를 섬겨야 함에 있어서 그 명이 어떤지 물을 것이 없고, 충성을 다해 임금을 섬겨야 함에 있어서 그 명이 어떤지 물을 것이 없으며, 경건하게 자신의 인격을 수양해야 함에 있어서 그 명이 어떤지 물을 것이 없고, 부지런히 덕행을 쌓아야 함에 있어서 그 명이 어떤지 물을 것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명에 대해서 언급할 것 없을 때가 있지만, 명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때도 있다. 예컨대 곤궁함과 영달함은 명에 달려 있으니 자기 뜻대로 구할 수 없고,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려 있으니 자기 뜻대로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귀하고 천한 것은 명에 달려 있으니 자기 뜻대로 좌우할 수 없고, 가난하고 부유함 역시 명에 달려 있으니 자기 뜻대로 도모할 수 없는 것이다. 명은 성현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을 그것으로 격려할 수는 있으며, 일상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화복(禍福)을 그것으로 단정할 수는 있다. 명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임을 안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 잔꾀를 부릴 것이 없고, 명이 의도적으로 계획할 수 없는 것임을 안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 마음 쓸 것이 없다. 어깨를 움츠리고 아첨하는 웃음을 흘리며 부귀를 취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의를 견지하고 고난의 길을 걷다가 죽어간 자도 있다. 그러나 부귀해질 때가 이르면 도를 굳게 지키는 자도 영달한 자리에 오르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을 만나면 살기 위해 아무리 수치스러운 짓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명이란 본디 이와 같아서 그것을 뜻대로 바꿀 수 없다. 사람이

참으로 명이 이러함을 분명하게 알고 독실하게 믿는다면, 어느 누가 이익을 구하는 데에만 온 마음을 쏟고 의에 어긋나는 수치스러운 짓을 하면서까지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려 하겠는가? 그러므로 보통 사람에게 의를 따라 행해야 함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명이 있다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된다.

명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부터 명이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자 순박함은 사라지고 임기응변의 꾀만 늘어나 하늘의 도리는 허망해지고 사람의 일은 혼탁해져서, 벼슬자리나 구하고 잇속만 차리며 구차하게 목숨을 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무리들이 불어나 천하가 어지러워졌다. 이것이 바로 명이 없다는 주장으로 인해 생긴 폐해이다. 명이 없이도 의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군자뿐이다.

[마] 다음 세 가지 요인이 개인의 후생수준을 결정하는 경우를 고려하자. 첫째는 개인적 배경의 차이에서 오는 '배경자원'의 수준(x)이고, 둘째는 정부로부터 배분되는 '복지자원'의 수준(y)이며, 셋째는 개인의 '노력수준'(z)이다. 최종적인 후생수준(u)은 배경자원과 복지자원의 합에 노력수준을 곱한 값이라고 하자. 즉, $u=(x+y)z$.

한 국가의 국민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배경자원이 1이고 노력수준이 1인 사람들이 25% (집단1)
배경자원이 1이고 노력수준이 3인 사람들이 25% (집단2)
배경자원이 3이고 노력수준이 1인 사람들이 25% (집단3)
배경자원이 3이고 노력수준이 3인 사람들이 25% (집단4)

또한 정부는 개개인의 배경자원과 노력수준을 고려하여 복지자원을 배분할 수 있고, 이렇게 배분될 총 복지자원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으며, 만약 정부가 복지자원을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국민 일인당 4의 복지자원을 받게 된다고 가정하자.

배경자원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고 제시문 [다]의 '비선택적 운'에 해당한다. 공평성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비선택적 운으로 인한 후생 격차를 없앨 것을 요구하지만, 노력수준과 같이 개인이 선택한 결과로 발생하는 후생 격차의 교정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한편,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복지자원의 배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후생수준의 총합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

[논제 1] [가]을 5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20점)

[논제 2] '운의 사회적 의미'라는 관점에서 [나]와 [다]을 비교하고, 이를 참고하여 [라]의 주장을 논평하시오. 그리고 '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50점)

[논제 3] [마]에서 정부가 취할 분배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의 세 제안이 있을 수 있다.

제안 A: 개인이 사용할 배경자원과 복지자원의 합($x+y$)이 사람들 사이에 균등하게 되도록 복지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제안 B: 노력수준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 배경자원의 차이로 인한 후생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노력수준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후생격차가 극대화되도록 복지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제안 C: 모든 국민의 후생수준의 총합이 극대화되도록 복지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각 제안 하에서 집단별로 1인당 배분될 복지자원의 크기를 구하고, [마]에 나타난 공평성의 관점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세 제안을 비교하시오. (30점)

■ 논제 분석

❍ 논제 1

• **논제 1 :** [가]을 5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20점)

논제 분석	
what	how
제시문을	요약하라

• **고려사항(option)**

– 500자 이내로

• 제시문은 인간이 지향하는 최고의 좋음이 행복이라고 논한 후 그러한 행복에 운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 있다. 제시문의 필자가 보기에 최고의 좋음이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인데 행복이 바로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다. 그리고 그 행복은 그 자체로 완전한 만큼 신적인 가치를 지니지만 인간의 노력을 통해 성취

되는 것이어서 우연에 좌우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운에 따라 행복과 불행 사이를 오간다. 그러나 고귀한 정신의 소유자는 운에 좌우되지 않고 영혼의 활동을 계속한다. 진정한 행복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확한 문장으로 작성한 요약문은 이 논제가 요청한 바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 논제 2

• **논제 2 :** '운의 사회적 의미'라는 관점에서 [나]와 [다]를 비교하고, 이를 참고하여 [라]의 주장을 논평하시오. 그리고 '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50점)

논제 분석	
what	how
1) 제시문 [라]의 주장을	논평하시오.
2) '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 **고려사항(option)**

1) – '운의 사회적 의미' 라는 관점을 토대로
   –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하여

[논제 분석]

• 첫 번째는 [나]와 [다]를 운의 사회적 의미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이다. [나]는 켄투리아회와 민중의회의 추첨제도를 사례로 운의 사회적 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신의 계시'와 같은 종교적 의미를 운에 부여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회적 갈등과 경쟁을 완화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다]은 운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제도적 교정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있다. 비선택적 운에서 비롯한 불운을 개인적인 수준으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제도(복지체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공평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나]에서 주어진 운의 사회적인 순기능과 그를 활용한 사회제도를, [다]에서 주어진 사회제도를 통한 운의 불공정성의 교정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 두 번째는 [라]의 논지를 파악하고 이를 [나]와 [다]에서 나온 운의 사회적 관점과 관련시켜 논하는 것이다. [라]에서의 '명'은 개인 삶의 특정한 시기에 불가항력적인

운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제시문 [다]의 '비선택적 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라]는 [다]와 달리 운을 사회제도에 의해 교정되어야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각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라]는 운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 있음을 사람들이 인정하는가 여부가 사회적 정의 및 질서와 직결된다는 시각을 보인다. 개인이 운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라]와 [나]가 유사하면서도, 그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접근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비교하는 것도 온당하다.

- 세 번째 작은 논제는 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다. 수험생들은 주어진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해야 하며, 논리적 정합성 못지않게 문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 **논제 3**

- 논제 3 : [마]에서 정부가 취할 분배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의 세 제안이 있을 수 있다.

제안 A: 개인이 사용할 배경자원과 복지자원의 합($x+y$)이 사람들 사이에 균등하게 되도록 복지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제안 B: 노력수준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 배경자원의 차이로 인한 후생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노력수준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후생격차가 극대화되도록 복지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제안 C: 모든 국민의 후생수준의 총합이 극대화되도록 복지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각 제안 하에서 집단별로 1인당 배분될 복지자원의 크기를 구하고, [마]에 나타난 공평성의 관점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세 제안을 비교하시오. (30점)

논제 분석	
what	how
1) 집단별 1인당 배분될 복지 자원의 크기를	구하시오.
2) 세 제안을	비교하시오

- 고려사항(option)

1) – 정부의 복지 세가지 자원 분배 방식(제안 A, B, C)을 이용하여
2) – [마]에 나타난 공평성의 관점과 공리주의적 관점을 토대로

- 이 논제는 수험생들의 논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제시문 [마]는 개인 선택의 결과와 이에 대한 책임, 그리고 선택되지 않은 운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같이 생각해 보는 내용이다. 이 논제는 제시문 [마]의 상황에서 비선택적 운에 대처하는 공평성의 기준과 이와 대비되는 공리주의적 기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제에 제시된 세 가지 복지정책을 비교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논제는 먼저 정부가 복지자원을 분배함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한다. 제안 A는 네 가지 집단 사이에 배경자원과 복지자원의 합을 균등하게 하자는 것이다. 제안 B는 노력수준이 같은 집단들 간에는 후생의 차이가 없도록 하고, 노력수준이 다른 집단들 간에는 결과적인 후생의 차이를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제안 C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후생의 총합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논제는 위의 세 가지 제안들이 공평성 및 공리주의적인 관점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 제시문 및 자료의 출처

[제시문 [가]] 행복과 좋은 삶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 『니코마쿠스 윤리학』의 도입부에서 취한 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활동은 좋음(agathon)을 추구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좋음이란 수단이 목적으로 취하는 바의 것이다. 통상 좋음으로서의 목적은 더 좋은 것, 상위의 목적 실현에 봉사하는 수단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좋음 중의 어떤 것은 더 이상 상위의 목적을 갖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을 자신의 수단으로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목적과 수단의 계열의 정점에 서 있는 것,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eudaimonia)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행복은 다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충족된 상태를 뜻한다. 물론 행복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주관적 견해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도 있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최상의 좋음으로서의 행복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최적으로 발휘한 상태이다. 이 같은 상태를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함(arete)이라 부른다. 이런 의미에서 행복은 훌륭함에 따른 인간 영혼의 활동으로 규정된다. 바로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행복과 우리가 통상 운이라 부르는 것의 차이가 있다. 운은 인간의 의지를 벗어나 있고, 따라서 우리로서는 어찌해 볼 수도 장악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의 의지, 바람과는 무관하게 좋은 일, 나쁜 일이 생겨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더 나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과 운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혼은 좋음을

향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데 우연히 취한 횡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영혼은 좋음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우연히 닥친 횡액이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면, 우리가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한 것을 우연에 맡긴다는 것은 너무도 부조리한 일"로 보인다. 물론 우연에 따르는 운이 우리 삶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우연의 선물이 아니라, 좋음을 추구하는 인간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훌륭함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는 우리 인간 본성(physis)에 부과된 과제를 망각하지 않는다면, 우연히 들이닥친 운과 불운이 우리의 행복을 이와는 다른 어떤 것으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힘과 노고로 신적인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고대 이래 서양의 사상사를 지배해 온 철학(philosophia, 애지)의 에토스이다. 운은 행복의 장신구 또는 장애물일 수는 있으나 결코 그 이상일 수는 없다. 제시문은 출제 의도에 맞게 편집되었다.

[제시문 [나]] 베르나르 마넹(Bernard Manin)의 『대의 정부의 원칙』(*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에서 인용해서 재구성한 글이다. 마넹은 미국 뉴욕대 정치학과 교수이자 프랑스 고등정치학연구소 교수로, 프랑스 근대 정치철학과 대의제도 연구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마넹은 이 책에서 '선출될 가능성의 평등'에 기초한 추첨과 '출마할 기회의 평등'에 기초한 선거가 정치적 대표의 선출 방법으로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어떻게 채택되고 변화되었는지를 고찰한다. 그는 선거가 추첨을 압도한 이유로 근대 이후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 받아들여지게 된 정치권력에 대한 개개인의 동의를 제시한다. 그는 대의제에서 민주적 참여와 대표를 통한 심의라는 두 가지 목적의 조화를 위해 유권자가 선거 이외의 방법을 통해 정치적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인용된 제시문에서, 마넹은 1) 선거를 통해 정치적 대표를 선발했던 로마 공화국에서도 추첨은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2) 로마 공화국의 추첨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평등하게 가진다는 정치적 원칙과 인간의 통제가 허용되지 않는 존재를 통한 중립적 결정이라는 종교적 신념에 기초했으며, 3) 이러한 추첨 제도는 귀족이 중심이 된 켄투리아회에서 뿐만 아니라 부족 대표들로 구성된 민중의회에서도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마의 추첨 제도를 고찰하면서 마넹은 1) 추첨이 직접

민주주의 또는 아테네 민주정에서만 사용되었던 제도라는 편견을 버리고, 2) 가능성의 평등에 초점을 둔 추첨 제도가 대의제의 성립과 변천에 기여한 바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제시문 [다]] 유주의적 평등주의자로 잘 알려진 로날드 드워킨(Ronald Dworkin)의 논문「평등이란 무엇인가? 제2부: 자원의 평등」("What Is Equality? Part2: Equality of Resources" ,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981)을 기초로 재구성된 글이다. 이 글에서 드워킨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반영하면서도 개인의 선택과 관련 없이 예기치 못한 운이 가져오는 불평등에 대해서는 교정의 기준을 제공하는 공평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은 우선 개인이 직면할 운을 선택적 운과 비선택적 운으로 구분하고 있다. 선택적 운은 주식투자와 같이 개인이 자신의 선호를 반영하여 내린 선택의 결과이다. 반면 비선택적 운은 개인의 선택과 관련이 없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다. 제시문은 선택적 운의 결과로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을 중요시하여 분배적 공평성이 이를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비선택적 운의 경우는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불평등에 대해서 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교정의 지침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위험에 처해있고 동등한 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가설적 보험의 상황을 통하여 얻을 것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가설적 보험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한 입장에 처해있고 그들이 내린 선택의 결과는 선택적 운의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공평을 논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제시문은 이러한 가설적 보험의 상황에서 개개인이 누렸을 혜택의 수준이 현실의 비선택적 운에 대한 교정의 기준이 되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라]] 조선후기 문인 홍석주의「무명변(無命辨)」이라는 글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명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서 명이 있어야 하는 당위를 논증하였다. 명(命)이란 생사화복처럼 사람의 의지나 계획과는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상적인 삶의 자세는, 의(義)를 행하는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인위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생사화복 등의 현상에 대해서는 그것이 명임을 알고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다. 성인이나 군자는 명의 유무에 흔들림 없이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으나, 보통 사람은 이러한 명의 존재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 즉 명이 자신의 뜻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앎으로써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의연하게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반면, 명이 이러함을 모르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생사화복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의에 어긋나는 행동도 불사하게 된다. 따라서 명이 없다면 모두가 각자의 이익만 좇아 무슨 일이든 하게 됨으로써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명은 보통 사람들이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주장이다.

[제시문 [마]] 마르크 플뢰르배이(Marc Fleurbaey)와 프랑수아 마니케(Fran ois Maniquet)의 논문 「보상과 책임」(“Compensation and Responsibility”, 2005)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에서는 개인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 그리고 선택되지 않은 운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순한 모형이 주어진다. 이어서 그 모형의 틀 속에서 공평성의 기준과 공리주의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은 복지자원의 분배를 통한 복지체계를 설명하고 이를 통하여 어떻게 공평성 혹은 공리주의를 반영한 분배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평성의 원리에서는 비선택적 운에 따라 자원의 분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개인후생의 총합으로 정의되는 사회후생을 중요시한다. 제시문은 한 국가의 국민들이 배경자원과 노력수준의 정도에서 네 가지의 집단으로 나뉘어있는 가상적인 상황을 제시한다. 또한 개인의 후생은 배경자원과 복지자원의 합에 노력수준을 곱한 값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정부는 복지자원을 개인들에게 배분하여 사회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시문은 정부가 복지자원의 분배를 통하여 사회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분배가 공평성과 공리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5 광운대학교

가. 개 요

■ **분석대상 : 2010학년도 수시 2차 인문계열 문제**

■ **시험시간 : 120분**

■ **문 항 수 : 3개 문항**

■ **답안 분량 : 총 1.200자 내외**

❍ **논제 1** : 300자 내외
❍ **논제 2** : 300자 내외
❍ **논제 3** : 600자 내외

■ **출제 방향 및 지침**

- 고교 교육과정을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제시문 사용

■ **출제의도 : 언급하지 않음**

■ **평가기준**

- 기초능력 : 표현력, 논리력, 독해력
- 전공능력 : 문제에 대한 이해력
- 응용력 : 자료해석 능력, 적용력, 문제해결 능력

나. 논제 1

■ **논제 및 제시문**

[논제 1]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에 비추어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레고적 사고'는 어떤 것인지 서술하시오.(300자 이내, 30점)

[가] 거대한 세계 제국을 건설한 칭기스칸은 몽골 고원에서 출발하여 유럽에까지 이르는 대원정을 장기간에 걸쳐서 벌였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전사자가 늘어나고 부상자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전투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생겨났다. 더구나 애초부터 칭기스칸 군대는 다른 대국에 비해 절대 소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칭기스칸이 찾은 방법은 현지 동원이었다. 새롭게 정복한 곳에서 적의 병력, 즉 포로도 자신의 군대로 편입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병력은 항상 충분했고 경우에 따라 20만이 되기도 하고 30만이 되기도 했다. 칭기스칸은 레고게임을 한 것이었다. 인류 문명을 통틀어 레고는 가장 보편적인 놀이 도구라고 일컬어진다. 레고 조각들을 이리저리 맞추면 자동차도 되고 비행기도 되며 집도 된다.

이것은 칭기스칸이 자기 체제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적이든 이교도이든 타인종이든 상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만약 칭기스칸이 종교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고 차별 정책을 썼더라면 적이었던 사람이 칭기스칸의 병사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는 포로나 적국의 노예에게 차별 정책을 쓰는 대신 자신의 군대와 조직 내부로 편입시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그의 군대는 혼혈 군대, 잡종 군대였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자크 아탈리 식으로 말하자면 '레고 군대'였던 것이다. 칭기스칸이 보여 준 이러한 레고적 사고의 미덕은 우리에게 '타인과 공존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13세기의 생각이 21세기에 오히려 더 가치를 발하는 문명의 유산이 된 것이다.

[나] 아시아는 인종적 다양성으로 인하여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갈등의 소지가 세계 어느 지역보다 높고 이러한 갈등은 때로는 폭력으로 이어진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반 이상이 아시아에서 발생하는데 이들 분쟁의 대부분은 인종적 문제에 기인한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인종 분리가 제도화되어 있어서 특정 인종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법으로 명시해 놓을 정도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동질성이 유달리 높은 일본에서 외국인은 비록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일본 시민이 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말레이시아는 대학 진학부터 공직 임용까지 말레이계에 우선권을 주는 대신 중국계와 인도계 국민들을 차별한다. 파키스탄에서는

군부나 국가 요직은 펀잡(Punjab) 출신이 독차지한다. 세계에서 가장 국제화된 도시 중 하나인 홍콩도 아주 최근에야 차별금지법 제도를 시행했을 뿐이다. 이전에는 집주인이 피부색을 이유로 세입자를 거부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들 나라 국가 지도층들은 주장한다. 얼핏 보면 그럴 수도 있으나 사실은 인종적 편견을 강화할 뿐이고 결국에는 관용과 이해의 분위기를 억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가 당선된 것은 아시아인들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미국인들이 아시아적 사고방식을 가졌더라면 미국 대통령은 백인이어야 한다는 공식에 집착했을 것이고, 따라서 대통령의 용모를 갖추지 않은 오바마는 대통령 당선은커녕 대통령 후보 출마도 어려웠을 것이다. 개인의 피부색이나 출신 배경과 한 국가를 통치하는 능력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에서 비주류 출신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직 어려워 보인다.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는 미국인들의 가치관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가능성을 재평가하게 한다.

제시문 분석

❍ 제시문 [가]

- 칭기스칸은 원정에서의 군사 부족문제를 현지 동원으로 해결했다.
- 즉, 새롭게 정복한 곳에서 적의 포로를 자신의 군대로 편입시키는 것이었다.
- 이를 통해서 군사 동원에 있어서 상당히 유연성이 있었다.
- 칭기스칸은 자기 체제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적이든 이교도이든, 타인종이든 상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 이러한 군대를 '레고 군대'라고 하고, 칭기스칸의 이러한 사고방식을 '레고적 사고'라고 한다.(자크 아탈리의 표현 방식)
- 이러한 사고는 우리에게 '타인과 공존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 제시문 [나]

- 아시아는 인종적 다양성으로 인해 갈등의 소지가 높고, 이는 종종 폭력으로 이어진다.

-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인종적 문제에 기인한다.
- 아시아 각국에서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지만, 사실은 인종적 편견을 강화할 뿐이고 결국에는 관용과 이해의 분위기를 억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 미국에서 오바마가 당선된 것은 아시아인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는 미국인들의 가치관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가능성을 재평가하게 한다.

논제 분석

• **논제 :**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에 비추어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레고적 사고'는 어떤 것인지 서술하시오.(300자 이내, 30점)

what	how
-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레고적 사고'가 어떤 것인지를	서술하라.

• **요구사항(requirement)**
-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에 비추어서 서술하라.
- 300자 이내로 답하라.

❍ 칭기스칸과 아시아인의 보편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필요한 '레고적 사고'가 무엇인지를 서술하라고 요구하는 논제이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레고적 사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 제시문 [가]에서는 칭기스칸이 정복한 지역의 포로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레고 게임'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레고 게임은 유연성과 확장력이 뛰어난 게임이다.
- 따라서 '레고적 사고'는 종교·출신·인종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자신의 군대와 조직 내부로 편입시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었듯이 유연성과 확장력을 바탕으로 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 예시 답안

레고식 사고를 통하여 세계 제국을 건설한 칭기스칸의 사례는 21세기 한국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 칭기스칸은 피정복민들을 차별하는 대신 그들과 공존하는 길을 모색했다. 흑인 대통령을 배출한 미국 같은 성숙한 다문화 사회에 비해서 동질적인 집단으로 수천년 지내다 보니 다문화 경험이 부족한 한국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확산하고 이를 실천할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질적인 구성원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레고식 사고이다.(313자)

다. 논제 2

■ 논제 및 제시문

[논제 2] 제시문 [라]의 그림과 표에 나타난 2009년 상반기 영화 시장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외화 수용의 문제점을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논하시오.(300자 이내, 3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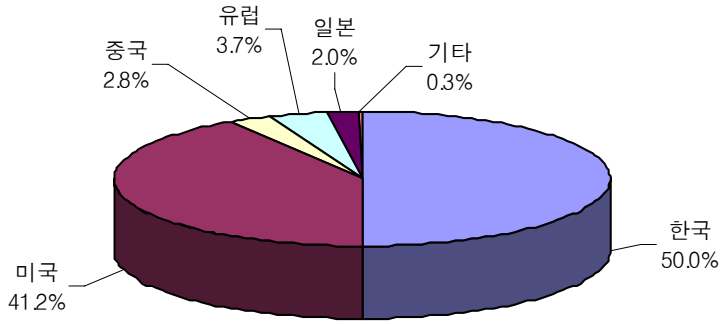
[다] 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자연 생태계의 유지를 위해 생물학적 다양성이 요구되는 것처럼 문화적 다양성은 변화와 혁신, 그리고 창조의 원동력으로서 인류의 사회적 삶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한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화는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환경이 서로 연관되어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세계화에 따라 인간의 지리적 활동 영역이 확대되어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고, 경제활동 면에서는 전 지구적 규모의 시장 통합이 이루어진다. 세계화를 통해 통합된 시장에서는 문화도 일종의 상품으로서 거래 품목이 된다. 세계화를 통한 문화상품 시장의 확대는 한 사회가 접촉하고 수용할 수 있는 문화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시장에서 특정 문화상품이 독점하는 경우에는 충족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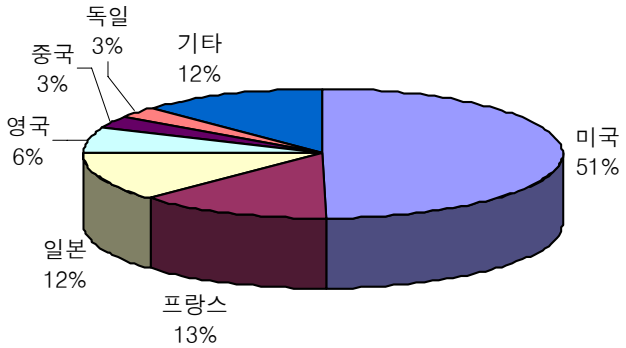
수 없다. 이 경우 세계화는 오히려 문화 간의 고유한 차이를 없애고 특정 문화가 지배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타문화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세계화는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 문화의 획일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라] 올해 상반기 국내 상영관에서 새로 개봉된 영화는 총 223편이다. 이 중 한국 영화는 62편, 외화는 161편이었다. 아래의 그림과 표는 상반기 신규 개봉된 영화의 국적별 분포를 나타낸다.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그림 1> 2009년 상반기 개봉 영화의 국적별 관객 점유율



<그림 2> 2009년 상반기 수입 외화 편수의 국적별 분포



〈표 1〉 2009년 상반기 관객 동원 상위 10위 외국 영화

순위	영화명	제작국	개봉일	스크린 수	전국 관객 수	전국 매출액(원)
1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	미국	2009/06/24	1,129	7,325,119	50,272,007,167
2	터미네이터 : 미래전쟁의 시작	미국	2009/05/21	704	4,495,479	29,665,378,167
3	해리 포터와 혼혈 왕자	미국	2009/07/15	751	2,957,596	20,270,993,333
4	적벽대전 2 : 최후의 결전	중국	2009/01/22	426	2,672,665	17,643,085,833
5	지.아이.조 : 전쟁의 서막	미국	2009/08/06	446	2,525,463	18,566,443,667
6	박물관이 살아있다 2	미국	2009/06/04	569	1,967,189	12,373,560,500
7	천사와 악마	미국	2009/05/14	558	1,907,515	12,544,406,333
8	작전명 발키리	미국	2009/01/22	372	1,771,450	11,793,263,500
9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미국	2009/02/12	313	1,740,760	11,430,541,167
10	엑스맨 탄생: 울버린	미국	2009/04/30	403	1,284,058	8,432,289,667

■ 제시문 분석

❍ 제시문 [다]

- 문화적 다양성은 변화와 혁신, 그리고 창조의 원동력으로서 인류의 사회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 세계화는 다양한 환경이 서로 연관되어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 세계화를 통한 문화상품 시장의 확대는 한 사회가 접촉하고 수용할 수 있는 문화의 종류를 다양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정 문화상품이 독점하는 경우에는 문화 간의 고유의 차이를 없애고 특정 문화가 지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 결국 타문화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세계화는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 문화의 획일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 제시문 [라]

- 2009년 상반기 개봉 영화의 국적별 관객 점유률을 나타낸 차트
- 2009년 상반기 수입 외화 편수의 국적별 분포를 나타낸 차트
- 2009년 상반기 관객 동원 상위 10위 외국 영화를 정리한 표

논제 분석

• **논제 :** 제시문 [라]의 그림과 표에 나타난 2009년 상반기 영화 시장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외화 수용의 문제점을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300자 이내, 30점)

what	how
– 제시문 〈라〉의 자료에 나타난 2009년 상반기 영화 시장의 특징을	분석하라.
– 우리나라 외화 수용의 문제점을	논하라.

• **요구사항(requirement)**
  – 우리나라 외화 시장의 특징을 분석할 때, 2009년 상반기 영화 시장의 특징을 바탕으로 하고,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논술해라.
  – 300자 이내로 답하라.

❍ 먼저 제시문 [라]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트와 도표를 바탕으로 2009년 상반기 영화 시장의 특징을 분석해야 한다.

❍ 우리나라 외화 수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술해야 한다.
  – 이것을 논술함에 있어서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
  – 하나는 분석한 2009년 상반기 영화 시장의 특징을 바탕으로 논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른 하나는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논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 즉, 국내 영화 시장이 문화적 사대주의나 자국 문화 중심주의에 치우쳐있지 않다는 것을 바탕으로, 외화의 대부분이 미국에 편중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답해야 한다.

예시 답안

2009년 상반기 영화시장을 보면 국내 영화는 상영편수 대비 약 25%, 관객 대비 약 50%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것은 국내 영화 시장에서는 문화적 사대주의 혹은 자문화 중심주의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한편 외화의 분포를 보면, 미국 영화가 편수

대비 51%를 차지했고 관객 수 기준 상위 10위권 영화중 9편을 차지하는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외국 문화를 수용함에 있어 문화적 편식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영화시장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8자)

라. 논제 3

▌논제 및 제시문

[논제 3] 제시문 [사]에서 논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 현상의 주된 특징에 대하여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단, 제시문 [바]의 논의와 〈표 2〉의 내용을 활용하시오.(600자 이내, 4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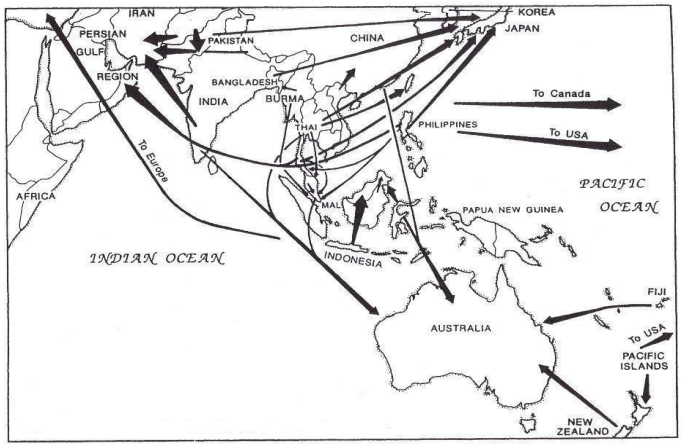
[마] 오늘날 지구상에서는 해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아서 자신의 고국을 떠난다. 글로벌 시대의 국가간 이민은 단순 노동부터 전문직, 기업 경영, 자영업, 정치적 망명, 유학, 혼인, 가족 결합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띤다. 이민자들이 이주 국가에 영구히 정착하면서 이민자 사회가 형성되고 이민국과 모국을 잇는 다양한 국제적 연결망이 구축된다. 국가간 인구 이동은 이주국의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문화적 다양성을 낳기도 하지만, 때로는 국가적 · 민족적 정체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국가간 인구 이동이 최근에 갑자기 생겨난 현상은 아니다. 15세기 대항해 시대부터 시작된 서유럽인들의 신대륙 이민의 물결, 제국주의 시대 대서양 노예무역을 통한 아프리카인들의 아메리카 대이동, 19세기 중국인과 일본인의 아메리카 이주, 그리고 20세기 후반 동남아인들의 선진국 노동이민 등 인구의 국가간 이동은 지난 5백년간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지리적 팽창과 더불어 빠르게 확산되어왔다.

[바] 오늘날 전 지구적인 국가간 인구 이동의 물결을 더욱 확산시키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이른바 남북문제이다. 지구상의 선진국들과

저개발국들 사이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짐에 따라 저개발국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서 선진국으로 이동한다. 경제적 · 환경적 이유로 고국을 떠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정치적 · 인종적 분쟁으로 인해 대규모 이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더 나은 사업 수익의 추구나 교육이나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이라는 개인적 동기에서 이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아직은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고국을 떠나 국가간 인구 이동 대열에 합류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저개발국 빈곤층 사람들의 움직임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그림 3〉은 1970년대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나타난 국가간 인구 이동 양상을 보여주는데, 동남아시아의 저개발국에서 일본이나 호주, 중동으로 이동하는 것이 주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3〉 1970년대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간 인구 이동의 주요 흐름



[사]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현상에 대한 논의는 이미 하나의 유행을 이루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의 다문화 담론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외국인의 증가를 하나의 기회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 사회화가 가져올 창의성과 개방성이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는 논의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가 하면, 다문화를 포용하여 차이나타운, 베트남거리 등을 육성하는 것이 내수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는 원곡동 일대를 '다문화

특구'로 지정하여 지역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인천시 선린동 일대를 비롯하여 부산, 서울, 제주에서도 일부 지역을 차이나타운으로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다문화'를 '문제'로 인식하는 단계를 넘어 '활용'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불과 30여년 전만 해도 우리가 선진국과 중동 산유국에 간호사와 광부, 건설 인력을 송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가운데 하나였음을 상기해 볼 때, '한강의 기적'을 거쳐 어느덧 G20 국가의 반열에 서서 다문화 사회화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러한 다문화 담론과 다문화 정책의 현실 적합성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 체류 외국인은 등록·미등록 인구를 합산하면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09년 1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 숫자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한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전체 인구의 2% 내외에 불과한 외국인 숫자는 미국(12.9%)이나 영국(9.7%)처럼 상대적으로 성숙한 다인종 사회, 복합민족 사회와 비교해 보면 아직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나마 전체 외국인 숫자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 동포'이다.

〈표 2〉 2008년 현재 국내 체재 등록 외국인의 국적별·유형별 분포

국적＼유형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전문인력	기타	합계	비율(%)
한국계 중국인	303,470	35,707	3,792	1,176	18,775	362,920	48.3
중국	22,149	32,080	54,265	5,558	7,702	121,754	16.3
베트남	48,423	27,092	2,840	331	1,162	79,848	10.6
필리핀	27,492	5,819	357	3,802	1,902	39,372	5.2
태국	27,014	2,041	226	268	502	30,051	4.0
인도네시아	26,127	413	353	168	333	27,394	3.6
몽골	13,653	2,325	3,004	533	1,686	21,201	2.8
일본	334	5,223	1,777	3,421	7,496	18,251	2.5
미국	0	1,558	1,075	11,555	14,665	28,853	3.8
기타	0	341	322	130	20,996	21,789	2.9
합계	468,662	112,599	68,011	26,942	75,219	751,433	100
비율(%)	62.4	15.0	9.0	3.6	10.0	100	

(출처: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 제시문 분석

❍ 제시문 [마]

- 국가간 인구 이동은 이주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문화적 다양성을 낳기도 하지만, 국가적·민족적 정체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 제시문 [바]

- 오늘날 국가간 인구 이동이 확산된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심화되고 있는 남북 문제이다.
- 즉, 국가간 빈부격차가 심해짐으로써 저개발국 사람들이 더 낳은 삶의 기회를 찾아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 1970년대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간 인구 이동의 주요 흐름을 보여주는 그림

❍ 제시문 [사]

-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 사회가 가져올 창의성과 개방성이 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라는 논의가 있다.
- 즉, '다문화'를 '문제'가 아니라 '활용'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 하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 성숙한 다인종 사회, 복합민족 사회와 비교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 2008년 현재 국내 체재 등록 외국인의 국적별·유형별 분포를 나타낸 도표

■ 논제 분석

• **논제 :** 제시문 [사]에서 논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 현상의 주된 특징에 대하여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단, 제시문 [바]의 논의와 〈표 2〉의 내용을 활용하시오.(600자 이내, 40점)

what	how
- 오늘날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 현상의 주된 특징에 대하여	논술하라.

• **요구사항(requirement)**

-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 논술하라.

- 제시문 [바]의 논의와 〈표 2〉의 내용을 활용하라.
- 600자 이내로 답하라.

❍ 먼저 제시문 [사]에서 논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 다문화 사회화 현상의 주된 특징을 찾아내야 한다.
- 제시문 [사]에서는 외국인의 증가를 기회의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또한, '다문화'를 '문제'가 아닌 '활용'의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다.
- 그러나 아직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요구사항에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 논술하라고 했다.
- 제시문 [마]의 관점은 '국가간 인구 이동은 이주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문화적 다양성을 낳기도 하지만, 국가적·민족적 정체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이다.

❍ 그리고 제시문 [바]의 논의와 〈표 2〉의 내용을 활용하라고 했다.
-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논술의 논거로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 즉, 제시문 [바]에서 논의하고 있는 '남북문제의 심화로 인하여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동이 활발하다.'라는 논점과
- 〈표 2〉의 현재 국내 체제 등록 외국인의 국적별·유형별 분포에 나타난 특징을 논거로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 예시 답안

세계화 시대 국가간 인구 이동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화는 전 지구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는 비교적 늦은 편이고 아직은 그 규모도 적은 편인데, 주된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입 인구 유형에서 노동자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개발국가로부터 취업 이민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이것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범주에 들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 동포'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유입 인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다양성 면에서도 실질적인 타인종, 타민족 인구의 비중은 훨씬 작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로부터 유입된 인구 중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순노동자 유형임에 비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유입된 인구는 결혼 이민이나 전문 인력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여 극히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한국 체류 외국인 인구의 이러한 특성으로 볼 때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는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지만, 규모와 다양성 면에서 향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 장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597자)

6 덕성여자대학교

가. 개 요

■ **분석대상 : 2010학년도 수시 2차 공통문항 및 사회계열 전공문항 문제**

■ **시험시간 : 120분**

■ **문 항 수 : 공통 2문항, 전공 2문항**

■ **답안 분량 : 문항 당 500자 이내, 총 2,000자 이내**

■ **평가 기준**

❍ 공통 1 : 맹자와 순자의 공자 이해방식의 특징을 주어진 문장 [나]안에서 분석적으로 읽어내어, 주어진 논어의 문장 [가] 가운데에서 같은 특징을 보여주는 것을 찾아내고, 다시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 따라 [다]에서 맹자와 순자의 글을 가려내는 능력을 시험하는 문제입니다.

❍ 공통 2 : 글 [가]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가능한 가장 주요한 근거는 인간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정서와 사상이 가장 한국적인 동시에 가장 세계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과 가장 세계적인 것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묻기 위해 논거로 적절치 못한 글을 지문으로 제시한 다음 그 이유를 써 보라는 형태로 문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 전공 문항 : - 제시된 첫문장에 이어 이어진 글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가?
-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논리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갖추었는가?
- 제시된 글을 단순히 요약하기 보다는 자신의 독특한 논리 전개와 비판적 사고에 근거하여 답안을 작성하였는가?

나. 제시문 및 논제 분석

▌ 문항

❍ 공통 문항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하시오.

[가] 논어(論語)에서 발췌한 공자(孔子)의 언명

(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仁)이 멀리 있는 것이냐? 내가 인(仁)을 바라기만 하면 인(仁)은 바로 곁에 있다" 라고 하시었다. (『논어(論語)』「술이편(述而篇)」)

(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지위(地位)에 있지 아니하면 그 정사(政事)를 꾀하지 아니한다" 고 하시었다. (『논어(論語))』「태백편(泰伯篇)」)

(3) 자공이 묻기를, "향인(鄕人)이 모두 다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진정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없다" 하였다. 이에 자공이 다시 묻기를 "향인이 모두 다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진정 나쁜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 향인 가운데 착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지만, 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시었다. (『논어(論語)』「자로편(子路篇)」)

(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賜)야! 너는 나를 많이 배워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라고 생각하느냐?"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나는 한 가지 이치로 모든 일을 관통한다(일이관지: 一而貫之)" 하시었다. (『논어(論語)』「위령공편(衛靈公篇)」)

[나] 맹자(孟子)와 순자(荀子)의 철학적 입장을 보여주는 문장 발췌문

(A) 『맹자(孟子)』 발췌문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모질지 못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 누구라도 깜작 놀라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생기기 때문이다.... " (『맹자(孟子)』「공손추장구(公孫丑章句上)」)

"자신의 마음(심(心))을 극진히 한 사람은 자신의 본성(성(性))을 알게 되고, 본성을 알게되면 하늘(천(天))을 알게 된다."(『맹자(孟子)』「진심장구상(盡心章句上)」)

"만물의 이치가 모두 다 내게 갖추어져 있다. 자신을 돌이켜 성실하면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고, 충서의 도를 힘써 실행하면 인(仁)을 구하는데 그보다 더 가까운 길이 없다."(『맹자(孟子)』「진심장구상(盡心章句上)」)

(B)『순자(荀子)』발췌문

"도(道)라는 것은 정치를 하기 위한 상법조리(常法條理)이다. 그리하여 마음이 도에 합치하고 설명이 마음에 합치하고 언사가 설명에 합치해서, 명칭을 올바르게 하여 회합하고 실정(實情)에 근거하여 이해시켜, 사물의 상이함을 분별(分別)하여 잘못이 없고 동류(同類)를 미루어 밝혀서 어긋나지 않는다. ... 중략 ... 그러므로 사설(邪說)이 정론(正論)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백가(百家)의 잡설자(雜說者)들도 도망가 숨을 곳이 없게 된다."(『순자(荀子)』「정명편(正名篇)」)

"인도(人道)에는 분별이 없을 수 없다. 분별에는 신분(分)이 가장 중대하고, 신분에서는 예(禮)가 가장 중대하고, 예(禮)에서는 성왕(聖王)이 가장 중대하다."(『순자(荀子)』「비상편(非相篇)」)

[다] 맹자(孟子)와 순자(荀子)의 언명들

(a) 하늘에는 하늘의 절기가 있고, 땅에는 땅의 자원이 있고, 인간에게는 이들을 다스릴 능력이 있다. 무릇 이것이 셋일 수 있다는 말이다. ... 중략 ... 사람들은 모두 생성된 자연현상은 알지만, 무형한 그 과정자체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것을 일컬어 하늘의 기능이라고 한다. 오직 성인만이 하늘을 알려고 추구하지 않는다.

(b) 사람마다 입은 맛에 대해서 동일한 기호가 있고, 귀는 음악에 대해서 동일한 청각이 있고, ... 중략 ... 그렇다면 마음만 유독 동일한 점이 없겠는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동일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도리(이(理))요 의리(의(義))인 것이다.

(c) 이름을 제정하여 실상을 지칭하게 하여, 위로는 귀천의 구별을 밝히고, 아래로는 동이를 변별한다. 귀천의 구별이 밝혀지고 동이가 변별되면, 뜻이 전달되지 못할 염려가 없고, 일이 막히고 안 되는 재앙이 없게 된다.

(d) 아랫 사람이 웃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귀한 사람을 귀하게 하는 것이라 하고,

웃사람이 아랫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어진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이니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나, 어진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나 그 뜻은 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맹자(孟子)는 이른바 유가의 이상주의자로서 인간의 내적 본성이 선(善)하다는, 즉 성선(性善)의 공통성을 강조하면서 공자(孔子)의 사상을 도덕주의적 관점에서 해석 계승한 반면, 순자(荀子)는 유가의 현실주의자로서 일정하게 정해진 외적 강제 규범의 성격을 지닌 예(禮)의 실행을 통해 도덕적 질서가 구현된 사회, 즉 공자(孔子)가 꿈꾸었던 주(周)나라의 문화 제도적 가치 실현을 전국시대 말의 시대상황에 맞추어 구현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에 주어진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시오.

[문제 1] [가]는 논어에서 발췌한 문장들이고, [나]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맹자와 순자의 입장이 담긴 문장이다. [가]의 문장 가운데 맹자와 순자가 자신의 공자 계승 입장을 정당화하고자 할 때 각기 상대적으로 보다 더 친근하게 취하고자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장들을 맹자와 순자의 진술 (A)와 (B)의 내용에 근거하여 모두 적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30~250자, 50%)

[문제 2] [다]의 문장들은 맹자와 순자의 진술을 임의로 나열한 것이다. 이 가운데 맹자의 진술로 보이는 것과 순자의 진술로 보이는 것을 가려 묶고 그 이유를 주어진 문장 내용 분석을 통해 설명하시오. (230~250자, 50%)

❍ **공통 문항 2**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하시오.

[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다. 피상적으로 보면 한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은 양립하기 어렵다. 한국적인 것은 한국만의 특수한 것이고 세계적인 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두루 통하는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장 한국적인 것은 보통의 한국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로 한국적인 것이고, 가장 세계적인 것은 보통의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로 세계적인 것이다. 그러나 극과 극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는 궁극적으로 같은 것에 도달하게 된다. 이 극과 극은 어떤 관점에서 만나는 것일까?

[나] 지금부터 1백 여 년 전에 서양 문물이 밀려들 때 우리 선조들이 이 물결을 외면했던 것과 달리 이웃 일본은 발 빠르게 세계화를 추진하여 짧은 시간에 국력을 키워 나갔다. 그 시대의 세계화의 핵심은 앞선 외국 문물을 학습하고 수용하여 소화시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백 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또 다른 세계화 물결에 직면해 있다. 단순히 남의 것을 배워 소화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가 남과 함께 살아가는 적극적 진출로 삶의 터전을 세계화하는 것이다. 국경의 의미가 흐려지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온 세계를 삶의 공간으로 삼아 다른 나라에 나가 공장도 짓고, 회사도 차리고, 연구소도 만들고,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지어야 한다. 전자를 제1의 세계화라 한다면 후자를 제2의 세계화라 할 만하다.

이른바 제2의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은 개별 국가의 국민 의식이 아니라 보편적 세계 시민 의식도 갖추어야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가치 질서에도 익숙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도 고치고 누구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나라 안의 제도도 세계화에 불편이 없도록 고쳐나가야 한다. 경제 체제, 교육 내용, 법과 제도, 기업가의 자세 등을 모두 세계화를 전제로 고쳐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의 평가 기준도 세계화를 염두에 두고 설정되어야 한다.

[다] 악마가 둔갑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비둘기와 어린 양이라는 속담이 있는 걸 보면 서양에서의 비둘기의 이미지는 좋은 편이다. 이 세상의 악을 쓸어내는 대홍수 때 노아가 방주에서 날려 보낸 비둘기가 올리브 나뭇가지를 물고 날아옴으로써 평화로운 신천지가 왔음을 알렸다는 것, 요르단 강에서 예수가 세례를 받자 하늘이 갈라지며 신령이 비둘기 형상을 하고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는 것 등에서 성서 속 비둘기의 긍정적 이미지를 가늠할 수 있다. 불경 속의 비둘기 이미지도 긍정적이다. 석가모니가 비둘기로 변신해 속임수를 쓰다 반죽음을 당하는 까마귀를 구제하는 불경 이야기가 이를 대변해 준다.

한편 중국의 비둘기 이미지는 부정적이다. 비둘기는 자기 살 집을 스스로 짓지 않고 이미 나 있는 나무 구멍이나 까치 집을 점거하여 산다 하여 나쁜 여자를 비둘기에 빗대기도 한다. 우리나라 민화에서도 비둘기는 긍정적으로 그려지지 않았다. 숲 속에 살던 까치와 꿩과 비둘기가 흉년이 들어 쥐 서방 집으로 양식을 구걸하러 갔다가 겸손하게 군 까치는 양식을 얻어 온 반면, 꿩과 비둘기는 쥐 각시에게 거만하게 굴다가 부젓가락으로 매만 맞게 되었는데, 볼을 맞은 꿩은 볼이 붉게 되었고 머리를 맞은 비둘기는 머리가 파랗게 되었다고 한다.

[라] 우리나라의 옛날 며느리들이 부엌 강아지란 걸 애지중지 길렀던 시절이 있었다.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약자인 강아지에게 발산함으로써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지메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이지메란 집단적으로 특정한 아이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행위를 통해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지메는 세계 공통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서양에 '원숭이 우리 속의 돼지'란 속담이 있다. 동네북처럼 억울하게 이유 없이 당하는 것을 빗대는 말이다. 원숭이 우리에 돼지를 넣어 기르면 원숭이끼리의 싸움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한다.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우둔하고 행동이 느린 돼지에게 그 화를 발산해 버리기 때문이다.

[문제 1] 글 [가]를 서론으로 하는 글을 쓰기 위해 여러 문건으로부터 글감을 수집하였다가 글감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한 것이 [나]~[라]이다. 이것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쓰시오. (180~200자, 40%)

[문제 2] 글 [가]를 서론으로 해서 본론을 작성한다고 할 때, 본론에 들어갈 내용을 요약해서 쓰되 반드시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쓰시오. (280~300자, 60%)

❍ **사회 전공 문항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일부러 여론을 조롱하는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여론을 조롱한다는 것은 전도된 방식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론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정말로 여론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하나의 힘이자 행복의 원천이 된다. 지나치게 인습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사회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사회이다. 각자의 성격이 개성적으로 발전되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개성이 유지된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의 복사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나] 아무리 많은 다수라 하더라도 각자 자신의 판단과 욕구에 따라 움직인다면 공동의

적에 대한 방위를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며, 상호간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호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가진 힘을 최대로 발휘하는 방법에 관한 의견이 제각각일 경우에는 서로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고, 무익한 내부대립으로 말미암아 힘을 소진하게 된다. 따라서 극소수가 단결한 집단과 대적해도 쉽게 제압당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 적이 없을 때에는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내란이 벌어진다. (중략) 단일한 판단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일회의 전쟁이나 전투에서처럼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존재한다면 인간이 원하는 안전은 확보되지 않는다.

[다] 장자는 자연과 인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소와 말은 네 다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자연적이며, 말 머리에 멍에를 얹고 소의 코에 고삐를 꿰는 것은 인위적이다." 요컨대 만물은 제 각기 나름의 타고난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각자가 그 본서에 따를 때 모두 행복할 수 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한다. "오리 다리가 비록 짧지만 이어주면 걱정거리가 되고, 학의 다리가 길지만 끊으면 슬픈 일이다. 본래부터 긴 것을 잘라서도 안되고, 본래부터 짧은 것을 이어서도 안된다." 장자는 만물을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자연에 내어 맡겨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라] 시민들이 공공업무에 종사할 생각을 갖지 않을 때, 그리고 여가시간을 공적 의무에 바치려 하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게 될 때, 정부의 자리는 말하자면 공석이 된다. 이처럼 심각한 때에 어떤 유능하고 야심적인 사람이 최고통치권을 장악하게 되면, 그는 권리침해의 길을 찾아낼 것이다. 만약 그가 얼마간 국가의 물질적 번영에 신경을 쓰기만 하면, 더 이상 그에게 요구되는 바가 없을 것이다. 물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유 자체가 개인 복지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자유의 혼란이 개인 복지를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중의 소요에 관한 아무리 작은 소문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사소한 쾌락에 젖어 있는 개인생활에 파고들면,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들고 놀라게 된다. 무정부상태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그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들은 언제나 소요가 일어나자마자 그들이 누리는 자유를 포기해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마] 이상적으로 엄격한 아버지는 가정을 보호하고 부양하며, 자신의 권위를 잘 발휘하고, 절제 있고 도덕적이며, 예의 바르고 순종적인 자녀를 길러 낼 것이다. 이 자녀는 세계에 잘 적응하며 스스로 엄격한 아버지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엄격한

아버지는 결코 자녀를 응석받이나 버릇없는 아이로 만들지 않고, 나약함이나 우유부단함을 보여주지도 않으며, 자신의 권위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조종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가정 모형에 내포되어 있는 사랑의 실체이다.

[문제 1] 위의 제시문들은 개인과 사회간의 관계에서 개인중심적 혹은 집단중심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위 제시문들을 두 입장에 기초하여 구분하고, 그 이유를 자기 글로 서술하시오. (225 – 250자, 50%)

[문제 2] 주어진 제시문들의 내용을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입장에 상충되는 입장을 비판하시오. (225 – 250자, 50%)

❍ **사회 전공 문항 2**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소비자들이 아무도 사전에 예약하지 않아도 백화점에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상품을 살 수 있고,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도 상품이 팔리지 않아 몽땅 쓰레기로 버리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대도시에서 점심시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동시에 식당에 예약을 하지 않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 식당으로 가지만, 큰 혼란 없이 자기가 원하는 식사를 해결하고 직장으로 돌아온다. 아무도 법으로 강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같은 대도시에 하루도 빠짐없이 방대한 양의 식료품이 공급되고, 사람들이 살 집을 짓고, 아침마다 가정에 신선한 우유가 어김없이 배달된다.

[나] 목이 긴 기린이 그보다 목이 짧은 기린들을 굶어 죽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린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굶어 죽어가고 있는 목 짧은 기린의 고통과 목이 긴 기린의 과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시대의 악은 위험, 불확실성, 그리고 무지의 결과인 것이다. 대기업을 경영하는 몇몇 사람들은 타인의 무지와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이윤을 획득하고, 그 결과 부는 불공평하게 배분된다. 이에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기보다는 정부가 개입하여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용하도록 적절하게 규제한다면,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자본주의체제는 그 어떤 다른 형태의 경제체제보다도 가장 능률적인 경제체제인 것 같다.

[다]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시장지향과 성장우선으로 설정하고 이에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소득분배를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시장경제에 충실한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시장지향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고용확대를 하는 것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부의 소수 집중과 빈곤의 확대, 실업자의 범람,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급적 대립의 격화 등으로 자본주의 구조적 모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 빈곤 등이 개인의 무능과 나태의 탓으로 돌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회 구조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빈민을 구제하고 국민에게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일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결국 국가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마] 분배를 통한 성장은 허구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분배를 강조할 경우, 성장과 분배는 동시에 달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성장이 멈추거나 후퇴할 수 밖에 없다. 또 분배를 강조할 경우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역설적인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는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부익부 빈익빈 체계가 아니다. 오히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부유해질 수 있는 체제이다. 분배를 통한 성장은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실제로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가난으로 이끌 뿐이다.

[바] 오늘날 경제문제는 우선적으로 소비의 부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문제는 소비의 부진이 가계소득의 전반적인 저하가 아니라, 소득분포의 악화에서 기인되었다는 점이다. 소득분포가 나빠진 원인은 소득의 분배 악화 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조직 노동자와 비조직 노동자 등에서 나타나는 소득격차의 악화가 소비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어느 나라에서나 성장은 분배를 필요로 하고 분배를 위한 부는 성장을 통해 축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서 분배는 가장 중요한 성장전략이다.

[사] 천지는 사물들을 저절로 그러도록 내버려두고, 무언가를 하는 것도 없고 만드는 것도 없지만 만물은 저절로 질서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편애하지 않는 것이다. 땅은 짐승을 위해 풀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짐승은 그 풀을 먹고, 사람을 위해 소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소를 잡아먹듯이 만물에 대해서도 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만물은 그 각기 그 용도를 만나면 각자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수 없다.

[문제 1] 제시문은 경제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제시문 [가]에 부합하는 제시문들과 이에 대립되는 제시문들을 둘로 나누어, 관점별로 연결시켜 특징을 기술하고, 두가지 관점에 대한 조화방안을 제시하시오. (270 – 300자, 60%)

[문제 2] 제시문 [마]와 [바] 중, 동의하는 한 관점을 택하여 다른 관점을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180 – 200자, 40%)

분석

❍ 공통 문항 1-1

• **발문 :** [문제 1] [가]는 논어에서 발췌한 문장들이고, [나]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맹자와 순자의 입장이 담긴 문장이다. [가]의 문장 가운데 맹자와 순자가 자신의 공자 계승 입장을 정당화하고자 할 때 각기 상대적으로 보다 더 친근하게 취하고자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장들을 맹자와 순자의 진술 (A)와 (B)의 내용에 근거하여 모두 적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논제 분석	
what	how
[가]의 문장 가운데 맹자와 순자가 자신의 공자 계승 입장을 정당화하고자 할 때 각기 상대적으로 보다 더 친근하게 취하고자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장들을 맹자와 순자의 진술 (A)와 (B)의 내용에 근거하여 모두 적시	이유를 설명하시오.

• **요구사항(requirement)**

– 맹자와 순자의 진술 (A)와 (B)의 내용에 근거하여 모두 적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나]의 맹자 문장에서는 인간의 내적 본질과 그 공통성을 전제하고 이를 외적인 천으로까지 확대 보편화하는 맹자의 논의 방식을 피시험자가 읽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순자의 문장에서는 유가적 덕목 즉 예의 사회적 실현을 위한 이성적 분별 기능과 분별된 대상들의 엄격한 분리 구분을 강조하는 순자의 논의 방식을 읽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 공통 문항 1-2

• **발문 :** [다]의 문장들은 맹자와 순자의 진술을 임의로 나열한 것이다. 이 가운데 맹자의 진술로 보이는 것과 순자의 진술로 보이는 것을 가려 묶고 그 이유를 주어진 문장 내용 분석을 통해 설명하시오.

논제 분석	
what	how
맹자의 진술로 보이는 것과 순자의 진술로 보이는 것을 가려 묶고 그 이유를	주어진 문장 내용 분석을 통해 설명하시오.

• **요구사항(requirement)**

– 맹자의 진술과 순자의 진술 구분

– 이유 설명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장 내용 안에서 위와 같은 특징이 나타남을 분석적으로 규명 서술해야 합니다.

❍ 공통문항 2-1

• **발문 :** [문제 1] 글 [가]를 서론으로 하는 글을 쓰기 위해 여러 문건으로부터 글감을 수집하였다가 글감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한 것이 [나]~[라]이다. 이것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쓰시오.

논제 분석	
what	how
[나]~[라]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이유	무엇인지 쓰시오.

• **요구사항(requirement)**

– 글감으로 부적절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 이 문항은 가장 한국적인 것과 가장 세계적인 것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묻기 위해 논거로 적절치 못한 글을 지문으로 제시한 다음 그 이유를 써 보라는 형태로 문제를 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나]~[라]가 글감으로 부적절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공통문항 2-2

• **발문 :** 글 [가]를 서론으로 해서 본론을 작성한다고 할 때, 본론에 들어갈 내용을 요약해서 쓰되 반드시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쓰시오.

논제 분석	
what	how
본론에 들어갈 내용을 요약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쓰시오.

• **요구사항(requirement)**

– 반드시 구체적 사례를 포함하여 써야 한다.

• 이 문항은 문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라고 요구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예시가 포함되었는지, 또 그 예가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써야 한다.

❍ 전공 문항 1-1

• **발문 :** 위의 제시문들은 개인과 사회간의 관계에서 개인중심적 혹은 집단중심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위 제시문들을 두 입장에 기초하여 구분하고, 그 이유를 자기 글로 서술하시오.

논제 분석	
what	how
제시문들을 두 입장에 기초하여 구분하고, 그 이유를	자기 글로 서술하시오.

• **요구사항(requirement)**

– 구분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자기 글로 서술하시오.

• 이 문항은 개인중심적 입장과 집단중심적 입장으로 나누어야 한다. 나누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이러한 문항은 나누는 과점이 바로 정답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선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반드시 구분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자기의 관점으로 서술해야 한다.

❍ 전공 문항 1-2

• **발문 :** 주어진 제시문들의 내용을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입장에 상충되는 입장을 비판하시오.

논제 분석	
what	how
제시문 [가]의 입장에 상충되는 입장을	비판하시오.

• **요구사항(requirement)**

– 주어진 제시문을 활용하여 [가]의 입장에 상충되는 입장을 비판하라.

• 글 [나]의 경우 국가중심적인 질서유지와 이를 통해 개개인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글 [라]에서 주장하는 집권적 권력의 타락과 이러한 권력에 대한 개인권리의 침해 가능성, 그리고 자유를 통한 개인복지 증진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비판해야 한다.

❍ 전공 문항 2-1

• **발문 :** 제시문은 경제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제시문 [가]에 부합하는 제시문들과 이에 대립되는 제시문들을 둘로 나누어, 관점별로 연결시켜 특징을 기술하고, 두가지 관점에 대한 조화방안을 제시하시오.

논제 분석	
what	how
제시문들과 이에 대립되는 제시문들을 둘로 나누어, 관점별로 연결시켜 특징을 기술하고, 두가지 관점에 대한	조화방안을 제시하시오.

• **요구사항(requirement)**

– 관점별 특징 기술

– 조화방안 제시

• 이 문항은 성장중심론과 분배중심론으로 나누어 관점별 특징을 기술하고 두 관점이 조화 방안을 제시하는 문항이다.

❍ 전공 문항 2-2

• **발문 :** 제시문 [마]와 [바] 중, 동의하는 한 관점을 택하여 다른 관점을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논제 분석	
what	how
동의하는 한 관점을 택하여 다른 관점을 비판적	논하시오.

• **요구사항(requirement)**

– 반드시 한 관점을 선택하여 다른 관점을 비판하여야 한다.

• 이 문항은 반드시 한 관점을 선택하여 다른 관점을 비판하는 문항이다. 수험생들이 오류 중 하나는 이러한 문제에서 종합적 관점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논제에 벗어난 사고이다. 따라서 문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술해야 한다.

제시문 출처

공통 문항1

[가]『논어』, [나]『맹자』, [다]『순자』

전공 문항 1

[가] 러셀,「행복의 정복」

[나] 홉스의 견해

[다] 표정훈,「하룻밤에 읽는 동양사상」

[라] 토크빌,「미국의 민주주의 II」

[마] 레이코프,「자유전쟁」

다. 답안 예시

공통 문항 1

[문제 1]

문제 1에서 맹자 선호 문장은 (1)과 (4)를, 순자 선호 문장은 (2)와 (4)를 적시하여 그 이유를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그들이 고교과정에서 배운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 성악설의 성립의 내적 논리 근거로 그 설명을 확대 적용하는 시도가 있는지에 대해 논술해야 한다.

[문제 2]

문제 2의 답으로 맹자의 진술은 (b)와 (d)이며, 순자의 진술은 (a)와 (c)입니다. 피시험자는 (b)와(d) 그리고 (a)와 (c)에 주어진 문장 내용 안에서 위와 같은 특징이 나타남을 분석적으로 규명 서술해야 한다.

공통 문항 2

[문제 1]

[나]~[라]는 [가]의 글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사용되기에 부적절한 것들입니다. 우선 [나]는 우리의 것은 괘념치 않고 세계화를 위해 우리가 변화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주장만 있으므로 좋은 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는 공통적·보편적 문화의 예가 아니므로 한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의 보편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라]에서 언급된 한국의 부엌 강아지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부엌 강아지를 포함한 이지메는 반사회적 행동 양식이기 때문에 세계화하기에 적합한 한국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 2]

가장 한국적인 것과 가장 세계적인 것은 얼핏 극과 극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글은 극과 극이 통하게 되는 원리를 잘 보여 줍니다.

"여기에 문화의 묘리(妙理)가 숨어 있다. 보통의 토착화는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면서 사라진다. 보통의 세계화 역시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나 가장 토착적인 것은 가장 오래 살아남은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인습으로 살아남고 단순히 타성으로 이어져 온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기본 생활과 밀착돼 있고, 사람들의 기본 가치와 일치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존속되고 유지되어 온 것이다. 가장 토착적인 것은 사람들의 기본 요구에 가장 상응하고 기본 정신에 가장 일치하는 것이다. 가장 토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상과 같은 논리를 포함하고 있으면 일단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라고 요구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예시가 포함되었는지, 또 그 예가 적절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전공 문항 1

[문제 1]

개인중심적 입장: 글 [가], 글[다], 글[라]

- 글 [가]: 글[가]는 러셀의 견해로 '여론'이라는 미명의 사회적 자유가 상실된 획일적 사고를 경계하고 있음(러셀, 「행복의 정복」, p. 148).

- 글 [다]: 장자는 인위적인 판단기준보다는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강조함(표정훈, 「하룻밤에 읽는 동양사상」, p. 45).
- 글 [라]: 시민들이 소비 욕구로 대표되는 사적 영역에 머물게 됨으로써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결과 집단주의적인 국가나 사회가 출현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II」, pp. 708-709) "지도자는 개인들의 권리 침해의 길을 찾아낼 것이다". "자유자체가 개인복지의 증진에 도움이 되기도 전에..." 등의 표현은 저자의 개인중심적 입장을 보여줌.

집단중심적 입장: 글 [나], 글[마]

- 글 [나]: 홉스의 견해로 개개인이 주권을 양도하여 신화에 나오는 괴물과 같은 리바이어던을 만들어 사회의 안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임.
- 글 [마]: 이는 자유주의를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견해로 국가의 전형을 엄격한 가부장적 가정에 비유함(레이코프, 「자유전쟁」, p. 121).

[문제 2]

글[가]와 상충되는 입장은 글[나]와 글[마]임. 글 [나]의 경우 국가중심적인 질서 유지와 이를 통해 개개인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글은 무엇보다 개인의 안전보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글[가]와 [다]에서 지적하는 사회적 다양성과 개성을 통한 자아실현, 그리고 글 [라]에서 주장하는 집권적 권력의 타락과 이러한 권력에 대한 개인권리의 침해 가능성, 그리고 자유를 통한 개인복지 증진을 간과하고 있다.

글[마]의 경우도 타인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부장적 권력의 개인권리 침해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글[가]는 다수의 의견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의 개성을 가진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언급하고 있음.

글[나]는 획일적인 기준이 자연 질서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있음.

글[라]는 집권적 권력의 타락 가능성과 물질만능주의 조장, 그리고 개인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인복지에 기여하지 않아도 됨을 지적하고, 자유가 줄 수 있는 개인 복지 증진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음.

전공 문항 2

[문제 1]

근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했다. 이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경쟁을 허용하고, 이 경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은 시장에서 보상을 받았다. 자신이 남보다 더 나은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인해 사람들은 노력했고, 그 결과 사회 전체의 부는 증가했다. 그러나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한 결과, 경제적 형평성차원에서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희생이 따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 국가는 개인의 창의성과 노력에 따른 결과를 보장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경제적 형평성측면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시문 [가],[다],[마],[사] :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강조: 성장중심론

경제문제는 주로 시장이 해결한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지, 또 어떻게 생산하고 분배할지 결정한다. 시장경제체제하에의 정부의 역할은 각 경제주체의 선택에 간섭하지 말고, 개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제시문 [나],[라],[바] :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강조: 분배중심론

1929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자동조정능력과 자유방임사상에 대한 믿음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케인즈는 각 경제주체가 합리적으로 행동하더라도 경제 전체로는 시장실패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완전고용의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 비버리지는 빈부 격차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본주의의 체제적 문제점을 완화하는 방편으로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를 역설하였다.

[문제 2]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은 나누어 줄 수 있는 빵을 먼저 크게 만들자는 것으로 효율성을 중시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분배를 중요시 하는 정책은 빵의 크기보다는 각자

에게 돌아갈 분배의 몫을 먼저 고려한다. 빵이 아무리 커져도 상대적으로 자기 몫이 작아지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성장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경제의 효율성을, 분배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경제의 형평성을 추구한다. 성장중심론에서는 경제 성장을 통해 소득분배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배 중심론에서는 경제 성장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분배의 악화가 결국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7 동국대학교

가. 개 요

■ **분석대상 : 2010학년도 수시 1차 인문계열 문제**

■ **출제유형 : 통합교과형중 자료제시논술형**

■ **시험시간 : 150분**

■ **문 항 수 : 3문항 4문제**

■ **답안 분량 : 전체 답안 분량은 최대 2000자 이내**

■ **출제 방향 및 지침**

- 다양한 내용의 제시문이 여러 개 제공(텍스트, 표, 그래프, 그림 등 활용)
- 1문항 다 논제 형식
- 교과 내용의 비중 강화
  - 교과서의 지문 직접 활용, 교과서 외 지문의 경우도 교과 내용과 관련된 주제로 설정
  - 자연계의 경우 수학과 과학 교과 내용을 통합, 과학 교과 중 두 과목 통합한 문제 유형 출제
  - 시사문제의 경우 지식을 평가하는 문제 보다는 적용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출제
- 문제 유형의 다양화 등
- 인문계열 : 전체 제시문중 1개 정도의 영어지문 활용
- 자연계열 : 수리논술 1문제 출제가능(영어지문 없음)

■ 평가 기준

구 분	평 가 기 준	
내용	논제 적합성	• 문제 및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주제와 관련된 핵심 용어 및 문장의 사용
	창의적 사고	• 문제발견 및 해결능력 • 주관적인 입장과 견해 제시
형식	표현능력	• 논리적 일관성과 통일성 • 표기법 준수
채점방식	• 모집단위별 채점 • 채점위원간 채점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가)채점 실시 • 채점위원 3인 채점후 합산평균	
문항별 배점부여	• 7점척 등급평가	

나. 제시문 및 논제 분석

■ 문항 1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물 세계에는 적자(適者)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진화론적 사고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형태나 행동이 있다. 예컨대 공작의 화려하고 큰 꼬리나 가젤(gazelle)의 뛰어오르기 행동은 해당 개체로 하여금 약탈의 위험에 노출시키거나 애써 얻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 수 있다. 동물학자 자하비(Amotz Zahavi)는 외견상 낭비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형태나 행동이 진화론적으로 발전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핸디캡 원리'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집단선택 가설에 의하면 가젤의 뛰어오르기 행동은 약탈자의 출현을 다른 개체들에게 알리거나 약탈자를 혼란시키는 집단적 행동이 되지만, 자하비에 의하면 그러한 행동은 자신이 다른 가젤보다 더 빨리 도망칠 수 있을 만큼 건장함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을 먹잇감으로 쫓아오지 말라는 신호가 된다. 자하비는 이러한 과시를 그 비용 때문에 신뢰성이 생겨나는 신호의 일종으로 본다.

신호란, 발신자나 그 환경의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인지가능한 행위나 형태이다. 핸디캡 원리는, 신호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그 신호의 속성과 관련된 비용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러한 속성을 과시할 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신호를 내보냄으로써 그 속성을 구비하지 못한 개체에게 핸디캡이 생기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한 속성과 연결된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높은 비용이 수반되는 신호를 '평가신호'라 하는데, 신호와 속성이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속성의 과시가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고비용신호'로, 그 신뢰성은 속성을 과시하는 행위 자체로부터 생겨난다. 고가의 장신구 착용은 재력이 요구되는 고비용신호이다. 다른 하나는 신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뿐만 아니라 신호와 속성 간의 내적 연관이 반드시 요구되는 '지표신호'인데, 그 신뢰성은 신호와 속성 간의 이러한 내적인 연관성에서 비롯된다. 난이도 높은 운동을 잘하는 것은 발달된 운동신경을 필요로 하는 지표신호이다.

평가신호와는 달리 신호와 속성의 관계가 관례에 따르는 신호를 '관례신호'라 한다. 관례신호는 신호와 속성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신호의 신뢰성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신입생이 헤겔이나 라캉의 저작을 들고 다니면서 지식인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자전거 초보자도 헬멧과 복장을 갖춰 입으면 사이클 선수처럼 보일 수가 있다. 서적이나 장비를 위한 경제적 비용이 다소 들기는 하지만 신호의 속성, 즉 지식수준이나 사이클 능력과 관련된 어떤 비용도 들어가지 않는다.

[나] Conspicuous* consumption of valuable goods is a means of reputability* to the gentleman of leisure. As wealth accumulates on his hands, his own unaided effort will not avail to sufficiently put his opulence* in evidence by this method. The aid of friends and competitors is therefore brought in by resorting to the giving of valuable presents and expensive feasts and entertainments. Presents and feasts had probably another origin than that of naive ostentation*, but they acquired their utility for this purpose very early, and they have retained that character to the present; so that their utility in this respect has now long been the substantial ground on which these usages rest. Costly entertainments, such as the potlatch* or the ball*, are peculiarly adapted to serve this end.

* conspicuous 과시적인, reputability 좋은 평판, opulence 부(富), ostentation 겉치레, potlatch 선물 파티, ball 무도회

– Thorstein Veblen,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문제 1] 제시문 [가]의 신호의 유형을 '핸디캡 원리'를 중심으로 요약 · 정리하시오.

〈250~350자〉 [15점]

[문제2] 제시문 [나]의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신호의 유형을 제시문 [가]에서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50~400자〉 [20점]

분석

❍ 문제 1

• 출제 의도

비판적 능력이나 창의성보다는 기본적인 독해력, 분석능력, 논리적 사고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제시문의 정보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과, 사례들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가]의 '핸디캡 원리'는 동물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자하비(Amotz Zahavi)가 제시한 가설이고, 신호에 관한 이론은 생물 세계의 의태(mimicry)나 모방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지만, 경제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제시문 [나]의 '과시소비'는 베블렌(T. Veblen)이 제시한 개념으로 오늘날의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명품 열품이나 과소비는 단순한 '구별짓기'가 아니라 지위를 과시하는 신호이며, 계층 간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수록 과시를 위한 비용을 더 들어가기 마련이다.

문제1은 신호의 유형에 대한 논의를 '핸디캡 원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요약하는 문제로, 제시문 [가]의 중심 개념으로 제시되어 있는 '핸디캡 원리'에 대한 설명과 신호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연결시켜 정리해야 한다. '핸디캡 원리'의 핵심은 '신호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그 신호의 속성과 관련된 비용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의 위협과 같은 상당한 어려움(핸디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한 속성을 과시할 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신호를 내보냄으로써 그 속성을 구비하지 못한 개체에게 핸디캡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신호는 신호와 속성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크게 핸디캡 원리를 따르는 평가신호(assessment signals)와 그렇지 않은 관례신호(conventional signals)로 나눌 수

있다. 평가신호의 경우 신호와 속성은 높은 비용(고비용신호)이나 내적인 연관성(지표신호)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관례신호의 경우 신호와 속성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 **발문 :** 제시문 [가]의 신호의 유형을 '핸디캡 원리'를 중심으로 요약 · 정리하시오.

〈250~350자〉 [15점]

논제 분석	
what	how
제시문 [가]의 신호의 유형	'핸디캡 원리'를 중심으로 요약 · 정리

• **요구사항(requirement)**

– 제시문 [가]에 나타난 신호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할 것

– '핸디캡의 원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알아야 함

☞ 제시문 [가]는 크게 핸디캡 원리에 대한 설명과 신호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 1은 신호의 유형을 단순히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핸디캡 원리'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신호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그 신호의 속성과 관련된 비용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핸디캡 원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신뢰성 있는 신호는 높은 비용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과 그 비용이 반드시 신호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꼭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신호의 유형에 관한 내용은 1)신호 유형은 신호와 속성의 관계를 기준으로 구분된다는 점, 2) 신호는 크게 핸디캡 원리를 따르는 평가신호와 그렇지 않은 관례신호로 나뉜다는 점, 3) 평가신호는 다시 고비용신호와 지표신호로 구성된다는 점, 4) 관례신호는 신호와 속성 간의 관계가 없다는 점(또는 자의적)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비용과의 관련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이 신호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평가해서 신호를 구분해야 한다. 즉 비용이 수반되는 동일한 신호라도 비용과 속성 간의 관계에 따라 평가신호가 될 수도 있고 관례신호가 될 수도 있다. 고가의 자전거를 구매하고 화려한 보호 장비를 갖추는 것은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 만일 이를 통해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평가신호가 될 것이고, 사이클링 실력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관례신호가 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 자전거 및 보호 장비 구입 비용이 사이클링 실력과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비용신호와 지표신호는 모두 높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과, 고비용신호와 비교해서 지표신호의 경우가 신호와 속성과의 관계가 더 긴밀하다는 점, 외견상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 비용이 내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관례신호가 된다는 점 등이 언급되면 좋을 것이다.

❍ 문제 2

• 출제 의도

영어 지문은 베블렌(Thorstein Veblen)의 〈유한계급론〉(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의 일부로, '과시소비'의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베블렌에 따르면 유한계급은 부(富)를 축적하는 것만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얻을 수 없고, 부의 과시를 통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호화스러운 연회나 값비싼 선물이 그러한 과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과시소비 현상에서 흥미로운 점은 실리나 실용적 가치를 넘어서는 사치스러움이 바로 효과적인 부의 과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낭비"가 부를 과시하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를 통해 베블렌은 부를 과시하기 위해는 직접적 효용이나 실리를 넘어서는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발문 :** 제시문 [나]의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신호의 유형을 제시문 [가]에서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50~400자〉 [20점]

논제 분석	
what	how
제시문 [나]의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신호의 유형	제시문 [가]에서 찾고, 그 이유 설명

• **요구사항(requirement)**

– 제시문 [나]에 나타난 현상을 정확히 이해할 것

– 관련되는 신호의 유형을 제시문 [가]에서 찾아 적용한 후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힐 것

☞ 제시문 [나]의 현상과 [가]의 신호에 대한 이해를 연결시키는 문제로, 답안은 [나]에 영문으로 제시된 과시소비에 대한 요약적 이해와, 과시소비 현상에 적합한 신호의 유형을 선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나]의 우리말 번역본

"값비싼 재화의 과시소비는 유한계급(상류층)이 좋은 평판(존경)을 얻는 수단의 하나다. 수중에 부(富)를 축적한 유한계급이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만으로는 자신의 풍요(재력)를 남들에게 과시할 수 없다. 값비싼 선물을 주거나 호화스런 잔치와 연회를 베푸는 과정을 통해 동료나 경쟁자의 도움을 받게 된다. 선물과 잔치가 본래는 순수한 과시(겉치레)가 아닌 유래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과시의 효과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런 특성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예전부터 선물과 연회가 부(富)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이유는 바로 이런 효과 때문이다. 선물 파티(포틀래치)나 무도회와 같은 호화스런 연회는 과시의 목적에 특히 적합한 것이다."

영문 제시문 [나]의 경우 요구되는 어휘 수준이 다소 높고 문장 구조가 다소 복잡하지만, '과시소비'에 대한 초보적 이해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내용 이해를 위한 핵심 용어인 'conspicuous consumption'이 지문의 서두에 제시되어 있고, 'conspicuous'라는 어휘에 대한 설명까지 제공되고 있어서, 영어 지문이라는 측면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호와 관련된 비용의 크기와, 신호와 속성 간의 관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과시적 신호와 관련된 비용의 중요성은 제시문 [가]에서 언급되는 '핸디캡 원리'의 핵심이다. '과시소비'의 경우 값비싼 선물이나 호화스런 연회가 신호이고, 그 신호가 표시하고자 하는 속성은 부(富)이다. 값비싼 선물이나 호화스런 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단 평가신호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신호와 속성 간의 관계를 보면, 신호와 속성이 내적 연관성보다는 높은 비용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다. 고가품을 선물로 주는 행위와 사치스러운 연회를 베푸는 행위 자체가 부라는 신호의 신뢰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과시소비 현상은 평가신호 중에서도 '고비용신호'의 예로 볼 수 있다. 부(富)라는 속성과 호화스런 연회라는 신호의 관계는 내적인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표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신호와 속성 간의 관계가 자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례신호로 볼 수도 없다. 제시문 [가]에서 고비용신호의 예로 고가 장신구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과시소비의 신호 유형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

문항 2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다음은 이탈리아 스칼라 극장에서 1904년 초연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Madama Butterfly)〉 제1막의 일부이다.

등장인물: 나비부인, F. B. 핑커톤(미해군 중위), 샤플레스(미국 영사), 고로(중매인)

[가] (언덕 위의 일본 집 바깥 뜰. 배경은 나가사끼의 거리와 바다)

핑커톤: 여자란 것은 어디를 가나 말이 많군. (중략) 세상 어디든지 방랑하는 양키는 위험 무릅쓰고 즐겨 거래해. 큰 모험 속에 닻을 깊이 내리고. 모든 나라의 꽃과 미인을 자기 보물같이 못 잡으면 인생의 가치 없소. (중략) 나는 일본식으로 결혼하여 구백에 구십년을 같이 살기로 했지만 언제든지 원한다면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오. 아메리카 영원하라!

샤플레스: 아메리카 영원하라! 신부는 아름다운가요?

고로: 싱싱한 꽃과도 같다할까? 금빛나는 별과도 같소. 백 원이면 퍽 헐하지요.

핑커톤: 사랑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소. 처음 봤을 때 그 여인의 매력이 날 사로잡았소. 유리를 붙여서 만든 것 같이 그 가냘픈 몸. 병풍 속에 그림과 같은 그녀의 몸가짐. 검게 빛나는 칠흑에서부터 빠져나와 나비같이 훨훨 자유롭게 날다 쉬는 그 자태. 너무나 우아하여 그녀의 날개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나비를 잡고 싶은 큰 충동이 일어났소.

나비부인: (언덕위의 집으로 올라오며) 나는 이 일본에서, 아니 세상 가운데 제일로 행복한 소녀여. 나는 사랑의 복된 부르심을 받고 생사를 판가름하는 문지방에 와 있는 거요. 나는 왔네. 사랑의 복된 부름을 받고서, 사랑의 복된 부름을 받고서 왔노라! (무릎 꿇으며) F. B. 핑커톤, 안녕하십니까?

핑커톤: 올라오기 힘들지요?

나비부인: 결혼할 신부에겐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들지요.

핑커톤: 보통 아닌 인사로군.

나비부인: 더한 인사도 알죠. 당장 듣기 원하시면...

핑커톤: 훌륭하오! 아니 그만.

샤플레스: 미스 버터플라이. 그 이름 잘 어울립니다. 나가사끼 출생이오?

나비부인: 그래요. 한땐 번창한 가문이었죠. (중략) 한때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회오리바람이 세게 불어와서 맘에 없는 기생이 되었소. 더 살기 위하여. (친구에게) 그렇지?

나비부인 친구: (동의하고) 그럼!

핑커톤: 인형 같은 그 몸매와 말씨 내 맘을 태우네.

(결혼식 장면)

고로: (무겁게) 황실의 사무관과 결혼신고 등기인과 일가친척!

핑커톤: 빨리하세. (나비부인과 친구는 머리를 숙이고 사람들은 두 미국인을 진기한 것이라도 보는 듯, 미국인들은 이 광경을 재미난다는 듯 본다) (등기인 등 뒤에 선다) 계약이 깨지면 떨어져나갈 친척들의 행렬이란. 나의 친척될 게 뭔지!

※ 다음은 한 민간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하려다 추락해 80명이 숨지고 139명이 부상당한 사고와 관련한 내용이다.

[나] 사고 후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추락사고의 원인은 짙은 안개로 인해 착륙이 불가능한데도 무리하게 착륙을 강행한 기장의 과실로 밝혀졌다. 비행자료 기록장치 분석에 따르면 사고기는 사고 25분전 위치보고 지점인 리비아의 카드라 상공에서 트리폴리 공항관제소와 교신을 시작, "트리폴리 공항은 안개가 짙게 깔려 있으므로 다른 공항으로 회항을 바란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고, 기장은 계기착륙장치(ILS)가 4개월 전부터 고장이 나 있는 것을 출발하기 전 운항관리사로부터 통보 받아, 보조착륙장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최종 결정권자인 기장은 착륙 강행을 결정, 자신은 조종간을 잡고 부기장에게는 창밖을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시계가 최소한 1,600m 이상 되어야 착륙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그 당시 사고기의 기체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으며 기장은 공항 관제소와 계속 교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관제소는 비행기의 위치만 알려줄 뿐 고도는 알려줄 수 없는 체계여서 고도 판단은 비행기 자체의 계기와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고도계기판을 지켜보고 있던 항공기관사는 활주로가 보이지

않으면 재상승 해야 하는 한계고도 625피트 직전인 800피트로 고도가 내려가자 기장에게 "고도 800피트 입니다"라고 보고했으나, 기장은 이를 묵살했다. 또 블랙박스 분석 결과 사고 7.7초전 조종실내 지상충돌 경보장치가 요란스럽게 울린 것으로 밝혀졌다.

[다] 홉스테드(G. Hofstede)는 문화적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4가지 척도를 제시하였다.

❍ '권력 거리(Power Distance)' 척도

권력 거리 척도는 조직 내 권력의 불평등을 하급자들이 용인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그 값이 높을수록 위계질서가 분명한 사회이며, 그러한 문화에 속한 사람일수록 조직 내의 계층적 질서를 기꺼이 수용한다. 이 척도의 값은 국가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국가 내에서도 조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권력 거리 척도는 사회구조의 불평등 정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척도

불확실성 회피 척도는 구성원들이 예외성이나 모호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이 척도 값이 높은 문화에서는 구성원의 신념과 행동에 대해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여 확실성과 일치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명시하기 위해서 규정이나 법률을 세세하게 만들며, 규범에서 벗어나는 사람이나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프롬(E. Fromm)이 파시즘과 나치즘을 '자유로부터의 도피' 결과로 보았듯이, 이 척도 값이 높은 문화에서는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며,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이분법적인 성향이 강하다. 반면에 그 값이 낮은 문화에서는 그 구성원들 간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고 규범에서 벗어난 개인에 대한 관용성도 더 높다.

❍ '개인주의(Individualism)-집단주의(Collectivism)' 척도

이 척도는 개인주의를 기준으로, 집단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따라서 이 척도의 값이 높은 문화에서는 단체나 조직의 행복보다는 개인의 성취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에 그 값이 낮은 문화는 개인이 가족과 같은 집단이나 조직에 충성하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상호의존적인 문화이다. 구성원의 자아 인식에 있어 '나' 혹은 '우리' 중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개인주의 척도 값이 달라질 수 있다.

❍ '남성성(Masculinity)–여성성(Femininity)' 척도

이 척도는 남성성을 기준으로, 어떤 사회의 남성적 가치, 예를 들어 승진(진급), 성취, 단련, 새로운 것 등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한다. 이 척도의 값이 높은 문화에 속한 사회구성원은 금전, 권력, 지위 등과 같은 목표의 달성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반면에 그 값이 낮은 문화에 속한 사회구성원은 정서적 관계, 겸양, 약자에 대한 배려, 안정적인 것 등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편이다.

– Geert Hofstede, Culture's Consequences

[문제3] 제시문 [가]에서의 '나비부인의 태도'와 [나]에서의 '기장의 태도'를 분석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척도 2개를 [다]에서 골라, 아래 표의 (A)척도와 (B)척도로 정하고, 여기서 정한 2개의 척도로 나비부인과 기장의 태도를 각각 측정할 때 아래의 ①~④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A)척도 / (B)척도	높다	낮다
높다	①	②
낮다	③	④

※ 답안 작성 지침

– 답안지에 표는 작성하지 말 것.

– "(A)척도는 △△척도, (B)척도는 ○○척도이고, '나비부인의 태도'는 *몇* 번, '기장의 태도'는 *몇* 번에 해당한다. 그 근거는…." 와 같이 작성할 것.

〈300~450자〉 [25점]

▌ 분석

❍ 문제 3

• 출제 의도

본 문항은 기본적으로 실생활에 있어서 "지식의 응용"이라는 측면을 다루고 있다. 홉스테드(Hofstede)가 제시한 문화 분류 기준을, 나비부인의 결혼식 장면과 항공기 비행사들 간의 대화 상황에 적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계열별 통합적 교과라는 취지를 살려 "지식의 분류와 체계화"라는 측면도 고려하였다.

통합 교과형 논술의 특징은 고등학교 전 교과의 수학능력을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한 포괄적 사고력과 이해력을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기존의 틀에서 약간 벗어난 새로운 형식의 문제라서 서술적 논술만을 준비한 수험생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 **발문 :** 제시문 [가]에서의 '나비부인의 태도'와 [나]에서의 '기장의 태도'를 분석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척도 2개를 [다]에서 골라, 아래 표의 (A)척도와 (B)척도로 정하고, 여기서 정한 2개의 척도로 나비부인과 기장의 태도를 각각 측정할 때 아래의 ①~④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A)척도 / (B)척도	높다	낮다
높다	①	②
낮다	③	④

※ 답안 작성 지침

– 답안지에 표는 작성하지 말 것.

– "(A)척도는 △△척도, (B)척도는 ○○척도이고, '나비부인의 태도'는 *몇* 번, '기장의 태도'는 *몇* 번에 해당한다. 그 근거는…."와 같이 작성할 것.

〈300~450자〉 [25점]

논제 분석	
what	how
1. 제시문 [가]에서의 '나비부인의 태도'와 [나]에서의 '기장의 태도'를 분석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척도 2개를 [다]에서 골라	2. 아래 표의 (A)척도와 (B)척도로 정하고
3. 여기서 정한 2개의 척도로 나비부인과 기장의 태도를 각각 측정할 때 아래의 ①~④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고	4. 그 근거를 제시할 것

• **요구사항(requirement)**

– 제시문 [가]의 '나비부인의 태도'와 제시문 [나]의 '기장의 태도'에 나타난 공통점을 파악할 것

– 각각의 태도를 아래 표에 적용하여 이해할 것

☞ 개념적 이해를 실제 현상의 분석에 활용하는 문제로 수험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분석력과 사고력을 파악하기 위해,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의 일부와 항공기 추락사고 직전의 조정실 내부의 상황이 홉스테드(Hofstede)의 문화 분류 틀과 함께 제시되었다.

주제의 다양성을 위해 제시문 [가]에서는 오페라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푸치니의 〈나비부인〉의 1막 도입부의 일부를 노래 가사 부분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언어는 문화적 산물이고, 대화의 형식을 통해 우리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문화적 코드를 읽어낼 수 있다. 예컨대 제시문 [가]의 핑커톤이 "여자란 어디를 가나 말이 많군"이라는 대사를 통해 핑커톤의 여성관을 읽어낼 수 있고, 마지막의 "나의 친척될 게 뭔지!"를 통해 가족, 친척에 대한 태도를 추론해 낼 수 있다.

제시문 [나]에서는 실제 있었던 항공기 사고에 관한 조사결과의 일부를 각색한 것이다. 사고 직전 조정실의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활용하게 될 기장의 태도를 보다 극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긴박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기장, 부기장, 기관사 간의 대화의 양식과 통해 인물의 태도와 문화적 코드를 읽어 낼 수 있다.

제시문 [가]와 [나]를 이해하는 틀로서 제시된 제시문 [다]를 활용하여 제시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나비부인과 기장)의 문화를 읽어내고 적용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통해 분석력과 활용력, 체계적 정리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항 3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8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조두순 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더욱이 '만취' 상태에서 범한 행동이라는 이유로 감형됐으며, 최종 판결이 나기 전 형이 가혹하다며 항소까지 제기했다는 사실에 딸 가진 부모들과 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네티즌들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었는데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해줬다'며 법원을 비난하고, 다시 극형에 처하라는 인터넷 청원을 올리고 있다.

[나] 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극악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라는 사유로 감형을 받은 처분은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심신상실 상태로 인한 감경사유야말로 최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판단도 최대한 섬세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형벌은 교화에도 목적이 있지만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에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실범도 아닌 고의범에 대한 처벌에 있어 감경사유는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며, 이것은 법을 정비하는 문제 이전에 법을 적용하는 법관들의 소신 혹은 그러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분위기의 문제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관의 판단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다] 정치권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이고 '영구 격리'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다. 아동 성폭력사범 5명 중 2명꼴로 불기소 처분된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아동 성폭력사범 5,948명 중 42%인 2,50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극심한 충격을 받은 어린이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데다 현장 증거 등도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아동에게 2차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기소율을 높이고, 제대로 죗값을 받도록 법을 정비하는 일은 시급하다. 술 먹고 운전하면 가중 처벌되지만, 술 먹고 성폭행하면 감형이 되는 우스꽝스러운 법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라] 술은 정상적인 뇌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한다. 뇌의 여러 부위 중 대뇌 신피질은 이성적 판단을, 구피질은 감정과 본능을 담당한다. 알코올이 몸 안으로 들어가 뇌에 작용을 하게 되면 구피질보다 신피질에 먼저 영향을 미친다. 술을 마셔 알코올에 의해 신피질의 정상적인 기능이 억제되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어 구피질의 본래 기능대로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양상을 띄기 쉽다. 따라서 평소에 억눌려 있던 본능이나 금기적 행동 등을 분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될 확률이 높다. 법률적으로 '심신미약'은 시비를 변별하고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만취상태의 경우 '한정책임능력자' 로 인정되어 감형의 근거가 된다.

[마]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12년이면 충분히 높은 형량이다. 살인죄도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아동 성폭력을 7년 이상 형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높은 형량이다. 공정해야 할 재판이 여론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미국 일부 주의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아동 성폭력 형량이 낮다."

[바] 법적 안정성이란, 사회생활이 법에 의하여 보호 또는 보장되어 안정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법적 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현행 법질서가 동요됨이 없이 어느 행위가 옳은 것이며, 어떠한 권리가 보호되고, 책임 추궁은 어떻게 되느냐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확실히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이다.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려면, 법이 함부로 변동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국민의 법의식(法意識)과 합치되어야 한다.

[문제4] 제시문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이나 견해, 그리고 이들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감정'과 '법적 안정성' 간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술하시오.

〈600~800자〉 [40점]

■ 분석

❍ 문제 4

• 출제 의도

최근 발생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쟁점을 소재로 하여, 비판적인 분석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전형적인 논술 문제이다. 이 논제는 '조두순 사건'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6개의 짧은 제시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해결에 대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제시문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아 제시문에 대한 충실하고도 비판적인 독해력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글쓰기 능력이 요구된다. 시사적인 내용이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감정과 실제로 이루어지는 법집행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라는 다소 일반적이고 예측가능한 주제지만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답안을 요구하는 만큼, 대중매체로부터 나온 정보를 요약하여 제시하거나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 **발문 :** 제시문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이나 견해, 그리고 이들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감정'과 '법적 안정성' 간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술하시오.

〈600~800자〉 [40점]

논제 분석	
what	how
각각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법감정'과 '법적 안정성' 간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논술

• **요구사항(requirement)**

– 각각의 제시문에 나타난 현상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해할 것

– '법감정'과 '법적 안정성' 간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

☞ 이 문제의 제시문은 '조두순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관련 쟁점에 관한 6개([가] – [바])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가]는 이 사건을 둘러싼 국민들의 감정적 반응을 기술하고 있다. 8세 여아, 성폭행, 영구장애, 만취, 법원, 판결, 무기징역, 극형, 부모와 딸, 경악 등의 단어가 이를 말해준다. [나]는 법에 대하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감정(법감정)과 법의 잣대 사이에는 다소 괴리가 있으며, 이 괴리감을 발생하게 한 주요 원인으로 법관을 지목한다.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감형사유에 대해서는 국민 법감정과 법관의 판단은 크게 어긋남이 없으나,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 그것도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저질러진 범죄에도 과연 법이 정한 원칙적 잣대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는 음주와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법률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하여 모순된 법률조항이 있다. 즉, '술 먹고 운전하면 가중 처벌되지만, 술 먹고 성폭행 하면 감형이 된다.' 똑 같은 술이 어떤

때에는 가중 처벌의 사유로, 어떤 때에는 감경의 사유가 되는 모순성을 해결하는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라]는 술이 감경사유가 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술은 뇌의 부분에서 이성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을 관장하는 신피질의 작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술을 마심으로써 신피질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므로, 이 것 때문에 법률에서는 술을 '심신미약'의 한 조건으로 간주한다.

[마]는 성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률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더 엄격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조두순 사건' 판결 결과가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기술하고 있다. 나아가 재판의 과정과 결과 여론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바]는 법적 안정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기 위한 조건에는 법을 자주 바꾸지 말 것, 법의 내용이 분명할 것,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할 것 등이 있다.

나. 답안 예시

문제 1

외견상 낭비적으로 보이는 과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핸디캡 원리는, 신호는 그 속성과 관련된 비용을 수반하여 그러한 속성이 없는 개체가 핸디캡을 가지도록 해야 신호의 신뢰성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신호의 유형은 신호와 속성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핸디캡 원리를 따르는 평가신호와 그렇지 않은 관례신호로 나뉜다. 평가신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속성의 과시가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고비용신호이고, 다른 하나는 높은 비용뿐만 아니라 신호와 속성 간의 내적 연관이 반드시 요구되는 지표신호이다. 관례신호는 평가신호와는 달리 신호와 속성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신호의 신뢰성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 2

[나]는 과시소비에 관한 내용으로, 유한계급이 부를 과시하기 위해 동료나 경쟁자들에게 값비싼 선물과 호화스런 연회를 베푼다는 것이다. 신호의 유형을 알아내려면 신호와 그 속성 간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오래전부터 선물과 연회가 부를 과시하는 수단

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내용으로 볼 때 값비싼 선물이나 호화스런 연회가 신호에 해당되고, 부(재력)가 그 신호의 속성에 해당된다. 이러한 과시소비는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관례신호가 아닌 평가신호이다. 그 중에서도 고가품을 선물로 주거나 사치스러운 연회를 베푸는 행위는 그 자체가 재력이라는 신호의 신뢰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비용신호로 볼 수 있다. 과시소비는 고가의 장신구와 유사하며, 신호와 속성 간의 내적 연관성은 없기 때문에 지표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 [나] 내용의 일부만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 신호와 그 속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신호의 유형도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나, [나]의 전체 내용을 고려할 때 관련성이 가장 큰 신호는 고비용신호이다.

▌ 문제 3

(A) 척도는 '권력 거리' 척도, (B)척도는 '남성성' 척도이고, 나비부인의 태도는 3번, 기장의 태도는 1번에 해당한다. 그 근거는 나비부인의 경우, 권위적인 핑커톤과 수동적인 나비부인의 대화와 행동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배우자(남성)의 권위를 인정하는 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며, 번창한 가문의 몰락으로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기생이 되어버린 것이나, 결혼이라는 제도에 안착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로 묘사되는 등 남성성 척도는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기장의 경우, 위계질서가 명확하여 부기장이나 기관사에 대해 지시만 하고 조언을 구하지 않는 상황은 기장이 상당한 권력 거리를 당연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수많은 승객들의 안전이 걸려 있음에도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는 모습은 기장의 도전적이고 성취적인 성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남성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3번에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척도는 없다. 제시된 4개의 척도 중 어느 것이라도 두 개가 제시되고 척도별로 나비부인과 기장의 태도가 높고 낮음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만 제시된다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다.

▌ 문제 4

최근에 발생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법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적 반응(법감정)과 판사들의 판결 준거가 되는 법의 안정성(법적 안정성) 간의 괴리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제시문에 나타난 국민들의 법감정은 한마디로 다양하다. [가]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는 반응을 다루고 있고, [나]는 최종 판결을 내린 법관에게 그 책임소재를

돌리며, [다]는 법률을 제정하는 정치권의 활동을 촉구하고, [라]는 '술'이 뇌에 끼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며, [마]는 외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법의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다룬다. 이와 대비하여, [바]는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법적 안정성의 필요성과 그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조두순 사건에서 법감정과 법적 안정성이 충돌한 이유는 '술'이 어떤 때에는 감형 사유가 되고 어떤 때에는 가중처벌의 이유가 되는 이중성 때문이다. 이 양자 간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안은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 중 한 가지 제도적 장치는 국민 배심원제의 적극적 도입이다. 법감정과 법적 안정성이 대체로 일치하는 사건은 법률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충돌이 예상되는 사건은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하여 양자 간의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그 괴리감을 최소화 하는 한 방편이다. 만약에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흐른다면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법률전문가에 의하여 재판의 균형이 유지되며, 마찬가지로 법률전문가들이 지나치게 법률의 조항에 집착하여 현실감이 약화될 때 배심원은 재판의 균형추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8 서강대학교

가. 개 요[1)]

■ 분석대상 : 2010학년도 수시 2차 인문·사회계열 문제

■ 시험시간 : 150분

■ 문 항 수 : 3개 문항

문항	학부	관련분야
문항 1, 2	문학부, 사회과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인문/사회과학 중심에 자연과학적 성격도 가미한 제시문과 논제
문항 3		인문/사회/자연과학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제시문과 논제(자연계열과 공통)

■ 답안 분량

❍ 문항 1(30%) : 500~600자

❍ 문항 2(30%) : 500~600자

❍ 문항 3(40%) : 1,000~1,200자

■ 출제 방향 및 지침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본 개념과 기본 원리를 토대로 인간, 사회 및 자연의 문제를 논리적·종합적으로 사고하고, 그 사고 결과를 문제 해결에 창의적으로 응용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 단편적인 지식 암기를 지양하고 논리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문제를 출제

1) 이 부분은 2011학년도 대비 논술안내서에 자세하게 설명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금년에 준비하는 수험생은 이 분석 자료와 이 자료집의 예시문제를 바탕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한다. 즉, 단순한 지식의 나열보다는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 대학에서의 수준 높은 수학 능력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즉,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능력, 논리적 분석 능력과 적용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 인문·사회계와 자연계로 크게 나누어 논술 시험을 실시한다.
-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출제진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등학교까지의 공교육 과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최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 평가기준

- 논제가 요구하는 내용이면서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가, 사고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가.
- 다양한 논의 방식을 비교분석하면서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적절하게 보이고 있는가.
- 해결한 문제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나. 문제 1

▌ 논제 및 제시문

〈문제 1: 30%, 500~600자〉 제시문 [가]의 개념을 바탕으로 [나]의 자료를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논술하라.

[가] 경제행위는 선택이다. 하나의 선택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선택에 따른 득(편익)과 실(비용)을 따져 보아야 한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선택 중 한 경우를 선택했다면 다른 경우는 포기한 것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포기한 여러 가지 활동 중 가장 높은 가치를 선택된 것의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이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선택으로 인해 자신이 포기하는 것은 현재의 선택에 명시적으로 투입되는 비용(명시적 비용)과 그 시간 동안 자신이 포기하는 다른 기회의 가치(암묵적 비용)를 다 포함한다.

— 고등학교『경제』교과서

[나]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고졸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대졸임금을 비교값으로 나타낸 학력별 임금격차지수는 1990년의 경우 174.6이었으며, 2005년에는 154.9로 나타났다. 즉, 2005년의 경우 대졸자의 임금이 고졸자에 비해 54.9%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은 최근의 경제위기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외환위기 기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대학등록금은 1990년 이후 최근까지 평균적으로는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유지해오고 있다.

— 노동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자료

[다] 대학 진학률이 올해 84%에 육박해 '학력 인플레'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 83.8%로 지난해 82.8%보다 1%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대학 진학률이 50% 안팎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국내 대학 진학률은 1990년 33.2%에서 대학 진학열 등에 따라 2000년 68.8%, 2005년 82.1% 등으로 급격히 높아졌다.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수준,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학력 인플레'가 심각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OO일보》 2008년 9월 3일자

제시문 분석

❍ 제시문 가 :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서 발췌

- 경제행위는 선택이다.
-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 중 한 경우를 선택했다면 다른 경우는 포기하는 것이 된다.

- 포기한 여러 가지 활동 중 가장 높은 가치를 선택된 것의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 기회비용에는 명시적 비용(현재의 선택에 명시적으로 투입되는 비용)과 암묵적 비용(그 시간 동안 자신이 포기하는 다른 기회의 가치)를 모두 포함한다.

❍ 제시문 나 : 노동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자료
- 고졸임금 대비 대졸 임금의 비교값 : 1990년 174.6, 2005년 154.9
- 대학등록금은 최근의 경제위기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인상율을 보였다.
- 하지만, 대학등록금은 1990년 이후 최근까지 평균적으로는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유지해오고 있다.

❍ 제시문 다 : 〈○○일보〉 2008년 9월 3일 자
- 대학 진학률 변화
  · 1990년 : 33.2%
  · 2000년 : 68.8%
  · 2005년 : 82.1%
  · 2007년 : 82.8%
  · 2008년 : 83.8%
- 이는 해외 주요국이 50% 안팎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수준, 경쟁력은 OECD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학력인플레'가 심각하다.

논제 분석

• **논제 01 :** 제시문 [가]의 개념을 바탕으로 [나]의 자료를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논술하라.(30%, 500~600자)

논제 분석	
what	how
- [나]의 자료를	설명하라.
-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논술하라.

• **요구사항(requirement)**
- 제시문 [가]의 개념(기회비용)을 바탕으로 [나]의 자료를 설명하라.
- 설명된 자료를 바탕으로 논술하라.
- 500~600자로 답하라.

❍ 두 가지를 묻고 있다.
- 하나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고졸과 대졸의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것이다.
- 다른 하나는 이 설명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현상을 설명하라는 것이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의 정확한 개념 파악과 제시문 [나]와 [다]의 자료 해석능력이 필요하다.
- 기회비용은 제시문 [가]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암묵적 비용(그 시간 동안 자신이 포기하는 다른 기회의 가치)만이 아니라 명시적 비용(현재의 선택에 명시적으로 투입되는 비용)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자료 해석형 논제는 수리적 사고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많은 대학들이 출제하는 영역이다.
-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드러난 자료만 해석해서는 안되며, 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찾아내야 한다.
- 제시문 [나]에서 말하는 대학등록금은 대학 진학에 따른 명시적 비용을 나타내지만, 그 자료에는 암묵적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
- 제시문 [다]에서 말하는 대학 진학률의 증가는 대학 진학의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그러나 임금 격차지수만 가지고는 임금의 절대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예시 답안

[나]의 첫 번째 자료인 대졸과 고졸 근로자의 임금차이는 대학진학에 따라 발생한 편익을 나타낸다. 즉, 대학진학 편익은 대학을 진학하지 않더라도 고졸임금을 받기

때문에 대졸과 고졸 임금의 차이로 측정될 수 있다. 두 번째 자료인 대학등록금은 대학진학에 따른 명시적 비용을 나타낸다. 하지만 자료는 기회비용 중 암묵적 비용에 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

[가]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에 나타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대학 진학률은 대학진학의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의 자료에 나타난1990년 이후 대학등록금의 높은 인상률은 명시적 비용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임금격차지수는 대졸과 고졸임금의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편익을 측정하는 임금의 절대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같은 기간 하락한 임금격차지수가 임금 차이의 감소 즉 대학진학의 편익을 감소시켰다고 가정한다면, 대학재학 중 포기해야 하는 암묵적 비용(예를 들면, 고졸임금)의 하락이 일어나 전체 기회비용을 줄어든 편익보다 더 많이 감소시킨 경우,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대학 진학률은 상승할 수 있다.(591자)

다. 문제 2

■ 논제 및 제시문

〈문제 2: 30%, 500～600자〉 다음 제시문을 읽고 [가]에 밑줄친 '재앙'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와 [다]를 활용하여 '재앙'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논술하라.

[가]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다양성을 부인하고 평등을 동일성으로 대체해 버린다. 피부색이나 외모와 같은 형태적 특징만이 유전자에 의해 지배되고, 성격이나 사회성 같은 비형태적 특징들은 유전적 요인이 아닌 환경이나 교육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쌍둥이 형제들이 보여주는 학업성취도와 같은 비형태적 특징의 차이를 유전적 요인이 미치는 효과가 없다는 증거로 편리하게 해석해 버린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형태적 특징의 차이점이 오로지 조건화와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단정하는 오류를 범한다.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한 이데올로기는 **재앙**으로 직결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토마스 제퍼슨이 말했을 때,

그가 강조한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 동일성이 아니라 권리의 평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평등은 인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옹호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에른스트 마이어, 《동물종과 진화》

[나] 옛날 바닷새가 노나라 서울 밖에 날아와 앉았다. 노나라 임금은 이 새를 친히 종묘 안으로 데리고 와 술을 권하고, 궁중의 음악을 연주해 주고, 소와 돼지, 양을 잡아 대접했다. 그러나 새는 어리둥절해하고 슬퍼할 뿐,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술도 한 잔 마시지 않은 채 사흘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사람을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以己養養鳥)'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以鳥養養鳥)'이 아니다.

– 《장자》

[다] 만약 우리가 생물학적 증거를 토대로 인종 차별과 성 차별을 한다면 우리의 행위는 정당화될까? 물론 아니다! 우리는 집단의 평균적 특성에 따라 개개인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협한 사고에 반대한다. 문명사회에서는 고용, 승진, 봉급, 입학, 사법 제도 등에서 인종, 성, 민족의 차이를 무시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도덕적 불쾌감을 경험할 것이다. 사람을 인종, 성, 민족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며, 이러한 차별은 태생적인 특성에 가하게 되는 벌칙이나 다름없다. 차별은 흑인, 여성 등의 집단이 속박되고 억압당했던 과거의 불공평한 상태를 영속화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를 적대적 분파들로 분열시킬 것이고, 단계적으로 증폭되면 무서운 박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차별에 반대하는 이 주장들은 모두 인간 집단들이 유전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 스티븐 핑커, 《빈 서판》

■ 제시문 분석

❍ 제시문 가 : 에른스트 마이어, 《동물종의 진화》에서 발췌

–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형태적 특징의 차이점이 오로지 조건화와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오류를 범한다.

-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말은 인간의 생물학적 동일성이 아니라 권리의 평등이었다.

❍ 제시문 나 : 《장자》에서 발췌

- 사람을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면 안 되고,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길러야 한다.

❍ 제시문 다 : 스티븐 핑커, 《빈 서판》에서 발췌

- 우리는 집단의 평균적 특성에 따라 개개인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성향을 갖고 있다.
- 사람을 인종, 성, 민족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며, 이러한 차별은 태생적인 특성에 가하게 되는 벌칙이나 다름없다.
- 그러나 차별을 반대하는 이들 주장들은 모두 인간 집단들이 유전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논제 분석

• **논제 02 :** 다음 제시문을 읽고 [가]에 밑줄친 '재앙'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와 [다]를 활용하여 '재앙'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논술하라.(30%, 500~600자)

논제 분석	
what	how
- 제시문 [가]의 '재앙'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 '재앙'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논술하라.

• **요구사항(requirement)**

- 제시문 [나]와 [다]를 활용하여 논술하라.
- 500~600자로 답하라.

❍ 역시 두 가지를 묻고 있다.

- 하나는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재앙'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이런 '재앙'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시문 [나]와 [다]를 참고하여 논술하라는 것이다.

❍ 제시문 [가]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생물학적 동질성이 아니라 권리의 평등 측면에서 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형태적 특징의 차이점이 오로지 조건화와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오류를 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이런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한 이데올로기가 '재앙'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한다.

❍ 그리고 제시문 [나]와 [다]를 활용하여 '재앙'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논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시문 [나]와 [다]의 핵심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 제시문 분석에서도 언급했듯이 제시문 [나]는 동물은 동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대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 제시문 [다]에서는 사람을 인종·성·민족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그러면서도 제시문 [다]에서는 차별에 반대하는 주장들이 모두 인간 집단들이 유전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시 답안

'재앙'이란 인간은 동일하므로 집단의 특징에 따라 평가하면 안 된다는 '도덕적 성향'에서 야기되는 불행을 의미한다. [나]에 의하면, 노나라 임금이 바닷새를 대접할 때 새를 기르는 방법이 아니라 새가 아닌 사람이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대접함으로써 사흘 만에 새가 죽었다는데, 이것이 바로 '재앙'이다.

'재앙'의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에 있듯이,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다양성을 부인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집단의 평균적 특징에 따라 개개인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소위 '도덕적 성향' 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 간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차이'는 곧 '차별'을 의미한다는 생각을 하여, 급기야 '차별'할 경우, 차별주의자로 전락되는 '도덕적 불쾌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가], [다]는 도덕적 성향이 인간의 유전적 범주화 (예 : 성별, 피부색 등)와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전적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 '차이'들이 필연적으로 '차별'의 원인이 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548자)

라. 문제 3

■ 논제 및 제시문

〈문제 3: 40%, 1,000~1,200자〉 제시문 [라]의 헤른슈타인 사건의 발생 원인을 〈문제 2〉의 [다]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제시문 [마]와 [바]의 입장을 정리한 다음, 그 두 입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라] 하버드 심리학자 리처드 헤른슈타인은 1971년에 IQ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가 인종, 가문, 유산 같은 조건에 의해 약하게 결정될수록 재능, 특히 지능에 의해서는 그만큼 강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지능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유전에서 오고, 지적인 사람들은 또한 지적인 사람들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는 갈수록 유전적 계통에 따라 계층화 될 것이다. …중략… 헤른슈타인의 주장은 인종 간의 평균 지능의 차이가 선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으며 본인 역시 그런 주장과는 무관하다고 분명히 밝혔다. …중략… 그럼에도 영향력 있는 정신과 의사 엘빈 푸생은 "헤른슈타인이 흑인의 적이 되었고, 그의 선언은 미국 내 모든 흑인의 생존을 위협한다."라고 적었다. …중략… 보스턴 지역의 각 대학에는 '하버드 교수의 파시즘적 거짓말 타도'를 촉구하는 팸플릿이 배포되었다. 하버드 스퀘어에는 '인종 차별주의자를 수배함'이라는 제목과 함께 그의 사진이 나붙었고, 그의 글에서 다섯 군데를 악의적으로 인용해 그의 의도를 왜곡시킨 글이 나돌았다.

– 스티븐 핑커, 《빈 서판》

[마] 각 개인을 인종적 범주에 따라 묶는 인종 차별 사회가 아니라면 인종과 지능지수의 상관성은 어떤 사회적 중요성도 수반하지 않는다. 헤른슈타인은 키와 지능지수의 상관적 가능성을 언급한다. 거기에 과연 사회적 중요성이 있는가? 물론 없다. 우리 사회는 키에 따른 차별로 고통 받지 않는다. 우리는 각각의 성인이 어떤 종류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장 180센티미터 이하'나 '신장 180센티미터 이상'의 범주에 따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한 개인의 지능지수는 특정 신장 범주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 지능지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인종차별이 없는 사회라면 인종이라는 범주도 그와 똑같이 무의미할 것이다. 특정한 인종적 배경에 속하는 개인들의 평균 지능

지수는 특정한 개인의 상황과 무관하다. …중략… 대단히 많은 학자들이 지능지수가 유전적일 수 있고 어쩌면 그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에 불안해 한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상대적 신장이나 음악적 재능 또는 100미터 달리기의 순위가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발견하는 것이 불안한 일인가? 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선입견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 답이 진지한 과학적 문제나 올바른 사회적 관습에 어떻게 연결되겠는가?

– 노엄 촘스키, 《심리학과 이데올로기》

[바] 도덕적, 법적 금지가 집단적 차이의 가능성을 극복하고 차별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개인의 조건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 개인과 관련된 통계적 결정에 인종이나 성별에 관한 평균 수치가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므로 차별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정신 능력을 더 정확하고 폭넓게 시험하는 것이다. 그만큼 개인에 관한 사전 정보를 많이 얻게 되어 인종이나 성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차별이 항상 부도덕한 것은 아니며, 적어도 사람들이 항상 그것을 부도덕하다고 취급하지도 않는다. 누군가의 행동을 완벽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찍는 엑스선 기계가 필요할 것이다. 누군가의 행동을 현재와 같은 도구—시험, 인터뷰, 배경 조사, 추천 등—로 예측할 때에도 그 도구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제한적인 자원이 필요할 것이다. 유한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그리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많은 비용이 든다면, 어떤 특성을 개인을 판단하는 기초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럴 때에는 반드시 유형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집단 간의 유사성이 너무 작은 경우, 한 집단을 절대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구상의 모든 침팬지를 테스트하면 읽고 쓰는 능력을 가진 한 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침팬지를 수업에 참석시키는 것에는 누구나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우리는 침팬지가 인간의 교육을 받아도 향상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종 차별주의자로서, 예외를 발견할 확률이 모든 침팬지를 조사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보다 현실적인 경우에는 차별이 정당한가를 판단할 때 각 사안의 특수성에 의존해야 한다. 모든 10대 청소년에게 운전할 권리와 투표할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책임감 있는 10대들에게는 공정하지 못한 일종의 연령차별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흑인 운전자'에 대한 검문과 같은 인종별 신상 파악을 끔찍한 일로 여긴다. 그러나 2001년 세계무역센터와 미 국방부 테러 이후, 여론 조사에 응답한 미국인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사람이 인종별 신상 파악인 '아랍계 탑승객' 조사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두 가지를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리화나 판매책을 체포하는 이득이 무고한 흑인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손해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비행기 납치범을 막는 이득은 아랍계 승객들에게 돌아가는 손해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 스티븐 핑커, 《빈 서판》

제시문 분석

❍ 제시문 라 : 스티븐 핑커, 《빈 서판》에서 발췌

- 헤른슈타인은 IQ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인종, 가문, 유산 같은 조건에 의해서는 약하게 결정되지만, 지능에 의해서는 강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 헤른슈타인의 주장은 인종 간의 평균 지능의 차이가 선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의 주장을 왜곡하고 비판하는 일이 벌어졌다.

❍ 제시문 마 : 노엄 촘스키, 《심리학과 이데올로기》에서 발췌

- 차별이 없는 사회라면 차별적 요인(인종, 신장 등)과 지능지수의 상관성은 어떤 사회적 중요성도 수반하지 않는다.

❍ 제시문 바 : 스티븐 핑커, 《빈 서판》에서 발췌

- 도덕적, 법적 금지가 집단적 차이의 가능성을 극복하고 차별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 차별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개인에 관한 사전 정보를 많이 얻게 되어 인종이나 성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신 능력을 더 정확하고 폭넓게 시험하는 것이다.
- 현실적으로 차별이 정당한가를 판단할 때 각 사안의 특수성에 의존해야 한다.

논제 분석

• **논제 03 :** 제시문 [라]의 헤른슈타인 사건의 발생 원인을 〈문제 2〉의 [다]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제시문 [마]와 [바]의 입장을 정리한 다음, 그 두 입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40%, 1,000~1,200자)

논제 분석	
what	how
– 헤른슈타인 사건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라.
– 이 사건과 관련된 제시문 [마]와 [바]의 입장을	정리하라.
– 그 입장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 **요구사항(requirement)**

– 헤른슈타인 사건의 발생 원인을 〈문제 2〉의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설명하라.

– 1,000~1,200자로 답하라.

❍ [논제 2]와 연관된 문제이다.

– 즉, [논제 2]를 해결해야 풀 수 있는 논제인 것이다.

❍ 모두 세 가지를 답을 요구하고 있다.

– 첫째, [논제 2]의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에서 보이는 헤른슈타인을 둘러싼 논쟁의 원인을 서술하라는 것이다.

– 둘째, 이 사건과 관련된 제시문 [마]와 [바]의 입장을 정리하라는 것이다. 즉, 논지를 밝히라는 것이다.

– 셋째, 그 입장에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는 것이다.

■ 예시 답안

[다]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유전적 다양성 (예: IQ)이 사람들 간의 차별을 유도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유전성, 환경 등에 의한 '차이'는 반드시 '차별'을 원인 제공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한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헤른슈타인이 인종 간의 지능 차이가 선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도덕적 성향에 근거하여 헤른슈타인을 왜곡하고 비판했다.

[마]에 의하면, 인종과 지능지수의 상관관계가 사회적 중요성이 부과될 과학적 근거가 없다. 유전적 특징에 불안감과 선입견이 개입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개인에 대한 판단은 유전적 특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전적 차이만으로 개인들 간의 '차별'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바]에 따르면, 각 개인은 보다 정확하고 폭넓은 특징과 자료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이 가능할 때 '차별'의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또한, 설령 '차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별' 행위는 사안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부도덕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 [바]의 결론에 의하면, '도덕적 성향,' 즉 집단 평균 특성에 따라 개개인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에는 어떤 근거도 없다.

유전적 특징이 '도덕적 성향'과 같은 사회적인 태도를 야기할 과학적 근거가 근본적으로 없다는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우리 모두는 피부색과 성별 등 조상으로부터 유전적 특징을 다분히 갖고 태어난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차이점'을 안고 있다. 한편, 우리는 생후 특히 처음 10여 년 동안 다양한 문화, 사회, 인간관계를 통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전인적인 인격 형성을 하게 된다. 물론,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체험을 하던지 우리는 여전히 유전적 특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과학적 연구 보고에 따르면, 유전적 특징에도 '보편성'과 '(개별)특수성'이 있다고 하고, 유전적 특질들이 환경에 의해 영향으로 형성되는 특징(획득형질)이 생성되기도 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유전적 특징만을 기초로 하여 부정적인 선입견이 조성될 이유가 없고, 또한 인간의 '차이'가 곧 '차별'을 야기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질 근거가 없다는 의견에 동의한다.(1,140자)

9 서울대학교－수시

가. 개 요

■ 분석대상 : 2010학년도 수시 2학기 인문계열 특기자전형 문제

■ 시험시간 : 180분

■ 문 항 수 : 1문항

■ 답안 분량 : 2500±300자

■ 출제 방향 및 지침

2010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논술의 출제에서 가장 고려한 사항은 특정한 분야의 주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요구하는 최근의 논술 출제 경향을 벗어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학생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수험생의 논리적 사고와 창의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술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글쓰기를 위한 능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능력은 평소의 꾸준한 독서와 논리적 사고를 통해 배양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2010학년도 수시 논술 시험은 고등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학작품을 제시하고, 논제에 대한 이해와 분석력을 토대로 수험생의 논리적 사고와 창의성 등을 묻고 있다.

■ 논제 : 내적 성숙 과정에서 깨달음의 역할과 자신의 경험

- 제시문의 각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겪은 깨달음의 내용 및 그 정도를 파악하며,
- 이러한 깨달음의 예를 자신의 경험에서 찾아보도록 함으로써 좀 더 자신과 밀착된 깊이 있고 다양한 견해를 진술하도록 하였다.

출제의도와 문항설명

❍ 출제의도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서 평소 꾸준한 독서와 사고를 해 온 학생이라면 주어진 제시문을 이해하고 논제에 쉽게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어진 논제의 핵심을 정확히 분석하고, 제시문과 관련된 적절한 경험을 자신의 논지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논리적 사고와 창의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있는 소설과 고등학생이라면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자서전과 소설의 일부를 발췌하여 제시문으로 활용하였다.

❍ 문항설명

- 제시문에 나오는 내용에 밀착하여 논의를 전개시키되, 평소의 자신의 경험과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을 활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논제의 분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관점(내적 성숙)을 제공함으로써 논의가 너무 주관적으로 흐르거나 산발적이 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제시문 [1]은 섬에서 살다가 가출한 소년이 목포항에 도착하여 겪는 이야기이다. 착한 할머니 덕분에 배삯도 안내고, 또 목포 항에 도착하여 할머니의 딸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밥까지 얻어먹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윽박지르는 할머니의 딸의 충고를 무시하면서 방황한다.
- 제시문 [2]에서는 두 살 때 시력을 잃고 '적막한 암흑의 세계'에 살아가는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의 도움으로 세계에 존재하는 자연과 사물에 대해 하나 하나 알아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 제시문 [3]에서는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순수한 우정의 소중함을 깨달아 가는 소년 헉 핀의 내면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묘사한다. 처음에는 규범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인인 왓슨 아줌마에게 도망 노예 짐의 소재를 알리는 편지를 쓰지만 그와 함께 모험 생활을 하면서 느낀 우정 속에서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고 편지를 찢어버리고 결단하는 모습을 다룬다.

출전

- 제시문 [1], 봄바람, 고등학교 문학, 교학사

- 제시문 [2]
  - 헬렌켈러, 『헬렌켈러 자서전』, 박에스더 옮김, 산해, 2008에서 발췌 및 윤색.
  - 헬렌켈러, 『헬렌켈러 자서전』, 김명신 옮김, 문예출판사, 2009에서 발췌 및 윤색.
- 제시문 [3], 마크트웨인, 『허클베리핀의 모험』, 김욱동 옮김, 민음사, 2009에서 발췌 및 윤색

나. 제시문 및 논제 분석

논제

인간이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성숙해져야 하며, 그 성숙의 정도와 단계는 개인마다 다르다. 다음 제시문들은 각 작품의 화자이자 주인공이 큰 세계를 경험하면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의 내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제시문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 혹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논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2,200자 이상 2,800자 이내)

제시문

[1]

나는 드디어 뭍에 올랐다!

뱃삯을 안 문 건 순전히 할머니 덕분인데 오히려 할머니가 나에게 고생했다고 말했다.

"악아, 늙은이 짐 들어 주느라고 고생했다. 여그 선창 가까운 디서 우리 딸네미가 식당을 한께 거기 가서 점심이나 먹고 가그라."

그러잖아도 배가 출출한데 잘 됐다 싶었다.

"그럼 지가 거기까지 짐을 들어다 주고 갈께요."

나는 올망졸망한 할머니의 짐을 양 손에 힘껏 들고 걸어 나갔다. 짐을 들긴 했지만

내 걸음이 그래도 할머니 걸음보다 빨라 한참 앞서 가다가 멈춰 섰다.

“할무니, 어느 쪽으로 가요?”

나는 중간중간 길을 확인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할머니의 딸이 하는 식당은 부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건물은 낡았지만 식탁이 여남은 개 놓여 있을 정도로 실내는 넓었다. 부두가 가까워서 뜨내기 손님이 많은지 출입문 위엔 ‘나그네 식당’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할머니의 딸은 은주 고모와 나이가 엇비슷해 보였다. 점심이 나오자, 할머니는 자기 밥그릇에 있는 밥을 내 밥그릇에 덜어 주면서 걱정스레 말했다.

“많이 먹그라. 객지에 나오면 배곯는 설움이 제일 큰 것인께.”

나는 순간적으로 콧등이 시큰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자, 할머니의 딸이 다짜고짜 나에게 호통치듯 말했다.

“너, 뭣 땜시 집 나왔어? 쓸데없는 생각 말고 다시 돌아가그라. 에미, 애비 속 좀 그만 썩이고!”

나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할머니가 거들었다.

“에미 찾는다고 하더구먼.”

그러자 할머니의 딸이 까르륵 하고 웃었다.

“고 방울만한 녀석이 거짓말도 상당하게 하네. 느이 어무니는 집에 있을 것인디 목포 바닥에서 으찌께 찾는다냐?”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할머니의 딸은 나 같은 놈은 수도 없이 많이 봤다는 태도였다.

“너 몇 학년이냐? 아직 학교 댕길 나이로 보이는디, 학교나 졸업하고 집을 기어 나와도 나와라. 으이구, 이 녀석!”

할머니의 딸은 기어코 내 머리통을 쥐어박았다. 나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꾹 참았다. 성깔대로 했다간 세상을 살아나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목포 바닥에 있다간 언제 집으로 잡혀 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친김에 서울로 가 버리자고 마음먹었다.

할머니의 딸은 나에게 자기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 배로 할머니와 같이 다시 돌아가라고 윽박지르다시피했다.

이마빼기에 피도 안 마른 조그마한 녀석이 일찍 도시물 먹어 봐야 건달밖에 더 되겠느냐는 것이 할머니 딸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나는 이미 인생이 뭔지 나름대로 겪을 것 다 겪고 집을 나온 것이다. 그런데 나보고 마빡에 피도 안 마른 조그마한 녀석이라니!

나는 거기 있다간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서 잘 먹었다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선 후닥닥 뛰쳐나왔다.

[2]

설리번 선생님(Miss Sullivan)이 오신 다음날 아침 선생님은 나를 방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인형 하나를 주셨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인형은 퍼킨스 맹아학교의 어린이들이 보내준 것으로, 로라 브리지먼이 옷을 만들어 입힌 것이었다. 인형을 갖고 논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선생님이 내 손바닥에 천천히 'd-o-l-l'(인형)이라고 쓰셨다. 나는 단박에 이 손가락 놀이에 흥미를 느끼고 그대로 따라서 써보았다. 마침내 그 글자들을 올바로 쓰는 데 성공하자 나는 어린애다운 기쁨과 자랑스러움으로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신 아래층으로 내려가 손을 치켜들고 'doll'이라고 썼다. 그때 나는 내가 한 단어의 철자를 쓰고 있다는 것도, 심지어 단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그저 원숭이가 흉내 내듯 손가락을 움직였을 뿐이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나는 뜻도 모르는 채 많은 단어의 철자를 익혔는데, 그 단어들 중에는 'pin, hat, cup'은 물론 'sit, stand, walk'와 같은 동사도 있었다. 몇 주 동안 이런 식의 단어 공부가 계속된 후에야 모든 것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새 인형을 갖고 놀고 있는데, 설리번 선생님이 내 무릎에 큰 봉제 인형을 올려 놓으시고는 내 손바닥에 'd-o-l-l'이라고 쓰셨다. 선생님은 내게 이 두 인형 모두 'd-o-l-l'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려고 애쓰셨다. 그러나 그날 아침 우리는 벌써 'm-u-g'와 'w-a-t-e-r'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씨름을 했었다. 선생님은 'm-u-g'는 mug(머그컵)이고, 'w-a-t-e-r'은 water(물)를 뜻한다고 깨우쳐주려 애쓰셨지만 나는 계속 둘을 혼동했다. 실망한 선생님은 적절한 기회에 다시 가르치기로 하고 잠시 그 문제를 접어두셨다. 나는 선생님의 매번 반복되는 방식에 짜증이 나서 새 인형을 들어서 마룻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깨진 인형 조각이 발에 닿자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거칠게 성질을 부렸지만 조금도 슬프거나 후회스럽지 않았다. 사실 마음에 드는 인형도 아니었다. 내가 사는 적막한 암흑의 세계에는 슬픔이니 후회니 하는 감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깨진 인형 조각을 난로 한 켠으로 쓸어 내시는 것을 느꼈을 때, 나를 불편하게 만들던 원인이 없어져서 더할 나위없이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모자를 가져다 주셔서, 나를 데리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밖으로 나가시려는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었다. 만약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느낌을 생각이라고 부른다면, 지금 든 이 생각이야말로 나를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게 만들었다.

우리는 우물을 뒤덮은 인동덩굴 향기에 이끌려 오솔길을 따라 내려갔다. 누군가 물을 긷고 있었고 선생님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꼭지 아래에 내 손을 갖다 대셨다. 차가운 물줄기가 꼭지에 닿은 손으로 계속해서 쏟아져 흐르는 가운데 선생님은 다른 한 손에 처음에는 천천히, 다음에는 빠르게 'w-a-t-e-r'이라고 쓰셨다. 나는 선생님의 손가락 움직임에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갑자기 잊혀진 것, 그래서 가물가물 흐릿한 의식 저편으로부터 생각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며 돌아오는 전율을 느꼈다. 언어의 신비가 내 앞에서 베일을 벗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제야 지금 내 손 위로 세차게 쏟아지는 이 차가운 물줄기가 water라는 것의 정체임을 알았다. 살아 숨쉬는 낱말의 입맞춤을 받은 내 영혼은 긴 잠에서 깨어나 그것이 가져다 준 빛과 희망과 기쁨을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것이다. 물론 아직도 많은 장애물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장애물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질 것들이었다.

[3]

그래서 나는 그야말로 고민에 빠졌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한 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 편지를 쓰자 —— 그리고 나서 기도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그러자 놀랍게도 그 순간 내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모든 고민이 말끔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매우 기쁘고 마음이 들떠 종이와 연필을 꺼내고 앉아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왓슨 아줌마에게

도망 노예 짐(Jim)은 파이크스빌에서 2마일 하류에 있는데, 펠프스 씨가 그를 붙잡아놓고 있습니다. 만약 아줌마가 현상금을 보내면 돌려보내 주겠지요.

—— 헉 핀(Huck Finn)

나는 난생 처음으로 죄가 깨끗이 씻겨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장 기도를 드리지 않고 편지를 아래에다 내려놓고서 앉은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 참 이렇게 되어서 천만다행

이야, 하마터면 길을 헤매다 지옥에 떨어질 뻔했잖아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강을 따라 내려오던 우리들의 여행에 생각이 미치자 바로 눈앞에 짐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때로는 달빛 아래서 때로는 폭풍우 속에서 항상 곁에 짐이 보였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얘기 나누고 노래 부르며 웃어대면서 뗏목을 타고 강을 따라 내려왔지요. 그러나 웬일인지 짐에게 나쁜 감정을 품었던 때는 전혀 머리에 떠오르지 않고 그 반대의 장면만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짐이 자기 몫의 불침번을 선 다음, 내가 그대로 잠을 잘 수 있도록 나를 깨우지 않고 내 몫까지 해준 짐의 모습이며, 안개 속에서 내가 돌아왔을 때에도, 원한으로 두 집안이 싸우던 그 곳 늪지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그토록 기뻐하던 짐의 모습이 머리에 떠올랐지요. 그리고 늘 나를 귀염둥이 도련님이라고 다정하게 부르며 귀여워해 주었고, 나를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건 기꺼이 해주었지요. 짐은 늘 나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 주었던지요. 맨 마지막으로 내가 뗏목에 천연두 환자가 타고 있다고 하여 짐을 구해냈을 때, 짐이 아주 고마워하며 나더러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이자 하나밖에 없는 친구라고 했던 일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때 우연히 주위를 둘러보다가 방금 써놓은 그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움켜쥐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결정해야 했고,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이미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나는 숨을 멈추고 잠시 생각한 끝에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난 지옥으로 갈테다."(All right, then, I'll go to hell) —— 그리고는 편지를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끔직스런 생각이었고 무서운 말이었지만 입 밖으로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쓸어 담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었지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 다시는 마음 고쳐먹는 일에 대해서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그 모든 생각을 머리에서 말끔히 씻어버렸지요. 다시 나쁜 짓을 하기로 하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나란 놈은 자라나기를 그런 식으로 자라났으니 나쁜 짓은 내 천성에 맞고, 착한 일은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맨 첫 번째 일로 나는 노예 상태의 짐을 다시 한 번 빼내자, 아니 그보다 더 나쁜 일이라도 생각해 낼 수 있다면 그것마저 하겠다고 다짐했지요. 나쁜 짓을 하기로 한 이상, 더구나 끝까지 하기로 한 이상, 철저하게 해내는 것이 좋을 테니까요.

분석

- **발문 :** 인간이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성숙해져야 하며, 그 성숙의 정도와 단계는 개인마다 다르다. 다음 제시문들은 각 작품의 화자이자 주인공이 큰 세계를 경험하면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의 내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제시문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 혹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논하시오.

논제 분석	
what	how
제시문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 혹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논하시오.

- **요구사항(requirement)**
  - 각각의 제시문에 나타난 성숙의 정도를 파악할 것
  - 결과에 대한 과정으로서의 근거를 자신의 경험을 활용할 것

- 성숙의 정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그 범위와 의미를 규정하고 이를 적용해야 한다.
- 제시문 [1]에서의 성숙은 개인의 내면적 차원과 사회 구성원이 인정하고 합의하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성숙으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 제시문 [2]의 성숙은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통한 사물과 현상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특히 언어는 성숙의 바탕이 되는 사고의 일차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제시문 [3]의 성숙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라는 선택적 상황의 성숙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체계화할 수 있어야 한다. '나'와 노예 '짐'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는 사적인 감정에 의한 판단으로 이해한다면, '나'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률과 규율'의 관점에서 보면 공적인 판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 성숙은 개인의 내면적인 문제인 것과 동시에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측면을 인식하고 이를 한 가지 측면으로만 획일화하지 말고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인정할 수 있는 차원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10 서울대학교－정시

가. 개 요

■ **분석대상 : 2010학년도 정시 인문계열 모집단위와 사범대 체육교육과 1단계 합격자**

■ **시험시간 : 5시간**

■ **문 항 수 : 3문항(5문제)**

■ **답안 분량**

구분	인문계열 모집단위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문항수	3문항		1문항(인문계열 문항 1과 동일)
고사시간	300분(문항 1: 120분 / 문항 2, 3: 180분)		120분
답안 분량	문항1	• 논제 1 : 800 ± 100자 • 논제 2 : 800 ± 100자	• 논제 1 : 800 ± 100자 • 논제 2 : 800 ± 100자
	문항2	• 논제 1 : 600 ± 100자 • 논제 2 : 1000 ± 100자	
	문항3	1600 ± 100자	

■ **출제방향 및 취지**

❍ 2010학년도 정시모집 인문계열 논술고사 출제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은 1) 고등학교 교과서 지문과 주제의 활용, 2) 사교육을 통해 급조되거나 암기된 지식이 아니라 공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의 측정, 3)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한 공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 이는 지난 수년 간 유지되었던 출제 방향과 동일하며, 다만 이번 출제과정에서는 수험생들이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은 분야에서 문제를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 논술 출제과정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최대한 활용한 것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논술을 준비하는 과정이 입시 위주의 단순 반복학습과 지식 암기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독서와 토론을 통한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의 한 과정으로 정착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서 답변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제외하였으며, 기초적인 지식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텍스트 분석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 이에 따라 (1)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어우르는 학문통합적인 문제, (2) 경제 이론을 이해하고 그 기초 위에서 현상을 분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문제, (3)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답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문항설명 및 학생답안

〈문항 1〉

【제시문】

[가]

나칸트에 따르면 예술미는 지성과 상상력이 조화를 이룰 때, 특히 상상력이 자유롭게 유희할 때 성립한다. 자유로운 상상력에 기반한 창조성은 최고도의 생산적 정신 능력이다. 예술은 단순한 여흥이나 장식이 아니고 보편가치로서의 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예술가에게 창조성은 필수 조건이다. 비단 예술가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맡는 인물들에게도 이 조건이 요구된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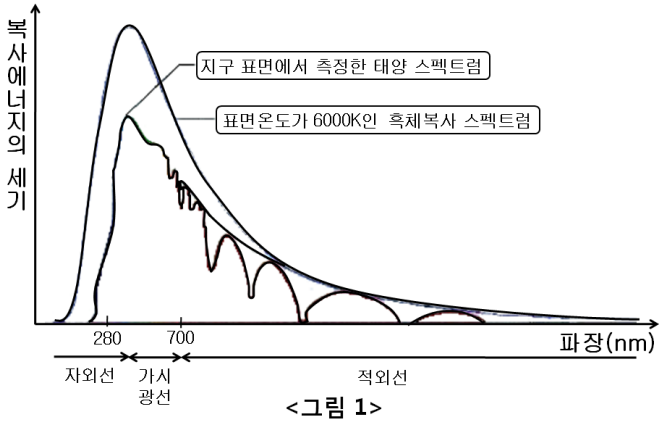
세균학자 플레밍(A. Fleming, 1881~1955)은 제 1차 세계대전에서 부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세균 감염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 세균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1928년에 그는 상처의 고름에서 포도상 구균을 분리하여 배양하던 중 우연히 곰팡이에 의해 오염된 배양 접시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곰팡이가 자란 주변에는 포도상 구균이 없는 맑은 띠가 형성되어 있었고, 곰팡이로부터 멀어질수록 포도상 구균의 균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이를 매우 흥미롭게 생각한 플레밍은 그 곰팡이를 채취하여 배양하였다. 그리고 배양 접시에서 곰팡이를 제거한 다음, 배양액을 800배까지 희석하여도 이 배양액이 포도상 구균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발견은 곰팡이 자체가 아니라 곰팡이가 생산한 어떤 물질이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플레밍은 이 곰팡이가 속한 페니실륨속(屬)의 명칭에 맞추어 이 물질을 페니실린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그는 연구를 계속하여 페니실륨속에 속하는 여러 종류의 곰팡이 가운데 페니실륨 노타툼만이 페니실린을 생산하며, 페니실린이 여러 종류의 세균에 대하여 항균 작용을 하고 생쥐와 토끼 실험에서도 같은 항균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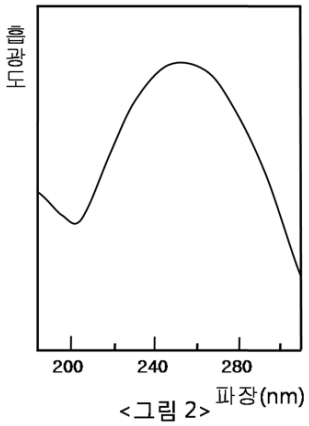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

[다]

지구의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은 햇빛의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상에 있는 동 · 식물의 보호막으로 작용한다. 지상으로부터 약 15km~40km 떨어진 대기권에 오존이 밀집된 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발견되었을까. 지구상의 모든 생명 활동을 지속시키고 기후를 결정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으로부터 공급된다. 태양광선에는 가시광선 이외에도 자외선 등의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와 적외선 등의 파장이 긴 전자기파가 있다. 그런데 표면온도가 약 6000K인 흑체복사*에서 예측한 스펙트럼과 지구 표면에서 측정한 태양광선의 스펙트럼을 비교해 보니 〈그림 1〉과 같았다. 두 스펙트럼의 전반적인 모양은 비슷하나 300nm*보다 짧은 파장을 가진 자외선은 지상의 스펙트럼에서는 관측되지 않았다. 19세기의 과학자들은 왜 그렇게 관측되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런데 1840년에 오존이 발견된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이 기체의 물리 · 화학적 특성을 밝혀냈다. 이들 가운데 아일랜드의 화학자 하틀리(W. N. Hartley, 1845~1913)는 〈그림 2〉와 같이 오존이 파장 240nm에서 300nm 사이의 자외선을 강하게 흡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지상에서 관측되는 태양빛에 300nm보다 짧은 파장의 자외선이 관측되지 않는 점에 주목하여, 없어진 영역의 자외선이 대기 상공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오존층에 흡수되어 지상에 도달되지 않는다고 예측하였다.



<그림 1>



<그림 2>

하틀리는 오존층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1881년에 제안하였으며, 이 가설은 20세기 중반 과학자들이 로켓을 이용하여 실측치를 구하게 되면서 확인되었다. 우리 시대에 오존층의 파괴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흑체란 외부에서 주어진 빛을 완전히 흡수했다가 재방출하는 물체를 뜻하며,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를 흑체복사라고 한다. 태양은 흑체에 가까우므로 흑체복사 스펙트럼을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스펙트럼으로 간주할 수 있다. 1nm는 10−9m이다.

[논제 1]

플레밍과 하틀리의 과학적 발견 과정에 들어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찾아내어 근거와 함께 설명하고, 그들의 발견이 과학의 발전과 인류의 삶에 기여한 바를 기술하시오.

(800 ± 100자)

[논제 2]

제시문 [가]와 【논제 1】을 활용하여 '창의적 사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연 과학 이외의 영역에서 그러한 창의적 사고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 논하시오.

(800 ± 100자)

【분석】

❍ 논제 1

• **발문 :** 플레밍과 하틀리의 과학적 발견 과정에 들어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찾아내어 근거와 함께 설명하고, 그들의 발견이 과학의 발전과 인류의 삶에 기여한 바를 기술하시오.

(800 ± 100자)

논제 분석	
what	how
플레밍과 하틀리의 과학적 발견 과정에 들어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찾아내어 근거와 함께 설명하고	그들의 발견이 과학의 발전과 인류의 삶에 기여한 바를 기술

• **요구사항(requirement)**

– 플레밍과 하틀리의 과학적 발견 과정에 들어있는 창의적 생각을 정확히 파악할 것

– 플레밍과 하틀리의 창의적 생각이 과학과 인류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논리적으로 기술할 것

❍ 논제 2

• **발문 :** 제시문 [가]와 【논제 1】을 활용하여 '창의적 사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연 과학 이외의 영역에서 그러한 창의적 사고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 논하시오.

(800 ± 100자)

논제 분석	
what	how
제시문 [가]와 【논제 1】을 활용하여 '창의적 사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연 과학 이외의 영역에서 그러한 창의적 사고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 논술

• **요구사항(requirement)**

– 제시문 [가]와 【논제 1】에서 정리한 '창의적 사고'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

– '창의적 사고'가 자연 과학 이외에 어떤 내용에서 적용됐는지 구체적 사례를 찾아 제시할 것

【출제의도와 문항설명】

❍ 출제의도

- 지식기반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는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사례와 하틀리의 오존층 존재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창의적인 사고의 실례를 찾아보고, 개념화하도록 하였다.
- 통합적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호환성, 그리고 지식과 상상의 통합에서 기인하는 창의적 사고의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 문항설명

- 제시문 [가]는 예술 분야의 창조성에 관한 칸트의 생각을 매우 간략하게 보여주고, 학생들이 창의성을 개념화하는데 참고하도록 하였다.
- 제시문 [나]는 10학년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지문으로서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을 기술하고 있다. 제시문 [다]에서는 성층권을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았던 하틀리가 오존층의 존재를 가정하게 된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오존층에 대한 설명 역시 10학년 과학 교과서에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학생들이 과학 지식의 산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추론을 통해 탐구과정에서 나타난 창의적 사고를 찾도록 하였다.
- '논제 1'은 과학 탐구 과정에 나타난 창의적 생각을 인문학적 상상력과 추론을 통해 찾도록 하고 있다.
- '논제 2'는 창의성을 개념화하고, 이를 확장해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총평】

- 학생 대부분은 플레밍과 하틀리의 사례에서 제시된 창의적 사고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많은 답안들이 제시문 1, 2, 3을 단순 인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 창조성을 인문학적 상상력과 추론을 통해 개념화하고 이를 확장해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논제 2'에서는 학생들마다 다양한 예시를 들었다. 그러나 적절하지 않은 예시들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친 답안이 많았으며, 적절한 사례를 제시한 경우에도 앞에서 제시한 '창의적 사고'와의 논리적 연관성이 부족하여 논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답안이 대부분이었다. 많은 사례를 언급하는데 급급하여 하나의

사례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답안도 있었다. 논제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창의적 사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한 답안은 매우 드물었다. '논제 2'에서 중요한 것은 개념 정의와 사례의 일관성이다. 그러나 이를 충족한 답변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학은 학생들이 논술을 준비하면서 사고력을 키우기를 원한다. 그런데 학생들은 각 분야별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과 주요 내용을 암기하는 등의 기계적인 학습과 사교육에 의존하는 단기간의 맞춤형 학습을 하고 있다. 이 괴리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깊이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예시 답안이 모범 답안은 아니다.

【학생답안】

(1) 논제 1

플레밍의 창의성은 그가 우연히 발견한 사실을 흥미롭게 생각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배양 접시가 곰팡이에게 오염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실험상의 실수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오염된 접시는 폐기처분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플레밍은 이러한 실수에서 나타난 현상도 흥미롭게 생각하였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곰팡이가 그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상상력을 토대로 그는 곰팡이가 왜 항균 작용을 하는지 연구하여 페니실린을 발견해냈다. 특히 연구의 동기는 상상력이었지만 그 연구의 과정이 굉장히 구체적인 점은 플레밍의 창의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의 발견은 이후 과학에서 항균 물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곰팡이까지 그 연구의 폭을 넓힌 의의가 있다. 페니실린은 발견된 이후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여 세균에 의한 사망자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틀리의 연구는 그가 오존의 특성을 다른 문제를 설명해내는 데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창의적이다. 오존의 발견 당시 많은 과학자들이 오존의 특성을 연구했지만 그들의 연구는 오존 그 자체에만 한정되었다. 하지만 하틀리는 오존이 특정 범위의 파장을 갖는 자외선을 강하게 흡수한다는 사실이 지상에서 관측되는 태양광의 스펙트럼에 관한 의문점을 설명해낼 수 있을 거라 상상하였다. 이런 그의 상상은 특정 정보를 적합한 문제와 연결시켰다는 점과 상상의 기반이 구체적인 수치에 있다는 점에서 창의적이다. 그의 가설로 인한 오존층의 발견은 과학사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명쾌히 설명해냈다는 의의가 있다. 또 오존층의 연구는 인류 뿐 아니라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오존층 파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가는 기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논제 2

[가]에 따르면 창조성은 지성과 상상력이 조화를 이룰 때 발휘된다. 이 때 상상력은 일반적인 사고의 틀 바깥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말한다. 플레밍이 우연히 생긴 곰팡이에 주목한 경우나 하틀리가 오존의 특성을 태양광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데에 활용한 경우 모두 상상력이 드러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상상력 그 자체만을 놓고 창의적 사고라고 할 수는 없다. 상상력은 때로 다분히 주관적이며 현학적이기 때문이다. 상상은 그 기반이 구체적 현실에 있을 때 창의성으로 나아간다. 이 때 상상력에 구체성을 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성이다. 플레밍이 곰팡이에 대해 다각도로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과 하틀리의 가설이 그 당시까지의 과학적 발견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상상력이 지성의 도움으로 구체성을 띄는 과정을 보여준다. 상상이 지성에 의해 구체성을 갖게 되면 그 상상은 객관성과 보편성을 갖추게 된다. 이 때 비로소 그 상상은 창의적이라 말할 수 있다.

창의적 사고는 자연 과학 이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어 왔다. 일례로 피카소의 그림도 창의적 사고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에는 평면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기존 관념을 넘어 획기적인 표현기법으로 그림에 입체를 표현해냈기 때문이다. 이 때 그림에 입체를 표현한다는 것이 그의 상상력이고 그것을 가능케한 표현기법이 그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예를 통해 창의적 사고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카소의 창의적 사고가 기존 관념의 틀을 깼기 때문이다. 즉 창의적 사고는 보편성을 갖기에 사회의 사고의 틀을 바꾸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피카소가 우리에게 새로운 미의 세계를 열어주었고 플레밍과 하틀리가 인류사에 지대한 공헌을 했듯이 말이다.

✍ 채점평

이 답안은 기발한 발상을 토대로 논지를 전개하거나, 평소의 풍부한 독서량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한 답안은 아니다. 그러나 주어진 지문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논리를 차분히 전개해나가고 있다. 특히 '논제 1'에 대한 답안에서 이 점이 잘 드러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다. 제시문 [나]와 [다]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의 핵심을 비교적 정확한 문장으로 기술되어 있다. '논제 2'의 답안에서 주목되는 점은 지성과 상상력의 관계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펼쳐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창의적 상상력이 실현되는 첫 조건

을 현실 기반성에서,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객관성과 보편성에서 찾은 것은 인상적이다. 사례로 제시한 피카소의 새로운 회화에 대한 구상은 설명이 피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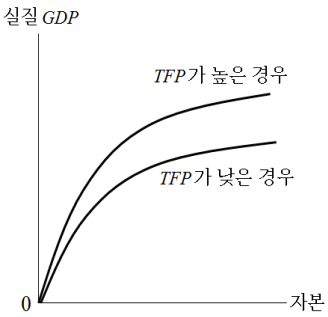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문장 서술에 있어 어색하거나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논제 1'에서 "또 오존층의 연구는 인류 뿐 아니라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오존층 파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나가는 기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문장은 비문이며, 불필요한 요소의 삽입으로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플레밍의 우연한 발견 이후 행해진 여러 단계의 실험과정을 단지 "구체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 역시 아쉬운 부분이다. 묘사하고자 하는 행위와 상태를 표현해내는 적절한 어휘의 구사 능력이 요청된다. 또 "곰팡이에게 오염된 것", "설명해낼 수 있을 거라 상상하였다." 등의 문장은 엄밀성을 강조하는 논술에는 어울리지 않는 구어체적 표현이다. 또 "…..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추론적 표현을 남발하지 말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쓰는 것이 좋다. 이 답안에서 지적된 이러한 요소들은 대부분의 다른 답안들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논술문 작성에 있어 논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지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정확하고 엄밀한 문장과 어휘의 사용은 훌륭한 논술문을 작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항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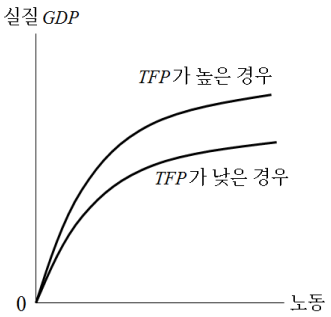
【제시문】

[가]

한 국가의 실질GDP는 자본, 노동, 총투입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에 의해 결정되며, 그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고 가정하자.



<그림 1> 노동이 일정한 경우



<그림 2> 자본이 일정한 경우

여기에서 총투입생산성은 좁게 보면 각 국가의 기술수준에 의해, 넓게 보면 기술수준 뿐만 아니라 실질GDP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제도, 정책, 규제, 사회간접자본 등)에 의해 결정된다.

아래 표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경까지 동아시아 몇 국가와 미국의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과 자본, 노동, 총투입생산성이 이러한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에 상대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보여 주고 있다. 1960년대 중반 동아시아 국가들의 실질GDP와 총투입생산성은 미국의 실질GDP와 총투입생산성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표 1〉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과 자본, 노동, 총투입생산성의 상대적 성장 기여도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	상대적 성장 기여도		
		자 본	노 동	총투입생산성
한국(1966-1990)	10.27%	39.6%	43.8%	16.6%
싱가포르(1966-1990)	8.75%	64.6%	33.1%	2.3%
홍콩(1966-1991)	7.29%	40.9%	27.6%	31.5%
대만(1966-1990)	9.40%	33.6%	38.7%	27.7%
미국(1966-1990)	3.03%	37.9%	42.3%	19.8%

[나]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 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 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仁義)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우리 국조(國祖) 단군(檀君)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또 우리 민족의 재주

와 정신과 과거의 단련이 이 사명을 달성하기에 넉넉하고 우리 국토의 위치와 기타 지리적 조건이 그러하며, 또 1차, 2차의 세계대전을 치른 인류의 요구가 그러하며, 이러한 시대에 새로 나라를 고쳐 세우는 우리가 서 있는 시기가 그러하다고 믿는다.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논제 1]

제시문 [가]의 그림을 이용하여 표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성장 특성을 설명하고, 이 특성이 향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장기적으로도 지속적 경제성장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단, 모든 국가들에서 실질GDP와 자본, 노동, 총투입생산성 간의 관계는 동일하다고 가정할 것.

(600 ± 100자)

[논제 2]

두 제시문을 기초로 하여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의 주연 배우로 등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되, 다음 사항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시오.

(1,000 ± 100자)

① 현재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기에 족한가?

② 제시문 [나]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아닌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소원하는 글쓴이의 생각이 현재 시점에서 타당한가?

【분석】

❍ 논제 1

• **발문 :** 제시문 [가]의 그림을 이용하여 표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성장 특성을 설명하고, 이 특성이 향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장기적으로도 지속적 경제성장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단, 모든 국가들에서 실질GDP와 자본, 노동, 총투입생산성 간의 관계는 동일하다고 가정할 것. (600 ± 100자)

논제 분석	
what	how
제시문 [가]의 그림을 이용하여 표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성장 특성을 설명하고	이 특성이 향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장기적으로도 지속적 경제성장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논술

- **요구사항(requirement)**
  - 모든 국가들에서 실질GDP와 자본, 노동, 총투입생산성 간의 관계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는 전제 조건을 충실히 따를 것
  - 지속적 경제성장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분명하고 정확히 할 것

❍ 논제 2

- **발문 :** 두 제시문을 기초로 하여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의 주연 배우로 등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되, 다음 사항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시오.

(1,000 ± 100자)

① 현재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기에 족한가?

② 제시문 [나]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아닌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소원하는 글쓴이의 생각이 현재 시점에서 타당한가?

논제 분석	
what	how
두 제시문을 기초로 하여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의 주연 배우로 등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

- **요구사항(requirement)**
  - 두 제시문의 중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것
  - 방안을 제시할 때는 다음 사항에 제시된 ①, ②를 반드시 포함할 것

【출제의도와 문항설명】

❍ 출제의도

- 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인까지 포괄하여 우리나라의 구체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종합적인 이해분석력, 판단력, 논리력, 창의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문항설명

- 제시문 [가]는 한 국가의 실질GDP와 자본, 노동, 총투입생산성 간의 이론적 관계를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경까지 동아시아 국가와 미국에 나타난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 그리고 자본, 노동, 총투입생산성이 이러한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에 상대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표로 보여주고 있다.
-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김구의 『나의 소원』에서 발췌한 글로서, "우리 민족이 세계무대의 주연 배우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인의(仁義), 자비, 사랑을 배양하는 문화의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논제 1'은 제시된 표에 있는 각 나라들의 경제 성장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경제 성장이 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한지를 논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논제 2'는 제시문 [나]에서 추출한 명제에 대하여 학생이 판단해 보고, 우리나라의 미래상에 대해 숙고하도록 하였다.

【총평】

- '논제 1'은 제시된 그림을 이용하여 표에 나타난 5개 국가들의 특성을 설명하는 문제이나, 많은 학생들이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과 자본, 노동, TFP의 상대적 성장기여도를 표에 제시된 비율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단순히 표에 제시된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표의 의미를 바탕으로 논점을 찾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논제 2'의 경우는 두 제시문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발전방안을 기술하는 문제였으나, 대부분의 답안은 제시문 [나]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TFP와의 관련성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시사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단순히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미래상에 대해 숙고하도록 요구한 문제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답안】

(1) 논제 1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경까지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은 뒤쳐진 조건에서 급격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의 각 그래프에서 왼쪽의 가파른 곡선 상에 위치해 있었음을 뜻한다. 미국은 반면 이미 경제가 상당히 성장해 있었으므로 실질GDP 성장률이 낮다.

표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과 싱가포르, 홍콩과 대만의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홍콩과 대만은 높은 총투입생산성의 비중이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다. 이는 제반 요인이 잘 갖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기술수준도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 TFP가 높을수록 그 국가는 TFP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유리해지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해진다. [가]의 그래프에서 곡선 자체가 위로 이동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과 싱가포르에서는 TFP의 성장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절망적 수준이다. TFP 수준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그래프에서 보듯이 자본과 노동을 더 투입해도 실질GDP의 한계 증가율은 점점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이 힘들어진다.

미국 역시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미국의 실질GDP 성장률이 낮은 것은 자본과 노동의 투입이 그래프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며, 이런 조건에서 TFP가 더 향상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지속적 경제발전은 어렵다.

(2) 논제 2

한국은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경제는 세계 10위권을 넘나들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의 대외적 업적도 이루었다. 그러나 동시에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모순도 생겨났다.

첫 번째는 낮은 TFP로 인한 성장 동력의 약화이다. 현재 GDP의 큰 부분을 자본집약적 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인 첨단산업 제품의 핵심 부품을 수입해서 쓰는 등 원천기술 보유의 문제도 심각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GDP가 대기업에 의존하는 산업의 이중구조화 역시 큰 문제이며, 이와 관련된 빈부격차는 고질적이다. 따라서 첨단 기술을 확보해서 TFP를 높이고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고용된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해주면, TFP도 높일 수 있고 많은 국민들의 '부력'이 풍족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국제관계와 군사력이다. 현재 한반도의 주위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이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이는 일정 부분 무역에 의한 원인이 크다. 따라서 무역 상대국을 다원화하여 한 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된 상황을 해소하여 우리나라가 주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한반도 주위의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군사력을 조금씩 보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김구 선생이 말했듯이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세계는 이미 탈산업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 역량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부족한 부력과 강력을 정비하면서, 앞으로 세계에 내놓을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에 힘을 쏟아야 한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앞으로의 세계에서 소비의 대상은 문화가 될 것이므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위한 노력은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

✍ 채점평

이 답은 표에 제시된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국가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범주화하였다. 즉 동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과 싱가포르, 홍콩과 대만의 경제성장 차이를 정확히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특성을 제시된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했던 점이 돋보인다. 표와 그림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출제 의도 중 하나였으며, 제시문 [가]의 그림을 이용하도록 논제에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이 답안은 다른 답안과는 구별된다. 특히 제시문의 마지막에 삽입되었던 "1960년대 중반 동아시아 국가들의 실질 GDP와 총투입생산성은 미국의 실질 GDP와 총투입생산성보다 낮은 수준"이었다는 단서 조항을 놓치지 않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의 각 그래프에서 왼쪽의 가파른 곡선 상에 위치해 있었으며, 반면 미국은 실질 GDP가 이미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하여 실질 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음을 그래프 상에서 정확하게 짚어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한 국가의 실질GDP와 자본, 노동, 총투입생산성 간의 관계가 일정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실질GDP의 증가가

자본 또는 노동투입 증가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은 국가경제가 〈그림 1〉과 〈그림 2〉의 곡선 상에서 이동했던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이에 비하여, 실질 GDP의 증가가 TFP의 증가에 의존했다는 것은 곡선 자체가 위쪽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미국 경제의 성장에 대해서는 다소 근거가 불분명하나, 전반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답안에 비해 표의 이해, 그래프와의 관계 설정, 그래프의 해석 등에서 출제 의도를 충족하고 있다

두 번째 논제의 경우, 이 답안은 도입 부분에 현재 우리의 부력(富力)과 강력(强力)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논지를 펼친 탓에 강한 흡입력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논제 1'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부력의 증가 방안을 정리하였고, 이후 강력의 증가 방안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논하였으나 이 점 역시 '논제 1'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문화로 대변되는 soft power를 키우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시문 [나]의 저자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데 있어 비교적 다양한 입장에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문항 3〉

【제시문】

[가]

조선 후기의 학문과 사상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향 중에 대표적인 것은 실학의 발달이었다. 실학은 17, 18세기 사회 · 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 모순의 해결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대두한 학문과 사회 개혁론이다. 실학은 18세기에 가장 활발하였으며, 대부분의 실학자는 민생 안정과 부국강병을 목표로 하여 비판적이면서 실증적인 논리로 사회 개혁론을 제시하였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나]

무릇 노비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하는 법을 한결같이 균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지금의 법에는 공사(公私)의 노비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노(奴)가

양녀(良女)에게 장가들어 낳은 아이는 아버지의 신분을 따르게 하니, 이 법은 한결같지 않고 오직 천한 신분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마땅히 한 쪽을 따르도록 그 법을 분명히 정하여, 노(奴)가 양녀(良女)에게 장가들어 낳은 아이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살펴보건대, 우리나라 풍속에 공사노비(公私奴婢)가 어머니를 따르게 하는 법은 고려 정종(靖宗) 때 시작되었다. 어머니만 알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금수(禽獸)의 도리(道理)이다. 인류인데도 금수처럼 처신(處身)하게 하니 어찌 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법이 아닌 유래를 구명해보면, 우리나라 풍속에서 노비를 부릴 때 학대하고 관용을 베풀지 않으며 마치 우마(牛馬)나 계견(鷄犬)처럼 다루는데, 부리기를 이같이 하고 아버지를 따르라고 하면 간사하고 문란한 소송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를 따르게 하는 법이 그른 것이 아니라 노비를 세전(世傳)시키는 법이 그른 것이다. 후세에 이르러서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는 법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어머니가 양녀(良女)이면 자식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신분을 따르게 하여 노비로 삼는다. 이런 법은 법이 아니고 다만 사람을 몰아서 노비가 되게 하는 것이니 불법 중에 불법인 것이다. [중략] 살펴보건대, 노비라는 명칭은 본디 죄지은 사람을 다스리는 데서 생겨난 것이며, 죄인이 아닌데도 노비로 만드는 법은 옛적에는 없었다. 무릇 죄인으로 노비가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벌은 후손에게까지 미치지 않았는데, 하물며 죄가 없는 사람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중략] 조선의 노비법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오직 그 가계만을 살펴서 영원히 노비로 삼는다. [중략] 조선시대에 들어와 법을 제정할 때 사람을 몰아 노비가 되게 하고 노비 신분에서 빠져 나오는 사람은 없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노비가 점점 많아져 10명에 8, 9명을 차지하고, 양인(良人)은 점점 적어져 10명에 1, 2명을 차지하게 되었다. [중략] 나라에 공민(公民)이 없어지고 모두 사유(私有)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비 한 사람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도 10년을 다투고도 판결이 나지 않는다. [중략] 도망간 노비 한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 그 구족(九族)을 침해하고 소요를 일으키기도 한다. [중략] 이러한 폐단과 형세가 극단에 이르러 변통(變通)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당장 변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하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한결같이 고루 적용하는 것이다. 양녀(良女) 소생이면 양인이 되게 함을 이름이다. [중략] 왕도(王道)가 행해져서 여러 가지 제도가 바로 서고 편루(偏陋)한 풍속이 제거되면 노비법이 반드시 혁파될 것은 명백하다. [중략] 우리나라에서는 노비법이 오래되고 그것이 풍속을 이루어 사대부들이 모두 노비에 의지하여 집을 유지하는 까닭에 갑자기 개혁하기 어렵다. 반드시 풍속이 점점 변하고 상하 모두 살림이

넉넉해지고 고공(雇工: 머슴)이 점차 늘어난 후에야 노비제를 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노비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갑자기 현재의 노비를 모두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다. 노비 신분을 당대에 그치게 하고 대대로 노비가 되게 하는 법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유형원『반계수록(磻溪隨錄)』, 1670년)

[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군신(君臣)과 상하(上下)는 예가 아니면 그 질서가 정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옛날에는 성인(聖人)이 개물성무(開物成務: 만물의 뜻을 밝혀서 인간의 질서를 마련함)의 문채(文彩)를 만들어 귀천(貴賤)을 표시하였으니, 소위 황제(黃帝)·요(堯)·순(舜)이 의상(衣裳)을 드리우자 천하가 다스려졌다고 하는 것이 이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공복(公服)의 문채에 등급이 있고 깃발의 술에도 등급이 있으며 수레에도 등급이 있으며 지붕의 골에도 등급이 있으며 제사에도 등급이 있어서 그 질서가 정연하여 상하의 등급이 명백하였으니, 이것이 성인이 세상을 통솔하고 백성을 안정시킨 대권(大權)이다. 우리나라 습속에도 변동이 자못 엄하여 상하가 오로지 각각 그 분수를 지켰다. 근세 이후로 작록(爵祿)이 한쪽으로 치우쳐 귀족이 쇠잔하자, 호리호맹(豪吏豪甿: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아전과 백성)이 틈을 타서 기세를 부려서 이들의 집과 말 치장의 호사스러움과 의복과 음식의 사치스러움이 모두 법도를 넘어, 아래가 위를 능멸하고 위는 시들게 되어 다시 등급이 없어졌다. 장차 어찌 사회를 유지 결합하여 그 원기를 북돋아 그 혈맥을 통하게 하겠는가. 귀천을 밝히고 지위의 서열을 구별하는 것은 오늘날의 급무(急務)이다. [중략] 옹정(雍正) 신해년(영조 7년, 1731년) 이후로 무릇 사노(私奴)의 양인(良人) 신분 처(妻) 소생은 모두 양인 신분을 따르게 되었다. 그 이후로 상층은 약해지고 하층은 강해져서, 기강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뜻이 흩어져서 통솔하고 이끌 수 없게 되었다. [중략] 신해년 이후 귀족은 날로 시들어 가고 천민은 날로 횡포해져서 상하의 질서가 문란하여 교령(敎令)이 행해지지 않으니, 한번 변란이 일어나면 흙더미가 무너지고 기왓장이 부스러지는 형세를 능히 막지 못할 것이다. 군왕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고 수령은 나그네와 같아서, 마을 이웃간에 어리석은 무리를 통솔하고 이끌 방도가 없으면 어찌 어지럽지 않겠으며 또 무엇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노비법을 복구하지 않으면 어지러움으로 망하는 것을 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정약용『목민심서(牧民心書)』, 1818년)

[논제 1]

자신이 19세기 초반의 실학자라고 가상하고, 노비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논설문으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시오.

(1,600 ± 100자)

① 노비제에 대한 [나]와 [다] 주장의 비교 · 설명

② 두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 단락 구분은 한 칸 들여쓰기로 하고, 논설문 전체의 제목이나 소제목은 쓰지 마시오.

【분석】

• **발문 :** 자신이 19세기 초반의 실학자라고 가상하고, 노비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논설문으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시오. (1,600 ± 100자)

① 노비제에 대한 [나]와 [다] 주장의 비교 · 설명

② 두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논제 분석	
what	how
자신이 19세기 초반의 실학자라고 가상하고	노비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논설문으로 작성한다.

• **요구사항(requirement)**

– 노비제에 대한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것

– 주장을 서술할 때는 다음 사항에 세시죈 ①, ②를 반드시 포함할 것

【출제의도와 문항설명】

❍ 출제의도

•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제시된 실학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노비제에 대한 당대 실학자들의 주장을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당대 사회와 실학사상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고 주장을 세우기 위한 근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한 후, 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 문항설명

-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실린 실학에 대한 지문이다. 제시문 [나]와 [다]는 유형원의 『반계수록』과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 노비제와 관련된 주장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제시문의 출전과 집필 시기를 제시문에 포함하여 노비제에 대한 실학자들의 관점의 차이를 시대적 차이를 고려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 논제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시대적 배경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실학자들의 개혁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학문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하고 있다.

【총평】

- '논제 1'은 제시된 그림을 이용하여 표에 나타난 5개 국가들의 특성을 설명하는 문제이나, 많은 학생들이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과 자본, 노동, TFP의 상대적 성장기여도를 표에 제시된 비율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단순히 표에 제시된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표의 의미를 바탕으로 논점을 찾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논제 2'의 경우는 두 제시문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발전방안을 기술하는 문제였으나, 대부분의 답안은 제시문 [나]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TFP와의 관련성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시사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단순히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미래상에 대해 숙고하도록 요구한 문제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답안】

(1) 논제 1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경까지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은 뒤쳐진 조건에서 급격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의

각 그래프에서 왼쪽의 가파른 곡선 상에 위치해 있었음을 뜻한다. 미국은 반면 이미 경제가 상당히 성장해 있었으므로 실질GDP 성장률이 낮다.

표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과 싱가포르, 홍콩과 대만의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홍콩과 대만은 높은 총투입생산성의 비중이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다. 이는 제반 요인이 잘 갖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기술수준도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 TFP가 높을수록 그 국가는 TFP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유리해지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해진다. [가]의 그래프에서 곡선 자체가 위로 이동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과 싱가포르에서는 TFP의 성장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절망적 수준이다. TFP 수준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그래프에서 보듯이 자본과 노동을 더 투입해도 실질GDP의 한계 증가율은 점점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이 힘들어진다.

미국 역시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미국의 실질GDP 성장률이 낮은 것은 자본과 노동의 투입이 그래프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며, 이런 조건에서 TFP가 더 향상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지속적 경제발전은 어렵다.

(2) 논제 2

한국은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경제는 세계 10위권을 넘나들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의 대외적 업적도 이루었다. 그러나 동시에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모순도 생겨났다.

첫 번째는 낮은 TFP로 인한 성장 동력의 약화이다. 현재 GDP의 큰 부분을 자본집약적 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인 첨단산업 제품의 핵심 부품을 수입해서 쓰는 등 원천기술 보유의 문제도 심각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GDP가 대기업에 의존하는 산업의 이중구조화 역시 큰 문제이며, 이와 관련된 빈부격차는 고질적이다. 따라서 첨단 기술을 확보해서 TFP를 높이고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고용된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해주면, TFP도 높일 수 있고 많은 국민들의 '부력'이 풍족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국제관계와 군사력이다. 현재 한반도의 주위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이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이는 일정 부분 무역에 의한 원인이 크다. 따라서 무역 상대국을 다원화하여 한 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된 상황을 해소하여 우리나라가 주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한반도 주위의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군사력을 조금씩 보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김구 선생이 말했듯이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세계는 이미 탈산업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 역량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부족한 부력과 강력을 정비하면서, 앞으로 세계에 내놓을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에 힘을 쏟아야 한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앞으로의 세계에서 소비의 대상은 문화가 될 것이므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위한 노력은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

✍ 채점평

이 답은 표에 제시된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국가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범주화하였다. 즉 동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과 싱가포르, 홍콩과 대만의 경제성장 차이를 정확히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특성을 제시된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했던 점이 돋보인다. 표와 그림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출제 의도 중 하나였으며, 제시문 [가]의 그림을 이용하도록 논제에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이 답안은 다른 답안과는 구별된다. 특히 제시문의 마지막에 삽입되었던 "1960년대 중반 동아시아 국가들의 실질 GDP와 총투입생산성은 미국의 실질 GDP와 총투입생산성보다 낮은 수준"이었다는 단서 조항을 놓치지 않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의 각 그래프에서 왼쪽의 가파른 곡선 상에 위치해 있었으며, 반면 미국은 실질 GDP가 이미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하여 실질 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음을 그래프 상에서 정확하게 짚어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한 국가의 실질GDP와 자본, 노동, 총투입생산성 간의 관계가 일정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실질GDP의 증가가 자본 또는 노동투입 증가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은 국가경제가 〈그림 1〉과 〈그림 2〉의 곡선 상에서 이동했던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이에 비하여, 실질 GDP의 증가가 TFP의 증가에 의존했다는 것은 곡선 자체가 위쪽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미국 경제의 성장에 대해서는 다소 근거가

불분명하나, 전반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답안에 비해 표의 이해, 그래프와의 관계 설정, 그래프의 해석 등에서 출제 의도를 충족하고 있다

두 번째 논제의 경우, 이 답안은 도입 부분에 현재 우리의 부력(富力)과 강력(强力)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논지를 펼친 탓에 강한 흡입력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논제 1'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부력의 증가 방안을 정리하였고, 이후 강력의 증가 방안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논하였으나 이 점 역시 '논제 1'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문화로 대변되는 soft power를 키우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시문 [나]의 저자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데 있어 비교적 다양한 입장에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11 성균관대학교

가. 개 요

■ **분석대상 : 2010학년도 수시 2차 인문계열 문제**

■ **시험시간 : 120분**

■ **문 항 수 : 4문항**

■ **답안 분량 : 제한 없음**

■ **출제 방향 및 지침**

- ❍ 대학교육과정에서 필요한 논리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능력 및 서술능력을 평가하는데 주력한다.
- ❍ 통합교과형 논술을 지향하는 본교의 지침에 따라, 단편적인 주제나 전형적인 시사문제를 지양하여, 암기를 통한 정형화된 답안 작성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통합적이며 논리적인 분석능력과 창의성을 평가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기여한다.
- ❍ 표나 그림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상반된 견해에 대한 논리적 이해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 ❍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맥을 구성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 **출제의도**

수험 대상자가 사회과학계열 지원 학생들인 점을 고려하여,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을 논술고사 문제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 주제는 사회과학의 본원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의 1단원 1장 2~3절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4번 논술문항의 소재는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연관되어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어진 현상을 선택하였다.

수험생들의 대학 수학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위에 언급한 중점 평가영역에 관련시켜 4문제를 출제하였는데, 문제의 형식은 본교가 이미 모의논술고사를 통해 제시한 틀을 그대로 유지했다. 1번 문제는 제시문의 논지를 입장별로 구분하고 논지를 요약하는 능력, 2번 문제는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반대 입장을 비판하는 능력, 3번 문제는 제시문과 연관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4번 문제는 제시문의 한 관점을 활용하여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과학적 탐구의 방법에 대한 입장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이번 논술에서는 현상을 가능한 단순화 하여 설명하는 법칙성을 추구하는 일원적(보편주의) 입장과 현상을 가능한 다양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려는 다원적(상대주의) 입장을 대비시켰다.

일원적 입장은 신고전경제학의 경우처럼 단순화된 가정과 제한된 변수에 기반하여 현상을 설명하려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단순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여러 요인에 대한 고려를 통해 가능한 상세하고 다양한 측면(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회학이나 인류학의 입장은 다원주의에 더 가깝다.

탐구의 방법에 대한 위의 두 가지 입장은 학문 분야의 성격이나 학자들에 따라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인데, 본 논술고사에서는 수험생의 개인적 입장이 어떤 쪽을 더 선호하는지는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즉 일원론과 다원론의 비교에서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하는 것은 채점 기준이 아니며,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들을 분명하게 분석하고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 중점 평가 영역

- 1번 문제 :

  1-1) 각 제시문의 내용을 올바로 파악하여 적절히 분류하였는가?

  1-2) 두 입장의 핵심 내용을 적절히 요약하였는가?

- 2번 문제 :

  2-1) 자료의 의미를 올바로 그리고 상세하게 파악하였는가?

  2-2) 그 자료를 비판의 근거로 적절히 활용하였는가?

• 3번 문제 :

3-1) 분석을 통해 그림이 보여주는 현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정확히 서술하였는가?

3-2) 그러한 현상적 특징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다원론적 입장과 긴밀하게 연관지워 설명하고 있는가?

• 4번 문제 :

4-1)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설명이 다원주의에 기반하여 일관성 있게 기술되었는가?

4-2)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술 내용이 포괄적이고, 창의적인가?

나. 논제 및 제시문 분석(2010학년도 수시)

[문제 1] 아래 제시문들(1~4)은 현상을 탐구하는 방법에 대한 입장을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1] 지식도 시장에 내다 팔고 돈을 주고 거래하는 상품으로 전락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이르러 거대이론에 대한 믿음도 모두 깨졌다. 료타르가 말하는 '거대이론'이란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보편적 제도나 사고구조 또는 체계를 말한다. 모더니티는 이른바 거대이론을 만들어 내려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의 예로는 프랑스 대혁명에서 시작하는 해방의 담론과 독일 사상에서 볼 수 있는 정신의 실현에 대한 담론, 부(富)의 담론, 자본주의 정치경제학의 담론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거대이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헤겔의 관념철학, 하이데거의 해석학, 스미스와 리카도의 경제이론,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등 인간과 사회에 관한 총체적인 가설이나 역사서술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다윈의 진화론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도 모두 거대이론에 들어간다. 료타르는 이러한 모든 총체적인 사고체계가 현대사회에 이르러 완전히 파산선고를 맞이하였다고 지적한다. … 19세기 이단아 니체의 말대로 "절대성을 신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같이 병적(病的)"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성이나 다원주의적 입장을 취한다고 하여 윤리적 결정이나 심미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거대이론을 거부한다고 하여 지식과 담론에서의 실용적인 합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2] 신고전파 경제이론체계는 '합리적이고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개인'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인간모델에 의존하고 있다. 인간이란 자기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가능한 많이 취득함으로써 효용을 추구하고, 이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며, 이 때 자신이 속해 있는 더 큰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기에 앞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하고자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판단을 내린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말하자면 80%의 정확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이 제시한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 행동의 기본 모델은 그 시대에 80% 정도 들어맞았고, 이로써 화폐와 시장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 자유시장 경제이론이 거둔 지적 승리는 자기 확신을 가져왔다. 많은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이미 얻은 성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이 발견한 경제법칙을 통해 인간에 대한 일원론적이고 보편과학에 근접한 학문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고 믿게 되었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의 법칙이 어디에나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칙은 러시아나 미국, 일본, 부룬디, 파푸아뉴기니를 막론하고 똑같이 타당성을 가지며, 그 적용에 있어서 의미 있을 정도의 문화적 편차를 허용치 않는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보다 심원한 인식론적 의미에 있어서도 역시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다. 경제학 방법론을 통해 인간의 본성에 관한 근원적 진실이 밝혀져, 인간 행위의 거의 모든 측면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경제학 방법론을 정치, 관료제도, 인종차별, 가족, 출생률 등 통상 비경제적 현상으로 간주되는 영역에까지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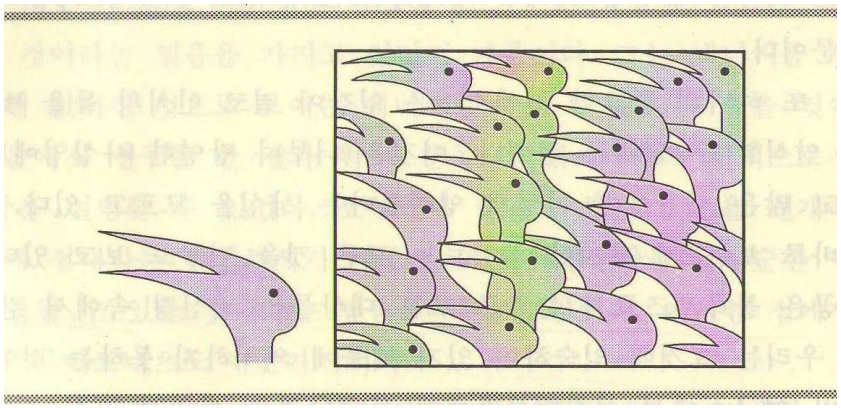
[3] 고교 시절 생물시간에 선생님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체모형을 사용해서 인체의 구조를 가르쳐주었을 것이다. 이 플라스틱 모형에는 심장, 간, 신장 등 사람의 주요 장기가 있다. 선생님은 이 모형을 사용해서 사람 몸속의 장기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맞춰졌는지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이 플라스틱 모형은 실제 인간의 몸이 아니고, 이것을 실제 인간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없을 것이다. 이 모형은 단순화되어 실체와는 많이 다르다. 그러나 실체와 다른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비현실적인 단순성 때문에 인체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경제학에서도 현실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모형을 사용한다. … 마치 물리학자가 조약돌이 낙하할 때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는 것처럼 가정하듯이, 경제학자들도 분석하고자 하는 현상과 직접 관련 없는 세부사항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물리학이나 생물학, 경제학의 모든 모형은 현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현실을 단순화한 것이다. … 경제학의 모든 모형에서 경제적 유인은 사람의 행동을 예측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심지어 어떤 경제학자는 경제학 전체가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나머지는 모두 부수적이다”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사회·문화현상은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급속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학문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우리 사회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구조의 변화,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다양한 사회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갈등 현상은 경제학적으로 그리고 사회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하다. 사회갈등과 관련하여 경제학적으로는 개인들간에 자원의 희소성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과 자원배분의 문제로서 접근하면서 시장원리에 기반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사회학의 갈등이론에 따르면,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위세, 권력, 자산의 추구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 집단, 조직 간에 발생하는 대립적 상호작용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희소가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 내부의 갈등이 구성원간의 대립과 반목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일단의 이론가들은 예컨대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합의에 근거한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전략을 의미하는 시민사회적 해법 내지는 참여자치적 해법을 통해 사회질서의 유지가 가능하며 사회체계는 재통합되는 과정을 겪는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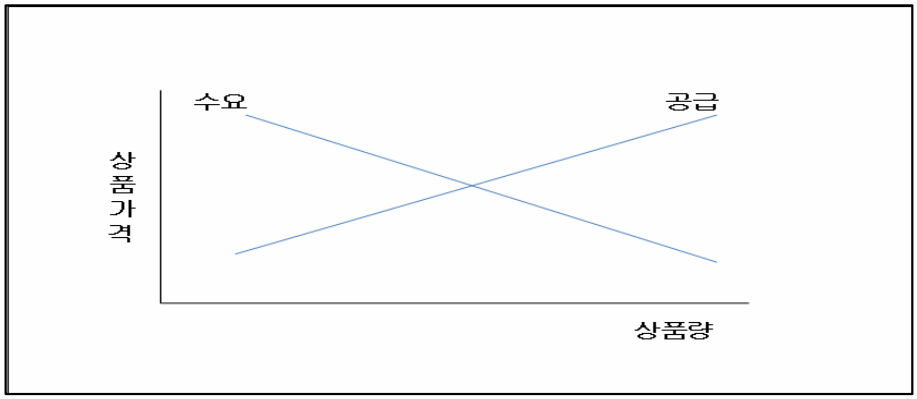
[문제 2] 아래 자료는 [문제 1]의 제시문들의 두 입장을 각각 대변한다. 아래 자료 중 하나를 활용해서,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택하여 그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자료 1〉



* 형태심리학(Gestalt psychology)에서는 동일한 현상에 대한 이해도 인식의 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한다. 그림을 한 쪽에서 보면 토끼들처럼 보이고, 다른 쪽에서 보면 새들처럼 보인다.

〈자료 1〉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코즈(Coase)는 "어떠한 사물이 보다 높은 (상대)가격을 가질 때 수요량은 감소한다고 하는 지식, 즉 수요법칙은 매우 광범위한 인간행동과 사회·경제현상을 설명하는 원리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제 3] 아래 그림들이 결합해서 보여주는 현상을 설명하시오. 단, [문제 1]의 두 입장 중에서 이 현상을 보다 적절히 설명하는 입장에 근거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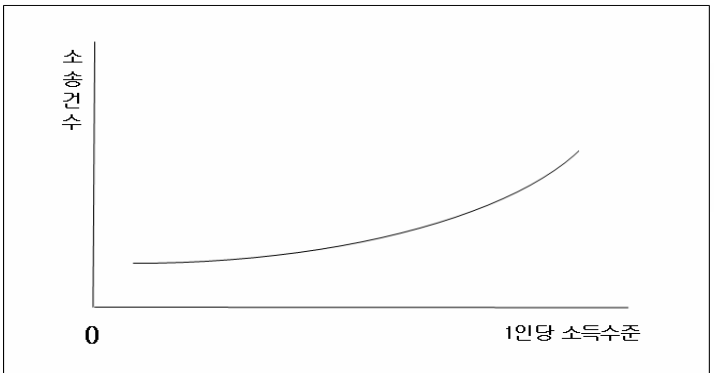


그림 1. 소득과 삶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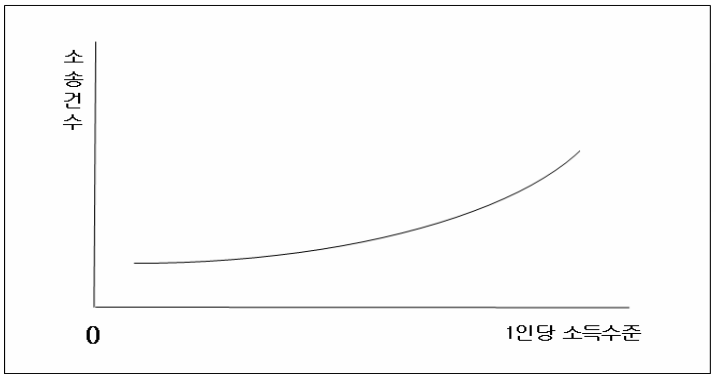


그림 2. 소득과 사회갈등

[문제 4] 〈제시문 4〉의 관점에서, 아래에 제시된 문제상황의 원인 및 해결방안을 설명하시오.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은 생물학자 하딘(Hardin)이 제기한 사회갈등의 대표적 사례로서, 주인이 따로 없는 공동 목초지는 마을의 농부들이 각자 점점 더 많은 양(羊)을 키우려고 함으로써 결국에는 황폐화된다는 것이다.

분 석

❍ 논제 1

• **논제 1 :** 아래 제시문들(1~4)은 현상을 탐구하는 방법에 대한 입장을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논제 분석	
what	how
– 네 개의 제시문을 – 각각의 입장을	– 두 입장으로 분류 – 요약하시오.

• **고려사항(option)**

• 과학 탐구의 방법이 현상을 가능한 단순화하고 법칙성을 추구하는 일원적인 것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가능한 다양한 요인과 관점을 통해 있는 그대로에 가까운 상세한 설명을 추구하는 다원적인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담고 있는 4개의 제시문(각 2개씩 입장이 대비되며, 이중 2개의 제시문은 일원론과 연관되고, 2개는 다원론과 연관됨)을 제시하고, 이를 상반된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논지를 요약하여 정리하도록 함.

❍ 논제 2

• **논제 2 :** 아래 자료는 [문제 1]의 제시문들의 두 입장을 각각 대변한다. 아래 자료 중 하나를 활용해서,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택하여 그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논제 분석	
what	how
선택된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 **고려사항(option)**
- 자료 중 하나를 활용할 것.
- [문제 1]의 입장 중 택 1 할 것

[논제 분석]
• 다원론의 입장을 지지하는 자료와 일원론을 대표하는 자료를 각각 제시하고, 이 중 하나의 자료를 이용하여 문제 1의 한 입장에 대해 비판하도록 함.

❍ 논제 3

• **논제 3 :** 아래 그림들이 결합해서 보여주는 현상을 설명하시오. 단, [문제 1]의 두 입장 중에서 이 현상을 보다 적절히 설명하는 입장에 근거하시오.

논제 분석	
what	how
자료가 보여주는 현상을	설명하시오.

• **고려사항(option)**
- 그림과 도표 자료들을 해석하여
- 사회 현상과 결부시켜 추론 할 것

• 소득과 삶의 만족도, 사회갈등을 연결한 두 개의 그림을 제시하고, 이 두 그림이 결합하여 보여주는 현상에 대해서 문제 1의 입장 중 더 적절한 입장을 활용하여 설명하도록 함.

❍ **논제 4**

• **논제 3 :** 〈제시문 4〉의 관점에서, 아래에 제시된 문제상황의 원인 및 해결방안을 설명하시오.

논제 분석	
what	how
문제상황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설명하시오.

• **고려사항(option)**
- 〈제시문 4〉의 관점을 토대로

• 현대사회의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인 '공유지의 비극'현상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논술하도록 함.

■ 제시문 및 자료의 출처

〈제시문 1〉 포스트모더니즘 (김욱동. 연세대출판부, 2009)
〈제시문 2〉 트러스트 (후쿠야마. 한국경제신문사, 1996)
〈제시문 3〉 맨큐의 경제학 (맨큐. 교보문고, 2009)
〈제시문 4〉 출제 위원회에서 구성
〈자료 1〉 경제학사 (주명건. 박영사, 1998)
〈자료 2〉, 〈그림 1〉, 〈그림 2〉: 출제 위원회에서 구성
* 각 제시문과 자료 등은 출제의도에 맞추어 수정 보완 및 윤문을 하였음.

■ 모범 답안의 골격

❍ 논제 1

❍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데 있어 일원론이 더 유용하다는 입장(제시문 2와 3)과 다원론이 더 유용하다는 입장(제시문 1과 4)을 대비시켜 각 입장의 내용을 요약해야 함

▷일원론적 관점

· 제시문 2: 신고전파 경제이론은 단순한 가정과 모델에 기반하여 일원론적이고 보편적인 학문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경제학의 법칙이 경제 현상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주장함

· 제시문 3: 경제학을 비롯한 일부 학문 분야에서는 복잡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서 현상을 단순화하고 모형화하여 파악하려고 함. 예컨대, 경제학은 모든 현상을 사람의 이기적 동기나 경제적 유인으로 환원해서 설명함

▷ 다원론적 관점

· 제시문 1: 보편성을 추구하는 거대 이론은 더 이상 설명력이 없으며 다원주의적 접근이 모호하거나 비실용적이지도 않음

· 제시문 4: 사회적 현상의 복합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법으로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함. 예컨대, 사회 갈등을 설명하는 데에도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음

❍ 논제 2

▷ 〈자료 1〉을 활용할 경우 : 〈자료 1〉은 보는 관점에 따라 동일한 현상이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다원론에 해당되는 사례이므로 일원론에 대한 반박 근거로 사용해야 함. 즉, 다면적이며 복합적인 현상을 일면적이고 단순하게 해석함으로써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음

▷ 〈자료 2〉를 활용할 경우: 자료는 경제학의 수요법칙을 보여주고 있음. 각주의 설명을 통해 수요법칙이 보편성과 원리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일원론에 해당되는 사례이므로, 다원론에 대한 비판과 반박의 근거로 사용해야 함. 즉, 다원주의는 과도한 주관주의와 상대주의의 우를 범할 수 있음. 현상의 개별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 이론화가 어려움. 과학적 지식이 의견이나 신념으로 비하될 수 있음

❍ **논제 3**

▷ 〈그림 1〉은 소득 수준의 상승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만족도의 증가는 체감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는 〈그림 2〉의 소송건수 지표에서 보듯이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함

▷ 〈그림 1〉 의 자료를 한계효용체감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문제에서 두 그림이 결합해서 보여주는 현상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림 2〉가 시사하고 있는 사회적 요인들과 관련지어 설명해야만 완전한 답임

❍ **논제 4**

❍ 〈제시문 4〉를 특정함으로써 다원론적 입장에 기반하도록 하였고, 〈제시문 4〉에서 제시된 경제학적 입장과 사회학적 입장을 활용하게끔 유도함

▷경제학적 접근

· 원인: 인간 활동은 개인의 이기심에 기반하여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과 배분의 문제

· 해결방안: 재산권 설정 등 시장적 방식. 소유권을 도입하여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함

▷ 사회학적 접근

· 원인: 희소자원의 확보를 둘러싼 경쟁 집단 간의 갈등

· 해결방안: 사회 구성원들에 의한 자율적 참여와 협상

12 성신여자대학교

가. 개 요

■ 분석대상 : 2010학년도 수시 1차 인문계열 문제

■ 시험시간 : 120분

■ 문 항 수 : 3문항

■ 답안 분량 : 1,900자 내외

❍ 논제 1 : 300자 내외

❍ 논제 2 : 600자 내외

❍ 논제 3 : 1,000자 내외

■ 출제 방향 및 지침

통합교과형 논술로서 고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이나 그와 유사한 수준의 문학·철학·역사·사회·사상·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가 출제대상이다. 배경지식이 부족해도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다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된다.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제시된 지문을 충분히 이해하였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지문의 내용을 요약
- 제시된 지문의 핵심 논지를 옳게 파악하였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된 주장의 논리적 분석과 추론
- 지문에서 이해한 내용과 논지의 분석을 토대로 현상에 대한 비교, 재구성 및 응용

■ 출제의도

통합교과의 영역 곧 미학, 문학, 경제학, 철학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지문을 발췌하여 제시된 자료에 대한 이해력과 논리적 분석력 그리고 응용적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 출제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 제시된 자료에 나타난 다양한 관점들을 이해하고 이를 서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지 여부와
- 이를 토대로 논리적인 글을 설계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영역의 원리들을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 구체적 출제의도와 측정 대상은 미학, 문학, 경제학, 철학 등의 영역에서

- 자율성과 타율성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나는지
- 자율성과 타율성의 원리가 충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 자율성을 구성하는 중심 범주의 하나로서 자유의 두 측면, 즉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인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수험생의 사고의 폭과 깊이가 측정대상이다.

▌ 주제 : 자율성과 타율성

▌ 평가기준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가 논제 공통의 평가요소(각 논제 당 5점 배점)이고, 각 논제 당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논제 1 : (20점)

-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15점)

❍ 논제 2 : (30점)

- 제시문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는가?(10점)
- 제시문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이해의 체계성, 이해 내용 간의 논리적 연결성 등 (15점)

❍ 논제 3 : (50점)

- 이해가 내용에 근거하고 있는가?(15점)
- 이해와 응용이 일치하는가?(20점)
- 개인의 관점이 논리적이고 분명한가?(10점)

나. 제시문 분석

■ 논제 및 제시문

다음 제시문들은 모두 자율성(自律性) 혹은 타율성(他律性)이라는 추상적인 개념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사전은 자율성을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성질이나 특성"으로, 타율성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하여진 원칙이나 규율에 따라 움직이는 성질"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여러 학문 영역, 예를 들면 미학, 문학, 경제학, 철학 등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질문에 답하되, 반드시 지문에 근거를 두기 바랍니다.

[가]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은 미(美)를 선(善)이나 진(眞)에, 예술을 도덕이나 종교 또는 철학에 종속시켰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는 다르다. 우리 시대에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예술을 감상한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영화관에 가고, 유식해지려고 음악회에 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순수 예술', 즉 진리나 도덕적 교훈을 주지 않는 예술을 타락한 것으로 여겼다. 이런 생각에서 예술을 해방시킨 사람이 칸트다. 예술이 오늘날처럼 자기 고유의 '자율성'을 갖게 된 건 순전히 칸트 덕분인데, 우리가 예술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대부분 그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가령 예술이 '형식'이며 '상상력'의 소산이며 '천재'의 산물로 보는 관점이 그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미를 '유용성'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에겐 화려한 황금 방패보다 튼튼한 강철 방패 쪽이 더 아름다웠다. 플라톤은 '선(善)'의 이데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대인은 미와 선을 아예 하나로 합쳐 삶의 이상으로 삼았다. 그게 바로 '칼로카가티아'(善美)다. 한편 근대인들은 미를 '인식'이라고 생각했다. 다빈치에게 예술은 과학이었고, 바움가르텐에게는 감성적 인식이었다. 하지만 칸트가 보기에 이건 한참 잘못된 생각이다. 왜 그럴까?

취미 판단(미에 대한 판단)은 인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는 사물의 객관적 성질이 아니니까. 가령 장미꽃을 보고 내가 "이 꽃은 빨갛다"고 말하면, 당신은 군말 없이 동의한다. 하지만 "이 꽃은 아름답다"고 하면,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미가 사물의 객관적 속성이 아님을 보여준다. 어떤 사물을 아름답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물이 모양이나 색과 함께 '미'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그게 맘에 든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취미 판단은 한갓 '주관'의 쾌·불쾌에 관한 판단일 뿐, '대상'에 대한 인식이 아니다. 인식이란 어디까지나 사물의 객관적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니까.

미는 선(善)도 아니다. 사람 중에는 성질은 못됐어도 얼굴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생긴 사람도 있으니까. 유용성도 아니다. 쓸모 있다고 다 아름다운가? 취미 판단은 이런 불순한 동기에 좌우되면 안 된다. 고상한 도덕적 동기든, 비열한 이기적 동기든 간에 말이다. 칸트는 취미 판단의 이런 특성을 멋있게 '미적 무관심성'이라고 불렀다. (진중권, 『미학 오디세이』에서 발췌, 수정)

[나] 1992년 서울지검은 소설 『즐거운 사라』의 작가인 연세대 마광수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음란문서 제조 및 판매 혐의로 구속했다. 마광수 교수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외면상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성 가치관 문제의 대립으로 보였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포르노 리얼리즘'을 용인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되었다. 마광수 교수는 억압받은 성의 해방을 형상화한 작품에 대한 예술적 차원의 판단을 주장했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형법상의 음란죄는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 문제'라고 주장했다. 문단은 마 교수의 구속 이틀 뒤 문인 200명이 서명한 '문학작품 표현자유 침해와 출판탄압에 대한 문학 출판인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공동성명서에는 문학의 문제는 문단 내부에서 결정, 최종적으로 독자들의 판단에 맡겨 시간을 거치며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어 있다. 모든 예술 장르에서 표현의 자유가 타율적인 규제나 공권력에 의해 억압되어 작가의 표현물에서 예술성이 박탈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한 시인은 마 교수를 구속한 검찰을 '프로야구 경기장에 난데없이 들어와 반칙한 선수를 끌고 간 경찰'에 비유했다. (잠수함토끼, 『오늘의 발견 2』에서 발췌, 수정)

[다] 로크와 마찬가지로 애덤 스미스도 기계론적 세계관에 도취되어 뉴턴 패러다임의 보편성을 반영하는 경제이론을 만들어내기로 결심했다.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는 움직이는 천체가 자연의 일정한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의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법칙을 따르면 경제는 성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와 통제 때문에 경제는 부자연스런 방향으로 끌려가고 따라서 자연의 법칙이 깨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은 더욱 빨리 팽창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생산은 억제당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자연적인' 경제의 힘을 무리하게 통제하려고 하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애덤 스미스에게 있어서 효율성은 모든 현상을 지배하는 법칙이었다.

경제학의 법칙을 들여다보면 가장 효율적인 경제운영 방법은 자유방임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스미스의 주장이다. 자유방임이란 아무것에도 참견 받지 않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존 로크와 마찬가지로 애덤 스미스도 모든 인간 활동의 기본은 물질적 자기 이익의 추구라고 믿었다. 이것은 자연스런 것이므로 우리는 이기주의를 통제하는 사회적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를 만족시키려는 인간의 욕구를 시인해야 하며, 결국 이기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미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각 개인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따라 부의 희귀성은 부의 잉여로 바뀔 수 있다.

"각 개인은 그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지 사회의 이익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적인 이익 추구 행위는 자연적으로(또는 필연적으로) 사회에 이익이 된다."

애덤 스미스는 존 로크가 사회적 관계로부터 도덕성을 제거해버린 것처럼 경제에서 도덕성을 제거해버렸다. 어떤 식으로든 경제에 도덕성을 강제하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의 법칙이 깨질 뿐이다. 스미스의 주장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손은 모든 경제 활동을 지배하는 법칙으로, 자본 투자, 고용, 자원의 활용, 상품의 생산 등을 자동적으로 배분해주는 힘이다. 인간이 이성을 통해 이 법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보이지 않는 손을 개선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제레미 리프킨, 『엔트로피』(이창희 역)에서 발췌)

[라] 부정한 수단으로 수상의 자리에 오른 폰 발터는 그의 아들 페르디난트를 영주의 애첩인 레디 밀포드와 결혼시키려 한다. 영주의 정략결혼을 위해 이 애첩을, 최소한 외견상으로는, 영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 짐을 자신의 아들에게 지우려는 것이다. 그러나 열렬한 이상주의자이고 게다가 시민계급 출신의 처녀 루이제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페르디난트는 이러한 부도덕한 결합을 분연히 거부한다. 이에 당황한 수상은 그의 심복 부름의 책략에 따라 루이제의 부모를 감금해놓고 이들의 생명 보전을 담보로 하여 루이제에게 다른 남자에게 보내는 거짓 사랑 편지를 쓰도록 강요한다. 이는 물론 페르디난트로 하여금 루이제를

단념하게 하려는 간계이다. 이들은 만일을 위하여 루이제에게 이 편지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발설하지 않겠노라고 성서에 대고 맹세할 것까지 요구한다. 이 맹세에 묶인 루이제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자 페르디난트는 루이제의 사랑의 배신에 대해 격노하고 그의 사랑은 증오로 바뀐다. 그는 루이제에게 독약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자신도 그 음료수를 마신다. 이 비극은 젊은 두 연인의 죽음으로 막을 내린다. (김수용, 「예술의 자율성과 부정의 미학」에서 발췌, 수정)

루이제 : 부탁이에요, 이제 그만 두어요. 난 행복한 날이 오리라고 더 이상 믿지 않아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페르디난트 : 나의 희망은 더 커졌는걸. 우리 아버지는 노발대발하고 계셔요. 우리 아버지는 모든 포문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할 거요. 아버지는 나로 하여금 비인간적인 아들이 되길 강요할 것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효도를 하지 않겠소. 분노와 절망이 아버지가 저지른 살인 사건의 비밀을 털어놓도록 강요할 것이오. 아들이 아버지를 형리의 손에 넘길 것이오. 그리고 나의 사랑이 거대한 도약을 감행하려면 최고의 위험이 따라야 하오. 들어봐, 루이제. 나의 정열처럼 위대하고 대담한 생각이 내 영혼 앞에 나타나오. 루이제 당신과 나 그리고 사랑! 이들 사이에 하늘 전체가 놓여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어떤 제4의 무엇을 필요로 하오?

(중략)

루이제 :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사랑 이외는 아무런 의무도 없나요?

페르디난트 : (그녀를 껴안으면서) 당신의 평화가 나에겐 신성한 의무요.

루이제 : (아주 진지하게) 그럼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나에게서 떠나요. 내겐 이 외동딸밖에는 아무런 재산도 없는 아버지가 있어요. 내일모레면 예순이 되시는데. 수상의 복수는 틀림없는 일이고.

페르디난트 : (재빨리 막는다) 우리와 동행하시게 해요. 그러니 더 이상 반대는 말아요, 나의 사랑. 나는 가서 귀중품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아버지 재산을 인출하겠소. 강도를 약탈하는 것은 허락된 일이오. 그리고 아버지의 재물은 조국의 살인 배상금이 아니던가? 한밤중 정각 한 시에 마차가 여기로 올 것이오. 그걸 타고 도망갑시다.

루이제 : 그럼 당신 아버지의 저주가 우리를 뒤쫓겠군요? 경솔하신 이여. 하늘의 복수가 바퀴에 매달린 도둑에게 말할 저주, 그 저주는 우리 도망자들을

유령처럼 무자비하게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쫓아다니겠지요? 안돼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 악행을 통해서만 내가 당신을 차지할 수 있다면, 당신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쉴러, 『간계와 사랑』(이원양 역)에서 발췌, 수정)

[마]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내 활동에 개입하여 간섭하지 않는 만큼 내가 자유롭다는 것이 소극적 자유의 어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정치적 자유는 한마디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가만히 놔두었더라면 내가 할 수 있었을 일을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못하게 되었다면 그만큼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 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적어도 '자신에게만 관련되는 행동에서' 각자 원하는 대로 살도록 허용되지 않는다면 문명의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사상의 자유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발성, 창의성, 천재적 영감 따위가 애초에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는 말한다. "한 사람이 남의 충고를 듣지 않아서 저지르는 실수는 남들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함으로 발생하는 해악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자유'라는 단어의 적극적 의미는 자신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각 개인의 소원에 뿌리를 둔다. 나는 내 인생 및 결정이 나 자신에 의하여 좌우되기를 바라지, 어떤 종류가 되었든 외부의 힘에 의존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고 싶다. 나는 개성을 가진 인격체이기를 원하지 아무 의지 없는 기계가 되고 싶지 않다. 무엇보다도 나는 사고하며,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인 존재로 나 자신을 인식하고 싶은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것이 많다. 나는 걷잡을 수 없는 열정에 쉽게 예속되며, 자연법칙, 비합리적 충동, '저급한' 본능에 예속된다. 따라서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 나는 이성, '고귀한' 본성, 장기적 안목을 따르는 진정한, 이상적인 자아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욕망 또는 쾌락에 휩쓸리는 부분을 엄격하게 훈육하여 버릇을 잡아야 한다. (이사야 벌린, 『자유론』(박동천 역)에서 발췌, 수정)

[바] 키르케의 마법에 걸려 돼지로 변한 선원들을 구할 약초를 손에 넣은 오디세우스는 그들에게로 달려간다. 비좁은 우리에 갇혀 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내는 그들에게 마침내 자유를 안겨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돌아온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선원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빠르게 자기 우리로

도망을 간다. 오디세우스는 결국 그 중 한 마리를 잡는 데 성공하는데, 기적의 약초로 한 번 쓱 문지르니 억센 짐승가죽으로부터 엘페노르가 빠져나왔다. 그는 힘이 장사도 아니고 딱히 영리하지도 않은, 다른 이들과 똑같은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선원이었다. 해방된 엘페노르는 자신이 구출된 데 고마워하기는커녕 그의 '해방자'를 사납게 공격한다.

"또 왔구나 나쁜 놈, 이 참견꾼 자식, 우리를 들볶고 못살게 굴고 싶어서. 우리를 위험에 빠트리고 우리의 심신을 고달프게 하는 결정을 매번 하라고? 난 정말 행복했는데, 진흙탕에 뒹굴며 햇볕을 쬐고 꿀꿀꽥꽥거리면서 '이걸 해야 하나, 저걸 해야 하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따위의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왜 왔어?" (지그문트 바우만, 『액체근대』(이일수 역)에서 발췌, 수정)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예술의 자율성과 타율성 개념을 중심으로 요약하시오. (300자 내외)

[문제 2]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나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타율성의 성격을 각각 비교 · 설명하시오. (600자 내외)

[문제 3] 제시문 [라]의 페르디난트와 제시문 [바]의 엘페노르의 경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문 [마]에 나타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이 두 인물이 드러낸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논하시오. (1,000자 내외)

■ 제시문 분석

❍ 제시문 가 : 진중권, 《미학 오디세이》에서 발췌, 수정

- 미적 혹은 예술의 자율성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한 글
- 전통적으로 미를 선이나 진에, 예술을 도덕이나 종교 또는 철학에 종속시켰다.
- 근대에도 미를 '인식'이라고 생각했다.
- 칸트에 이르러 미 혹은 예술이 바깥 영역과 분리되었고, 고유의 '자율성'을 가지게 되었다.
- 칸트는 예술을 '형식'이며, '상상력'의 소산이며, '천재'의 산물로 보았으며, 예술에서 사실적 판단이 아닌 취미 판단을 더 중시했다.

❍ 제시문 나 : 잠수함토끼, 《오늘의 발견 2》에서 발췌, 수정

- 《즐거운 사라》 출판과 관련된 문화예술계의 표현의 자유와 검찰의 음란죄 적용에 관한 대립을 다룬 글
- 마광수 교수 : 억압받은 성의 해방을 형상화한 작품에 대한 예술적 차원의 판단을 주장
- 문단 : 모든 예술 장르에서 표현의 자유가 타율적인 규제나 공권력에 의해 억압되어 작가의 표현물에서 예술성이 박탈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검찰 : 형법상의 음란죄와 표현의 자유는 별개의 문제이다.

❍ 제시문 다 : 제리미 리프킨, 《엔트로피》(이창희 역)에서 발췌

- 경제의 자율성을 강조
- 애덤 스미스의 주장을 예로 제시
- 자연의 일정한 법칙을 따르면 경제는 성장한다.
- 자연적인 경제의 힘을 무리하게 통제하려고 하면 비효율이 발생한다.
- 가장 효율적인 경제운영 방법은 자유방임이다.
- 경제는 오로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유롭게 놓아두어야 하고, 그러면 경제는 나름의 '보이지 않는 손'의 법칙에 의해 더 잘 발전한다.
- 보이지 않는 손 : 모든 경제 활동을 지배하는 법칙. 자본투자, 고용, 자원의 활용, 상품의 생산 등을 자동적으로 배분해주는 힘

❍ 제시문 라

- 김수용, 《예술의 자율성과 부정의 미학》에서 발췌, 수정
- 쉴러, 《간계와 사랑》(이원양 역)에서 발췌, 수정
- 두 남녀의 사랑을 둘러싼 외적 간섭과 이에 반응하는 두 남녀의 태도
- 아버지(폰 발터) : 자식의 결혼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간섭
- 아들(페르디난트) : 열렬한 이상주의자로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맞섬. 지나치게 자율적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연인(루이제)도 죽이고 본인도 죽음을 택함
- 연인(루이제) : 자신의 부모를 볼모로 한 페르디난트 아버지의 간섭을 거부하지 못함
- 자율성이 충분한 내적 기반(예 : 이성적 자아 확립 등)의 요소가 없을 경우 위험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제시문 마 : 이사야 벌린, 《자유론》(박동천 역)에서 발췌, 수정

-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
- 소극적 자유 :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자유
- 밀 : 적어도 '자신에게만 관련되는 행동에서' 각자 원하는 대로 살도록 허용되지 않는다면 문명의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
- 적극적 자유 : 스스로 사고하고, 의지력을 발휘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된다는 의미에서의 자유
-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저급하고 맹목적인 본능에 휩쓸리지 않고 자아의 순수한 의지에 따라 결정하고 행위한다는 것을 뜻한다.

❍ 제시문 바 : 지그문트 바우만, 《액체근대》(이일수 역)에서 발췌, 수정

- 오디세우스가 예속 상태(돼지로 상징)로부터 선원들을 해방시켰는데, 선원들은 오히려 예속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상황을 묘사
- 소극적 의미의 자유가 적극적 의미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

다. 논제 분석

■ 논제 1

• **논제 01 :**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예술의 자율성과 타율성 개념을 중심으로 요약하시오.(300자 내외)

논제 분석	
what	how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라.

• **요구사항(requirement)**

- 예술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요약하라.
- 300자 내외로 요약하라.

- 이 논제는 단순하게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라는 것이 아니다.
- 본 논제(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 요약)와 요구사항(예술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중심으로 요약)의 순서를 바꾸어서 '예술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개념을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라'고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다.

- 논제의 핵심은 첫째, 자율성과 타율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예술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둘째, 예술의 자율성과 타율성이 《즐거운 사라》를 둘러싸고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요약하는 것이다.
- 예술의 자율성 : 예술을 도덕적 선이나 객관적인 진실과 관련없이 오로지 미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
- 칸트가 예술을 '형식', '상상력', '천재'의 산물로 간주하고, 예술에서 사실적 판단이 아닌 취미 판단을 더 중시한 것은 '예술의 자율성'의 예로 볼 수 있다.
- 예술을 도덕이나 종교 혹은 철학과 관련짓는 것은 예술에서 타율성을 중시하는 예로 볼 수 있다.
- 예술에서 자율성과 타율성 중 어느 한 가지를 강조하는 입장의 차이는 종종 예술가에 대한 사법적 처리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즐거운 사라》를 둘러싼 논쟁이 예가 될 수 있다.
- 《즐거운 사라》와 관련된 논쟁의 핵심은 예술을 오로지 미적 현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예술의 자율성), 아니면 예술도 사회적 도덕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예술의 타율성)의 여부이다.

논제 2

• **논제 02 :**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나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타율성의 성격을 각각 비교·설명하시오.(600자 내외)

논제 분석	
what	how
– 자율성을 침해하는 타율성의 성격을	비교 · 설명하라.

• **요구사항(requirement)**

– 자율성을 침해하는 타율성의 성격을 제시문 [가]~[라]에서 찾아서 각각 비교 설명하라.

– 600자 내외로 써라.

- 이 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율성 타율성이 예술, 경제, 문학에서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자율성은 스스로의 원칙에 의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타율성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 바깥에서 정해진 원칙이나 규율에 따라 움직이는 성질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이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 제시문 [가] : 예술의 경우. 예술에서 자율성을 침해하는 타율성의 성격은 예술을 외부의 요소(도덕·종교 혹은 철학)와 관련시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미를 진이나 선에 결부 짓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 제시문 [나] : 문학의 경우. 문학에서 자율성을 침해하는 타율성의 성격은 문학 바깥의 잣대 즉, 도덕 체계에 기반을 둔 형법상의 음란죄로 처벌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 제시문 [다] : 경제의 경우. 경제에서 자율성을 침해하는 타율성의 성격은 이익 추구, 경제 활동의 자유방임을 억압하는 정부의 규제와 통제에서 찾을 수 있다.
- 제시문 [라] : 역시 문학의 경우. 페르디난트와 루이제의 결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아버지의 간섭을 자율성을 침해하는 타율성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 '비교·설명하라'는 것은 네 개의 서로 다른 영역의 제시문에서 '자율성을 침해하는 타율성'을 찾아서 설명하라는 것이다.

논제 3

- **논제 03 :** 제시문 [라]의 페르디난트와 제시문 [바]의 엘페노르의 경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문 [마]에 나타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이 두 인물이 드러낸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논하시오.(1,000자 내외)

논제 분석	
what	how
- 두 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
- 두 인물이 드러낸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논술하라.

- **요구사항(requirement)**
  - 제시문 [마]에 나타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적용하여 두 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
  - 1,000자 내외로 답하라.

- 두 가지를 묻고 있는 논제이다.
- 하나는 제시문 [마]에 나타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적용하여 두 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두 인물이 드러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것을 해결할 방안을 논술하는 것이다.
-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문 [마]에 나타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이것을 적용해서 두 인물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할 처지에 있는 페르디난트와 마법에 의해 우리에 갇힌 돼지의 처지가 된 엘페노르는 제시문 [마]에서 말하는 소극적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그러나 페르디난트는 박탈당한 자유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엘페노르는 선택의 고통에서 벗어난 예속 상태(돼지로 상징)로 돌아가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두 인물은 각각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페르디난트의 문제점은 그가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지만, 그 자유가 결국은 연인인 루이제와 자신의 죽음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엘페노르의 문제는 소극적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발전시킬 능력과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 두 인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의 회피와 남용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마]에서 말하는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3 숙명여자대학교

가. 개 요

■ **분석대상 : 2010학년도 수시 2차 인문계열 문제**

■ **출제유형 : 통합교과형 중 자료제시논술형**

■ **시험시간 : 180분**

■ **문 항 수 : 4문항(공통 2문항+계열 2문항)**

■ **답안 분량 : 문항 1은 300자 ± 30자, 문항 2는 900자 ± 90자**

■ **출제 방향 및 지침**

첫째, 2007년도부터 시행된 통합논술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따랐다. 교과지식의 단순 반복 학습과 암기를 통해 습득된 지식을 통해 문제를 풀기 보다는 학생 스스로 탐구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독서와 토론을 통한 사고 능력을 배양함으로서 효과적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연계와 인문계 지원자 모두 답해야 하는 공통논술은 제시문을 문학,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계의 제시문도 수학적 원리,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인문 사회학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둘째, 중등학교 교육 과정에 부합하고 그것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별도의 수학 과정 없이 답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함으로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중등학교 교과과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문제를 구성하여 실제 공교육의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현실 문제나 보편적인 인간 상황에 적용하여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문제의 특성상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제시문을 채택할 경우 제시문의 핵심 요지가 중등학교 교과과정에 다루어지고 있는가의 기준에 따랐다.

셋째, 평가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채점의 기준을 최대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 다양한 유형과 학문영역의 텍스트들이 일관성 있는 주제나 문제의식으로 연결되어 수험생들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객관적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시문을 구성했다. 또한 논술 고사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비합리적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였다. 제시문과 제시문, 제시문과 문제 사이의 관계가 체계적이게 하고, 문제의 표현을 정밀하게 함으로서 수험생의 능력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채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 출제의도 및 평가기준

1) 인문계 논술- 공통문항

가) 출제의도와 문제의 구성

이번 문항의 논구 대상은 공론장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이다. 국가와 시장에서 자유로운, 오직 논증의 권위에 의해서만 작동되는 개방적 공론장의 출현은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런데 실제 공론장의 작동은 다수의 의견에 의해 왜곡되기도 하고 기술적 조건에 의해 제어되기도 한다. 제시문은 한국의 전통적인 공론 개념을 제시하는 고전과 근대적 공론장 형성 초기의 역사자료, 서구 공론장의 특성에 대한 사회학 저술, 공론장의 한계와 왜곡을 지적하는 철학과 기술공학 관련 저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별하였다.

〈논제 1〉은 서구 공론장의 규준을 통해 한국의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이 논제를 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사유 능력이 필요하다. 첫째, 수험생은 제시문 [나]의 핵심을 파악하여 비교를 위한 기준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둘째, 제시문 [가]의 자료 (1)과 (2)를 당대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그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자료 (1)에서는 전통 시대의 공론 개념의 특징과 한계를, 자료 (2)에서는 근대적 공론장의 특징과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논제 2〉는 현대 인터넷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양상을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검토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이 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사유 능력이 필요하다. 첫째,

문제파악 능력으로서, 수험생은 제시문 [다]에 대한 독해를 통해 현재 인터넷 공론장에서 벌어지는 '중론의 지배'라는 현상을 포착해내야 한다. 둘째, 적용과 분석 능력으로서, 수험생은 앞 단계에서 파악된 문제를 제시문 [라]에 제시된 기술적 방식을 통해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으로서, 수험생은 앞 단계에서 논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그 연관성 아래에서 현대 공론장의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제시문의 요지

❍ 제시문 [가]의 요지

- [가]는 (1)과 (2), 모두 2개의 제시문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이이, "辭大司諫兼陣洗滌東西疎", "代白參贊疎". 발췌

- 조선시대의 공론 개념에 대해 알려주는 율곡 이이의 위 두 편의 글에서 순서대로 따와 붙였다. 첫 문단은 공론의 원론적 정당성과 공론 형성의 현실적 어려움을 대비시키고 있다. 두 번째 문단은 당대 조정(국가)의 공론 형성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고, 당시 여항(민간)에서의 여론 주도 상황은 그 필연적 귀결일 수 있다는 점을 은연중 제시한다. 다만 당대의 국사에 대한 공론에는 관직에 나아간 자만이 참여해야 한다는 유가 정치사상의 원론적 주장이 한계로 남아 있다.

(2) 〈독립신문〉 창간호 "논설" 전문.

-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은 한국의 근대적 공론장의 효시로 평가된다. 〈독립신문〉의 지향점을 잘 보여주는 창간호의 "논설"에 담긴 공론장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등성과 개방성의 원칙으로서 신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둘째, 공론의 효과성으로서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백성 모두가 참여할 때 국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셋째, 공론의 불편부당성으로서 공론 형성 과정에서 언론은 사적인 이해나 파당적 관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넷째, 공론의 개방은 국정감시 및 사회교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제시문 [나]의 요지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에서 발췌한 부분을 수험생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윤문하였음.

- 해당 제시문은 서구의 근대 초기 부르주아 공론장에서 공통적으로 관철되었던 세 가지 기준을 통해 공론장의 이상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공론장의 제도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론장 참여자(공중)의 동등성으로서, 이 때문에 국가와 시장의 권위 대신 오로지 논증의 권위만이 관철될 수 있었다. 둘째, 공중의 토론 주제의 확대와 해석 방식의 변화로서, 과거 국가와 성직자가 독점했던 해석의 권위가 해체되어 개인들의 소통을 통한 자율적 해석이 가능해졌다. 셋째, 공론장의 개방성과 포괄성으로서, 사적 개인들은 공중의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이해하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견해에 개방적이게 된다.

❍ 제시문 [다]의 요지

송태효, 「교본과 수사」에서 발췌.

- 이 제시문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사례를 통해 민주 정치의 기반인 '중론'이 가지는 역설을 끌어내고 있다. 공론장은 원칙상 논증의 권위에만 따르는 학문적 토포스가 전제되고, 민주 정치는 공론장의 토론을 통해 채택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다. 그런 점에서 공론장과 민주 정치는 상호의존적이다. 그러나 소피스트들의 언어적 성공은 학문적 토포스 대신 '중론'이라는 공간을 특권화시켰다. 선동적인 '중론'이 지배하게 되면서 아테네 민주 정치는 중우 정치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필자의 분석을 통해, 현대 민주 정치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서는 공론장에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학문적 토포스가 필요하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 제시문 〈라〉의 요지

아즈마 히로키, 『정보환경론집』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 이 제시문은 인터넷 상에서 행위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기술적 규제('아키텍처')의 두 가지 방식인 '조닝(zoning)과 필터링(filtering)'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조닝'은 유저의 접속을 규제하는 방법으로서, 사전에 특정한 자격과 성향을 갖춘 유저에게만 정보를 제공하고 나머지 유저에게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필터링'은 접속된 유저에게 특정한 정보만을 제시하는 방법으로서, 상업적인 맞춤 정보 제공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기술적 작동 방식의 이해를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정보 공유가 가능한 인터넷 세계에서조차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작동하여 공정한 여론 형성을 왜곡시킬 가능성에 대해 탐색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에서 읽어낼 수 있는 함의이다.

다) 채점 기준과 답안 구성 요소

❍ 전체 채점 기준과 배점

공통 논술 문제는 총 100점 만점이고, 문항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논제 1〉은 30점 (총점의 30%)

〈논제 2〉는 70점 (총점의 70%)

공통 문항의 취지에 맞게끔 채점 기준은 답안의 내용과 표현 모두에 강조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논제 1〉은 제출된 답안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답안이 질문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 정도에 따라 평가하고, 〈논제 2〉는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정도는 물론 답안 자체의 창의성과 논증구성력 그리고 풍부한 표현력을 모두 평가 요소로 반영하였다.

❑ 논제 1

(1) 문제 개요

〈논제 1〉은 서구 공론장의 규준을 통해 한국의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첫째, 수험생이 제시문 [가]와 [나]의 핵심을 파악했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 비교를 위한 기준을 제대로 찾아냈는지를 평가 요소로 삼는다. 둘째, 제시문 [가]의 자료 (1)과 (2)를 당대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그 특징을 분석해냈는지를 평가 요소로 삼는다. 자료 (1)에서는 전통 시대의 공론 개념의 특징과 한계를, 자료 (2)에서는 근대적 공론장의 특징과 의미를 읽어냈는지 여부가 핵심 평가 요소이다.

(2) 채점 기준과 답안 구성 요소

① 제시문 [나]의 핵심 파악 여부

- 비교의 규준으로서 [나]는 다음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

가. 공론장 참여자(공중)의 동등성

(국가와 시장의 권위 대신 오로지 논증의 권위만이 강조되는 이유)

나. 토론 주제의 확대와 해석 방식의 변화

(해석 권위 독점의 해체, 소통을 통한 자율적 해석)

다. 공론장의 개방성과 포괄성

(공중의 일원으로서의 자기 이해, 자신과 다른 견해에 개방적)

② 제시문 [가]의 자료 해석의 적절성 여부

- 자료 (1), (2)에 작성된 시대를 표시했으므로, 각각 전통/근대의 대표적 공론 개념 이해를 반영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자료 (1): 전통 시대의 유교적 공론 개념의 특성과 한계
  =〉 첫 번째 문단: 공론의 원론적 정당성, 현실에서 공론 형성의 어려움.
  =〉 두 번째 문단: 조정(국가)의 공론 형성 기능 강조. 단, 여항(민간)의 여론에도 주목해야 할 여지를 남겨 둠.
- 자료 (2): 근대의 공론 개념의 특성

가. 동등성과 개방성의 원칙: 신분 차별 없이 정보 공유 및 생산.

나. 공론의 효과성: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백성 모두 참여할 때 효과적임. 국정감시 및 사회교화 기능 수행

다. 공론의 불편부당성: 언론은 사적인 이해나 파당적 관심에서 벗어나야 함.

③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가]의 의의 설명

- [나]를 비교 규준으로 한다는 조건에서,
  [가]의 자료 (1), (2)에 대한 이론적/역사적 의의를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1)은 전통 시대 유가 공론장의 '올바름(正)으로서의 공론'관의 의의와 한계
  · 의의: 당위로서의 공론 개념. 공론의 기초로서 백성의 소리에 귀기울임. 당대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비판함.
  · 한계: 공론 형성의 주체로서의 조정(국가). 여항(민간)의 직접 참여를 배제함.
  개방적, 지속적 토론의 조직화를 수행할 공중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음.
- (2)는 근대 공론장 형성기의 이상적 원칙
  · 일반적 의의: (2)의 특징 가운데, 동등성과 개방성의 원칙과 공론의 불편부당성의 원칙은 비교 조건인 서구 공론장의 이상적 규준을 충족시킴.
  · 특수적(시대적) 의의: 1890년대 후반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대내적 과제(계몽과 자강)와 대외적 과제(외세로부터의 자율성 획득)를 수행하는 데에 개방적 공론장에서의 활동이 효과적임을 보여줌.

❑ 논제 2

(1) 문제 개요

〈논제 2〉는 제시문 [가]~[라]에 대한 정확한 독해 능력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악된 논의들을 토대로 스스로 문제파악, 분석, 문제해결에 이르는 전 과정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문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제시문 [다]의 민주 정치에 내장된 '중론'의 위험성이 제시문 [라]에 나타난 현대 인터넷의 기술적 규제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원리적으로 이해하여 문제점을 파악했는지를 핵심 평가 요소로 삼는다. 두 번째 부분은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공론 및 공론장 개념을 토대로 현대 인터넷 공론장이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아닌 '중론의 지배'로 변질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지를 핵심 평가 요소로 삼는다.

(2) 채점 기준과 답안 구성 요소

채점 과정 및 평가 요소도 두 부분으로 나뉜다.

① 문항의 첫 번째 구성 부분

가. 제시문 [라]의 '조닝과 필터링'의 정확한 이해.

- 조닝: 유저의 접속 허용 여부 통제하는 방식
  필터링: 접속된 유저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통제하는 방식
- 이러한 기술적 규제 방식은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정보 공유를 가로막는다.
- 함의: 이런 기술적 규제는 인터넷 공론장의 여론 형성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음.

나. 제시문 [다]의 '중론의 위험성'을 통해 현대 인터넷 공론장의 문제를 파악함.

- 왜곡된 중론(다수 견해)의 지배는 민주 정치에 내재된 본질적인 위험성.
- 이와 관련된 현대 인터넷 공론장의 문제
  · 다수의 견해라는 이유로 그것이 올바른 견해로 인식되는 현상
  · 소수의 견해가 억제되는 현상
  · 중론을 장악하기 위한 선동적인 수사가 진지한 학문적 수사를 대체하는 현상

다. '조닝과 필터링' 원리를 해당 문제의 형성 과정에 적용

- 조닝: 특정한 자격이나 관점을 가진 유저들에게만 접속 허용
  → 다른 자격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이 불가능해져 토론 없는 중론화

- 필터링: 유저의 관심사에 따른 차별적 정보 제공으로 다양한 관심에서 멀어짐
  → 관심사의 축소로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지 못함.

② 문항의 두 번째 구성 부분

(제시문 [가]~[다]의 논리 활용하여 문제 상황(중론의 지배)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가. 제시문 [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논리

- 자료 (1): 공론의 당위적 올바름에 대한 존중. 공론의 근거로서의 민심.
- 자료 (2): 공론장의 제도로서 언론기관이 가져야 할 공정성, 개방성.
  공론의 부수적 기능으로서 효과성(계몽, 국정감시, 사회교화)

나. 제시문 [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논리

- 지속적인 토론의 조직화: 일상의 토론 집단 확대와 관습화, 공론장 참여 확대
- 토론 과정에 필요한 논증 능력의 향상 필요성
- 토론 참여자의 공중으로의 전환: 관점을 갖되 불편부당하게 다른 관점에 귀기울임.
- 토론 주제의 개방성: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금기시되지 않는) 토론 가능함.

다. 제시문 [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논리

- 중론이라고 해서 올바른 것은 아님.
- 민주 정치에 내장된 중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필요.
- 소크라테스적인 언어(학문적 언어)가 인터넷 공론장에서 작동되도록 유도하는 문화적 제도적 조건의 확립 필요성.

2) 인문계 논술- 계열문항

가) 출제의도와 문제의 구성

이번 논술시험은 근대 문화가 구성하는 타자성의 현상을 ①배제와 차별의 원리, ②진보의 시간관으로 분석하는 논제이다. 근대의 타자성 문제는 민족, 인종, 젠더, 성적 지향성 등의 요소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주체의 특권화 문제를 다룬다. 이번 문제의 초점은 이러한 타자성의 문제가 공시적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사이의 통시적 시간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고자 한다. 현재/과거, 백인/흑인, 서양/동양, 남성/여성, 이성애자/동성애자라는

이분법에서 전자를 특권화하는 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 원리의 유사성을 추론하는 능력을 묻고자 한다.

제시문들은 근대의 타자들이 구성되는 현상과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원리를 담고 있는 글들로 구성하였다.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는 영화를 예로 들어 재현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제시문을 택했으며, 원리에서는 차별과 배제의 원리, 진보의 시간관 두 원리를 보여주는 제시문을 택하였다.

〈논제 1〉 제시문 [라]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개념 정의이다. 서양이 스스로를 주체로 구성하기 위해 동양을 "하나의 이야기로서 표현하고 표상한다"는 대목이 이 글의 주제문에 해당한다. 오리엔탈리즘의 동양 표상이 하나의 이야기 즉 '식민지적 표상'로 구성되는 이유를 [나]의 배제와 차별의 원리를 결합하여 분석하는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접할 수 있는 구체적 현상에 이론을 적용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 수험생은 독해력, 비판적 사고력, 종합적 구성력 등을 발휘해야 한다.

〈논제 2〉 제시문 [가]는 존 모호크의 「고귀한 선조들을 찾아서」의 부분으로, 원시인을 그린 영화를 사례로 현재를 특권화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글이다. 문화적 표상(재현, representation)에 대한 이해력과 그 사회적 콘텍스트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특히 타자성의 문제는 문화적 재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화나 소설 등의 텍스트 속에서 사회적 의미 구성을 읽어낼 수 있는지 측정하고자 한다. 이론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 제시문 [나]는 배제와 차별의 원리, [다]는 진보의 시간관이 핵심 원리이며, 이를 토대로 분석하고 이러한 타자성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질문에서 직접 묻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 다른 현상으로 보이는 [가]원시인의 야만인 표상과 [라]동양의 식민지 표상이 사실은 동일한 타자성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추론 능력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인식적 바탕이 되도록 구성되었다. 현상과 원리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독해력과 이를 종합하여 구성하는 통합적 사고력이 요구된다.

나) 각 제시문 요지

❍ 제시문 [가]의 요지 : 존 모호크, 「고귀한 선조들을 찾아서」에서 발췌

- 이글은 영화 〈동굴 곰 부족〉을 예로 현대인이 원시인을 어떻게 표상하는지를 설명한다. 이 글에 따르면 현대인은 원시인을 비인간적이며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로 폄하하고 왜곡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를 인류의 황금시대로 미래를 미래의 황금시대로 보도록 사회화되어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태도의 근원은 “현대사회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놓이게 된다.

❍ 제시문 [나]의 요지 : 이마무라 히토시, 「근대성의 구조」에서 발췌

- 이 글은 ‘타자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다. 주제는 ‘강한 집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서 자기의 집단적 동일성을 만들어 낸다.’이다. 근대 이후 서구에서는 유태인 외에도 집시, 아프리카의 흑인, 중근동의 아랍인, 소수민족 등이 배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사회관계에서 ‘타자’를 만들어 배제하고 이들을 차별하는 이유는 강한 집단이 자기 집단의 동질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파악해야 한다.

❍ 제시문 [다] : 김상환, 「『야생의 사고』-당신 못지않게 부시맨도 합리적으로 생각한다」에서 발췌

- 이 글은 부시맨 영화를 예로 들어 과거와 현대 사이에 있다고 간주되는 연속적인 진보의 시간이 허상임을 강조한다. 레비스트로스의 분석처럼 부시맨은 사실은 현대인과 공시적 시간 속에 존재하는 우리 마음속의 타자라는 것이다. 부시맨은 시간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공시적으로 존재하는 구조이거나 상이한 구조들 간의 불연속적 관계임을 파악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다.

❍ 제시문 [라] :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에서 발췌

- 이 글에 따르면 오리엔탈리즘이란 서양이 동양을 식민지적 표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동양과 대조되는 이미지, 관념, 성격, 경험을 갖는 주체로 구성하기 위한 생성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양은 단순히 상상 속의 존재에 그친 것은 아니라 유럽의 실질적인 문명과 문화의 구성부분을 형성했다는 점도 강조된다.

다) 채점 기준과 답안 구성 요소

❍ 전체 채점 기준과 배점

총 100점 만점이고, 문항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논제 1〉은 30점 (총점의 30%)

〈논제 2〉는 70점 (총점의 70%)

❑ 논제 1

(1) 문제 개요

〈논제 1〉은 강한 집단이 자기 집단의 동질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약한 집단을 배제 혹은 차별화하는 논리를 기초로 오리엔탈리즘이 형성되는 맥락을 비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2) 채점 기준과 답안 구성 요소

[나]의 핵심 요소

1) 배제의 논리란 특정집단이 자신의 동일성을 형성하기 위한 논리이다.
2) 인간 혹은 특정한 집단은 배제의 메카니즘을 통해 자기보존을 한다. 따라서 배제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위적으로라도 그 대상을 만들어야 한다.
3) 유태인, 집시, 흑인 아랍인 등 약소민족 혹은 소수민족이 배제의 논리의 희생자들이다.

[라]의 핵심 요소

1) 오리엔탈리즘이란 서양이 자신의 문명과 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구성해낸 개념이다.
2) 오리엔탈리즘이란 유럽인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반복되어 나타나는 타자의 이미지이다.
3)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이 자신을 동양과 문화적으로 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구별하기 위한 만들어낸 개념이다.
4) 오리엔탈리즘 속에서 구성된 동양은 단순히 상상 속의 존재에 그친 것은 아니라 유럽의 실질적인 문명과 문화의 한 부분을 형성했다.

❑ 논제 2

(1) 문제 개요

제시문 [나]는 배제와 차별의 원리, [다]는 과거와 현대 사이의 연속적인 진보는 허상이라는 논지에 근거해서 [가]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제시문 [가]는 존 모호크의 「고귀한 선조들을 찾아서」의 부분으로, 원시인을 그린 영화를 사례로 과거를 폄하하고 현재를 특권화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글이다. 특히 고대에 대한 문화적 재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나]와 [다]의 논리에 근거해서

현대인들의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해 타자를 배제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채점 기준과 답안 구성 요소

[가]의 핵심요소

1) 현대인들은 고대인들을 지극히 초보적인 지성만을 갖고 사리에 맞지 않는 사고를 하는 짐승 같은 사람으로 묘사함
2) 이와 같은 묘사는 조작된 허구임
3) 이러한 허구를 조작하는 이유는 현대인들이 현재를 인류의 황금시대로, 미래를 미래의 황금시대로 보도록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임

[다]의 핵심요소

1) 문자가 없는 사회에서도 인간은 현대인만큼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함
2) 부시맨은 과거가 아니라 현대인과 공시적 구조 속에 존재하는 마음속의 타자임
3) 야생적 사유는 현대인의 무의식 안에, 현대인의 생활과 행동 안에 여전히 존속함
4) 비판되어야 할 것은 원시인이 아니라 원시인을 동물 취급하는 백인과 그 역사관임

● 채점 사항

첫째, [가], [나], [다]에서 제시된 핵심요소들이 대부분 파악되고 있는가?
둘째, [나], [다]에 기초해서 [가]에 대한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하는가?
셋째, 글 전체가 무리 없이 논리적인 흐름을 구성하고 있는가?
넷째, 800자±80자의 분량을 충족시키는가?
다섯째, 단어, 문장, 표현 서술 방식 등에 오류가 있거나 어색한 면이 있지는 않은가?

나. 제시문 및 논제 분석

▌ 계열 공통

[가]

(1) 율곡 이이(李珥)의 공론관

인심이 다 같이 옳다고 하는 것을 공론(公論)이라 하고, 공론의 소재를 국시(國是)라고 합니다. 국시란 한 사람이 꾀하지 않아도 함께 옳다는 것입니다. 이익으로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위세로 무섭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삼척동자라도 그 옳음을 아는 것, 이것이 국시입니다. 지금 이른바 국시라 하는 것은 이와 달라서 다만 주론(主論)하는 자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여도 듣는 자가 혹은 추종하기도 하고 혹은 어기기도 하여, 우부우부(愚夫愚婦)까지도 또한 반은 옳다 하고 반은 그르다 하여 마침내 귀일(歸一)할 때가 없을 것이니, 어찌 집집마다 타일러 억지로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의 의심만 더하게 되어 도리어 화단(禍端)을 만드는 데 불과할 것입니다.

공론이라는 것은 나라의 원기(元氣)입니다. 공론이 조정에 있으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공론이 여항(閭巷)에 있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상하 모두 공론이 없다면 그 나라가 망할 것이니 어찌하겠습니까. 위에 있는 자가 능히 공론을 주도하지 못하면서 아래에 있는 것을 싫어해 입을 막고 죄로 다스린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금일의 조정에 공론이 펼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항에서 한가로이 시비를 논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대부가 자처함을 잃은 것으로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진실로 정사를 의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 〈독립신문〉 창간호 '논설'

우리가 〈독립신문〉을 오늘 처음으로 출판하는데, 조선 속에 있는 내외국 인민에게 우리 주의를 미리 말씀하여 아시게 하노라.

우리는 첫째 편벽되지 아니한 고로 무슨 당에도 상관이 없고, 상하귀천을 달리 대접하지 아니하고, 모두 조선 사람으로만 알고 조선만 위하며 공평히 인민에게 말할 터인데, 우리가 서울 백성만 위할 게 아니라 조선 전국 인민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제언하여 주려함.

정부에서 하시는 일을 백성에게 전할 터이요, 백성의 정세를 정부에 전할 터이니, 만일 백성이 정부 일을 자세히 알고 정부에서 백성의 일을 자세히 아시면 피차에 유익한 일만이 있을 터이요, 불평한 마음과 의심하는 생각이 없어질 터이옴. 우리가 이 신문 출판하기는 취리[取利]하려는 게 아닌 고로 값을 헐하도록 하였고, 모두 언문으로 쓰기는 남녀 상하귀천이 모두 보게 함이요, 또 구절을 떼어 쓰기는 알아보기 쉽도록 함이라. 우리는 바른대로만 신문을 할 터인 고로, 정부 관원과도 잘못하는 이

있으면 우리가 말할 터이요, 탐관오리들을 알면 세상에 그 사람의 행적을 폐할 터이요, 사사 백성이라도 무법한 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찾아 신문에 설명할 터이옴. 우리는 조선 대군주 폐하와 조선 정부와 조선 인민을 위하는 사람들인 고로, 편당 있는 의논이든지 한 쪽만 생각하고 하는 말은 우리 신문상에 없을 터이옴. 또 한 쪽에 영문으로 기록하기는, 외국인민이 조선 사정을 자세히 모른즉, 혹 편벽된 말만 듣고 조선을 잘못 생각할까 보아 실상 사정을 알게 하고저 하여 영문으로 조금 기록함.

그리한즉, 이 신문은 똑 조선만 위함을 가히 알 터이요, 이 신문을 인연하여 내외 남녀 상하귀천이 모두 조선 일을 서로 알 터이옴. 우리가 또 외국 사정도 조선 인민을 위하여 간간이 기록할 터이니, 그걸 인연하여 외국은 가지 못하더라도 조선 인민이 외국 사정도 알 터이옴. 오늘은 처음인 고로, 대강 우리 주의만 세상에 고하고, 우리 신문을 보면 조선 인민이 소견과 지혜가 진보함을 믿노라. 논설 그치기 전에 우리가 대군주 폐하께 송덕하고 만세를 부르나이다.

[나] 커피하우스, 살롱, 토론 모임 등과 같은 서구 근대 초기의 공론장들은 공중의 범위와 구성, 교류 스타일, 논의의 풍토, 주제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개인들 간에 벌어지는 지속적 토론을 조직화했다는 공통된 성격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것들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제도적 기준들을 가지게 된다.

첫째, 사회적 계층과 계급이 상대적으로 무시되었다. 서열의식에 반하여 평등의 원칙이 중시된다. 사회적 위계질서의 권위에 대항하여 오직 논증의 권위가 방어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평등성이 요구된다. 경제적 예속 역시 원칙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국가의 법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법칙도 이곳에서는 정지된다.

둘째, 이러한 공중의 토론은 이제까지 의문시되지 않았던 영역들을 문제적인 것으로 만들고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전까지 공중의 삶과 관련된 일반적인 주제들은 그 해석이 국가와 교회에 의해 독점되어 있었다. 그러나 철학적 저작과 문학작품, 예술작품 일반이 시장을 위해 생산되고 시장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그것들은 상품으로서 원칙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 작품을 상품으로 접근하게 된 사적 개인들은 작품을 해석의 독점에서 해방시켜 세속화시킨다. 그들은 서로간의 합리적 의사소통을 거쳐 작품의 의미를 자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셋째, 문화를 상품형태로 전환시킨 결과, 소비자로서의 공중은 개방과 포괄의 원칙에 따라 확산된다. 각각의 공중이 아무리 배타적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스스로를 폐쇄하여 하나의 파벌로 고착될 수는 없었다. 공중은 모두 독자, 청자, 관중으로서 작품의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공중의 구성원들은 단순한 사적 개인들이기보다는 좀 더 큰 보편적인 공중의 일부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존재하게 된다.

[다] 신성이라는 종교적 토포스* 없이는 더 이상 종교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스승의 정신이라는 학문적 토포스 없이는 더 이상 가르침이란, 또 배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수사는 단순히 말의 구사가 아니다. 수사는 가르침과 배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능케 해 주는 도구이다. 그러기에 수사는 학문적 토포스를 그 공간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학문적 토포스를 떠난 수사가 — 바로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 시대의 오류를 공동의 합의로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학이 소피스트들의 전유물로 밀려나 왜곡되는 순간 더 이상 수사학은 학문적 토포스를 그 자체 공간으로 삼기보다는 이른바 중론(衆論)을 그 공간으로 삼았던 것이다. 하지만 중론은 이른바 다수의 의견에 불과할 뿐 결코 학문적 토포스가 아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미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의 중론이 지향해야 하는 곳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중론의 방향성은 수사학의 임무이기도 한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야기한 중론이 선동적인 것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산파술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선동적인 중론에 대항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과는 달리 언어상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던 것이다. 언어상의 성공은 늘 그러하듯이 곧 중론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소피스트들의 언어는 중론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던 반면, 소크라테스의 언어는 중론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던 것이다. 이것은 다만 아테네에서의 민주정치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시사해 주는 민주정치의 유형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중론을 이끌어내지 못한 소크라테스의 언어를 살해한 소피스트들의 언어는, 바로 민주정치가 가능케 하였던 중론을 이끌어냄으로써 비록 오류의 중론일지라도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착시켰다. 오류의 중론이 민주정치를 지배함에 따라 아테네 민주정치는 서서히 중우정치로 흘러들게 되었던 것이다. 이 점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이렇듯 수사가 민주정치 자체를 근간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민주정치를 중우정치로 흘러들게 하였던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아테네의 중우정치에는, 소피스트들의 언어가 빚어낸 민주정치의 왜곡에는 선동적인 중론만이 있었을 뿐, 그 중론을 비판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언어는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더불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소크라테스의 언어는 하나의 공동의 공간을 형성하는 데 실패하였다. 소크라테스의 변증법적 언어는 대외적으로 학문적 토포스를 형성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실패로 열린 공간에 하나의 선동적 중론이 사상적 토포스로 자리 잡게 되면서 아테네의 중우정치가 전개되어 나갔다고 말할 수 있다.

* 토포스(topos): 논거로 사용되는 주제들의 저장소. 토픽(topic)의 그리스어.

[라] 로렌스 레식은 『코드: 사이버공간의 법이론』에서 인터넷상의 행위를 규제하는 네 층위(법, 사회적 규범, 시장,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금연이라는 하나의 사회적 행동을 예로 들어 보자. 미성년자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적 규제도 있지만, 금연을 강제하는 레스토랑처럼 사회적 규범으로도 규제된다. 또 담배의 가격이 오르면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기술적 규제도 강조한다. 담배 필터의 유무나 연기의 양에 따라 흡연이 가능한 기회는 증감한다. 이 기술적 규제를 '아키텍처'라고 부른다.

네트워크에서 아키텍처는 전산 코드(프로그램)에 의해 구성된다. 레식이 언급한 아키텍처의 표현 규제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조닝(zoning)과 필터링(filtering)이 그것이다. 조닝이란 유저의 자격에 따라 네트를 구분하는 방식으로서, 예를 들면 성인 인증을 받지 않으면 어떤 사이트들에는 접근할 수 없다거나, 혹은 유명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카페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는 그들과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끔 한다는 식으로, 네트워크 유저의 접속을 규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편 필터링이란 인터넷 사이트의 특성에 따라 네트를 구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사이트는 몇 점, 저 사이트는 몇 점' 하는 식으로 그 내용에 따라 특수한 채점(레벨링, 혹은 레이팅)을 하여, 유저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점수의 사이트만을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 실시간 인기검색어의 선택, 파워 블로거 등이 이러한 사고방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 방식은 유저의 성향을 고려하여 미리 정보 선택의 폭을 좁힌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터넷 서점 'amazon.com'을 생각해 보자. 유저가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마존은 그 유저에 맞는 추천 서적이나 CD 리스트를 표시해 준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이트는 어떤 컴퓨터에서 접속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외견을 보여 준다는 것이 된다. 내가 보는 아마존은 어디까지나

'나' 전용의 아마존이며, 하나의 URL에 접속된 다수의 유저들에게 아마존은 같은 화면을 보여 주는 일이 결코 없다. 아마존은 책이나 CD를 중심으로 놀랄 정도로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맞춤형' 서비스는 소비자가 실제로 보는 선택 사항을 비약적으로 좁혀 준다. 유저는 정보의 바다에서 사실은 매우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받을 뿐인 것이다. 이것이 인터넷 아키텍처 중 한 가지인 필터링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논제 1]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의 (1), (2)의 의의를 설명하시오. (300자 ± 30자)

[논제 2] 제시문 [라]의 밑줄 친 '조닝(zoning)과 필터링(filtering)'에 의하여 현대 인터넷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제시문 [다]와 같은 현상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문 [가], [나], [다]에서 제시된 각각의 논리를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900자 ± 90자)

분석

❍ 논제 1

• **발문 :**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의 (1), (2)의 의의를 설명하시오. (300자 ± 30자)

논제 분석	
what	how
제시문 [나]의 관점	제시문 [가]의 (1), (2) 의의 설명

• **요구사항(requirement)**
- 제시문 [나]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할 것
- 제시문 [가]의 자료 (1), (2)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의의를 설명할 것

• 제시문 [나]의 서구 공론장의 규준을 통해 제시문 [가]의 한국의 사례에 적용할 것

- 제시문 [나]의 핵심 내용인 공론장 참여자(공중)의 동등성, 토론 주제의 확대와 해석 방식의 변화, 공론장의 개방성과 포괄성을 파악해야 한다.
- 제시문 [가]의 자료 (1)의 핵심 내용인 전통 시대의 유교적 공론 개념의 특성과 한계를 파악해야 한다.
- 제시문 [가]의 자료 (2)의 핵심 내용인 근대의 공론 개념의 특성(동등성과 개방성의 원칙, 공론의 효과성, 공론의 불편부당성)을 파악해야 한다.
- 답안을 작성할 때는 제시문 [나]를 규준으로 하여 제시문 [나]의 자료 (1), (2)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의의를 모두 파악해야 한다.

❍ 논제 2

- **발문 :** 제시문 [라]의 밑줄 친 '조닝(zoning)과 필터링(filtering)'에 의하여 현대 인터넷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제시문 [다]와 같은 현상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문 [가], [나], [다]에서 제시된 각각의 논리를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900자 ± 90자)

논제 분석	
what	how
1. 제시문 [라]의 '조닝(zoning)과 필터링(filtering)'에 의해	2. 제시문 [다]의 메커니즘을 분석(문제점 도출)
3.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4. 제시문 [가], [나], [다]의 논리를 활용하여 논술

- **요구사항(requirement)**
  - 제시문 [라]의 '조닝(zoning)과 필터링(filtering)'의 개념 정확히 이해할 것
  - 제시문 [다]에 나타난 현상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분석할 것
  - 제시문 [다]에 나타난 현상의 문제점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문 [가], [나], [다]에 제시된 논리를 근거로 서술할 것

- '조닝(zoning)': 유저의 접속 허용 여부 통제하는 방식. '필터링(filtering)': 접속된 유저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통제하는 방식
- '조닝(zoning)과 필터링(filtering)'과 같은 기술적 규제 방식은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정보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 제시문 [다]의 '중론의 위험성'을 통해 현대 인터넷 공론장의 문제를 파악해야 함
- 제시문 [가]~[다]의 논리를 활용하여 문제 상황(중론의 지배)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시문 [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논리
  - 자료 (1): 공론의 당위적 올바름에 대한 존중. 공론의 근거로서의 민심.
  - 자료 (2): 공론장의 제도로서 언론기관이 가져야 할 공정성, 개방성.
- 제시문 [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논리
  - 지속적인 토론의 조직화: 일상의 토론 집단 확대와 관습화, 공론장 참여 확대
  - 토론 과정에 필요한 논증 능력의 향상 필요성
- 제시문 [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논리
  - 중론이라고 해서 올바른 것은 아님.
  - 민주 정치에 내장된 중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필요.

인문계열

[가] 대중 미디어에 묘사되는 석기시대인의 이미지는 우리 시대의 문화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욕망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 준다. 대릴 한나 주연의 〈동굴 곰 부족〉도 이런 영화들 중의 한 예이다. 이 영화는 7만 년 전 인간의 생활을 보여 준다. 대릴 한나가 연기하는 인물은 완전한 현대인, 즉 호모사피엔스였다고 하나, 영화에서 그녀는 아직 완전한 호모사피엔스가 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산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네안데르탈인이나 신네안데르탈인, 아니면 그런 수준의 어떤 인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영상들을 보면 수렵채집사회에는 대개 언어가 없다. 사람들은 쉰 목소리로 뭔가 중얼거리거나 애들 같은 몸동작으로 표현하는 원시언어를 말한다. 만일 그들이 조금이라도 복합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그런 꼴사나운 행동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솔직히 이들은 뇌에 큰 손상을 입은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원전 7만 년의 삶과 뇌 손상은 아무 관련도 없다. 뇌 손상은 실로 우리 시대의 것이다. 위계질서에 입각해 사회화된 현대인들은 고대인들을 지극히 초보적인 지성만을 갖고 보통 사리에 맞지 않는 사고를 하는 짐승 같은 사람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느낀다. 원시인들은 매력이라고는 없다(너저분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들은 굼뜨고 불확실하게 움직인다. 그들은 비참하게 살아가는 수렵채집자다. 이런 영상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강렬하다. 즉 이들은 열등한 존재라는 것이다. 여자 주인공 대릴 한나는 떠오르는 미래, 더 아름답고, 어쨌든 더 '인간적'인 미래이다.

이런 장면이 완전히 조작된 허구라는 사실임을 잊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무 생각 없는 관객들이 돈을 지불하고 극장에 왔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도록 쾌감을 주고, 영화 속 원시인 모습을 관객의 구미에 맞게 조작하는 일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영상은 현대인이 만든 허구적 창조물이다. 이것은 초기 인류에 대해 우리가 접하는 실질적으로 유일한 영상이기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대 인류를 대개 그런 이미지로 볼 가능성이 높다. 구석기시대 인류에 대한 이런 묘사는 내가 보기에도 아주 공정하지 못하다. 거대한 동물을 사냥하던 인간들에게 잠시 경외감을 표하고 싶다. 나는 구석기시대를, 마치 영화 〈코난〉에 나오는 근육질 전사 같은 사람들이 득실거린 것처럼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주장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아주 솔직히 말해, 고대인에 관한 우리의 지식에는 많은 공백이 있다. 예컨대 우리는 그들이 복잡한 언어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모른다. 돌로 만든 물건들, 뼈 조각들, 동굴 벽화만 가지고는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들 역시 복잡한 언어를, 아마도 수백 개 정도의 복잡한 언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들의 언어에서 나온 말 중 일부가 현대 영어에서 사용되고 있을 수도 있다.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구석기시대 인류가 무엇보다도 재치 있고, 지적이며, 용감하고, 운동 능력과 예술적 감각을 함께 보유했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오래전에 죽은 우리 조상들에 대한 지독한 편견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일까? 왜 현대인들은 동시대의 다른 인종, 다른 종교, 다른 문화를 비인간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무시하며, 폄하하는 것처럼 고대인들을 왜곡하는가? 구석기시대의 인류가 우리에게 무슨 위협이 되어서 그러는 것인가? 왜 수만 년 전에 존재했던 우리 조상들을 본질적으로 모두 바보였던 것처럼 묘사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현대사회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서 찾을 수 있다. 20세기 사회는 현재를 인류의 황금시대로, 미래를 미래의 황금시대로 보도록 사람들을 부추긴다. 우리는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믿도록 사회화되어 있다.

[나] 배제와 차별은 같은 사태의 다른 표현이다. 제3항의 배제 내지 희생자 만들기가 없으면 차별도 없다. 배제되는 것은 언제나 차별되는 것이다. 사회관계는 부단히 배제의 메커니즘을 발동시켜 나가지 않으면 자기보존이 불가능하다. 질서의 재생산과 배제의 재생산은 일체인 것이다. 가령 배제해야 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질서 안에 있는 인간은 환상적으로라도 배제의 대상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인간 안에 자리 잡은 폭력은 멋지게 수미일관된다. 인간은 환상 속에서조차 질서의 적을, 배제해야

할 타자를 산출해 나간다고 하는 기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인류는 예부터 끝도 없이 타자를 배제하고 차별을 계속해 왔다.

서구에서는 유태인만이 차별되고 배제되어 온 것이 아니다. 유태인 이외에 집시도 배제되어 왔으며, 근대에서는 아프리카의 흑인, 중근동의 아랍인도 강한 차별을 받아 왔다. 소수 민족도 배제와 차별의 대상이었으며, 지금도 그렇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수 민족의 해방투쟁이 전 세계의 도처에서 뿌리 깊게 수행되고 있다. 그들은 단순히 약하기 때문에 배제되고 차별되는 것인가. 그렇기도 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강한 집단이 배제함을 통해서 자기의 집단적 동일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배제의 논리는 특정 집단의 동일성의 형성의 논리이며, 동일성의 원리는 타자를 배제하고 희생자를 차별하는 논리 그 자체이다.

[다] 코카콜라 병을 든 부시맨. 이 영화 주인공은 배트맨이나 아이언맨의 정반대 쪽에 서 있다. 이쪽이 과잉과 초과의 지점이라면 저쪽은 결여와 부재의 지점이다. 한쪽은 보통 사람이 가진 것 이상을 소유하고 다른 쪽은 아무것도 없다. 과학과 기술이 없고 도시와 역사가 없다. 레인맨이나 스파이더맨과 비교해도 결여의 목록은 계속 길어진다. 옷과 신발이 없고 문자가 없고 위생적인 휴지나 음료수를 모른다.

부시맨은 수천 년의 거리를 지나 현대 문명세계로 걸어 나온 신석기시대의 인간이다. 그러나 이 영화가 끝날 때 관객의 웃음과 눈물 속에서 부시맨과 현대인이 혼동된다. 부시맨은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는 타자로서 경험된다. 원시인과 현대인 사이의 초역사적 동일성과 무거리성을 말한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을 연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레비스트로스는『야생의 사고』에서 이렇게 말한다. 문자가 없는 사회에서도 인간은 현대인만큼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한다고. 원시인은 아이언맨 못지않게 합리적이다. 원시인의 야생적 사유는 여전히 현대인의 무의식 안에, 현대인의 생활과 행동 안에 존속한다. 그러므로 희극적 웃음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부시맨 같은 원시인이 아니다. 그것은 원시인을 동물 취급하던 백인이며, 백인이 고수하려 했던 역사관이다. 신석기시대와 현대 사이에 있다고 간주되어 온 연속적인 진보의 거리는 허상이다. 그 허상의 배후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시간적 변화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유지되는 공시적(synchronic) 구조이거나 어떤 상이한 구조들 간의 불연속적 관계이다.

[라] 오리엔탈리즘이란 서양인이 오리엔트 곧 동양에 관계하는 방식으로서, 그들의

경험 속에 동양이 차지하는 특별한 지위에 근거한 개념이다. 동양은 단지 유럽에 인접되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유럽의 식민지 중에서도 가장 광대하고 풍요하며 오래된 식민지였던 토지이고, 유럽의 문명과 언어의 연원이었으며, 유럽 문화의 호적수였고 또 유럽인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반복되어 나타나는 타자의 이미지이기도 했다. 나아가 동양은 유럽, 곧 서양이 스스로를 동양과 대조가 되는 이미지, 관념, 성격, 경험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논제 1] 제시문 [나]의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오리엔탈리즘을 비판하시오. (400 ± 40자)

[논제 2] 제시문 [나]와 [다]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에서 문제된 현상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800 ± 80자)

분석

❍ 논제 1

- **발문 :** 제시문 [나]의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오리엔탈리즘을 비판하시오. (400 ± 40자)

논제 분석	
what	how
제시문 [나]의 논지	제시문 [라]의 오리엔탈리즘 비판

- **요구사항(requirement)**
  - 제시문 [나]의 논지를 파악한다.
  - 제시문 [라]의 오리엔탈리즘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시문 (나)의 논지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그 이유를 파악한다.

- 제시문 [나]의 핵심 내용(배제의 논리란 특정집단이 자신의 동일성을 형성하기 위한 논리, 인간 혹은 특정한 집단은 배제의 메카니즘을 통해 자기보존을 함, 배제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위적으로라도 그 대상을 만들어야 함)을 파악한다.

• 제시문 [라]의 오리엔탈리즘의 의미(오리엔탈리즘이란 서양이 자신의 문명과 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구성해낸 개념, 오리엔탈리즘이란 유럽인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반복되어 나타나는 타자의 이미지,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이 자신을 동양과 문화적으로 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구별하기 위한 만들어낸 개념)를 이해한다.

❍ 논제 2

• **발문 :** 제시문 [나]와 [다]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에서 문제된 현상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800 ± 80자)

논제 분석	
what	how
제시문 [나]와 [다]를 근거로	제시문 [가]에서 문제된 현상 논술

• **요구사항(requirement)**
  –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중심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문제상황을 파악한다.

• 제시문 [나]는 배제와 차별의 원리, [다]는 과거와 현대 사이의 연속적인 진보는 허상이라는 논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시문 [가]는 원시인을 그린 영화를 사례로 과거를 폄하하고 현재를 특권화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다라서 제시문 [나]와 [다]의 논리에 근거하여 현대인들의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해 타자를 배제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답안 예시

▌ 공통

[논제 1]

[가]의 1에 제시된 율곡 이이의 공론관에 따르면 윗사람이 공론을 형성할 능력이 없다고 하여 단순히 죄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는 [나]에 나타난 것과 같이 사회적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힘과 권력이 공론을 실행하는 것에는 효력이 없으며 모두가 옳다고 하는 공론만이 힘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의 독립신문 창간호 논설에서는 정부의 일을 백성에게 전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정부에 독점되어 있던 공적 영역을 일반 백성들까지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따라서 [나]에서 제시된 것처럼 이제까지 의문시 되지 않던 영역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의의를 갖는다.

[논제 2]

현대 인터넷 공론장에서는 다수 네티즌들의 잘못된 공론형성으로 인해 문제점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하였던 한 아이돌 가수의 팀 탈퇴사태와 같은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조닝과 필터링과 같은 메커니즘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닝은 인터넷 상에 접근 가능한 유저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유저들만이 존재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치는 그들 간의 공론 형성에 있어서 비판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역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필터링은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제시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돕지만 이는 사용자에게 제한된 정보만을 제시하여 현상의 전체적인 면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필터링과 조닝으로 인하여 올바른 공론 형성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가]의 (1)에서 힘 있는 윗사람이라 하여 공론을 주도한다고 할 수 없듯이 힘 있는 다수의 공론이라고 해서 정당성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때 해결될 수 있다. 또한 (2)의 독립신문에서 조선 인민을 위하는 신문이므로 한쪽만 생각하고 하는 말이 없으리라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 [나]제시문에서는 서구 근대 초기의 공론장들이 서로 형태와 성격은 달랐지만 일련의 제도적 기준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상의 공론장이라 하여 자유로운 성격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기 보다는 공론 형성의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적 견제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에서는 소피스트들의 언어가 비판의 기능을 담당하였던 소크라테스의 언어의 소멸로 선동적 중론을 형성하고 중우정치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예는 중론의 형성에 있어서 비판적 견제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어떠한 중론도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비판적 견제는 필수적인 것이다.

■ 인문계열

[논제 1]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서양과 반대되는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시킨다. 서양인들은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을 창조해냄으로써 서양이라는 자신들의 이미지 또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의 과정 속에서 동양은 서양인들에게 배제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나]에서는 한 집단을 배제하는 것은 자신들의 동일성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는 곧 배제와 차별이라는 논리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동양인들은 서양인들의 오리엔탈리즘으로 인해 타자로 분류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식민지의 스타일로써 구성되었다. 결국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이란 식민지배의 당위성을 제공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오리엔탈리즘은 동양 그대로를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서양인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동양의 세계가 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오리엔탈리즘은 순전히 서양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논제 2]

[가]에 따르면 현대인은 과거에 대해 근거 없는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현대의 대중 미디어는 석기시대의 인류를 무지하고 야만적인 모습으로 그리는 데 반해 현대와 미래는 발전되고 고도의 능력을 가진 인류가 살고 있는 시대로 나타낸다. 우리는 세상이 점점 발전되어간다고 ale도록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나]에 나타난 배제와 차별로 설명될 수 있다. [나]에서는 인간이 환상에서조차 배제해야 할 대상을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배제와 차별의 대상을 만들어야 자기보존이 가능하다는 [나]의 논리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석기시대인에 대한 편견이 결국 우리 스스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석기시대의 인류를 폄하하고 차별함으로써 우리는 서로간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이러한 동일성의 확인은 결국 우리 현대인이 과거의 인류보다 발전된 인류라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서로간의 사회관계 형성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다]에서는 [가]에 나타난 석기시대 인류의 야생적 사유가 현대인들의 내면에도 존재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가]에서처럼 우리가 과거의 인류를 비웃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결국 그 비웃음의 대상은 원시인을 무시하는 백인들이 되어야 한다. 원시인들은 오히려 현대인들만큼 이성적 사고를 하는 존재이고 백인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현대인들과 원시인들 간에는 시간의 변화를 뛰어넘는 동일성이 존재한다. [가]에서처럼 우리가 점점 발전되어가는 세상에 산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과거의 원시인보다 진보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원시인들과 현대인들의 동일성을 바탕으로 동일성의 구조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원시인에 대한 근거 없는 허상을 통해 그들을 비웃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비웃는 것과 다름이 없다.

14 아주대학교

가. 개 요

■ **분석대상 : 2010학년도 수시 2차 인문계열 문제**

■ **시험시간 : 120분**

■ **문 항 수 : 2~3문항**

■ **답안 분량 : 1,200~1,600자 내외**

■ **출제 방향 및 지침**

- 중등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 출제
- 요약형 문제와 통합형 문제 출제
- 요약형 문제의 경우 수험생 본인의 의견을 더하지 않고 제시문에서 소주제문들을 간추려 한편의 글이 되도록 요약하는 능력을 측정하며, 답안분량은 300~400자 정도임
- 통합형 문제의 경우 3~5개의 독립된 제시문을 주고 그 지문들을 서로 연결하는 논리력과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며, 답안분량은 900~1,200자 정도임(제시문은 인문/사회분야를 비롯한 범교과 과정에서 골고루 취함)

나. 제시문 및 논제

[문제 1-1] 다음 제시문을 한 편의 완결된 글이 되도록 요약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40)자로 할 것. (30점)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는 기술의 이중성에서 기인한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술은 동시에 우리의 삶과 삶의 터전을 파괴할 수 있으며, 또 환경 파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생존과 기술의 모순적 관계를 나타내는 이 이중성을 시야에서 놓쳐 버리면, 이 두 요소들 중 어느 하나만을 절대화하는 환경 숙명론이 언제라도 우리의 의식 속에 둥지를 틀 수 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기술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개량주의적 사고방식이 그 하나이며, 기술의 파국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인간의 존재론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인간을 유기적 자연 질서의 한 부분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생명주의적 사고방식이 다른 하나이다. 전자는 생존의 이름으로 기술을 절대화하고 있으며, 후자는 기술의 어두운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기술과 지식을 발전시키는 대신에,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술의 진보를 계속 추진하거나 기술을 포기하고 거대한 자연의 질서에 자신을 내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를 부정하는 숙명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자유의 존재이다. 인간만이 우리에게 알려진 여러 생명체 중에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까닭도 인간이 자유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인간을 거대한 생명 질서의 한 부분으로 파악함으로써 기술 행위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고유한 자유와 책임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기술의 발전에 스스로를 내맡기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기술의 유형을 자율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인간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매한가지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특정한 종류의 지식과 기술이다. 그것이 인류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종류의 과학적 지식과 공학적 기술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환경윤리는 바로 이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가? 이에 답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선 인간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사실, 우리가 과학과 기술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그동안 너무나 성공적이었던 과학적 지식에 대한 과도한 믿음 때문이다.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생태학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금 과학과 기술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자신의 결함과 약점을 스스로 보완해서 종국에는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오만과 독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며 또 죽으면 결국 흙으로 돌아갈 육체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치게 성공적인 기술 문명에 도취되어 실수도 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환경 위기의 가장 커다란 원인은 신의 자리에 인간을 세워 놓은 형이상학적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관이 바로 과학과 기술의 심층부에 뿌리 깊게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과학과 기술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과학적 지식과는 다른 윤리적 지식이다. 과학적 지식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과 도구에 관한 지식이라고 한다면, 윤리적 지식은 바로 '무엇이 인간다운 것인가?'라는 근원적 물음에 관한 지식이다. 과학적 지식이 무한한 진보를 추구한다면, 윤리적 지식은 이 진보를 궁극적 목적과 연관시켜 생각함으로써 인간의 지식과 행위에 한계를 설정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행복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생태학적 위기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제한된 지구와 무한한 성장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인간은 유한하고 인간의 삶의 터전인 지구 역시 제한되어 있다. 생태학적 파국을 피하고 또 후손을 위해 그것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굴러가고 있는 듯한 과학과 기술의 지배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문제 1-2] [가], [나]에 나타난 '대중문화'에 대한 견해의 차이점을 기술하고, [다]의 밑줄 친 곳에 나타난 대중의 행태를 근거로 [나]의 견해를 비판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40)자로 할 것. (30점)

[가] 대중문화와 관련하여 아케이드(arcade)를 주목할 만하다. 아케이드는 상품 경제가 확립되기 시작한 19세기에 도시환경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였으며, 파리, 런던, 베를린, 모스크바 등 전 세계에 걸쳐 대도시에서 최초로 국제적인

양식으로 성장했다. 아케이드라는 건축양식은 본래 늘어선 기둥들로 지탱되는 아치 모양의 연속된 지붕과 그 아래에 있는 개방된 통로 공간을 의미한다. 이것은 건축양식의 하나로 로마 시대의 건축물에서부터, 콜로세움이나 폼페이 유적 혹은 중세의 건축, 로마네스크 건축양식이나 고딕 건축양식에도 등장한다. 그러나 19세기가 시작되면서 아케이드는 기존의 아케이드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아케이드는 상품을 진열하고 전시하는 공간으로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예컨대 파리의 아케이드에 진열되었던 상품들은 다음과 같다. 틀니, 깃털 먼지청소기, 코르셋, 우산, 스타킹, 태엽 인형, 이후에는 사라졌던 셔츠의 색단추 등. 대중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아케이드의 유리 통로 속을 떠돌며 상품이 주는 환상에 젖어들었다.

베버에 따르면 근대성의 본질은 세계의 전반적인 '탈신화화(脫神話化)' 내지는 '탈마법화(脫魔法化)'에 있다. 그는 자본주의적인 사회화가 진행되면서 봉건사회 속에 남아 있었던 신비적인 것, 미신적인 것들 속에서 사회의 전반적인 합리화가 진행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발터 벤야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업화는 사회를 재신비화(再神秘化)시키고 재마법화(再魔法化)하는 작용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문화적 제도가 그 형태에 있어서는 점차 합리화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합리적인 과정과 전혀 다른 신화적인 힘들에 그 내용을 양도해 주게 된다. 이를 통해 신화적인 힘들이 다시 활동을 개시하게 된다. 즉 발터 벤야민에 따르면 점증하는 체계적인 합리화 과정의 표면 아래 무의식적인 꿈의 수준에서 새로운 도시 산업 세계가 완전히 다시 마법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아케이드는 도시 대중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을 잃고 집단적인 꿈속에 빠져 있게 한다. 대중들은 도시 대중문화가 만들어 낸 꿈속을 떠돌며, 미궁 속을 헤매게 된다.

[나] 대중문화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창조성과 자기표현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유익한 역할을 해 왔다. 물론 대중문화가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대중문화는 변화를 추구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변화를 성취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대중매체는 개인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충실히 옹호해 왔다. 텔레비전 시대 이전의 할리우드 영화들 대부분이 가부장적 권위에서 스스로 해방되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영웅을 묘사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난하지 않은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 주었다. 대중매체는 지위 상승의 열망을 창조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열망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라디오와 영화는 가정주부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서부극을 포함하는 대중적인 드라마와 멜로드라마는, 그 맥락이 역사적이든지 혹은 환상적이든지 간에, 매우 다양한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했다. 그런 문제들이 너무 쉽게 해결되는 것으로 결말이 나기는 하지만 수용자들은 그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가정관리나, 주택과 정원을 가꾸는 법을 다루는 잡지들은 독자들이 창조적인 자세를 가지고 미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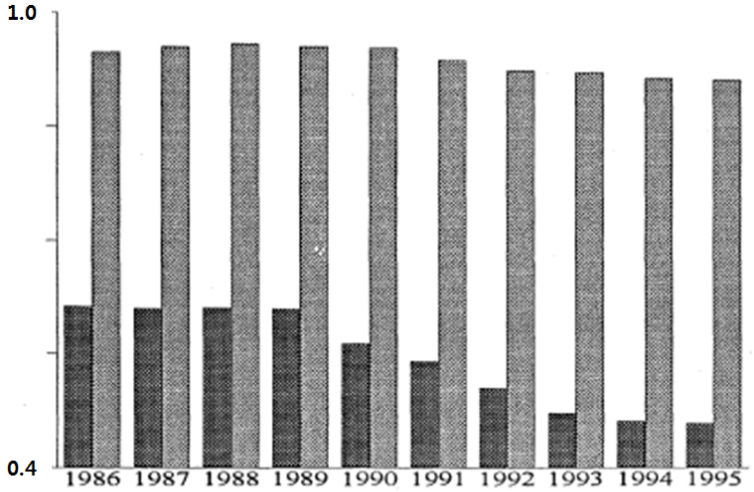
[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내용의 기사와 연예인 사생활 파헤치기에 주력하는 잡지사에 보내오는 독자 엽서를 보면, '이달에 특별히 좋았던 기사'로 연예 기사나 폭로성 기사를 꼽는 독자는 거의 없고, 점잖은 노교수의 생활 에세이 등이 늘 1위에 오른다. "제발, 자극적인 내용의 연예인 뒷이야기 등은 빼라."라는 주문도 쌓인다. 하지만 잡지 편집자들의 말에 따르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선정적인 연예 기사가 실릴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판매 부수는 큰 차이가 난다. 쉽게 말해서 자극적인 내용 없으면 잡지가 팔리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시청자들은 늘 교양 프로그램을 원하는데도 말이다. 독자 엽서가 주문하는 대로 점잖은 노교수의 에세이 등만 잔뜩 싣는다면 판매 실적은 뻔하다는 항변이다. 그러면 독자들 중에서 점잖은 취향의 사람들만 독자 엽서를 보낸다는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답을 하려는 대중의 무의식적인 속마음 숨기기는 익명의 독자엽서, 익명의 전화 통화에서까지 작용한다. 그 때문에 솔직한 대답을 끌어내기는 힘들다. 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은 그들이 겉으로 응답한 것과는 전혀 딴판인 것이다. 텔레비전의 시청률을 한번 살펴보라. 오락과 교양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실제로는 단연코 오락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교양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압도한다.

[문제 2] [가], [나]를 바탕으로 '미국 장애인법'의 시행이 장애인 고용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술하고, 그 원인을 [다]를 바탕으로 분석하시오. 그 다음 이와 유사한 다른 사례를 들면서 '정책의 의도와 결과'라는 측면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유의할 점을 서술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750(±50)자로 할 것. (4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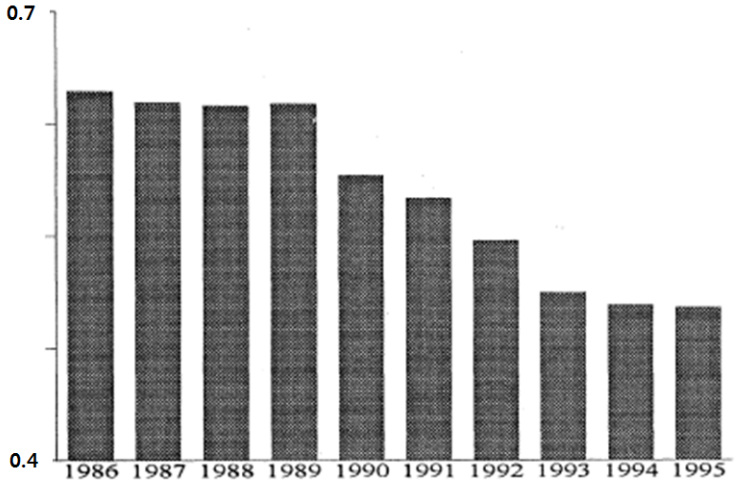
[가] 1990년에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은 종합적인 장애인차별금지정책을 규정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로서,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제1장,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제2장, 민간운영 공공편의시설 및 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제3장, 통신에서의 장애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제4장, 기타 사항을 규정한 제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제정 당시에 인류가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가장 종합적이고 상세하고 강력한 법제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장애인 권리장전'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미국 장애인법' 제1장은 15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유자격 장애인에 대하여 고용과 관련된 모든 기회에서 비롯되는 편익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즉 위 범주에 드는 모든 사용자는 채용지원절차, 채용, 승진, 해고, 보수, 직무상 훈련, 기타 고용관계상 조건과 특권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 다음의 〈그림 1〉과 〈그림 2〉는 미국의 자료이다.



<그림 1> 연도별 장애인 남성 취업률과 비장애인 남성 취업률
(■: 장애인 남성 취업률, ■: 비장애인 남성 취업률)



<그림 2> 연도별 장애인 남성의 비장애인 남성에 대한 상대적 취업률

[다] 미국 장애인법과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고용에 대한 효과로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것이 있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주에게 차별금지와 편의시설 제공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켜 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문항

- 문항 1-1 다음 제시문을 한 편의 완결된 글이 되도록 요약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40)자로 할 것. (30점)

- 문항 1-2 [가], [나]에 나타난 '대중문화'에 대한 견해의 차이점을 기술하고, [다]의 밑줄 친 곳에 나타난 대중의 행태를 근거로 [나]의 견해를 비판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40)자로 할 것. (30점)

- 문항 2 [가], [나]를 바탕으로 '미국 장애인법'의 시행이 장애인 고용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술하고, 그 원인을 [다]를 바탕으로 분석하시오. 그 다음 이와 유사한 다른 사례를 들면서 '정책의 의도와 결과'라는 측면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유의할 점을 서술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750(±50)자로 할 것. (40점)

▌문항 분석

❍ 문항 1-1

• **발문 :** 다음 제시문을 한 편의 완결된 글이 되도록 요약하시오.

논제 분석	
what	how
한 편의 완결된 글	요약하시오.

• **요구사항(requirement)**
–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40)자로 할 것.

• 이 문항은 요약을 통해 글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피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 또한 요약이라면 제시문의 내용을 간추리는 것이 아니라 매끄럽게 완결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성 있게 한 편의 완결된 글을 써야 한다.

❍ 문항 1-2

• **발문 :** [가], [나]에 나타난 '대중문화'에 대한 견해의 차이점을 기술하고, [다]의 밑줄 친 곳에 나타난 대중의 행태를 근거로 [나]의 견해를 비판하시오.

논제 분석	
what	how
– [가], [나]에 나타난 '대중문화'에 대한 견해의 차이점	1. 기술하시오.
– [다]의 밑줄 친 곳에 나타난 대중의 행태를 근거로 [나]의 견해	2. 비판하시오.

• **요구사항(requirement)**
  – 대중문화에 대한 견해의 차이점 기술
  – 대중의 행태를 근거로 [나]의 견해를 비판

• 이 문항을 해결 할 때 성격이 급한 수험생은 대중의 행태를 근거로 [나]의 견해를 비판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하지만, 이 문항은 분명 두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주안점을 각각에 두어야 한다.
• 따라서 1)의 조건인 [가], [나]에 나타난 '대중문화'에 대한 견해의 차이점을 먼저 밝혀야 한다.
• 이를 토대로 [다]의 밑줄 친 곳에 나타난 대중의 행태를 근거로 [나]의 견해를 비판해야 한다.

❍ 문항 2

• **발문 :** [가], [나]를 바탕으로 '미국 장애인법'의 시행이 장애인 고용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술하고, 그 원인을 [다]를 바탕으로 분석하시오. 그 다음 이와 유사한 다른 사례를 들면서 '정책의 의도와 결과'라는 측면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유의할 점을 서술하시오.

논제 분석	
what	how
– [가], [나]를 바탕으로 '미국 장애인법'의 시행이 장애인 고용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1. 기술하시오.
– 그 원인을 [다]를 바탕으로	2. 분석하시오.
– 유사한 다른 사례를 들면서 '정책의 의도와 결과'라는 측면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유의할 점	3. 서술하시오.

• **요구사항(requirement)**
  – 이 문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이에 알맞게 '기술, 분석, 서술'해야 한다.

- 이 문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국 장애인법'의 시행이 장애인 고용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다.
- 이를 바탕으로 [다]를 분석해야 한다.
- 또한 유사한 다른 사례를 들면서 '정책의 의도와 결과'라는 측면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유의할 점을 서술함으로써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글쓰기를 필요로 한다.

나. 답안 예시

문항 1-1

생존을 위한 과학 기술이 우리의 환경과 삶을 파괴하고 이러한 파괴를 막기 위해서 다시 과학 기술이 필요하다는 기술의 이중성을 간과하면, 두 가지 숙명론이 생겨날 수 있다. 기술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개량주의적 사고방식과, 기술을 포기하고 인간을 자연에 내맡기자는 생명주의적 사고방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인간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임을 포기한 것이다. 우리는 먼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전과는 다른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윤리적 지식이다. 이전의 과학적 지식이 무한한 진보를 추구했다면 윤리적 지식은 진보를 '무엇이 인간다운 것인가'라는 근원적 물음과 연관 짓고 인간의 지식과 행위에 한계를 설정한다. 윤리적 지식만이 과학 기술의 지배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411자).

문항 1-2

[가]는 대중문화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취한다. 도시 대중문화로서의 아케이드의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중들이 무의식적으로 상품이 주는 환상에 젖어들어, 자신의 삶을 잃고 대중문화가 만들어낸 집단적인 꿈속에 빠져 있게 된다고 보았다. 반면 [나]는 대중문화가 개인에게 유익한 역할을 해 왔다고 주장한다. 대중문화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열망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양을 갖추게 하는 등, 개인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창조성과 자기표현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에 의하면 대중들은 겉으로만 대중매체

에서 교양을 얻고 싶다고 말할 뿐 실제로는 말초적인 흥미를 충족시키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 대중문화가 정체성 확립이나 창조성, 자기표현 획득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410자).

문항 2

미국 장애인법은 고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런데 [그림 1]에 의하면 장애인 남성 취업률은 법이 제정된 1990년부터 오히려 감소했다. 이러한 하락 추이는 비장애인 남성 취업률이 조사 기간 내낸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과 큰 대조를 보인다. 이러한 점은 [그림 2]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장애인 남성의 비장애인 남성에 대한 상대적 취업률은 거의 변화가 없다가 1990년부터 감소하였다. [다]를 참조하면 이 결과는 미국 장애인법에 따른 법적의무 부과의 효과보다 장애인 고용에 따른 추가적 비용부담의 효과가 더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는 의도에서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다른 사례로서 최저임금제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나, 사용자에게는 근로자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여 고용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제가 생기기 이전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책입안자들은 정책 수립에 있어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또 그 반응들이 상호작용하여 어떤 사회적인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유념하여,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723자).

15 연세대학교

가. 개 요[1)]

■ **분석대상 : 2010학년도 수시 1차 인문계열 문제**

■ **시험시간 : 180분**

■ **문 항 수 : 3문항**

■ **답안 분량 : 2,600자 내외**

❍ 논제 1 : 800자 내외

❍ 논제 2 : 800자 내외

❍ 논제 3 : 1,000자 내외

■ **출제의도**

-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공공성'에 관한 제시문들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실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적 능력을 평가하려고 한다.
- 우선 '공공성'의 주제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개인, 시민사회, 국가(정부)가 각각 공공성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제시문 분석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정부나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공공성을 구현하려고 할 때 공공성의 한 측면인 '공개성(openness)'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를 분석해 보도록 한다.
-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전체)의 이익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창의적으로 사고해 보도록 한다. 개인, 시민사회, 국가가

1) 2011학년도 예시문제에 의하면 문항 수는 2문항, 시간은 120분으로 조정되었고, 글자 제한도 [논제 1]과 [논제 2]가 각각 900자 총 1,800자로 조정되었음. 연세대 논술 관계자에 의하면 실제 금년 수시부터는 예시문제의 방식으로 출제된다고 함. 따라서 금년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예시문제를 참고해야 할 것임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가운데 어느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이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사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 인문사회 분야의 텍스트와 논리적 사고 실험을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검증한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고등학교 정규과정(국어, 사회, 윤리 등)에서 다루는 '개인과 공동체', '민주시민의 윤리의식', '공동체의 현실과 사회적 삶', '삶의 윤리' 등의 주제가 반영되도록 제시문과 문제를 구성하였다.

▌ 주제 :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공공성'

나. 제시문 분석

▌ 논제 및 제시문

※ 아래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하늘에서 타고난 재주와 기력은 사람의 지혜로 어찌할 수 없으므로 타고난 인품을 통일할 방법은 없지만, 모든 사람의 사람된 도리와 권리를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대업과 정부의 법도가 세워졌다. 의롭지 못한 무리들은 과격한 기질로 그러한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들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성으로 힘을 제어하여 일정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정부가 만들어진 근본 뜻이다.

정부의 직분은 나라의 정치를 안정되고도 온전히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태평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 법치를 확립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원통하거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외국과의 교제를 신의 있게 하여 나라가 분란의 우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군대 양성과 도로 건설, 학교 설립과 같은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한 나라의 안녕과 문명을 바랄 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개화되었는지 미개한지의 구별은 정부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군대가 없으면 외국의 침략이나 국내의 반란이 있을 때 무슨 방법으로 방어하며 진압하겠는가. 도로를 건설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어찌 편리하게 이동하겠으며, 학교를 설립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어찌 윤리와 기강에 밝고 기술에도 정통하여 풍속이 문란해지거나 가난한 지경에 이르지 않기를 기약하겠는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사람들이 어떠한 생업에 종사하든지 자신들의 생애를 편안히 하여, 집안에서는 부모를 봉양하고 형제 처자와 즐거움을 누리며, 집 밖에 나가서는 친구들을 따라다니며 재미있게 놀더라도, 도둑을 맞을 우려와 재앙을 만날 공포가 없는 것이 모두 정부의 덕택이다. 만약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에 정부가 설립되지 않았다면 약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호소하며, 강폭한 자가 무도한 행위를 저지른들 누가 막아주겠는가.

제시문 [나]

좁은 의미에서 '공적'(公的)이라는 말은 '국가적'이라는 말과 동의어다. 이런 속성은 사법권의 규제와 정당한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국가기구의 기능과 연관된다. 국가기구의 권력에 맞서 생겨난 것이 시민사회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에 따르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근대적 관계는 '사회적인 것'의 등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 때 그녀가 의미했던 것은 바로 사적 영역이 공적인 것과 연관성을 가진 그러한 사회의 영역이다. 즉, "단지 살기 위해서 상호 의존한다는 사실이 공적인 의미를 획득하고, 단순한 생존에 관련된 활동이 공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사회다."

시민사회의 사적 영역에 관한 공중(公衆)의 관심사가 더 이상 공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제한되지 않고, 공중이 그 관심사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면서 시민사회의 공적 영역은 더욱 발전했다. 한편으로 이제 국가에 맞서게 된 사회는 사적인 부문을 공권력에서 분명히 분리시켰고, 또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재생산의 문제를 사적인 가정의 범위를 넘어 공중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제로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국가와 시민사회가 행정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지점에서 공중은 자신들의 이성을 사용하여 비판적 판단력을 키웠다.

시민사회의 공론장(公論場)은 개인들이 결집한 공중의 영역으로 파악될 수 있다. 공권력 그 자체에 대항하여 시민사회는 이제 국가에 의해 규제되어 온 공적인 영역을 차지하고자 했다. 그 결과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에 속하지만 공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상품교환과 사회적 노동에 관한 관계들을 규제하는 일반적인 규칙을

놓고서 공권력과 논쟁을 벌였다. 정치적 대결의 매개가 시민들이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성이었다는 점은 매우 특수하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정치적으로 기능하는 공론장은 18세기로 넘어가는 문턱의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잡지와 신문은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공중의 비판적 기구로 가장 먼저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시기에 『타임즈』(*The Times*)와 같은 새로운 거대 일간지와 더불어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공중의 다른 제도들도 출현했다. 공적 집회도 그 규모와 횟수가 증가했고 정치적 연합체 역시 많이 생겼다.

제시문 [다]

공리(utility)의 원리는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또는 촉진시키거나 억누르는) 경향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모든 행위란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공리는 어떤 것이든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에게 혜택, 이점, 쾌락, 선, 행복(이 경우에 이 모든 어휘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그것은 고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을 가져다주거나 불운, 고통, 악, 불행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속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일 경우 행복은 공동체의 행복을 뜻하며 당사자가 특정 개인인 경우는 그 개인의 행복을 가리킨다.

공동체는 구성원으로 여겨지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허구체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그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개인들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다.

개인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공동체의 이익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어떤 일이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그것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 개인의 쾌락의 합계를 증가시키거나 고통의 합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그것이 구성원들의 쾌락의 합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그것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도 큰 경우, 이는 공리의 원리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개인의 승인이나 부인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다시 말해 공리의 법칙에 상응하는지 상응하지 않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그 개인은 공리의 원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라]

다음과 같은 작은 마을이 있다고 상상해 보자. 마을 주민들은 삼림을 공유하며 거기서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쓴다. 주민 개개인이 벨 수 있는 나무의 양은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전체 나무의 양은 제한되어 있다. 삼림 훼손에 의한 비용은 마을 주민 모두가 치러야 하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베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민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결국 개인의 이익에 해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민 대다수가 나무를 적게 베는 데 반해 일부 개인들이 나무를 많이 베면 그 개인들은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개인들이 너무많아져 삼림 훼손에 의한 집단적 비용이 지나치게 증가하게 되면, 결국 나무를 많이 벤 개인들의 이득은 마을 주민 모두와 협력해서 나무를 적게 벨 때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의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규칙에 따라 나무를 얼마나 벨지를 선택한다.

규칙 1: 주민들은 각자 나무를 얼마나 벨지를 동시에 선택한다.
규칙 2: 주민들은 각자가 선택한 후 마을 전체의 벌목량을 알 수 있다.
규칙 3: 주민들은 이러한 선택을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한다.

이 마을에는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마을 자치회가 있는데, 주민들은 회의를 통해 마을 전체의 벌목량을 확인한다. 정부도 삼림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는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차이점을 분석하시오.(800자 내외로 쓰시오. 30점)

[문제 2] 아래에 소개된 공공성의 속성이 제시문 [가], [나] 각각에 제시된 공공성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 자신의 답변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밝히시오. (800자 내외로 쓰시오. 30점)

공공성이란 공중에 관련된 모든 것을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공개해야 함을 의미한다.

[문제 3] 제시문 [라]의 마을은 삼림 훼손을 막아 마을 전체의 이익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한 입장을 제시문 [가], [나], [다] 가운데서 그 선택의 근거를 설명하고,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도입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그 방안들을 제시문 [라]에 나온 세 가지 규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1,000자 내외로 쓰시오. 40점)

제시문 분석

❍ 제시문 가 : 유길준, 《서유견문(西遊見聞)》에서 발췌 · 편집

- 근대 국가에서 정부가 정책이나 법을 통해 구현하는 공공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 모든 사람의 도리와 권리를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대업과 정부의 법도가 세워졌다. ~ 이성으로 힘을 제어하여 일정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정부가 만들어진 근본 뜻이다.(→ 국가는 국민들 모두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며 이를 법과 제도 등을 통해 유지한다.)
- 정부의 역할은 정치 안정, 법치 확립, 신뢰가 전제된 외교활동 등이다.
- 국가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부와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 즉, 국가는 공공성을 구현하려는 의지와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소유한, 근대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공공성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 제시문 나 :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에서 발췌·편집

- 국가기구의 권력에 맞서 생겨난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
  - 처음에는 사적 영역이 공적인 것과 연관성을 가지는 관계였다.
  - 시민사회가 사적 영역에 관한 공중의 관심사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면서 시민사회의 공적 영역은 더욱 발전했다.
  - 또한, 경제적 재생산의 문제를 사적인 가정의 범위를 넘어 공중의 이해관계로까지 끌어올렸다.
  - 시민사회는 더 나아가 국가에 의해 규제되어 온 공적인 영역도 차지하고자 했다.
  - 정치적으로 기능하는 공론장의 역할로 처음에는 잡지와 신문이 자리 잡게 되었지만, 점차적으로 공적 집회 및 정치적 연합체의 확대 등 다른 제도들도 출현하게 되었다.

- 즉,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이전에는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졌던 경제적 영역이 공적인 것, 즉 공동의 문제로 대두하면서 성립된 것이 시민사회인데, 이는 시민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누구나' 자신의 '이성'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판단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공론장'을 형성시킨다.
- 이러한 공론장에 참여하는 개인은 자신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즉 비판적 판단력을 가진 '공중'으로 간주된다.

❍ 제시문 다 :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에서 발췌·편집

- 공리(utility)의 원리 :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또는 촉진시키거나 억누르는) 경향에 따라 모든 행위(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도 포함)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의미
- 공리는 어떤 행위의 옳음이 행복이나 쾌락을 유발하고 불행이나 고통을 막는 속성을 의미
- 사람들 각자 자유로이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한편, 공동체는 구성원인 개인들의 총합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어떤 실재가 아니라 허구체(fictitious body)일 뿐이다.
- 따라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각 개인의 이익을 측정하여 이를 합하여 계산해 낸다면 그것이 바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 제시문 라 : Cardenas & Stranlund, 〈Local Environmental Control and Institutional Crowding-Out〉, 《Wordl Development Vol. 20》(2000: pp. 1719-1733)에서 실행한 삼림자원 보호에 대한 가상의 실험을 문제의도에 맞게 수정

- 개인적 선택, 공동체 차원의 선택과 정부라는 공동체 외부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수정
- 땔감의 확보라는 개인의 이익추구와 삼림보호라는 공익의 추구가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개인들이 삼림이라는 공공재를 보호하도록 할 수 있을지가 핵심
-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 국가의 개입, 시민사회의 합의 형성, 개인들 사이의 반복되는 게임이라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 논제 분석

논제 1

• **논제 01 :** 제시문 [가], [나], [다]는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차이점을 분석하시오.(800자 내외로 쓰시오. 30점)

논제 분석	
what	how
– 제시문 [가], [나], [다]에서 말하는 공공성을 실현하는 서로 다른 주체의 차이점을	분석하라.

• **요구사항(requirement)**
– 800자 내외로 쓰라.

❍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라는 논제와 비슷한 논제이다.
– 공통점은 논제에서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 공공성이란 일반적을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연관된 성질을 일컫는다.

❍ 따라서 이 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제시문에서 '공공성을 실현하는 서로 다른 주체(국가, 시민사회, 개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 그 다음으로 각 주체가 구현하는 공공성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되는 것이다.

논제 2

• **논제 02 :** 아래에 소개된 공공성의 속성이 제시문 [가], [나] 각각에 제시된 공공성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 자신의 답변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밝히시오. (800자 내외로 쓰시오. 30점)

공공성이란 공중에 관련된 모든 것을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공개해야 함을 의미한다.

논제 분석	
what	how
– 별도로 제시한 공공성의 속성이 제시문 [가], [나] 각각에 제시된 공공성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라.
– 별도로 제시한 공공성의 속성이 제시문 [가], [나] 각각에 제시된 공공성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를	밝혀라.

• **요구사항(requirement)**
  – 먼저 자신의 답변을 제시하고, 그 답변에 대한 근거를 밝혀라.
  – 800자 내외로 쓰라.

❍ 먼저 별도로 제시된 문장에서 말하는 공공성의 속성을 파악해야 한다.
  – 그것은 공개성인데, 이는 공공성의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이다.
  – 별도로 제시된 문장에서의 공개성이란 공중과 관련된 정보 또는 혜택이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접근 가능함을 의미한다.

❍ 이러한 공개성이 국가에 의해 공공성이 주도되는 경우(제시문 [가])와 시민 사회에 의해서 공공성이 추구되는 경우(제시문 [나]), 각각 어떻게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의 근거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논제 3

• **논제 03 :** 제시문 [라]의 마을은 삼림 훼손을 막아 마을 전체의 이익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한 입장을 제시문 [가], [나], [다] 가운데서 선택하여 그 근거를 설명하고,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도입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시오. 그 방안들은 제시문 [라]에 나온 세 가지 규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1,000자 내외로 쓰시오, 40점)

논제 분석	
what	how
– 제시문 [라]의 마을에서 삼림 훼손을 막아 마을 전체의 이익을 높이고자 할 때, 제시문 [가] ~ [다]에서 가장 적절한 입장을	선택하라.
– 그 선택의 근거를	설명하라.
– 그 선택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도입할 수 있는지를	논술하라.

• **요구사항(requirement)**

–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문 [라]의 세 가지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설명하라.

– 1,000자 내외로 답하라.

❍ 상당히 복잡한 논제이다.

– 먼저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제시문 [라]의 마을에서 삼림 훼손을 막아 마을 전체의 이익을 높이고자 할 때), 공공성을 실현하는 세 주체(국가, 시민 사회, 개인) 가운데 어떤 주체가 적합한지를 선택해야 한다.

– 다음으로 그 선택의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선택한 주체에 의해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도입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나무를 적절한 수준에서 베도록 하여 현재의 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는가이다.

– 논의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제시문 [라]에 나와 있듯이 삼림 훼손에 의한 비용은 마을 주민 모두가 치러야 하기 때문에,

– 나무를 많이 베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민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결국 개인의 이익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또한, 주어진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의 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6 이화여자대학교

가. 개 요

■ 분석대상 : 2010학년도 수시 1차 인문계열 문제

■ 시험시간 : 150분

■ 문 항 수 : 언어영역에 중점을 준 4문항과 수리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1문항

■ 답안 분량 : A3용지 2면

■ 출제 방향 및 지침

2010학년도 수시모집 1차 언어논술에서 출제된 제시문은 노동에 관한 글들이다. 본 논술문제에서는 친숙하고도 익숙한 노동의 의미를 다루면서, 독해력과 분석력, 종합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문의 종류도 권위 있는 고전, 교과서에 실린 글, 철학 및 역사서로부터 현대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기에 노동에 관한 입체적이면서도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다. 이런 제시문들을 통해 노동의 근본적 의의를 비롯하여, 사회 및 기술문명의 발전에 따른 노동 형태와 의미의 변화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려고 했다. 나아가 여성의 직업 활동 및 노동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정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쉽게 답할 수 있는 주제이므로, 노동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사고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 제시문과 문제들이다.

■ 평가 기준

① 주어진 상황과 제시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

- ▸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
- ▸ 핵심적인 개념, 주장과 근거, 제시문에 대한 종합적 이해력
- ▸ 올바른 자료해석 능력 및 사고의 정확성과 통합성

② 객관적 · 논리적 근거에 입각한 논증력

- ▶ 다양한 상황 및 관점을 기반으로 객관적 · 논리적 근거에 입각한 서술 능력
- ▶ 주어진 조건과 관계없는 장황한 자기 주장은 감점 요인이 됨

③ 제시문 주장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 ▶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비판 능력
- ▶ 지문(주장)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사고력
- ▶ 문항 자료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지문 주장에 대한 비판 능력
- ▶ 구체적 사례와 일반적 주장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사고 능력

④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 능력

-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의 명료성 등
- ▶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과 일관성 있는 사고력과 논리력

나. 제시문 및 논제 분석

▌ 제시문

[가] 페르세스여,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여, 그대는 늘 내 충고를 명심하고 일하시라.
기아가 그대를 싫어하고 고운 화관을 쓴 정숙한 데메테르 여신이 그대를 사랑하여 그대의 곳간을 식량으로 가득 채우도록 말이오!
왜냐하면 기아는 게으름뱅이의 충실한 동반자이기 때문이오.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신들도 인간들도 싫어하는 법이오.
그는 빈둥빈둥 놀며 꿀벌들의 노고를 먹어치우는 침(針)이 없는 수벌들과 기질이 같소.
그대는 일을 사랑하되 시의(時宜)를 얻도록 하시라.
그러면 그대의 곳간들은 철철이 식량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오.
사람들이 양떼를 많이 갖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일 덕택이오.
그리고 일하는 자는 불사신들께 훨씬 더 사랑스런 법이오.
(그리고 인간들에게도. 그들은 게으름뱅이들을 싫어하니까요.)

일은 수치가 아니오. 일하지 않는 것이 수치요.
그대가 일하면 게으름뱅이는 곧 그대가 부자가 되는 것을 시기할 것이오.
하나 부에는 위엄과 명망이 따르는 법이오.
그대의 운수가 어떻든 간에 일한다는 것은 더 바람직한 것이오.
만약 그대가 그대의 어리석은 마음을 남의 재물로부터 일로 돌려 살림을 보살핀다면 말이오.

[나] 카알라일은 말했지!
'할 일을 얻은 사람은
또 다른 행복을 찾지 않는다'고.
그러나 공장의 노동자들은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네.
찰스 데바스는 말했지.
'많은 사람들은
기계의 핸들을 움직이고 있을 뿐,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독창성도 필요 없는
사물이 되고 말았어.
노동자들은
일을 하기 전이나 후나
전혀 참여할 수 없어.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일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네.'

[다] 농사짓는 기술이 정교해지면 차지한 농토가 적으면서도 곡식은 소출(所出)이 많으며, 노력이 덜 들면서도 잘 여물 것이다. 밭을 일구어서 갈고 씨뿌리고 김매고 낫질하고 벗기는 것으로부터 키질하고 방아 찧고 반죽하고 밥 짓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편리하게 되어 노동력이 절감될 것이다. 베 짜는 기술이 정교해지면 투입되는 물자가 적으면서도 실이 많이 나오고, 작업을 빨리 하면서도 포백(布帛)은 올이 배고 결이 고울 것이다. 물에 담가서 씻고 실을 뽑으며 베를 짜고 표백하는 일로부터 채색으로 물들이고 바느질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편리하게 되어 노동력이 절감

될 것이다. 병정(兵丁)의 기술이 정교해지면 공격하고 방어하며 식량을 운반하고 성벽 따위를 수축(修築)하는 모든 일이 속도가 빨라져 위태함을 면할 것이다. 의원(醫員)의 기술이 정교해지면 맥을 짚어서 증세를 살피고 약의 성질을 분별하여 사시(四時)의 기운을 살피는 모든 것이 옛날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고 잘못된 점을 논박(論駁)할 수 있을 것이다. 온갖 공장이의 기술이 정교해지면 궁실(宮室)과 기용(器用)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성곽과 선박, 수레, 가마 따위의 제작에 이르기까지 모두 편리하고 견고(堅固)하게 될 것이다. 진실로 그 방법을 다 알아서 힘껏 시행한다면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고, 군대를 강하게 만들 수 있으며, 백성을 잘 살고 수(壽)하게 할 수 있을 터인데, 당장 익숙히 보면서도 도모하지 않는다. 수레를 사용하는 데 대하여 말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산천이 험하여 사용할 수 없다." 하며, 양(羊)을 목축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있으면 "조선에는 양이 없다." 하며, 말은 죽을 쑤어 주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풍토(風土)가 각기 다르다." 하니, 이런 자들을 난들 또한 어찌하겠는가.

[라] 자공(子貢)이 초(楚)나라를 유람하다가 진(晉)나라로 돌아갈 때 한수(漢水)의 남쪽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때 한 노인을 만나니 그 노인은 바야흐로 밭이랑을 일구려고 굴을 파서 우물로 들어가 물동이를 안고 물을 퍼다 붓는다. 그런데 애써 힘들임이 심히 많으나 성과는 매우 적었다. 그래서 자공이 물었다. "여기 기계가 있는데 하루에 백 이랑에 물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임이 매우 적어도 효과는 큽니다. 당신은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밭이랑을 일구던 노인이 자공을 쳐다보고 물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나무를 파서 기계를 만든 것인데 뒤쪽은 무겁고 앞쪽은 가벼워 물을 끌어당기는 것이 물이 흐르듯 하고 빠르기가 넘치는 홍수 같습니다. 그 이름을 도르래라 합니다."

그 밭이랑을 일구던 노인이 버럭 성을 내다가 곧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우리 선생님께 들으니 기계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꾀를 부리는 일이 있게 되고, 꾀를 부리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꾀를 내는 마음이 생기며, 꾀를 내는 마음이 가슴속에 있으면 순백한 마음이 갖추어지지 않고, 순백한 마음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신묘한 천성이 안정되지 않으며, 신묘한 천성이 안정되지 않으면 도가 깃들지 않는다 하시었네. 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네."

자공이 뻘겋게 부끄러워져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못했다.

[마] 현실적으로 실업자인 것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것은 없다. 사실 노동은 물질적 안정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도 보장한다. 노동을 통해서 개인은 재정적 독립과 사회적 승인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개인 활동의 유용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그 결과 인격의 유용성과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그러한 사회적 승인을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노동을 통해 개인은 사회 속에 위치하며, 그 사회 속에서 자유로운 개인, 자립적 개인,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인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혼 여성들의 직업을 가지려는 성향, 퇴직한 사람들의 무위도식에서 벗어나려는 현상, 젊은이들의 첫 직장 구하기의 고통이 상징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노동은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의 고통을 덜어준다.

[바] 19세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노동이 점진적으로 분리되면서 그 경계가 뚜렷해졌다. 사업과 전문분야가 확대되면서 남자들의 경우에는 직업이나 공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존재 의의가 규정된 반면, 여자들은 그러한 세계에서 멀어져 어머니 역할과 가사를 직업으로 삼게 되었다. 남성과 여성 세계의 이러한 분리는 종교적인 함의를 담고 있었다. 왜냐하면 장터는 위험하고 비도덕적인 공간이며, 이 영역에서 활동하는 남자들이 가정이라는 도덕적 세계와 부단히 접촉하지 않으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시장의 파괴적인 경향을 순화하는 역할을 가정에서 여자들이 담당한다는 것이다. 가정은 다정한 즐거움의 장소로서, 가정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느라 힘들고 고단한 남자들을 위한 안식처였다. 남성다움은 자기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고, 여성다움은 얼마나 의존적이 될 수 있는가를 의미했다. 여자가 만일 직업을 가지게 되면 여성의 고상함은 파괴되어 버린다고 생각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밥벌이를 하는 남편과 가정적인 아내와 아이들이라는 중간계급의 이상이 널리 확산되고, '주부'라는 새로운 범주가 도입되었다.

[사] 연지는 꽤 이름 있는 교양지 기자였다. 연지는 그 일에 보람도 느끼고 꽤 열심히 뛰고 있어서 인정도 받고 있는 모양이지만 경숙 여사는 그 직업이 연지를 선머슴 같이 만드는 것 같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경숙 여사가 연지의 직업에 흡족했던 건 딱 한 번 있었고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연지가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 본 것이

그 잡지사였고, 여기자 공개 채용에 응모한 여대 졸업생은 자그마치 이백 명이 넘는다고 했다. 그 중 서류 심사에서 오십 명을 추려서 오십 명이 재차 필기 시험과 면접을 치르고 나서 최종적으로 한 명을 뽑는 데 연지가 뽑혔다. 이백 대 일의 경쟁에서 이겼다는 건 경숙 여사의 허영심에 대단한 만족감을 주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곤 못 배길 대사건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이백 대 일의 경쟁에 이긴 것을 삼 대 일의 대학 시험에 붙은 것만큼도 안 알아 줬고, 중매를 해 봐도 대학 졸업하고 고이 집에 들어앉아 있는 규수보다 여기자를 조금은 덜 쳐 주려는 낌새가 그녀를 놀라고 자존심 상하게 했다. 다달이 손에 쥐는 실소득도 이백 대 일의 경쟁을 뚫은 인재에 대한 대우로는 너무도 소홀한 것도 경숙 여사를 실망시켰다. 꼭 뭣에 교묘하게 기만당한 느낌이었다. 여자 직장이란 어차피 정거장같은 거, 머물러 봐야 몇 년이나 더 머물라구. 엄마가 그만두란다고 그만둘 딸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자위했었는데 약혼 날을 받아 놓고도 연지는 사표 낼 낌새가 보이지 않았다.

[아] 노동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연과의 관계를 조절하고 통제한다. 인간은 자연의 물질을 자신의 삶에 유익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팔, 다리, 머리, 손과 같은 자신의 신체기관을 움직인다. 이 움직임을 통해 그는 외부 자연에 작용하여 자연을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자신의 본성도 변화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에 내재되어 있던 가능성을 실현시키며, 그 과정에서 자연의 힘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둔다. 우리는 여기서 동물 수준의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노동방식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본능적 노동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던 때와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화된 때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다. 우리는 오직 인간의 특성을 가진 노동에만 주목하려고 한다. 거미도 방직공의 작업과 유사한 작업을 하며, 꿀벌의 벌집구조는 건축가들의 솜씨를 능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서툰 건축가라 해도 숙련된 꿀벌보다 나은 면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건축가가 벌통 속의 벌집을 만들 경우 미리 자기 머릿속에 그 벌집을 그려보기 때문이다. 노동의 결과는 노동자의 상상 속에 관념적으로 이미 존재한다. 인간은 단지 물질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한다. 바로 그 목적이 규범적으로 그의 행동양식을 규정하며, 그의 의지는 끊임없이 그 목적을 따라야 한다. 인간은 노동하는 동안 신체적인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긴장하면서 주의력을 발휘하여 그 의지를 관철시켜야 하는 것이다.

❍ 문항 1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노동에 관한 시각의 차이를 밝히시오. [1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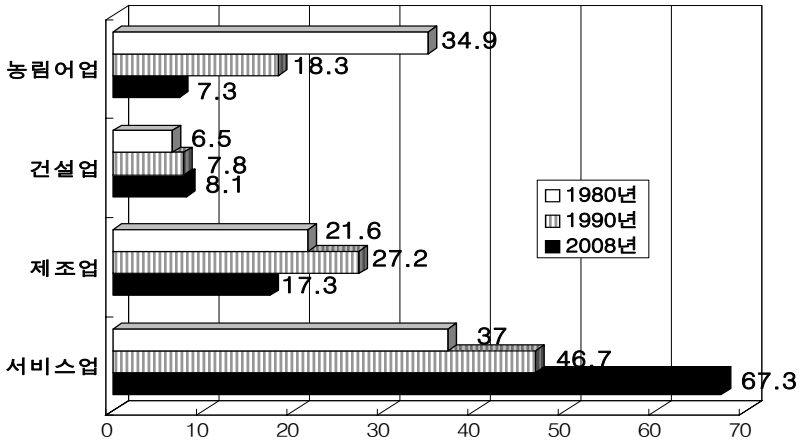
❍ 문항 2 제시문 [다]와 [라]는 기술에 관한 상이한 관점을 드러내는 글들이다.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15점]

❍ 문항 3 제시문 [마]와 [바]의 요지를 밝히고 그것에 근거하여 제시문 [사]에 나타나는 모녀간의 갈등을 분석하시오. [2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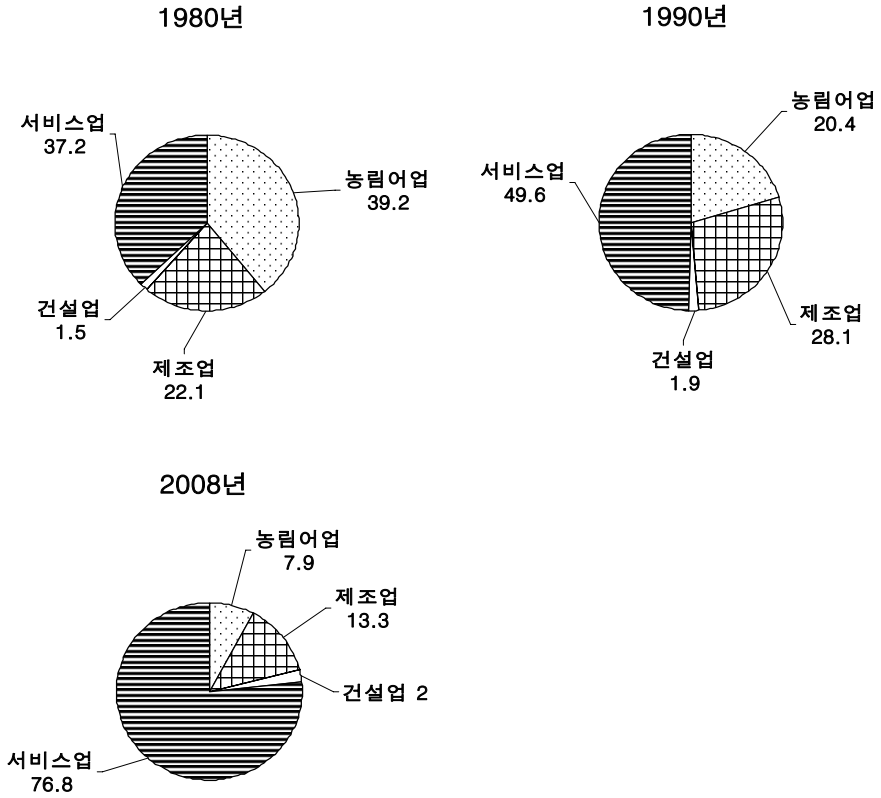
❍ 문항 4 제시문 [아]의 논지를 밝히고 그것을 토대로 제시문 [가]~[사]를 모두 활용하여 '노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25점]

❍ 문항 5 〈그림 1〉과 〈그림 2〉는 1980년, 1990년, 2008년 한국의 전체 취업자 대비 산업별 비중과 전체 취업자 중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의 추이를 보여주는 자료다. 자료를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 [20점]

〈그림 1〉 전체 취업자 대비 산업별 비중 추이 (단위: %)



〈그림 2〉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 추이 (단위: %)



(1)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취업자 대비 산업별 비중의 1980년부터 2008년까지의 추이를 기술하고, 전체 취업자 대비 산업별 비중과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 전체 취업자 중에서 여성 취업자의 비율은 1980년부터 2008년까지 42%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전체 취업자 대비 서비스업 여성 취업 비중(%)을 연도별(1980년, 1990년, 2008년)로 계산하시오. 그리고 이 비중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아래 〈그림 3〉과 연관하여 설명하시오.

제시문 [가]는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서 가져온 글로, 나태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삶의 태도를 권장하고 있다. 근면한 노동을 통해 식량 비축에서부터 위엄과 명망의 획득에 이르기까지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낙관적 어조로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나]는 피터 모린의 시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산업사회가 진행되면서 노동자가 사물화되고 소외되는 현상을 포착하고 있다. 인간이 노동의 전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계의 부속품처럼 취급되어 기쁨과 보람을 얻기 힘들게 되는 노동 상황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정약용의 『기예론』 중 일부로 고등학교 국어(상) 교과서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노동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농업, 방직업, 군사 및 의술, 건설 분야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노동력은 절감되면서 그 효과는 증대된다.

제시문 [라]는 『장자』 「천지편」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에서는 기술을 이용하여 일의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면 인간의 정신적 수양을 그르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람의 진심을 담아 일할 때 노동의 진정성이 발휘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 기계 및 기술이 개입될수록 노동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보고 있다.

제시문 [마]는 마리 크리스틴 드부르그의 『인간과 노동』에서 가져온 글인데, 인간이 노동을 통해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 사회적 승인, 인격의 가치 확인 등 내면적인 의미도 얻게 됨을 보여준다. 실업 상태나 취업 준비 중의 어려움은, 노동을 통한 자아의 확인 기회를 상실한 데서부터 비롯된다.

제시문 [바]는 필립 아리에스가 편집한 『사생활의 역사』 중 일부로, 19세기에 남성 활동의 공적 영역과 여성 중심의 사적 영역이 확실하게 분리되면서 가정이 도덕적 순화의 기능을 맡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이 공적 직업으로서의 노동 기회를 얻기는 어려워졌던 것이다.

제시문 [사]는 박완서의 『서 있는 여자』 중 한 부분으로, 대졸 여성의 취업 문제, 직장에서의 대우 문제, 결혼과 직업의 양립 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글이다. 특히 여성 내에서도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사이에는 여성 노동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문 [아]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중에서 발췌한 글로, 인간의 노동은 동물의 노동과 달리 목적과 의지에 따라 그 결과를 지향한다고 논의하는 부분이다. 기계적이거나 표면적인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 인간 노동의 본질은, 인간 고유의 정신적 가치가 발휘될 때 확인되는 것이다.

분석

❍ 문항 1

• **발문 :**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노동에 관한 시각의 차이를 밝히시오.

논제 분석	
what	how
노동에 관한 시각의 차이	밝히시오.

• **요구사항(requirement)**

– 노동에 관한 시각의 차이를 밝혀야 한다.

• 이 문항은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노동에 관한 시각의 차이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긍정적 생각과 부정적 생각이 들어가야 한다.

❍ 문항 2

• **발문 :** 제시문 [다]와 [라]는 기술에 관한 상이한 관점을 드러내는 글들이다.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논제 분석	
what	how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를 비판적	분석하시오.

• **요구사항(requirement)**

– [라]의 관점에서 [다]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라.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라]의 관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것은 노동의 본질적 측면을 강조한 입장이다. 한편, 제시문 [다]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노동력은 감소한다는 기능론적 입장이다. 여기서는 노동의 본질적 입장에서 기술의 발전을 찬양하는 제시문 [다]의 입장을 비판해야 한다.

❍ 문항 3

• **발문 :** 제시문 [마]와 [바]의 요지를 밝히고 그것에 근거하여 제시문 [사]에 나타나는 모녀간의 갈등을 분석하시오.

논제 분석	
what	how
1. 제시문 [마]와 [바]의 요지 2. 그것에 근거하여 제시문 [사]에 나타나는 모녀간의 갈등	1. 밝히시오. 2. 분석하시오.

• **요구사항(requirement)**

– 이 문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이에 알맞게 요지를 밝히고 갈등을 분석해야 한다.

• 이 문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시문 [마]와 [바]의 요지를 밝히는 것이다.
• 이를 근거하여 제시문 [사]에 나타난 모녀간의 갈등을 분석해야 한다.
• 또한 여성 내에서도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사이에는 여성 노동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밝혀야 한다.

❍ 문항 4

• **발문 :** 제시문 [아]의 논지를 밝히고 그것을 토대로 제시문 [가]~[사]를 모두 활용하여 '노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논제 분석	
what	how
1. 제시문 [아]의 논지 2. 제시문 [가]~[사]를 모두 활용하여 '노동'에 대한 자신의 견해	1. 밝히시오. 2. 논술하시오.

• **요구사항(requirement)**

– 이 문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이에 알맞게 요지를 밝히고 자신의 견해를 논술해야 한다.

• 이 문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시문 [아]의 논지를 밝히는 것이다.
• 이를 근거하여 제시문 [가]~[사]를 모두 활용하여 '노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해야 한다.

❍ 문항 5-1

• **발문 :** (1)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취업자 대비 산업별 비중의 1980년부터 2008년까지의 추이를 기술하고, 전체 취업자 대비 산업별 비중과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논제 분석	
what	how
1. 전체 취업자 대비 산업별 비중의 1980년부터 2008년까지의 추이를 2.전체 취업자 대비 산업별 비중과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 사이의 관계	1. 기술하시오. 2. 설명하시오.

• **요구사항(requirement)**

– 이 문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이에 알맞게 산업별 비중의 추이를 기술하고,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을 설명해야 한다.

• 이 문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이에 알맞게 산업별 비중의 추이를 기술하고, 여성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을 설명해야 한다.

❍ 문항 5-2

• **발문 :** 전체 취업자 중에서 여성 취업자의 비율은 1980년부터 2008년까지 42%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전체 취업자 대비 서비스업 여성 취업 비중(%)을 연도별(1980년, 1990년, 2008년)로 계산하시오. 그리고 이 비중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아래 〈그림 3〉과 연관하여 설명하시오.

논제 분석	
what	how
1. 전체 취업자 대비 서비스업 여성 취업 비중(%)을 연도별(1980년, 1990년, 2008년)로 계산하시오. 2. 이 비중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아래 〈그림 3〉과 연관하여 설명하시오.	1. 계산하시오. 2. 설명하시오.

• **요구사항(requirement)**
  – 이 문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여기서 계산 문제는 반드시 정확한 답을 도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그림 3〉과 연관하여 설명해야 한다.

• 이 문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계산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그래프 해석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설명해야 한다.

다. 답안 예시

문제 1

[가]와 [나]는 노동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가]는 노동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가]에서 말하는 노동이란 게으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하는 행위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명망까지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가]에서는 나태하지 않은 부지런한 삶의 태도를 강조한다. 반면, [나]는 노동의 부정적 측면을 이야기한다. 산업화 이후 기계화된 노동 형태로 인해서 사람은 적극적인 노동의 주체가 아닌 수동적 객체로 전락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독창성을 잃어가고 일의 보람을 느낄 수도 없게 되었는데, [나]는 이러한 산업화 사회의 노동 과정에서 야기된 인간 소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문제 2

[다]에 따르면 기술은 적은 노동으로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준다. 기술의 발달은 가정, 사회, 국가의 다양한 직종과 분야의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다]에서는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들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라]에 따르면 [다]의 관점은 옳지 않다. 기술과 기교에 의존하여 노동을 하게 될 경우 편리하고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이는 적은 노동으로 많은 이익을 보게 된 사람들을 나태하고 꾀를 부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의 본질은 노동의 효율성을 통해 얻게 되는 물질의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과정에서 얻는 정신적 성숙에 있다. 즉, 정신의 성숙 없이 효율성만 강조하는 것은 결국 노동의 참된 가치를 퇴색시킬 수 있다.

문제 3

[마]는 노동의 역할 및 가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마]에 따르면,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물질적 안정은 물론 정신적 안정까지 얻을 수 있으며, 사회로부터 유용성과 가치를 지닌 한 개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은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기도 한다. 한편, [바]는 직업 사회로서의 공적 영역에 남성이, 순화된 도덕적 공간으로서의 사적 영역에 여성이 자리잡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남성이 일하는 장터는 비도덕하고 위험한 곳으로, 남성은 도덕적 세계인 가정과 접촉하여 구원을 얻어야 하며, 여성은 장터의 이러한 속성을 순화시켜주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남성이 노동을 통해 가정을 부양한다면,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하는 대신 가정 안에서 남성에게 즐거움과 안식을 제공해야 했는데, 주부의 개념은 이러한 인식의 확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바]는 주장한다. [사]에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딸 연지와 여성의 가정적 역할을 중시하는 기성세대 여성, 경숙 여사간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 직장 여성인 연지는 노동을 단순한 생계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속에서 만족과 보람을 얻는다. [마]에도 나타나 있듯이, [사]의 연지는 노동을 통해 물질적 안정을 얻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으며,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한다. 반면, 경숙 여사는 [바]에서처럼 여성의 가정적 역할을 중시한다. 여성기자로서 사회 속에서 받는 대우는 남성에 비해 보잘것없을 것이며, 중매를 할 때도 내조를 잘하는 규수가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보고 딸도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충실한 여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연지와 경숙 여사의 갈등은 결국 [바]처럼 여성에게 가정에 충실한 현모양처의 모습을 기대하는 어머니와 [마]처럼 노동을 통해 재정적으로 독립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싶은 딸의 가치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문제 4

[아]에 따르면, 인간은 노동행위를 통해 자연을 자신에게 유익한 형태로 만들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실현시키려는 목적을 성취해낼 수 있다. 또한 [아]는 원초적인 동물의 노동과 인간의 노동을 비교하며, 인간의 노동이 동물보다 낫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관념과 목적에 따라 노동의 결과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의 견해는 [가]에서처럼 노동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진정 가치 있는 노동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이 기계에 종속되어 노동자의 의지와 사고가 노동에 투영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물론, [다]에서 이야기

하듯이 기술의 발달은 효율성을 높여서 인간이 적은 노력으로 보다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라]의 노인이 말하듯, 기술의 편리함에 의존하고 효율성만을 중시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꾀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노동은 [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에게 보상을 주고 개인의 가치와 가능성을 깨닫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 하지만 [바]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동의 개념이 남성 활동의 공적 영역과 여성 중심의 사적 영역으로 분리되었고, 이것이 [사]와 같은 사회적 편견으로 발전하여 여성의 노동활동에 있어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결국 노동이 진정한 가치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가 주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사회의 편견에서 자유로워지는 동시에 자신 뿐 아니라 사회를 보다 더 풍요롭게 하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5

〈그림 1〉은 전체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이고 〈그림 2〉는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구성비)다. 유의할 점은 〈그림 2〉의 자료는 산업별 여성 취업 비중이 아니라는 것이다.

1. [10점]

(i) 1980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 취업자 대비 농림어업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 온 반면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제조업의 경우 그 비중이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증가하였다가 1990년부터 2008년까지는 다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ii) 1980년부터 2008년까지 농림어업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여성 취업자 중 농림어업 취업 비중도 감소하였다. 반면, 서비스, 건설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 취업자 중 이 산업들에 취업한 비중도 증가하였다. 여성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 비중도 제조업의 비중의 변화와 같은 패턴으로 1980년부터 1990년까지는 증가하였다가 1990년부터 2008년까지는 다시 감소하였다. 각 산업별 비중과 여성 취업자의 당해 산업 구성비라는 두 변수는 1980년부터 2008까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음을 알 수 있다.

2. [10점]

(i) 전체 취업자 대비 서비스업 여성 취업 비중= 전체 취업자 중 여성 취업자의 비율

(42%) × 여성 취업자의 서비스업 비중. 1980년: 0.42×0.372= 15.6%, 1990년: 0.42×0.496= 20.8%, 2008년: 0.42×0.768= 32.3%.

(ii) 1980년부터 2008년까지 서비스업 여성 취업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소매 및 음식 숙박 분야에 비해 금융 및 교육, 보건 공공 분야의 일자리와 여성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17 인하대학교

※ 본 자료는 2010학년도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2011학년도 인하대 인문계열 논술 고사에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음을 알립니다.

	2010학년도	2011학년도
시험 시간	150분	120분 (시간과 총 답안 글자 수 줄임)
문항 구성	3문항 총 3문제	2문항 총 3문제 (문항 수 줄임)
	[문항 1] 요약형 문제 (30점, 600자 내외) [문항 2] 수치 자료 분석 문제 (30점, 600자 내외) [문항 3] 논술 문제 (40점, 800자 내외)	[문항 1] [문제 1] 요약형 문제 (20점, 300자 내외) [문제 2] 논술 문제 (50점, 800자 내외) [문항 2] 수치 자료 분석 문제 (30점, 600자 내외)

가. 개 요

- **분석대상 : 2010학년도 수시 2차 인문계열 문제**
- **시험시간 : 150분**
- **문 항 수 : 총 3문항 총 3문제 (문항당 1문제)**
- **답안 분량 : 총 2,000자 내외 (600자 내외+600자 내외+800자 내외)**

출제 방향 및 지침

- 수능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고려함.
- 제시문은 주로 교과서에서 발췌하거나 교과서 수준으로 유지함.(인문계의 경우 문항당 최소 한 개의 제시문을 교과서에서 발췌함.)
- 기본 교과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문제에 접근하는 데에 충분한 정보를 제시문을 통해 제공함.
- 인문계에서 자료 분석 및 활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도입했지만 계산위주의 문제는 지양함.
- 영어제시문은 도입하지 않음.

출제의도

❍ 문항 1: 이 문항은 글에 대한 사실적 독해 능력과 글감들로 글을 구성하는 작문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글의 독해 능력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사실적 독해 능력이다. 또한 글감을 적절히 구성하여 완결된 문단을 작성하는 능력은 작문을 위한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해와 작문의 기본적인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 이 문항이다.

글의 사실적 독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우선 짧은 한두 문단의 글들을 제시하여 제시문 각각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글 내용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때 글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준을 중심으로 유사한 내용끼리 범주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여 적절히 요약할 수 있는지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주어진 글을 요약하는 능력은 사실적 독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시문을 대상으로 일반화, 대치, 삭제 등의 요약 원리를 적용하여 핵심 내용을 추출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문항에서는 요약한 내용들을 문맥에 어울리게 적절히 구성하여 한 문단으로 표현하는 능력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는 물론 기본적인 작문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요약한 내용들을 기본적인 문단의 구성 원리에 따라 적절히 구성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작문 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독해 능력과 작문 능력은 서로 무관한 별개의 능력이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능력이다. 독해 과정을 통해서 작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작문

과정을 통해서 독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요약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단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기본적인 작문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독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문항 2: 이 문항은 제시문에 나타난 주장에 대하여 자료들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제시된 자료들의 의미를 상세히 파악한 후 그 자료들을 활용하여 사회 문화 현상의 원인 규명에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식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녀야 할 기본적인 능력으로서 국민공통과목을 성실히 이수한 수험생들이 충분히 지닐 수 있는 것이다. 문제에서는 제시문에 두 주장을 제시하고 그 논지를 파악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통계 자료에서 찾아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문항에서 다룬 주제는 현대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족 관념의 변화를 바라보는 대립적인 두 가지 관점이다. 수험생들은 이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의 기본 단위가 되는 가족의 의미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교과서를 통해서이거나 학생 자신 또는 주변인을 통한 개인적 경험, 또는 미디어에 의한 일방적인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 문항을 해결해 봄으로써 현재 우리가 당면한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과 가족관의 변화 등의 문제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

❍ 문항 3: 이 문항은 수험생들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으나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다소 깊이 있는 사고를 필요로 하는 쟁점을 소재로 삼는다. 이를 통해 제시문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번 시험에서는 역사 드라마를 둘러싼 논란을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였다.

몇 년 전부터 TV 사극이 활발하게 제작되고 큰 인기를 누려 왔다. 이와 함께 역사 드라마를 둘러싼 논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드라마가 지나치게 역사를 왜곡하여 시청자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TV 드라마는 어디까지나 상상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 얼마든지 가공될 수 있다고 이에 맞선다.

이 논쟁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차원의 문제 가운데 수험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제시할 만한 다음의 두 가지를 선택하였다. 이 논쟁은 우선 역사와 문학의 본질적 특성에 관한 서로 다른 견해를 포함하고 있다. 역사 드라마에 대한 두 입장은 역사도 문학과 같은 허구의 서사이며 따라서 둘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견해와 역사와 문학이 공통적으로 서사이기는 하지만 이야기로서 불러일으키는 흥미의 성격상 서로 다른 분야라는 견해로 나뉜다. 다음으로 이 논쟁에는 역사 드라마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반된 평가가 들어 있다. 특히 역사 교육의 차원으로 범위를 좁힌다면,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건에 관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에 의한 역사 왜곡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과 역사는 현재의 요청에 따라 늘 새롭게 재구성되는 과거라는 점에서 드라마 속에서 창작된 과거의 이야기는 그 자체가 넓은 의미의 역사 교육의 기능을 한다고 보는 입장이 서로 충돌한다. 수험생들이 이와 같은 제시문 구성의 원리를 포착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드라마의 역사 왜곡 비판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바란다.

평가 기준

❍ 문항 1

1. 제시문 [가]의 내용 요약에는 '타성' 혹은 '관성' 정도의 핵심어가 언급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습관적 행동' 이나 '귀차니즘' 등을 언급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타성이나 관성보다 정확한 핵심어로 보기에는 부족하기에 충분한 설명이 없는 한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타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된 퇴직저축에 관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하여 이 사실이 '타성에 의한 비합리적 행동'임과 결부시켜야 한다.
2. 제시문 [나]의 요약에는 '자기 합리화, 혹은 자기 정당화'라는 핵심어가 언급되어야 한다. 나아가 어떤 경우에 자기 정당화를 하게 되는지 제시문에서 언급된 전기 자극 실험을 요약하여 제시하되 이러한 행동이 '비합리적 행동'임을 언급해야 한다.
3. 제시문 [다]의 요약에는 '고정관념'이 핵심어로 언급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이외에도 '편견'을 언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정관념에 의해 편견이 생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핵심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고정관념'이 세계를 단순화하여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로 인해 세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해야 한다.

4. 마지막으로 제시문 [가]~[다]의 내용을 포괄하여 일반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내용은 제시문 [가]~[다]를 내용상 공통적인 것으로 묶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동시에 학생들이 작성하는 문단의 소주제문(화제문)이 된다. 이 내용은 〈조건〉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문단 구성의 일반 원리로 비추어 학생들이 작성하는 문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은 제시문 [가]~[다]에서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일반화된 진술로 표현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곧 제시문 [라]의 핵심 내용과 상반되는 것이어야 하고 문제의 유도문과 연결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서구의 합리주의적 인간관의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과 달리 실제 인간의 판단과 행동은 항상 합리적인 것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정도의 내용이 필요한 것이다.

5.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과 명료성, 정해진 분량 등 답안의 형식적 요건들도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문항 2 :

1. 제시문에 나타난 ‘갑’과 ‘을’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① ‘갑’은 다양한 가족의 출현에 대해 네 가지 현상을 제시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첫째, 이혼이 한 부모 가족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 둘째, 한 부모 가족이 정상적인 가족에 비해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셋째, 가족 간의 유대감이 약화되면서 자녀가 노부모와 떨어져 사는 비율이 높아진다. 넷째, 딩크족이 출현하고 있다.

② ‘을’은 다양한 가족의 출현에 대해 세 가지 현상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첫째, 이혼이 늘었다고 해도 재혼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노부모를 찾아뵙는 횟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부부끼리 독립적인 노년을 살아가는 통크족이 증가하고 있다.

2. 제시된 자료들의 의미를 상세히 파악한 후 그 자료들을 활용하여 제시문에 나타난 ‘갑’과 ‘을’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따라서 각 자료들의 수치, 추세, 현황 등을 정확하게 읽어내어 제시문과의 연계성을 파악해야 한다.

❍ 문항 3 :

1. 모든 논술고사에서 요구하는 기본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견해, 일관된

주장, 설득력 있는 근거, 논리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가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제시문을 크게 둘로 구분하여 역사 왜곡 비판의 근거로는 [나], [라]를 활용하고 역사 변형 허용의 근거로는 [다], [마]를 활용하여야 한다.
3. 역사 왜곡 비판의 입장은 ① 역사는 진실한 이야기이고 그 점이 역사가 흥미로운 까닭이기 때문에 일부러 재미를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야기로서의 역사와 문학 작품이 유발하는 흥미의 차이 지적), ② 역사 드라마는 일종의 역사 교재이기 때문에 [시청자는 드라마의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의 왜곡은 역사 교육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시청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상술)는 점 등을 언급해야 한다.
4. 역사 변형 허용의 입장은 ① 역사도 하나의 허구이기 때문에 역사 드라마에서 상상력의 개입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점(허구로서의 역사와 문학 작품의 공통점 강조), ② 역사는 현재의 요청에 대응하는, 재구성된 과거이며 역사 드라마는 현재와 과거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어 넓은 의미의 역사 교육의 기능을 한다는 점(역사 교육의 차원에서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등을 언급해야 한다.
5. [가]에 제시된 역사 기록과 드라마 줄거리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한다([가]에 제시된 것 이외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서는 안 됨).
6.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과 명료성, 정해진 분량 등 한글 답안의 형식적 요건들이 두루 충족되어야 한다.

나. 제시문 및 논제 분석

▌ 제시문과 제시문 해설 및 출처

❍ 문항 1

※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지의 여부가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미국 근로자들의

퇴직저축 신청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떤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이 퇴직저축에 가입하려고 할 때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데 비해, 다른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을 자동적으로 이 저축에 가입시킨 뒤 오히려 탈퇴할 때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후자의 경우에 더 많은 비율의 근로자들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저축은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완벽하게 합리성의 극대화를 추구했다면 자동 가입이든지 아니든지에 관계없이 양쪽 모두 똑같은 비율로 가입했을 것이다. 이런 사실로 보면 사람들은 합리적인 판단보다 타성에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

[나] 우리는 자신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왜 그런 식으로 판단했는지, 어떤 것을 왜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내가 왜 이렇게 했지?"라는 질문에 대해 내 행동을 관찰한 사람보다 더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정당화하지 못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스스로 믿어버린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지적하면 그 믿음을 설명하려고 또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인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있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전기 자극을 가하되 그 중 일부에게만 어떤 약을 주면서 이것이 자극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 자극을 받은 후, 약을 먹은 참가자들은 그 약 때문에 더 큰 자극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전기 자극을 주었으며 자극의 강도는 약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 사실을 말해 주자 그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또 다른 이유를 제시했다. "과거에 전기 장치를 가지고 일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자극에 더 민감한 것 같다."

[다] 언론학자인 월터 리프먼(Walter Lippmann)은 《여론》에서 세상의 의미를 가장 단순하고 빠르게 찾도록 만드는 것이 '고정관념'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밖에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과 우리 머릿속에 들어 있는 세상을 구분한 후,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으면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고정관념의 예로 '독일인(딱딱하다)', '남부 유럽인(게으르다)', '니그로(우둔하다)', '하버드 출신(똑똑하다)', '선동가(과격하다)' 등을 들었다. 그에 따르면 이런 고정관념이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만족시키는 면이 있다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무언가 불안하고 무질서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좀 더 단순하고 일관된 생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이다. 고정관념은 사건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시킨다. 이처럼 고정관념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사람들의 판단과 경험의 폭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다.

[라] 고대 그리스 이후 서양에서는 인간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생각하는 힘, 즉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왔다. 서양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이성이 우리로 하여금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감각이나 감정의 차원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고 보았다. 또 이성이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창조적으로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인간은 학문과 제도, 기술 등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이성 중심적 인간관은 서구 인간관의 주류를 이루는 합리주의적 인간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서구의 합리주의란 비논리적, 우연적인 것을 배척하고 논리적, 필연적인 것을 중시하는 태도로서 이성주의라고도 한다. 이것은 실천의 기준으로서 이성적인 원리를 구하는 생활 태도를 가리킨다. 형이상학적으로는 이성이나 논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이기에 이 세상에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합리주의적 인간관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세계를 올바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 곧 이성의 힘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이성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 문항 2

※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사)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의 진전으로 가족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가족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유형의 가족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출현을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가 퇴색하는 위기의 징후라고 보기도 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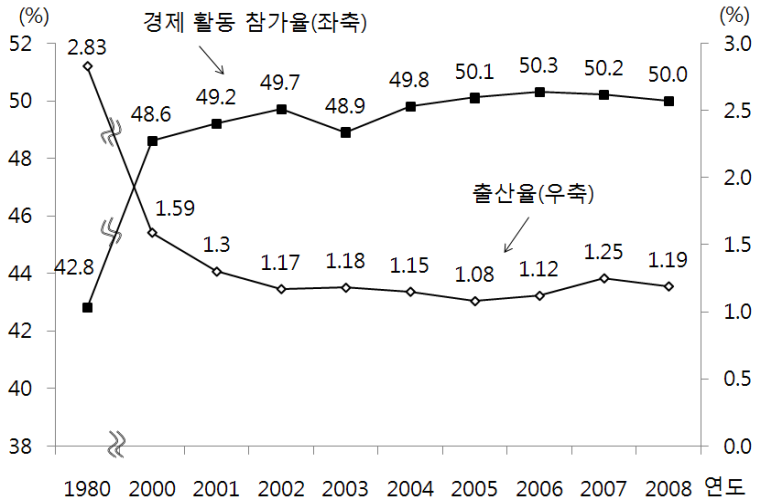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약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부모 가족은 정상적인 가족에서와 같은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혼이 한 부모 가족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또 자녀가 노부모와 떨어져 살거나, 찾아뵙는 횟수도 줄어들 거예요. 맞벌이를 하면서 자식 없이 여유 있게 살려는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이 늘고 있는 것도 가족의 의미가 퇴색한 증거가 아닐까요?

(을)

가족의 의미가 변했더라도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혼이 늘었다고 해도 재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이혼을 가족의 위기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가족을 꾸려서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자녀가 노부모를 찾아뵙는 횟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자녀에게 부양받기를 거부하고 부부끼리 독립적인 노년을 살아가는 통크족(Two Only No Kids)이 늘고 있는 것도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된 예가 아닐까요?

– 고등학교 〈사회문화〉에서 발췌, 수정

[자료 1]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 및 출산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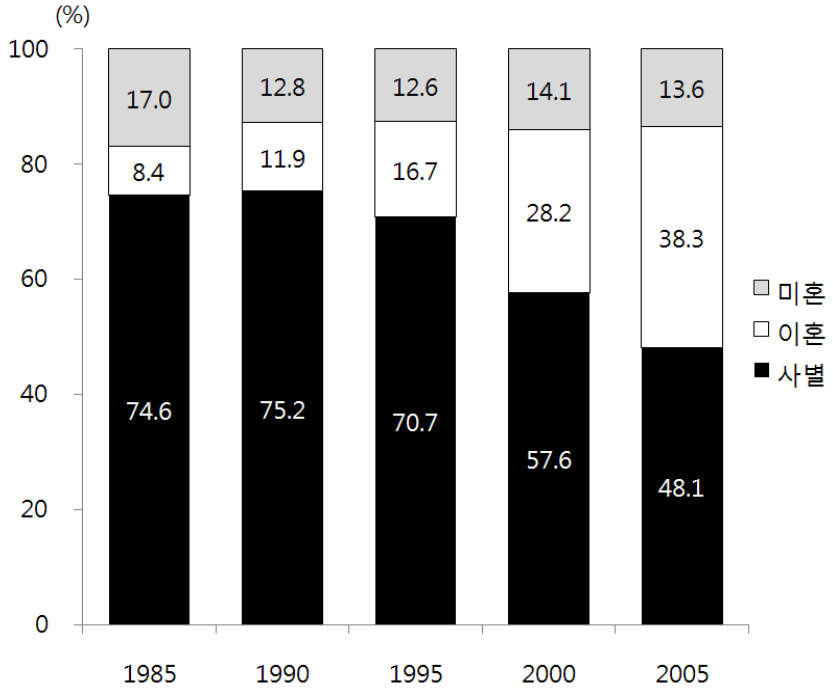


[자료 2] 연도별 혼인 유형 변화

(단위: %)

혼인 유형 \ 연도	1990	1995	2000	2005
초혼	89.3	85.7	81.9	73.8
재혼	10.7	14.3	18.1	26.2

[자료 3] 발생 원인별 한 부모 가구의 구성비 변화



[자료 4] 가족 유형별 아동 빈곤율 변화

(단위: %)

가족 유형 \ 연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부모 가족	11.0	10.6	9.6	9.8	9.8
한 부모 가족	24.3	25.1	–	23.1	27.7

주 1) 아동 빈곤율은 전체 아동 인구 가운데 빈곤 가구에 살고 있는 아동 인구의 비율임.

2) 2000년 한 부모 가족의 빈곤율은 결측치임.

[자료 5] 65세 이상 노인들의 거주 형태 변화

(단위: %)

연도 / 거주 형태	1980년	1990년	2000년
자녀와 따로 산다	19.5	31.8	50.9
기혼 자녀와 함께 산다	61.7	51.5	35.7
미혼 자녀와 함께 산다	18.8	16.7	13.4

[자료 6] 65세 이상 노인과 별거 자녀의 접촉 빈도 변화

(단위: %)

연도 / 접촉 빈도	1994년	2004년
거의 매일	8.3	11.4
주 2~3회 정도	7.5	12.5
주 1회 정도	13.7	17.2
2주에 1회 정도	10.3	15.9
월 1회 정도	17.6	20.3
3개월에 1회 이하	42.6	22.7

❍ 문항 3

※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려 시대에 기록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위작 논란이 있지만 신라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랑세기〉에는 선덕여왕과 천명공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선덕왕이 즉위하니, 이름은 덕만, 진평왕의 장녀다. 어머니는 김씨, 마야부인이다. 덕만의 성품은 어질고 총명하였으며, 진평왕이 돌아가고 아들이 없으니 사람들이 덕만을 세워 성조황고(聖祖皇姑)라는 호를 올렸다.

〈삼국사기〉

제 27대 선덕여왕, 이름은 덕만, 아버지는 진평왕, 어머니는 마야부인 김씨, 성골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왕으로 즉위했다.

〈삼국유사〉

적자가 없는 진평왕이 처음에는 진지왕의 아들인 용수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그를 천명공주와 결혼시켰지만, 나중에는 덕만공주가 왕위를 이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천명공주에게 지위를 양보하도록 권유했다고 한다. 천명공주가 아버지 진평왕의 명을 따라 스스로 지위를 버리고 궁을 나감으로써 덕만공주가 대권을 이어받게 되었다. 〈화랑세기〉

한편,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TV 드라마 〈선덕여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명과 덕만은 진평왕의 쌍둥이 자매로 태어나지만 '어출쌍생 성골남진(御出雙生 聖骨男盡 왕실에 쌍둥이가 태어나면 성골 남자의 씨가 마르리라)'이라는 예언 때문에 쌍둥이의 탄생은 숨겨지고 동생 덕만은 궁녀에게 맡겨져 궁을 빠져나간다. 멀리 타클라마칸 사막까지 피신해 궁녀의 손에 의해서 성장한 덕만은 출생의 비밀을 알고자 다시 신라로 돌아와 자신이 공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미 신라의 실권을 장악한 채 왕위를 노리던 미실 세력은 덕만이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제거하려고 한다. 언니 천명은 서로 사랑하는 유신과 덕만을 위해 유신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접고 이 둘을 미실 세력으로부터 탈출시키려고 하다가 덕만 대신 죽게 된다. 덕만은 도망가는 대신 미실 세력에 맞서면서 왕이 될 결심으로 궁으로 들어오고 미실 세력과의 음모와 지략으로 점철된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여 마침내 왕위에 오른다.

[나] 역사는 기본적으로 서사(敍事)이다. 그것은 역사가들의 펜에서 나오는 것으로 실제 역사 인물들의 체험과는 구별된다. 역사는 일화적(逸話的)이며 소설과 마찬가지로 이야기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흥미를 끈다. 다만 한 가지 본질적인 점에서 그것은 소설과 다르다. 역사는 진실한 사건들의 이야기이다. 어떤 이야기가 역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된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설처럼 그럴듯한 사실이나 우화처럼 그럴듯하지도 않은 사실들이 아닌, 진짜 사실들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것이다. 역사는 허구가 주는 재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실의 힘을 전달해 준다.

예컨대 내게 혁명을 제재로 한 소설과 역사 기록이 같이 주어진다고 하자. 소설에서 다루어지는 혁명이 흥미진진하리라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소설 속의 허구적 사건으로서의 혁명의 흥미진진함은 역사 서술에서 볼 수 있는 사실 자체가 주는 진솔함에는 미치지 못한다. 역사 서술 속에서 다루어지는 혁명은 특정한 역사 시기에 실존했던 어떤 민족에게 실제로 닥쳤던 일이며, 그 점에서 독자들에게 소설보다 훨씬 더 강한 실재감과 공감을 자아낼 것이다. 그것은 내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 체험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소설에 비해 조금 따분하고 건조하더라도 여전히 그 진실의 힘과 실감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고 따라서 일부러 인위적인 흥미로움을 더할 필요가 없다.

[다] 화이트헤드(Whitehead)가 지적한 대로 현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순간 현재'에 불과하다. 그것은 "목적에 따라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현재이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바람직한 성과를 얻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때 미래의 가능성도 약속된다. 이러한 '현재' 의식이 없다면 역사는 단순히 '죽은 과거'에 불과하다. "역사는 우리 정신 속에 살아 있으며 현재의 삶과 결부된 것"이라고 크로체(Croce)는 주장하였다. 삶의 요구에 따라 죽은 과거는 되살아나 다시 현재가 된다. 우리는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과거의 사실을 들여다본다. 그러므로 과거의 현실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현재의 요청에 대응하는 것인가에 따라 의미가 결정된다. 이런 이유에서 키케로(Cicero)는 "역사는 삶의 교사"라고 말하였다.

– 고등학교 〈독서〉

이런 맥락에서 지난 2006년 〈주몽〉, 〈대조영〉, 〈태왕사신기〉 등 고구려와 발해 관련 역사 드라마의 집중적 제작과 유행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들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그로 인한 고대사 논란에 대응한 다분히 민족주의적 기획의 소산이기는 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대화, 혹은 현재의 요청에 의한 역사 해석이라는 역사 기술의 원론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성과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드라마들은 기본적으로 허구로서 실제 역사의 세부 사실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고, 지나친 민족주의적 편향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실적 교훈과 의미를 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역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바가 있다.

과거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배우는 것도 역사 교육의 내용이지만 이렇게 현재적 관심과 과거 역사를 연결하여 오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역시 역사 교육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때, 허구로서의 역사 드라마도 의미 있는 역사 교육의 매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 지난 2월 9일 공개된 정조의 어찰첩을 놓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한 사안은 '정조 독살설'이었다. 정조 때 좌의정과 우의정을 지낸 심환지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독살설의 진위를 파악할 만한 내용이 있는가였다. 어찰첩에는 정조가 자신의 병세를 상세히 밝힌 편지가 여러 통 들어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심환지 혹은 노론 벽파가 정조를 독살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역사학계에선 "독살설은 원래 근거가 약한 주장이었다."라는 반응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독살설은 대중의 뇌리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팩션(faction: fact+fiction)이 있다. 독살설을 제기한 〈영원한 제국〉, 〈조선 왕 독살 사건〉 같은 팩션 소설이 널리 읽히면서 정설처럼 퍼진 것이다. 팩션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와는 달리 정조는 정국 장악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스트'의 면모를 지녔고 심환지는 정조의 심복이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결국 팩션이 만들어 놓은 정조와 심환지의 이미지는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어찰첩 발굴로 인해 팩션의 창작 범위에 대해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엔 조선 화가 신윤복을 여자로 묘사한 드라마와 영화가 잇달아 나오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크게 일었다. 한 정조 연구 권위자의 다음과 같은 말은 그런 점에서 새겨들을 만하다. "역사 소설은 일종의 교재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팩트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팩트를 왜곡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는 많습니다." 학교에서 역사 교육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역사 드라마가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마] "팩션 시대, 꿈꾸는 역사를 허(許)하라." 한 역사학자가 자신의 책에서 내린 결론이다. 역사적 사실(fact)과 허구(fiction)의 결합인 팩션에 대해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을 거두고 팩션을 당대의 '꿈의 이야기'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팩션이 '꿈의 이야기'라는 근거는 순수하게 100% 사실인 역사 이야기는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팩트'로 대접받는 역사 기록 역시 엄밀하게 말하면 과거라는 사실에 바탕을

둔 허구의 서사라는 것이다. 역사 기록에 허구가 개입될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역사 기록 역시 '팩트'로 믿어지는 사료들을 역사가의 상상력에 근거해 만든 플롯(plot) 위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역사는 '사실'이라는 내용과 '허구'라는 형식이 결합한 팩션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저자는 미륵사지 석탑의 '사리봉안기'로 인해 서동요의 진실이 흔들리게 된 것을 역사가 팩션임을 보여 주는 예로 들었다.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 이순신과 원균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설정돼 있고, 영화 〈황산벌〉에서는 김춘추, 의자왕, 연개소문, 당 태종이 4자 회담을 벌인다. 분명히 사실이 아닌 허구다. 드라마 〈바람의 화원〉에서는 신윤복이 여성으로 설정돼,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역사가 아닌 허구라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 저자의 답은 물론 "그렇지 않다"이다. 왜냐하면 역사에 허구를 뒤섞어 만든 팩션은 당대 사람들이 역사라는 먼 과거의 무대 위에서 꾸는, 과거와 현재가 겹쳐진 '꿈의 서사'이기 때문이다.

제시문 해설 및 출전

[문항 1]

제시문 [가]는 M.G. 맨큐의 『맨큐의 경제학』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한 것이다. 여기에서 인용된 부분은,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합리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논쟁거리가 되어 왔음을 언급하면서 제시된 것이다. 사람들이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거나 행동한다면 세금 혜택이 있는 퇴직저축 가입률이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은 가입 신청서 작성이라는 절차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률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통해 사람들이 항상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타성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존 브루만이 엮은 『위험한 생각들』이라는 책 속에 포함된 리처드 니스벳의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 일조차 알지 못한다'라는 글에서 발췌하여 수정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동안의 사회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사고하게 되며, 그러한 생각의 문제가 지적될 경우에는 다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행동과 논리적인 인과 관계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또 다른 가짜 이유를 제시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다니엘 부어스틴의 『이미지와 환상』에서 발췌, 수정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월터 리프먼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인간들은 고정관념으로 복잡한 세계를 단순화하여 이해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고정관념은 세계를 단순화한 것인 만큼 인간의 판단과 경험을 제한하게 된다는 사실, 곧 세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발췌, 수정한 것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글일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논술의 주제로 널리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어서 학생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시문의 내용은 서구의 이성적, 합리적 인간관을 소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에 의해 판단하고 행동하므로 항상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다.

제시문 출전

[가] M.G. 맨큐(김경환 · 김종석 역),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나] 리처드 니스벳(이영기 역), 『위험한 생각들』(존 브루만 엮음), 웅진씽크빅.

[다] 다니엘 부어스틴(정태철 역), 『이미지와 환상』, 사계절.

[라]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육인적자원부.

[문항 2]

제시문은 고등학교 『사회 · 문화』 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자료 1]은 『여성통계연보』와 『e-나라지표』에서 발췌 · 편집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맞벌이 비율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인한 무자녀 가정 비율의 증가를 추론할 수 있다. 맞벌이 비율은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가율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2000년 이후 1.4%p 상승한 반면 출산율은 0.4%p 하락한 데서 딩크족의 증가를 추론할 수 있다. 이는 '갑'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된다.

[자료 2]는 『인구동태통계연보』에서 발췌 · 편집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재혼의 증가 현황을 알 수 있다. 1990년에서 2005년의 추이를 살펴보면 초혼의 구성비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재혼의 구성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1990년에 비해 2005년

에는 재혼의 구성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혼의 증가가 가족의 위기가 아닌 재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과정이라는 '을'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된다.

[자료 3]은 『e-나라지표』에서 발췌·편집하였다. 이 자료는 한 부모 가구의 발생 원인을 미혼, 이혼, 사별로 구별하여 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2005년 사별로 인한 한 부모 가족 구성비는 1985년에 비해 26.5%p 낮아졌다. 그러나 2005년 이혼으로 인한 한 부모 가족의 구성 비율은 전체 38.3%로, 1985년에 비해 29.9%p 높아졌다. 이혼이 한 부모 가족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갑'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된다.

[자료 4]는 최은영 등(2006)에서 발췌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한 부모 가족의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연도별 아동 빈곤율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한 부모 가족의 아동 빈곤율이 부모 가족의 아동 빈곤율보다 약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8년 대비 2002년 아동 빈곤율 비교에서는 부모 가족 아동 빈곤율은 1.2%p 낮아진 반면 한 부모 가족에서는 3.4%p 높아지고 있다. 한 부모 가족이 정상적인 가족에서와 같은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갑'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된다.

[자료 5]는 김두섭 등(2005)에서 발췌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자녀 없이 사는 노인들의 거주 형태가 1980년 대비 2000년의 경우 31.4%p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2000년에는 노인들이 자녀와 따로 사는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약화되면서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될 것이라는 '갑'의 주장은 물론 부부끼리 독립적인 노년을 살아가는 통크족이 증가한다는 '을'의 주장에 대해 모두 근거가 된다.

[자료 6]은 김두섭 등(2005)에서 발췌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자녀와 노부모와의 접촉 빈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1994년과 2004년을 비교해 보면, 부모를 찾아뵙는 횟수가 주 1회 이상은 11.6%p 높아진 반면 3개월에 1회 이하는 19.9%p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가 부모와 별거한다고 하여도 부모를 찾아뵙는 횟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을'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된다.

제시문 출전

제시문: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학사, 116~118쪽.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105쪽.

- [자료 1]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각 년도.
『e-나라 지표』, 통계청 홈페이지.
- [자료 2]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각 년도.
- [자료 3] 『e-나라지표』, 통계청 홈페이지.

- [자료 4] 최은영 · 성은수 · 유호선 · 이선형, 『정보화로 인한 가족관계와 가족역할의 미래변화』,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6년, 57쪽.
- [자료 5] 김두섭 · 김정석 · 송유진 · 최양숙,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및 전망』,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5년, 72쪽.
- [자료 6] 김두섭 · 김정석 · 송유진 · 최양숙,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및 전망』,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5년, 76쪽.

[문항 3]

제시문 [가]는 특정한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하여 기록으로 남은 역사적 사실과 극화된 사실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시문 [나]와 [라]는 역사의 극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의 의도적 왜곡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담고 있는데 [나]는 역사적 사실들 자체로서도 충분히 감동적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왜곡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고, [라]는 팩션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극화가 교육적으로 심각한 역사적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제시문 [다]와 [마]는 역사의 극화 과정에서 상상력의 개입에 의한 사실의 변형과 재구성을 옹호하는 입장을 나타내는데 [다]는 역사 드라마가 현재의 필요에 의해 과거 사실들을 적절히 불러와 국민적 역사교육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고, [마]는 역사 기술 자체도 팩션적 성격이 있으며 역사의 극화는 과거의 사실들에 기대어 현재 사람들의 꿈과 상상을 펼치는 작업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제시문 출전

[가] 김부식(이병도 교역), 『삼국사기』(을유문화사)에서 발췌, 수정.
일연(이재호 역), 『삼국유사』(솔 출판사)에서 발췌, 수정.
김대문(이종욱 역주), 『화랑세기』(소나무)에서 발췌, 수정.
드라마 〈선덕여왕〉의 줄거리는 출제위원이 작성.

[나] 폴 벤느(이상길, 김현경 역),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새물결)에서 발췌, 수정, 보완.

[다] 차하순, 「죽은 역사와 산 역사」, 고등학교 『독서』(중앙)에서 발췌, 수정.

[라] 최현미, 「100% 사실은 없다, 역사에 상상을 許하라」(문화일보, 09.04.01, 김기봉, 『역사들이 속삭인다』에 대한 서평 기사)에서 발췌, 수정.

[마] 금동근, 「정조 어찰첩으로 밝혀진 팩션의 함정」(동아일보, 09.02.11)에서 발췌, 수정.

■ 문항

❍ 문항 1 [가]~[다]는 [라]와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다. [라]를 반박하는 글을 〈조건〉에 따라 완성하시오. (600±60자)

서구의 이성 중심적 인간관, 합리주의적 인간관으로 본다면 인간의 사고나 행동은 항상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만큼 인간의 사고나 행동은 논리적인 인과 관계에 기초하여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인간의 사고나 행동을 살펴보면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 건〉

1. 작성하는 글 전체가 완결된 한 문단이 되도록 할 것.
2. [가], [나], [다]의 주요 내용을 각각 요약한 후,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할 것.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오지 말 것.

❍ 문항 2 '갑'과 '을'의 주장의 근거를 [자료 1]~[자료 6]에서 모두 찾아 〈조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600±60자)

〈조 건〉

1. 첫 문단은 '갑'의 주장의 근거로, 둘째 문단은 '을'의 주장의 근거로 구성할 것.
2. [자료]의 구체적인 수치나 변화 추이를 이용하여 설명할 것.
3. 같은 [자료]가 '갑'과 '을'의 주장의 근거로 모두 쓰일 수 있을 경우 중복해서 활용할 것.

❍ 문항 3 역사 드라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주장이 있다. 둘 중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글을 〈조건〉에 따라 작성하시오. (800±80자)

〈조 건〉

1. ‘갑’과 ‘을’ 중 한쪽의 입장을 택할 것.
2. 서론과 결론은 쓰지 말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할 것.
3. [가]에 제시된 내용만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반드시 들 것.
4. [나]~[마]에서 자신의 주장 근거를 두 개 찾아 쓰되 제시문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분석

❍ 문항 1

• **발문 :** [가]~[다]는 [라]와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다. [라]를 반박하는 글을 〈조건〉에 따라 완성하시오.

논제 분석	
what	how
[라]를 반박하는 글을	〈조건〉에 따라 작성하시오.

• **요구사항(requirement)**
– 〈조건〉을 지킬 것.

• 이 문항에서는 학생들의 독해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시문 [가]~[다]가 제시문 [라]와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발문에서 먼저 제시해 주었다. 이처럼 내용의 방향을 참고하여 독해할 수 있도록 한 뒤 이들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견해를 반박하는 글의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문제의 유도문에 제시문 [라]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러한 사실에 의문을 제기한 것 역시 학생들이 요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문단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서구의 합리주의적 인간관의 특성에 관한 제시문 [라]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합리주의적 인간관이란 문제의 발문에서 주어진 대로 이성 중심적 인간관을 의미하며, 이것은 인간의 사고나 행동이 논리

적인 인과관계에 기초한 합리적인 행태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실제 인간의 판단과 행위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례와 근거에 해당하는 것이 제시문 [가]~[다]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제시문 [라]의 내용 이해의 바탕 위에서 제시문 [가]~[다]의 내용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함을 파악하고 제시문 [가]~[다]의 주요 내용을 각각 요약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 [가]의 핵심 내용은 인간이 타성으로 인해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나]는 인간은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 정당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다]는 인간은 고정관념으로 인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핵심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그 근거로 언급된 사실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내용을 요약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제시문 [가]~[다]의 주요 내용을 요약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 문단을 구성해야 한다. 요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도록 한 것은 앞서 출제 의도에서도 밝혔듯이 기본적으로는 작문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면서 동시에 사실적 독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조건〉의 '1. 작성하는 글 전체가 완결된 한 문단이 되도록 할 것'과 '2. [가], [나], [다]의 주요 내용을 각각 요약한 후,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우선 이 〈조건〉들의 '완결된 한 문단',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내용' 등은 학생들이 작성하는 문단이 일반적인 문단 구성의 원리에 맞는 것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곧 문단은 그 문단이 하나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문단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소주제문(화제문)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구성된다는 사실 등에 유의하여 문단을 작성하라는 요구이다. 이 가운데 특히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할 것'이라는 〈조건〉은 작성하는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소주제문을 제시하라는 명시적인 요구인 동시에 제시문 [가]~[다] 사이의 내용상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적절한지를 동시에 평가하고자 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문항 2

- **발문 :** '갑'과 '을'의 주장의 근거를 [자료 1]~[자료 6]에서 모두 찾아 〈조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600±60자)

논제 분석	
what	how
갑과 을의 주장의 근거를 [자료 1]~[자료 6]에서 찾아	〈조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 **요구사항(requirement)**
– 〈조건〉을 지킬 것.

• 이 문항은 제시문에 나타난 '갑'과 '을'의 주장의 근거를 [자료 1]~[자료 6]에서 찾아 서술하도록 하였다. 조건에서 명시된 것처럼 첫 문단은 '갑'의 주장의 근거를, 둘째 문단은 '을'의 주장의 근거를 서술하면 된다.

❍ 문항 3

• **발문 :** 역사 드라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주장이 있다. 둘 중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글을 〈조건〉에 따라 작성하시오. (800±80자)

논제 분석	
what	how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글을	〈조건〉에 따라 작성하시오.

• **요구사항(requirement)**
– 〈조건〉을 지킬 것.

• 이 논제에 대한 답은 크게 두 부분이나 세 부분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5개의 제시문 중 2개는 역사 왜곡을 비판하고, 2개는 역사 변형을 옹호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2개의 제시문을 골라내고, 각각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두 개 정도의 문단을 작성하면 된다. 남은 제시문 [가]는 구체적인 사례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각각의 논거 뒤에 붙일 수도 있고 두 개의 논거를 연이어 제시한 이후에 넣을 수도 있다.

다. 답안 예시

문항 1

인간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타성에 의해 행동하기도 한다. 미국 근로자들이 자기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퇴직저축임에도 가입 신청서 작성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입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판단에 따랐다면 가입 절차와 무관하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타성에 의해 행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인간은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판단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기도 한다. 전기 자극 실험에서 약 때문에 더 강한 전기 자극을 받았다고 말한 사람들이 약과 전기 자극의 강도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전혀 무관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기 행동의 합리화를 위해 비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고정관념에 의해 비합리적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인간은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고 일관되게 이해하기 위해 고정관념에 따라 사고하는데 그 결과 경험과 대상의 폭이 좁아져 대상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듯이 인간의 사고나 행동들 중에는 인간이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636자)

문항 2

'갑' 주장의 근거:

[자료 1]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2000년 이후 1.4%p 상승하고 출산율이 0.4%p 하락한 데서 딩크족의 증가를 추론할 수 있다. [자료 3]에서는 이혼이 한 부모 가족의 주요 발생 원인이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비율이 2005년 38.3%로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자료 4]에 의하면 2000년 이후 한 부모 가족의 아동 빈곤율이 부모 가족에 비해 약 2~3배 높다. 또 [자료 5]에서 2000년 노인들이 자녀와 따로 사는 비율이 절반이 넘을 정도로 높아진 데서 알 수 있듯이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약화되었다. (312자)

'을' 주장의 근거:

[자료 2]에서 2005년 재혼의 구성비가 199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데서 이혼 이후 재혼을 통한 새로운 가족 형태의 증가를 알 수 있다. [자료 5]에서는 2005년 자녀와 떨어져 사는 노인들의 비율이 전체의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1980년에 비해 약 2.5배 높아진 데서 통크족의 증가를 추측할 수 있다. 노인들과 자녀의 별거 비율이 높은데도 [자료 6]과 같이 자녀가 부모를 주 1회 이상 찾아뵙는 비율이 11.6%p 높아진 데서 알 수 있듯이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약화되지 않았다. (287자)

문항 3

* 갑을 택한 경우

역사 드라마가 역사를 왜곡하는 것에 반대한다. 역사도 이야기라는 점에서 실제의 체험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을 다룬다는 점에서 상상력에 의해 창조된 이야기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역사가 이야기로서 유발시키는 흥미도 만든 이야기의 재미와는 다르다. 역사를 다룬 이야기가 다소 밋밋하더라도 역사적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만든 이야기가 전할 수 없는, 진실에서 나오는 감동을 전할 수 있다. 덕만이 여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는 그 과정이 치열한 경쟁의 이야기처럼 흥미진진하지 않더라도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의 이야기라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고 감동을 줄 수 있다. 드라마에서 덕만, 천명, 유신을 삼각관계로 엮은 것은 재미를 위해 이야기를 작위적으로 만든 예이며 이 때문에 진실함이라는 역사적 이야기의 장점이 훼손되었다.

역사 드라마의 사회적 영향력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역사 소설이나 TV 사극은 상당 부분 상상력의 산물이며 최근 공개된 정조의 어찰첩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작품 속의 이야기가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있음이 밝혀지기도 한다. 그런데 작품 속의 이야기를 역사의 정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역사 교육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다. 성골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덕만이 여왕으로 즉위했다는 기록에서 '어출쌍생 성골남진'과 같은 허구의 예언을 만들어 내 덕만이 어린 시절을 타국에서 보내게 한 것이나 천명의 때 이른 죽음은 실존인물의 생애에 대한 그릇된 지식을 전파할 수 있다. (797자)

* 을을 택한 경우

드라마에서 역사적 사실의 가공은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 역사 자체가 상당 부분 상상력의 산물이며 그런 점에서 역사와 드라마의 구분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역사적 사실을 변형한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알려진 역사적 사실 가운데에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시기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사실의 확실성은 불안정해지기도 하며 사료만으로는 완결된 서사를 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관계의 밀도가 성기기도 하다. 가령,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등에서 덕만에 대한 서술이 조금씩 다르며 매우 간명하여 그것만으로 선덕여왕에 관한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기는 매우 힘들다. 하지만 드라마는 작가의 상상력 덕분에 신라 사회의 모습과 당대 사건을 역동적으로 형상화하여 시청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꿈을 꾸게 하였다.

현재적 요구에 의해 역사적 사실들은 얼마든지 재구성될 수 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체험이 아니라 현재의 요청에 대응하는 과거로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개별 사실의 정확성이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에 기대어 오늘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하는 현재와 과거의 연결 고리이다. 그리고 죽어 있는 과거를 되살린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실에 허구를 가미한 역사 드라마는 넓은 의미에서 역사 교육의 기능을 한다. 드라마 〈선덕여왕〉은 사랑과 희생의 의미, 정치권력의 문제 등 현재적 관심사를 환기시키기 위해 평면적인 왕실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입체화하여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시켰다. (802자)

18 한국외국어대학교

가. 개 요

■ **분석대상 : 2010학년도 수시 1차 인문계열 문제**

■ **시험시간 : 120분**

■ **문 항 수 : 3문항**

■ **답안 분량 : 400자 + 600자 + 800자 = 1,800자 이내**

■ **출제 방향 및 지침**

■ **출제의도**

'본질', '사랑', '생성과 소멸' 등을 주제로 제시문, 자료, 논제들이 제공되었다. 제시문, 자료들은 주제와 관련한 개념적 논의와 다양한 학문 분야의 사례들을 담고 있으며, 개념에 관련된 그림 자료도 활용하였다. 논제에서는 이와 같은 제시문, 자료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그 요지 및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는 추론 능력을 측정하고, 이를 구체적 문제 해결로 연결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사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중점 평가 영역**

두 제시문 중 하나는 영어로 제공되었다. 논술에서 영어 제시문을 사용하는 것은, 지식의 유동성이 빠르게 가속화되는 지구촌 시대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소통의 매체가 되는 영어의 유창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 유창성은 단순히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정보를 다른 영역에 응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한다는 한국외대의 외국어 교육정신 때문이었다. 영어 제시문은 어휘, 문법구조, 개념적 복잡성 등의 측면에서 현재 고등학교 1~2학년 교과과정에 준하는 정도이고, 분량에 있어서도 100~150단어로 해석에 큰 어려움이 없는 비교적 평이한 글이다.

나. 논제 및 제시문 분석(2010학년도 수시 2학기)

〈제시문 A〉

What things are called is far more important than what they are. What they are called is related to their reputation, name, appearance, size, weight, and many other things that are almost always wrong and unnecessary. All this is altogether apart from their nature. However, it grow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merely because people believe in it. It grows gradually to become part of the thing and finally turns into its very body. What was appearance at first becomes the essence in the end.

Friedrich Nietzsche, *The Gay Science*

〈제시문 B〉 "네가 교양이 있다."라고 말하거나 "네가 음악적이다."라고 말할 때, '교양이 있다'나 '음악적이다'는 네 본질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 자체가 교양이 있거나 음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너 자신의 본래적 조건에 '교양 있음'이나 '음악적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물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벽 표면이 희다."라고 말할 때 '흼'은 벽 표면의 본질이 아니다. 물론 벽의 표면은 어떤 색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벽의 표면이 희건 희지 않건 관계없이 표면은 표면이다. 이 때 '흼'은 우연적으로(kata symbebēkos: by accident) 벽 표면에 속한 것이다. 반면 각 사물이 그 자체로서(kath' hauto: by its own nature) 무엇이라고 일컬어진다면, 바로 그 무엇이 '본질'(to ti ēn einai: what-it-was-to-be)인 것이다. 달리 말해 어떤 대상이 그 자체로서 무엇인지를 말하는 진술 속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각자의 본질이다.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자료 1)

언어학은 이상화된 '화자-청자(話者-聽者)'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이상화된 화자-청자란 완전하게 균일한 언어사회의 구성원으로 그 언어사회의 언어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며,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 지식을 실제의 언어 수행 행위에 적용할 때 기억의 제한이나 주의 산만, 관심이나 주의의 변경 혹은 실수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화자-청자를 말한다. 언어학자들은 이상화된 화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 지식을 가리켜 '언어능력'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켜서는 '언어수행'이라고 하여, 언어 지식과 수행 행위를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언어수행은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언어능력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의 언어 수행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실제 언어 수행의 이면에 있는 화자-청자의 언어능력은 하나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언어 연구는 다른 복잡한 현상을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일과 다를 바 없다. 실제 발화(發話)의 기록을 보면, 말 시작의 잦은 실수, 규칙으로부터의 이탈, 발화 도중의 계획의 변경 등을 볼 수 있다. 말을 배우는 아이와 마찬가지로 언어학자는 실제의 언어 수행 자료에서 그 밑에 감춰져 있는 규칙 체계, 즉 그 화자-청자가 완벽하게 습득해 실제 언어 수행에 사용하고 있는 규칙 체계를 찾아내야 한다. 따라서 언어학은 실제 행위 밑에 있는 정신적인 실체를 발견해 가는 정신적인 것이다. 타인의 말에 대한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향성, 개인의 고유한 언어 습관, 실제 언어 수행의 자료 등은 이러한 정신적 실체의 성격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언어학의 실제 연구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Noam Chomsky,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자료 2)

스타벅스의 매출이 한국 진출 10년 만에 20배로 성장하고 한국의 커피전문점 시장 규모도 그새 5배로 커졌다고 한다. 미국에서 나타났던 스타벅스 효과(한 브랜드의 성공으로 시장 전체가 동반 상승하는 현상)가 한국에서도 입증된 셈이다. 스타벅스의 시장 개척 성공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기업은 총체적 경험을 팔아야 한다. 고객은 매장에 와서 제품만 사 가는 것이 아니다. 매장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스타일, 스토리를 함께 느끼고 사 간다. 마음에 들면 고객 스스로 입소문을 내기도 한다. 스타벅스가 별다른 광고 없이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한 배경에는 독특한 매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입소문 효과가 자리 잡고 있다.

제품만 잘 팔면 되는 시대는 지났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모방 속도가 빨라지고 품질 격차가 줄어들면서 제품만으로 차별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제품 외에 추가적 경험 요소를 잘 만들어 차별 포인트로 활용해야 한다. 제품이 팔리는 공간에서 독특한 스타일을 경험한다면 고객은 기꺼이 추가 요금을 지불할 것이다.

둘째, 한 가지 감각 자극으로 승부하기보다 공감각(共感覺) 자극을 활용해 긍정적

왜곡을 일으켜야 한다. 공감각적 왜곡은 원래의 감각이 다른 감각에 의해 다르게 느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똑같은 스타벅스 커피인데 마시는 잔을 달리하였더니 마시는 사람이 커피 맛을 다르게 지각했다는 실험 결과가 예다. 우리가 느끼는 스타벅스 커피 맛에는, 매장의 인테리어나 전반적 분위기, 음악, 향기, 촉감 등이 개입돼 있다. 만약 스타벅스 커피를 다른 장소에서 마시거나, 다른 음악을 들으면서 마시거나, 다른 질감의 컵으로 마시거나, 다른 의자에 앉아 마시면 맛이 어떻게 느껴질까.

이러한 공감각적 왜곡을 시도하는 사례는 또 있다. 덴마크의 세계적인 오디오 브랜드인 뱅앤올룹슨은 일찌감치 햅틱(촉감) 기술을 오디오에 적용했다. 음향기기 브랜드이니 청각적 자극이 본연의 자극이다. 다른 기업이 청각 자극에만 몰두할 때 뱅앤올룹슨은 오디오의 버튼마다 미세한 떨림의 촉각 자극 기술을 적용했다. 똑같은 음악이라도 독특한 햅틱 자극과 함께 듣게 되면 더 좋은 음질로 느껴지는 데서 착안했다. 좋은 소리만 팔면 되는 오디오 회사가 독특한 촉감까지 파는 발상의 전환에서 세계적 명품 오디오 브랜드가 탄생했다. 스타벅스가 커피가 아닌 '스타벅스 스타일'을 판 것처럼 뱅앤올룹슨도 오디오라는 제품이 아니라 'B&O 스타일'을 판 것이다. (후략)

○○일보 (2009. 7. 29.)

(자료 3)

도난당한 과거…… 그러나 도난당한 그 이전의 기억마저도 희미하기는 마찬가지다. 연속성이 없는 기억이란 암흑에 불과할 뿐이다. 아무도 내 과거에 대해 말해 주는 이가 없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심지어는 누이까지도 내 과거 얘기만 나오면 쌀쌀한 얼굴이 되어 가지곤 고개를 저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늘 전면이었다. 하지만 사람은 과거에 의해, 과거에 의지하여, 과거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삶에 있어서 뒤가 없는 앞이란 있을 수가 없다. 과거가 없는 인간은 늘 실종상태라는 걸 의미한다. 사람이란 가끔 과거라는 보금자리에 들어가 앉아 있어야만 할 때가 있다. 그리하여 나는 늘 시간의 줄에 매달려 살아왔다. 과거 없이 산다고 해서 뭐 큰 지장은 없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살다보면 때로 음주 운전도 하게 된다. 그리하여 불심검문을 받게 될 때 내가 무면허라는 걸 문득 깨닫게 되는 심정 이해하실는지. 과거란 그렇듯 자신에 관한 일종의 면허증과도 같은 것이리라. 많은 사람들은 과거는 다만 시간의 쓰레기일 뿐이라고 말들 한다. 그렇게 외면해 버리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외면할

과거가 나에겐 없다는 것이다. 현재에 속해 있으려면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두 배의 속도를 내야 한다. 때로는 가속도가 필요하다. 무면허니까. 캄캄한 뒷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 꿈속에서도 미친 듯이 질주해야 한다.

나는 현실의 나를 보고 있다. 나. 그러나 내가 정말 나인가? 누가 과연 나를 나라고 불러줄 것인가. 기껏해야 이렇게 말하겠지. 넌 그냥 보이는 대로의 너일 뿐이야. 물론 그렇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아닐 수도 있다. 나는 껍데기인 나에 속해 있을 뿐이다. 나에 관한 어떤 비의(祕意)도 신성(神聖)도 간직하지 못한 채.

결론. 모든 존재의 비의와 신성은 과거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한시바삐 과거를 복원해야 한다. 매일매일 모래 위에 시간의 집을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영원회귀. 그래, 이를테면 나는 영원회귀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그 자리로 돌아가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련다. 국민학교 일학년부터. 좀 길고 지루하면 어때. 예전의 그 친근한 종족과 다시 산보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바둑도 두면 되잖아. 그 정도라면 이제 참을 수도 있다구.

그렇다, 영원회귀의 순간이라는 게 있어서 과거의 나와 해후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나는 나를 통해 복원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 이 무한 순환의 궤도에서 나는 다시 나를 만난다. 용기를 내자. 인생은 용기 있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물론 용기 있게 대답도 해보는 거지. 까짓 것, 다시 시작해 보는 거야.

지금이 바로 그때야. 지금 이 순간 나에 관해서 오직 나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거야. 내가 그동안 지어 놓은 시간의 집이 헐리고 그 폐허 앞에 나는 문득 서 있는 거야. 원점 회귀.

인생, 난 너를 어여쁜 여인처럼 사랑해. 그래, 인생이란 고뇌하는 어여쁜 여인이야.

윤대녕, 『옛날 영화를 보러 갔다』

(자료 4)

일생을 통해 나는 수백만의 육체와 만나며 그 중에서 수백 개의 육체를 욕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백 개의 육체 중에서 오로지 나는 하나만을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내 욕망의 특이함을 말해준다.

그 선택은 그렇게도 엄격하기에 유일한 것만을 취하며, 특이한 것이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 욕망에 꼭 들어맞는 이미지를 찾기 위해 그 얼마나 많은 우연과 놀라운 우연의 일치가 그리고 어쩌면 수많은 탐색이 필요했던가! 바로 거기에 내가 결코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있다. 왜 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걸까? 왜

나는 그를 지속적으로, 초췌하게 욕망하는 걸까? 내가 원하는 것은 그의 전부(실루엣・형체・분위기)일까? 아니면 육체의 어느 일부분일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 육체의 어떤 부분이 내 숭배의 대상일까? 그 크기는? 어쩌면 아주 작은 것인지도 몰라. 어떤 연유로? 손톱을 자른 모양, 약간 비스듬하게 깨진 이, 흘러내린 머리카락, 말하거나 담배 피우면서 손가락을 벌리는 모양? 육체의 이 모든 주름들에 대해 나는 '근사하다'라고 말하고 싶다. '근사한'이란, 그것이 유일하기 때문에 내 욕망이란 뜻이다. "그래 이거야, (내가 사랑하는 것은) 바로 정확히 이거야!" 그렇지만 내 욕망의 특이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것을 이름 짓기란 힘들어진다. 과녁의 정확함에 이름의 흔들림이 대응한다. 욕망의 고유함이란 고유하지 못한 언표(言表)만을 만드는 데 있다. 언어의 이런 실패로부터 남은 흔적이 바로 '근사한'이라는 말이다. ('근사한'의 적절한 라틴어 번역은 *ipse* 일 것이다. *ipse* 란 바로 '그/그녀 자신', 혹은 '그/그녀 자신이 몸소'란 뜻이다.)

롤랑 바르트, 『사랑의 단상』

(자료 5)

[문제 1]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공통적인 핵심어를 중심으로 각각의 요지를 밝히고,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400자 내외)

[문제 2] 〈제시문 A〉와 〈제시문 B〉에 나타난 논지의 차이를 기준으로 (자료 1), (자료 2), (자료 3)을 구분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600자 내외)

[문제 3] ① (자료 4)의 요지를 밝히고, (200자 내외) ② (자료 5)의 등장인물 '갑'이

(자료 4)의 태도를 취했을 때, 예상되는 '갑'의 생각(㉮)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제시문 A〉 또는 〈제시문 B〉를 활용해 정당화하시오. (600자 내외)

분 석

❍ 논제 1

• **논제 1 :**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공통적인 핵심어를 중심으로 각각의 요지를 밝히고,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400자 내외)

논제 분석	
what	how
1) 각각의 요지를	밝히고,
2)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 **고려사항(option)**

1) – 〈제시문〉의 공통적인 핵심어를 토대로 할 것.

❍ 논제 2

• **논제 2 :** 〈제시문 A〉와 〈제시문 B〉에 나타난 논지의 차이를 기준으로 (자료 1), (자료 2), (자료 3)을 구분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600자 내외)

논제 분석	
what	how
1) (자료 1), (자료 2), (자료 3)을	구분하고
2) 구분의 근거를	제시하시오.

• **고려사항(option)**

1) – 〈제시문 A〉와 〈제시문 B〉에 나타난 논지의 차이를 기준으로 할 것.

❍ 논제 3

• **논제 3 :** ① (자료 4)의 요지를 밝히고, (200자 내외) ② (자료 5)의 등장인물 '갑'이 (자료 4)의 태도를 취했을 때, 예상되는 '갑'의 생각(㉮)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제시문 A〉 또는 〈제시문 B〉를 활용해 정당화하시오. (600자 내외)

논제 분석	
what	how
1) (자료 4)의 요지를	밝히고
2) 예상되는 갑'의 생각을	– 제시하고, – 정당화하시오.

• **고려사항(option)**

1) – 200자 내외로 작성할 것.

2) – (자료 5)의 등장인물 '갑'이 (자료 4)의 태도를 취했을 경우를 근거로 삼을 것.
– 〈제시문 A〉 또는 〈제시문 B〉를 활용할 것.
– 600자 내외로 작성할 것.

■ 제시문 및 자료의 출처

〈제시문 A〉는 니체의 The Gay Science(즐거운 학문)에서 발췌한 것으로 현상(우연적 속성)으로 이해되어 오던 명성, 외양, 이름 등이 점차 본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영어 지문이다.

〈제시문 B〉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언급되고 있는 본질에 대한 서술로 본질을 사물 그 자체에 필연적으로 속해있는 것으로 불변한다고 설명한 지문이다.

(자료 1)은 Noam Chomsky의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에서 발췌한 것으로 언어능력과 언어수행에 대해 정의하고, 언어능력은 본질, 언어수행은 현상 또는 외양으로 이해하도록 한 글이다.

(자료 2)는 (자료 2)는 동아일보(2009. 7. 29.)의 시론을 발췌한 것으로 스타벅스를 대상으로 감성 또는 체험 마케팅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자료 3)는 윤대녕의 소설 『옛날 영화를 보러 갔다』에서 발췌한 것으로 축적된 과거가 현재의 '나'의 본질임을 말하고 있는 글이다.

(자료 4)는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에서 인용한 것으로 사랑을 대상과의 만남에서 발현하는 유일하고(unique) 특이한 체험으로 묘사하는 글이다.

(자료 5)에서는 '사랑'에 대한 문제 상황을 그림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19 한국항공대학교

가. 개 요

■ **분석대상 : 2010학년도 수시 2차 인문계열 문제**

■ **시험시간 : 120분**

■ **문 항 수 : 3 문항**

■ **답안 분량 : 2000자 내외**

■ **출제 방향 및 지침**

기본적으로 고교과정에서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판단 능력과 논리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면 이 계열의 논술을 잘해낼 수 있다. 문제는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 어느 한 쪽에 치우친 특정 문제를 출제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손쉽게 감지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문을 발췌하여 이에 대한 이해력, 분석능력, 비판능력 등을 검증하는 문제를 낸다.

논술고사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공부하였는지를 묻는 문제를 출제한다. 난해하거나 이색적인 문제는 가급적 다루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문제를 낸다. 단순 지식보다는 깊이 있는 사고를 요하는 문제를 낸다. 그리하여 지식에 의존하는 답안보다는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발상 능력을 잴 수 있는 답안을 요구한다.

우리 대학의 언어논술은 기본적으로 고교과정에서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판단 능력과 논리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면 이 계열의 논술을 잘해낼 수 있다. 문제는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 어느 한 쪽에 치우친 특정 문제를 출제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손쉽게 감지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문을 발췌하여 이에 대한 이해력, 분석능력, 비판능력 등을 검증하는 문제를 낸다.

언어논술은, 특수한 전문지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치관, 건전한 교양인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판단과 논리적인 의사표현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논술에 대비한 학습과정을 다양화할 필요는 있으나 현학에 의존하는 기술의 정형화된 틀은 오히려 감점을 불러올 수 있다. 문제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충실히 만족시킬 수 있으면 된다.

제시문은 대개 교과서나 일반교양 서적 등에서 발췌하지만, 때로는 잡지나 신문 등에서 채택할 수도 있다. 문장 작성에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도 살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항은 문장의 정확성과 명료성, 논리적 전개 등 글쓰기의 기본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 출제 의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그에 대해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본다.

■ 중점 평가 영역

- 1번 논제: 내용 파악 및 요약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논리적 서술 능력 등을 본다.
- 2번 논제: 내용 파악 및 요약 능력, 발상 전환의 사고력, 차이점과 유사점 파악 능력 등을 본다.
- 3번 논제: 내용 파악 및 요약 능력, 차이점과 유사점 파악 능력, 종합적 사고 능력 등을 본다.

나. 논제 및 제시문 분석(2010학년도 수시 2학기)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답하시오

[가]

네트워커: 요즈음 '카피레프트'(Copyleft)라는 말이 신문, 방송 등에서 심심찮게 등장하곤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미국 MIT 대학의 컴퓨터 학자로서 1983년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의 공유와 자유로운 복제, 사용을 통한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Free Software Foundation'이라는 단체의 설립을 주도하셨으며, 이 단체는 현행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에 정면으로 맞서는 카피레프트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카피레프트라는 용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톨만: 카피레프트란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의미하는 '카피라이트'(Copyright)와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Copyright, 즉 Right of copy는 '복사할 권리'를 의미하죠. Right가 권리라는 뜻과 함께 오른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므로, 반대인 왼쪽(Left)을 사용하여 Copyleft를 쓰게 되었습니다. Copyright에 반대한다는 뜻에서 Copyleft는 저작권에 대한 반대를 의미합니다.

네트워커: 인터넷에서 모든 디지털 데이터는 자유롭게 전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장애가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과학은 저작권에 우선해야 한다(Science must push copyright aside)'는 글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은 저작권 보호 없이는 어떠한 컨텐츠도 생산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과학, 문학, 예술작품을 포함한 모든 정보와 지식이 저작권의 규제를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톨만: 물론 카피레프트적인 발상이 항상 옳거나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각종 저작권 침해와 불법 복제가 만연한 현재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재산권의 보호 장치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개발자, 창작자들의 의욕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며, 관련 산업의 낙후는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소프트웨어, 매뉴얼, 교과서, 백과사전 등의 기능적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만들고, 복사본을 재배포하며, 또한 수정본을 출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종류의 공표된 저작물이든, 최소한의 유통의 자유는 있어야 합니다. 즉, 누구나 그것을 비상업적으로 복제하고, 변형 없이 재배포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네트워커: 냅스터(Napster)나 카자(Kazaa)와 같은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음반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톨만: 음반사들은, 우리가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작권은 근대에

나타난 재산권으로, 예전에 그것은 저자가 명예를 누리는 인격적 이익에 그쳤습니다. 자본주의 제도가 발전하면서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에 착안하여 저작물의 상품화가 촉진되고, 이 과정에서 오늘날의 저작권법 제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유용한 정보나 지식은 인류를 위해 공유되어야 하며, 상업적으로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트워커: Copyleft 운동에 대하여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스톨만: 지식은 공기와 같아서 서로 나눠야 합니다. 특허 제도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선진국들의 지나친 기술 독점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불공정 및 격차 확대에 악용되는 측면이 적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카피레프트 운동이 지니는 의미는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카피레프트 운동이 정보나 기술의 지나친 독점이나 상품화의 폐해를 견제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창작자의 보호를 통한 발명, 개발의 촉진과 산업의 발전이라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기본 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특히 인터넷 매체에 의하여 전 세계적인 규모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는 오늘날에, '정보 · 기술의 공개 및 교류'와 '창작자의 이익 보호'라는 두 수레바퀴가 조화를 이루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나]

1) 자신의 발명을 특허로 받지 않고 전 세계에 공개한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근대적인 카메라를 발명한 루이 다게르(Louis Daguerre: 1787–1851)가 바로 그 사람이다. 다게르는 당시 저명한 물리학자이자 프랑스 의회 의원이었던 프랑수아 아라고(Francois Arago: 1786–1853)에게 자신의 사진술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다. 아라고는 이러한 훌륭한 발명을 공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카메라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하고, 그 대신에 다게르와 그의 후손들에게는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다게르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1839년 8월 19일 프랑스 과학아카데미와 예술원의 합동회의에서 자신의 사진술을 공개하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법의 연구에 참여한 결과, 카메라의 발전 속도는 한층 빨라지게 되었다.

2) 자신의 연구 성과를 일부러 특허 받지 않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은 'X선의 발견자'

뢴트겐(Wilhelm Konrad Roentgen: 1845–1923)이다. 1895년 11월 8일부터 크룩스관을 이용하여 음극선 실험을 하던 독일의 뷔르츠부르크 대학교수 뢴트겐은, 검은 종이를 꿰뚫는 신비한 광선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이 광선의 성질을 계속 연구하여 12월 22일에는 아내의 손뼈를 찍기도 하였다. 뢴트겐은 이 미지의 광선을 X선이라 이름 짓고, 곧 연구 결과를 학회에 보고하였다. 뢴트겐은 노벨물리학상의 첫 번째 수상자가 되었고, X선의 발견은 다른 과학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X선이 크게 각광을 받던 어느 날, 독일의 가장 큰 전기회사 사장이 뢴트겐을 방문하여 X선의 특허권을 자신의 회사로 양도하면 돈은 얼마든지 요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뢴트겐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하였다고 한다. "X선을 특허로 낸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 X선을 혼자서 독차지하겠다는 말인가? X선은 내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것을 내가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X선은 온 인류의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면서 뢴트겐은 자신이 고안한 X선 발생 장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개량에 힘써서 더욱 성능 좋은 X선 장치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

1) '정보공유연대(IPLeft)' 선언문은 지적재산권 제도와 이를 강화하려는 경향에 의해 소수자가 정보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여 오히려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음을 당당히 선언하기 위해 IPLeft에서 작성한 것이다. IPLeft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창작자를 보호하여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정보와 지식을 소수자에게 독점하도록 하여 국가, 계급, 계층 간의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모순된 현실에 주목한다. 우리는 진정한 혁신과 창조를 위해서 독점을 보장하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아닌, 공유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대안적인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 선언문은 현 지적재산권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IPLeft 회원들의 실천적 고민의 결과물이자 대안적인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투쟁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동의하는 어떠한 실천과도 연대해 나갈 것이며, 그 투쟁의 성과를 토대로 이 선언문을 계속 갱신해 나갈 것이다.

2)

[논제 1] 카피라이트(Copyright)와 카피레프트(Copyleft)의 개념을 요약 정리한 후, 자신의 관점을 정하고 그에 대해 논술하시오. (800자 내외 / 4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답하시오.

[가]

벡스코의 '마그리트 뒤라스의 사랑' 시사회에서 잔 모로는 '할리우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 팬의 우문에 인상 깊은 현답으로 응수해 갈채를 받았다. 그녀는 '우리 모두는 도둑'이라 했던 장 콕토를 인용하면서 '할리우드로부터 훔쳐낼 것은 모두 훔쳐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 도발적인 언어들을 토하면서 악동 같은 천진한 미소를 얼굴에 가득 담았는데, 타고난 '도둑'인 그녀는 필경 '훔쳐내야 한다'는 말조차 어디선가 훔쳐냈을 것이다. 죄 없는 장 콕토를 불러 세워 망보게 하고선 말이다.

'시는 자연의 모방이고 비극은 행동의 모방'이라고 정의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리지 않다면 예술 그리고 삶에서 모방과 표절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정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있겠는가. 유구한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에서 누군가는 했던 생각들이었고, 누군가는 발설했던 말이었고, 또 누군가는 살았던 삶들이 아니었을까. 호머, 셰익스피어, 세르반테스, 괴테 등 천재의 작품들이라고 예외였겠는가. 그들 역시 자신들의 독특한 언어로 그런 것들을 따라잡고, 받아 적고, 작품으로 집대성시켜 독자들에게 전해 준 전설의 도둑들 아니었을까.

어쨌든 표절 시비의 기준은 지금보다 훨씬 더 느슨해야 한다. 도대체 문화사에서 몇 작가가 그 엄격한 조건을 통과할 수 있단 말이냐. 가령 앞선 시대의 천재들에 의해 거의 모든 창작 소재들을 선점당한 뒤에 남겨진 부스러기들과 씨름하면서 한 세대나 한 시대 아니 한 세기를 당혹과 짜증과 울분으로 보낼 예술가들을 생각해 보라. 스트라빈스키나 쇤베르크 이후 클래식 음악의 작곡가들이 이런 형편에 처해 있지 않은가.

독창성 시비, 표절 시비에 지쳐버리는 것은 만드는 자, 즐기는 자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 아니다. 패러디의 입지를 더 넓혀주고 그것도 가치 있는 또 다른 창작임을 흔쾌히 인정해 주자. 더러는 패러디가 시대 문화의 주류로 다가서는 것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다. 예술가들이여, 어디서 훔치든 부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도둑들이 되어다오.

[나]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행위를 보고 비슷한 행위로 재현하거나 실행하는 것을 뜻하는 모방은 인간뿐만 아니라 몇몇 영장류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하지만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을 뜻하는 창조는 바로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 중 하나입니다.

한때 일본제품들이 서구제품들을 누르고 세계무대에 우뚝 선 것도 단순히 제품 모방에 그치지 않고 학습과정을 거치면서 창조적인 힘을 길러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창조적인 일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문화와 예술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몇몇 가수들의 노래가 표절 논란에 휩싸인 것도 바로 모방에 그치고 이를 창조적 예술행위로 끌어 올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판물에 대한 표절 논란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모방은 스스로의 땀과 정성을 쏟지 않고 다른 사람의 창조적 결과물을 도둑질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골동품이나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단순히 모작에 불과할 때는 작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를 승화 발전시켜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시켰을 때 역사의 평가는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이지만 창조적인 사고가 담겨있지 않은 모방은 그저 모방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류의 특권 중 하나인 창조적 행위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논제 2] 제시문 [가]와 [나]의 주장을 요약하고, [가]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500자 내외 /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답하시오.

[가]

호랑이에게 쫓긴 토끼 한 마리가 숨을 할딱이며 명상에 잠긴 수도승에게 숨어들었다. 수도승은 토끼가 가엾은 생각이 들어 품에 숨겨주었다. 굶주린 호랑이는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며 토끼를 내줄 것을 요구했다. 수도승은 토끼도 살리고 호랑이도 살리기 위해 토끼와 같은 무게의 자기 살점을 베어주기로 했다. 저울을 갖다 놓고 한쪽에는 토끼를 또 한쪽에는 자기 살덩이를 올려놓았다. 웬일인지 아무리 커다란 살덩이를 올려놓아도 토끼의 무게가 더 나가는 것이었다. 자기 몸 전체를 저울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비로소 저울은 수평을 이루었다. 수도승은 모든 생명의 무게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자기 몸 전체를 굶주린 호랑이에게 던져 먹이로 줌으로써 호랑이와 토끼를 살리고 자신은 죽었다.

[나]

밭 한 뙈기

– 권정생

사람들은 참 아무것도 모른다
밭 한 뙈기
논 한 뙈기
그 걸 모두
‘내’ 거라고 말한다

이 세상
온 우주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내' 것은 없다

하느님도
'내' 거라고 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모두의 것이다

아기 종달새의 것도 되고
아기 까마귀의 것도 되고
다람쥐의 것도 되고
한 마리의 메뚜기 것도 된다

밭 한 뙈기
돌멩이 하나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온 세상 모두의 것이다

[다]

실옹(實翁)이 말했다.

"내가 너에게 묻겠다. 생물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거늘, 인간 금수 초목이 그것이다. 이 셋에 귀천의 등급이 있느냐?"

허자(虛子)가 대답했다.

"생물 중에 오직 사람이 귀합니다. 저 금수나 초목은 지혜나 지각이 없으며, 예의나 의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금수보다 귀하고, 초목이 금수보다 천하지요."

실옹은 고개를 들고 껄껄 웃더니 말하였다.

"너는 정말 사람이구나. 오륜(五倫)과 오사(五事)는 사람의 예의이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울부짖거나 먹이를 먹는 것은 금수의 예의이며, 떨기로 자라고 무성한 것은 초목의 예의이다. 사람의 입장에서 물(物)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물이 천하지만,

물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 물이 귀하고 인간이 천하다. 그러나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과 물이 균등하다.”

[라]

13억 인구의 거대한 중국이 움직이자, 지구가 구석구석까지 들썩인다. ‘진화론’의 고향으로 알려진 남태평양의 갈라파고스 군도는 최근 ‘차이나 쇼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풍성한 식문화를 자랑하는 중국인들에게 ‘삭스핀’은 최고의 인기를 누려왔다. 더욱이 최근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의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삭스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그 가격도 등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 마리를 잡으면 겨우 네 쪽이 나오는 상어 지느러미의 가격은 구리나 철광석과 맞먹게 올라 급기야 파운드당 25~30달러에 거래되기에 이르렀다.

상어 지느러미의 가격이 치솟자 에콰도르령인 갈라파고스에서는 최근 불법적인 상어잡이가 성행하고 있다. 환경주의자들과 에콰도르 정부 당국은 상어잡이의 시기를 따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규정된 시기에도 상어잡이는 그치지 않고 있다. 가난한 현지 주민들에게 상어잡이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만큼 매력적인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이다.

환경주의자들에게 그러한 행위는 개인적인 범죄 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갈라파고스 군도는, 찰스 다윈이 확립한 ‘진화론’의 모태가 됐을 정도로 생태적인 종의 다양성이 잘 보존돼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환경주의자들은 살아있는 생태 박물관인 갈라파고스의 파괴를 씻을 수 없는 인류적 범죄로 여기고 있다.

[마]

로드킬이란 ‘차에 치여 죽은 야생동물’을 가리킨다. 지난 2007년 5월 1일 국립국어원에서는 ‘로드킬(Roadkill)’의 다듬은 말로 ‘찻길동물사고’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차에 치여 죽는 야생동물의 수가 현저하게 늘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요즘 도로를 달리다 보면 곳곳에서 차에 희생된 야생동물들의 시체를 흔히 보게 된다. 그것은 건너편 숲의 옹달샘으로 가고 싶었던 토끼였고, 새끼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고 싶었던 수달이었다.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뻗은 도로는, 인간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주지만 야생동물에게는 '죽음의 덫'이 되고 있는 셈이다.

'어느 날 그 길에서'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인간이 왜 생태계의 이단자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며, 토건 국가 대한민국의 개발 이데올로기를 성찰케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여기서는 '대지의 거주자들'이 '눈에서 불을 뿜는 동물' 혹은 '네 바퀴 달린 동물'에게 치여 죽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 영화에서는 '우리는' 도로를 '길'이라 부르고, '그들은' 도로를 '집'이라 부른다.

우리는 문명이라는 속도로 도로를 달리지만, 그곳에 애초부터 살고 있는 주인들은 그곳에서 갈 곳이 없이 내몰리고 있다. 그들은 바둑판처럼 건설되어 있는 도로로 조각난 '녹색섬'에 고립되어, 순간순간 죽음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논제 3] 제시문 [가]~[마]의 논지의 차이점을 밝히고, 공통 주제를 찾아 논술하시오. (500자 내외 / 30점)

분석

❍ 논제1

- **논제 1 :** 카피라이트(Copyright)와 카피레프트(Copyleft)의 개념을 요약 정리한 후, 자신의 관점을 정하고 그에 대해 논술하시오. (800자 내외 / 40점)

논제 분석	
what	how
1)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개념을	요약하고
2) 자신의 관점을	– 정하고, – 논술하시오.

- **고려사항(option)**
  - 카피라이트(Copyright)와 카피레프트(Copyleft)의 개념능
  - 800자 내외로 작성할 것.

- 카피라이트(Copyright)는 '복사할 권리', 즉 저작권을 의미한다. 고유의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카피레프트(Copyleft)는 이러한 상식에 도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말이라고 하겠다.

- 카피레프트 운동을 주창한 스톨만은 "그렇지만 카피레프트 운동이 정보나 기술의 지나친 독점이나 상품화의 폐해를 견제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창작자의 보호를 통한 발명, 개발의 촉진과 산업의 발전이라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기본 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한다. 카피레프트 운동이 저작권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거나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것은 인류를 위해 공유해야 할 유용한 정보나 지식에 대한 상업적 독점을 반대할 뿐이다.

- 이러한 이유로 카피레프트의 개념을 요약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이나 저작권의 완전 폐지는 적절한 관점은 아니다. 세 개의 지시문이 카피레피트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개념 요약정리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카피레프트 쪽이 커지리라 예상된다. 카피라이트는 이미 널리 알려진 개념인 반면에, 카피레프트는 이를 겨냥한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이다.

- 요약에 있어서는, 제시문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자신의 글로 정리 요약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아마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리라 예상된다. 제시문 문장 자체에만 의존하고 그것을 다시 그대로 개념 정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기 말로 얼마나 새롭게 잘 정리하는가가 관건이다.

- 어떤 관점을 택해도 무방하다. 다만 자신의 관점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논거를 드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카피레프트를 지지하는 주장의 논거로, V3 개발자 안철수 씨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예를 활용해 설득력 있게 단락을 구성한다면, 훌륭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다]-2)에 제시된 카피레프트의 상징을 찾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주장에 응용을 한다면 더욱 좋겠다.

-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답안에서는 짧은 시간에 얼마나 조리 있게 개념을 요약 정리하는가 하는 점과, 자신의 주장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자신이 주장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용기와 더불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논리적 답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 논제2

• **논제 2 :** 제시문 [가]와 [나]의 주장을 요약하고, [가]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500자 내외 / 30점)

논제 분석	
what	how
1) 제시문 [가]와 [나]의 주장을	요약하고
2) [가]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 **고려사항(option)**

– 500자 내외로 작성할 것.

• [가]와 [나]는 모두 창작과 모방 혹은 표절에 대한 글이다. 두 주장은 모두 창작을 위해서 모방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는 생각을 공유한다. 하지만 두 글은 이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가]에서는 모방과 표절을 별 차이 없이 받아들이며, 수용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만 있다면 "어쨌든 표절 시비의 기준은 지금보다 훨씬 더 느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나]는 창조적인 모방은 인정될 수 있으나 창조가 없는 모방은 표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창조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으로 규정한다. [가]에서 모방을 무조건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서 모방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두 글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극단적인 양극적 대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다.

• 따라서 두 글을 요약하는 데에 있어서, 모방 자체를 극단적으로 부정하거나 무제한적인 표절을 해도 된다는 식의 논리 전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전자의 핵심은 "어쨌든 표절 시비의 기준은 지금보다 훨씬 더 느슨해야 한다"는 점에 있고, 후자의 핵심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이지만 창조적인 사고가 담겨있지 않은 모방은 그저 모방에 불과할 뿐이"라는 데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 우리 논술 출제자들은 대체로 학생들이 [나]의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예측해 보았다. 학생들이, 표절 옹호에 가까운 전자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이다. 아마도

논술학원을 좀 다녀 본 학생들이라면 표절을 비판하는 글을 한번쯤 써 봤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다음으로 [가]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을 비판하시오"라는 문제의 제출 의도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보자는 데 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상식에 대한 반대 논리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구축하느냐 하는 점에 있다.

❍ 논제3

• **논제 3 :** 제시문 [가]~[마]의 논지의 차이점을 밝히고, 공통 주제를 찾아 논술하시오. (500자 내외 / 30점)

논제 분석	
what	how
1) [가]~[마]의 논지의 차이점을	밝히고,
2) 공통 주제를	논술하시오.

• **고려사항(option)**
– 500자 내외로 작성할 것.

• 위의 다섯 편의 글은 모두 환경과 생태에 관한 글이다. [가]는 '생명의 가치는 모두 같다'는 불교 설화이고, [나]는 '자연의 모든 것은 모든 생명체가 공유한다'는 주제를 지닌 동화작가 권정생의 시이며, [다]는 '인간, 동물, 식물 등 모든 생물은 평등하다'는 '생물평등주의'를 바탕으로 한 홍대용의 『의산문답』에 나오는 한문설(說)이다. [라]는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포털 '다음'의 뉴스이며, [마]는 야생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있다.

• 이 문제에서는 커다란 대주제 하에서 유사한 소주제들의 차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밝히는 가, 그리고 그 차이들을 아우르는 공통 주제를 잘 설정하는가 하는 점을 본다.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정도 유의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위에서 밝힌 각 제시문들의 주제들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 둘째는 각각의 주제들의 차이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가이다.

• 위 다섯 개의 제시문을 모두 아우르는 가장 적절한 공통 주제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 '자연과 인간의 화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덧붙였을 경우 좋은 답안이 될 것이다. 이는 [가]-[마]의 각 주제(위에서 제시한)를 바탕으로 공통 주제를 끄집어내고 그 이유를 조리 있게 설명한 경우이다. 그 답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 '자연과 인간의 화해'와는 달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생태계'나 '환경'이라는 용어를 동원하면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생물들의 관계, 혹은 관계망 등을 바탕으로 공통 주제를 설정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도 있다.

- 그런데 인간과 자연의 어울림이 아닌 오로지 '자연보호'만을 주제로 삼았다면 그것은 적절한 답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보호란 단지 인간중심주의를 바탕으로 자연의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미 많은 비판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 '조화', '관계' 등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생태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대체로 합의에 도달해 있다고 판단되며, 중고등학교 생태 교육 현장에서도 이미 이는 기본 지침에 해당한다.

20 한양대학교

가. 개 요

■ 분석대상 : 2010학년도 수시 2차 인문계열 문제

■ 출제유형 : 통합교과형 중 자료제시논술형

■ 시험시간 : 150분

■ 문 항 수 : 2문항

■ 답안 분량 : 문제1 400~500자, 문제2 1300~1500자(원고지)

■ 수험생 유의사항

1. 150분 안에 [문제 1]과 [문제 2]의 답안을 작성하시오.
2.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3. 수정 시 검정 볼펜으로 줄을 긋고 다시 쓰시오.
4. 답안지와 문제지를 함께 제출하시오.
5.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답안을 검정 볼펜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기나 표현을 한 경우
   3)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경우
   4)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출제 방향 및 지침

한양대학교 2010학년도 신입학 전형 수시 2차 논술은 수험생들이 고등학교 3년의 전 과정에서 습득한 학업 성취도와 대학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문계 논술은 제시문에 나타난 주장과 근거를 활용하여 까다로운 논제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출제의도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다양한 주제들을 활용하여 인문, 사회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통합 논술'을 지향하였다. 인문계 논술은 총 2개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1번 문제는 주어진 글을 읽고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여 비교하고 문제점 지적 후 근본적 원인을 찾아 비판하게 하는 문항이고, 2번 문제는 주어진 글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이해력과 거기에 바탕을 두고 창의력, 논리력, 분석력, 그리고 문제해결력 등의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논술 중심의 문항이다.

1번 문제는 '혼종(hybridity)'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프랑스와 영국의 이민, 동화 정책을 비교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비판하게 하는 문항이다. 국제 시사주간지의 논설 지문과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의 저서 〈재현: 문화적 재현과 의미화 수행(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한 글의 이해력을 바탕으로, 사회문화 현상의 문제와 그 문제의 배경 및 원인을 파악하고 비판하는 사고력과 논리력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2번 문제는 조지프 히스(Joseph Heath)의 저서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Filthy Lucre; Economics for people who hate capitalism)〉과 스티븐 제이 굴드(Stephen Jay Gould)의 저서 〈풀하우스(Full House)〉에서 발췌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태계의 자연선택, 다양성과 시장경제의 경쟁력, 효율성의 관계를 국가 전체의 경제력과 윤리의식의 관점에서 파악하게 하는 문항이다. 주어진 글의 이해력을 바탕으로 전체 논제에 대한 창의적 생각을 요구사항과 통합하여 서론·본론·결론의 논리적 글로 구성하는 수험생들의 종합적인 사고력, 분석력 및 글쓰기능력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평가 기준

❍ 서술형 [문제 1] 평가 지침

1) 평가의 목적

가) 시사, 사회문화, 역사 현상의 문제와 그 문제의 배경 및 원인을 파악하고 비판하는 사고력과 논리력 평가

나) 인문학적 가치 준거를 주는 이론의 이해와 그 준거를 현실 정책 과제에 적용하는 대학 수학역량 평가

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주제를 표현하며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서술 능력 평가

2) 분석적 평가의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가중치)

영 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 점
전체 구성과 전개	[가]의 내용 비교 – [나]를 근거로 문제점 지적 – 근본적 원인을 비판하는 짜임새		10%
주제와 정보 내용 – 지문의 핵심 파악 – 비교 및 대조 – 근본 문제 – 비판	비교	유사성: 식민 통치, 노동력 부족, 자국(전통문화)중심주의, 우월의식 프랑스: 강력 동화정책, (전통)문화 차이를 뿌리채 없애려함, 소요 사태 등 영 국: 소극적 동화정책, 영국 정체성 상실에 대한 과민 반응, 노동력 차별, 통제 강화	30%
	지적 및 비판	1. 문화의 속성: 변화, 혼종, 탈경계 등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2.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상생을 위한 지향 과제: – 자국문화의 순수성, 우월성에 대한 뿌리깊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 – 상대 문화의 특성, 습성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인정 – 자연적인 인종, 전통 문화(종교, 관습 등)의 차이를 우열구조화 하면서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문화제국주의적 지배 이념으로부터 탈피	50%
논리와 표현	설명 내용의 정합성(coherence), 비교 대조의 논리, 비판의 논리, 필자의 언어로 전환한 표현		10%

3) 종합적 평가의 기준과 내용 (총점 100점 만점)

종합 점수	〈A〉 상–중–하 100–95–90	〈B〉 상–중–하 89–85–80	〈C〉 상–중–하 79–75–70	〈F〉 10–0
평가 내용	– [가] 두 나라의 정책 (목적, 시행 등)과 (문제)양상을 세밀하게 비교, “대조”하고 – [나]의 관점을 견지하여 “2가지” 핵심논거로 근본적 문제를 파악하여	– 두 나라의 정책 비교 구체성 미흡, 대조적 문제점 파악 미비 – [나]의 핵심 논지 파악이 엄밀하지 못함	– 두 나라의 정책에 대한 비교를 피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전개 – 근본적 원인에 대한 문제 파악 미흡	– 논제와 상관없이 피상적 나열에 그친 경우 – 200자 미만

	- 원인이 되는 우월의식과 차별정책 등에 대한 "비판"적 논지를 발전시킴 - 필자 자신의 논지와 표현으로 소화	- 근본적 원인에 대한 접근이 다소 피상적임 - 비판 근거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함 - 필자 자신의 논지와 표현이 분명치 않고, 지문의 차용에 상당히 의존	- 비판의 관점과 논리가 미흡	

4) 분량의 감점 내역

400자 이상 500자 이내	500자 초과	350자 이상 400자 미만	300자 이상 350자 미만	250자 이상 300자 미만	200자 이상 250자 미만	200자 미만
감점 없음	–1점	–1점	–2점	–5점	–10점	–90점

5) 유의 사항

- 주어진 글에 나타난 구절을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나열하는 것은 감점 요인임.
- 이주자들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를 포함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면 가산점을 줄 수 있음.
- 원고지 사용법과 어문 규정을 적용하되, 감점 처리는 두드러지게 틀린 경우에 반영함.

❍ 논술형 [문제 2] 평가 지침

1) 평가의 목적

가) 글의 주장과 근거 및 글과 글 사이의 논지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주장의 목적과 논리를 비판할 수 있는 사고력 평가

나) 사례를 분석하고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는 추론 능력 및 사회의 모순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학문적 기초역량 평가

다) 주어진 요구를 반영하고, 자신의 창의적인 주제(idea) 제안과 논리적 자료로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논술하는 글쓰기능력 평가

2) 분석적 평가의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가중치)

영 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점
전체 구성과 전개	전체 구성	전체논제에 대한 창의적 생각을 요구사항과 통합하여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글로 구성	10%
	서론 전개	전체논제: [가]의 주장과 근거를 비판하고, [다]의 '경우 (1)'이 추구될 방안의 모색에 대한 문제 제기와 요구내용을 반영한 (본론의) 논지 제시 및 주장하려는 방안에 대한 주제(thesis)의 전개	
전체 구성과 전개	결론	제기된 문제를 종합된 본론의 내용으로 재조정하고 주제를 다른 표현으로 강조함	
(본론의) **주제와 정보 내용** – 글의 핵심과 관계 이해 – 주장/근거의 비판 – 사례의 분석과 의미 해석 – 문제 해결 방안	[가]와 [나]의 핵심과 관계 요약 및 [가]를 비판	[가] 1. 시장(개인) **자유 최대화**, 2. 자연선택, 시장의 효율성: **경쟁력** 우선 **적자생존** [나] 1. 생태계의 **다양성 및 한계**, 2. 자연: 경쟁력보다 경쟁 **구조와 방법의 환경**조성 [가]는 생태계의 자연선택을 적자생존을 위한 합리화로 적용, [나]는 대조적으로 [가]의 논거 자료를 생태계 진화의 속성과 실증자료로 비판, 시장의 효율성만을 위한 자유와 적자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의 파국 진단	20%
	[다]의 분석과 의미해석: 비판과 방안의 자료 도출	'경우(1)'은 개체의 적절한 이익을 공유하고, **전체생산**을 최대화 할 수 있음. '경우(2)'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 전체생산이 약화됨 '경우(3)'의 자유로운 욕구선택은 사냥꾼들을 망하게 하고, 전체생산이 최소화	20%
	[라]의 2가지 문제의 해결책과 '경우(1)'의 추구방안	1. **"재산과 소유의 안전보장"**을 보장하는 체제와 법적제도 확립/처벌 2. **"합의도출 및 계약(합의) 이행(준수)"**을 위한 환경(개입)과 법적 보장/처벌 – '경우(2)'의 밀렵꾼을 벌주고, '경우(3)'의 욕구경쟁을 세밀하게 제어할 국가의 개입 – '경우(1)'이 개체의 **상호이익**을 보장하고, **전체이익**에 필수적이라는 실천 윤리의식	40%

논리와 표현	단락 전개	단락별 주제(문)의 선명성과 설명 내용의 논리적인 정합성 (coherence),	10%
	비판과 주장	상대의 주장과 논리 근거에 대한 문제파악 및 비판논리, 자신의 언어로 소화, 전환한 표현	

3) 종합적 평가의 기준과 준거 (총점 100점 만점)

종합 점수	〈A〉 상-중-하 100-95-90	〈B〉 상-중-하 89-85-80	〈C〉 상-중-하 79-75-70	〈F〉 10-0
평가 내용	**- [가]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비판이 논리적이고 심층적임** - [다]의 **3가지** 경우에 대한 분석과 결과의 **의미(전체 생산) 해석** **- [라] 문제의 개념 파악 및 해결책 제시** **-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통합적) 구성** **〈점수 추가〉** - [라] **2** 문제의 **개념을 각각 파악, 대책** **- '경우(1)'의 추구를 위한 방안의 논지가 분명하고 발전적임** - 단락전개 논리와 **자기 사고와 표현**의 논술	**- [가]에 대한 비판의 종합성과 구체성 다소 부족, 논리가 분명하지 못함** - [다]의 **3가지** 경우 분석이 추상적이고 결과의 **의미(전체 생산)** 해석 부족 **- [라] 문제를 막연하게 파악, 상관성이 약한 상투적인 해결책** **-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와 구성 미비** 〈점수 삭감〉 - '경우(1)'의 추구를 위한 방안의 논지 부족 - 주어진 글의 차용에 상당히 의존	**- [가]에 대한 비판의 종합성과 구체성 결여, 논리가 추상적이고 상투적임** - [다] 경우 분석과 의미해석이 불분명 **- [라]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상관없는 해결책** -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 결여 - '경우(1)'의 추구 방안 논지 결여	**- 논제와 요구사항에 상관없이 피상적 나열에 그친 경우** **- 700자 미만**

4) 분량의 감점 내역

1300자 이상 1500자 이내	1500자 초과	1200자 이상 1300자 미만	1100자 이상 1200자 미만	900자 이상 1100자 미만	700자 이상 900자 미만	700자 미만
감점 없음	-1점	-1점	-3점	-5점	-10점	-90점

5) 유의 사항

- 주어진 글에 나타난 구절을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나열하는 것은 감점 요인임.
- 전체 논제, 즉 '비판과 방안'에 대한 주관적이고 창의적인 생각(idea)이 제안되고, 논리적일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음.
- 원고지 사용법과 어문 규정을 적용하되, 감점 처리는 두드러지게 틀린 경우에 반영함.

나. 제시문 및 논제 분석

문제 1

[가]

식민지 경영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은 이민·동화의 정책 추진에 있어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과거 식민지 구성원을 강력한 동화 정책으로 통치했던 프랑스는 전후의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민자를 받아들였고, 이들을 인종과 문화의 차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하는 적극적 동화 정책을 일찌감치 시행했다. 그 결과 아프리카와 중동의 많은 사람들은 프랑스인이 되었고, 자국에서 개최된 1998년 월드컵에서 식민지 출신 선수들의 맹활약으로 프랑스는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자국 문화의 우수성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이민자들의 문화적 차이를 흡수·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그러한 정책은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2004년 이슬람계 여성의 학교 내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데 이어, 최근에는 리옹을 중심으로 거리에서도 히잡 착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슬람계 이주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회통합이라는 미명 하에 이슬람의 고유한 문화를 뿌리째 뽑으려는 이러한 태도가 이슬람계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여 그들의 적대적인 행동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005년 11월에 발생한 프랑스 소요사태 역시 이러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영국 역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민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각 분야에서 이민자들의 역할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 대한 영국의

동화 정책은 식민지 통치이념을 따르는 소극적 동화의 형태를 띤다. 다시 말해 이방인들의 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영국 문화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한 전략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영국은 이민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 교사 같은 전문직 외국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민을 허용하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민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민법 개혁을 추진 중이다. 또한 망명 신청이 기각된 사람들의 추방 조치를 강화하고, 영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지문 등록을 실시할 방침이다. 영국 국민들은 서구 사상과 문화의 요람 역할을 한 영국의 성격이 잠식될 위기에 처해 있고 언젠가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영국적 정체성 상실에 대해 과민하게 표출되는 이러한 반응은 국내 정치의 맥락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통제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나]

지금 우리는 문화의 경계가 불분명한 '혼종(hybridity)'의 시대에 살고 있다. 문화는 늘 교차하고 섞이는 가운데 형성된다. 문화의 혼종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문화란 결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어서 우열을 나눌 수 없다는 깨달음을 제공하고, 정체성이란 단일한 형태로 영구 지속되기보다 이질적인 문화가 충돌하면서 변형을 겪는 가운데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다. 이러한 혼종에 대한 인식은 '중심'의 원리를 뒤집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전통적 고급문화의 권위와 문화적 위계를 해체하고, 문화적 가치 판단에서 '주변'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며, 대중문화의 요소들을 또 다른 미학과 언어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궁극적으로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헤아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많은 나라가 순혈주의에서 벗어나 다인종 ·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 특히 이민의 역사를 안고 있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서 문화적 혼종은 매우 구체적인 현실로 와 닿는다. 이제는 아무도 더 이상 단일하고 고정된, 순수한 기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문화의 차이는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차이를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을 위한 근거로 내세우지 않는 새로운 연대의 방식을 모색하는 길은 험난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길찾기는 반드시 추구되어야 한다.

➜ 글 [가]에 나타난 두 나라의 이민·동화 정책을 비교하고, 글 [나]를 바탕으로 그 정책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여 비판하시오. (400∼500자, 30점)

[분석]

- **발문 :** 글 [가]에 나타난 두 나라의 이민·동화 정책을 비교하고, 글 [나]를 바탕으로 그 정책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여 비판하시오. (400~500자, 30점)

논제 분석	
what	how
[가]에 나타난 두 나라의 이민·동화 정책을 비교	[나]를 바탕으로 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비판

- **요구사항(requirement)**
  - 제시문 [가]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할 것
  - 제시문 [나]의 논지를 파악하여 제시문 [가]의 정책과 관련지을 것

- 제시문 [가]에 나타난 프랑스와 영국의 이민·동화 정책 : 프랑스는 강력한 동화 정책을 추진하나 영국은 소극적 동화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나라 정책의 유사성은 식민 통치와 노동력 부족, 자국 중심주의, 우월의식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문화의 속성은 변화, 혼종, 탈경계 들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 자국문화의 순수성, 우월성에 대한 뿌리깊은 집착에서 벗어나야하고, 상대 문화의 특성, 습성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비판할 수 있다.

문제 2

[가]

시장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가격이 움직이면서 노동 및 자원 활용의 최적화를 이룬다. 즉,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의 적응도를 높이고, 시장은 스스로 효율성을 발휘하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석탄이든 양철이든 밀이든, 뭐든지 공급부족이 발생하면 단지 재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사람만 구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외계인이 멀리서 관찰한다면, 그것은 어떤 이성적이고 지적인 존재가 지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개인이 각자 적정한 상황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한 결과일 뿐이다. 시장의 선택은 찰스 다윈이 밝혀낸 자연의 선택과 유사한 구조이다. 생명계의 자연선택이 적자생존을 통해 진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장을 자연스럽게 방임해주면, 시장은 개인의 이익 추구라는 생명 활동을 통해 사회의 최적화를 이루는 것이다. 모든 거래는 자발적이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선에서 교환이 발생한다.

19세기 이래 다윈의 자연선택과 그에 기초한 허버트 스펜서의 적자생존이라는 사회적 관계의 작동 원리는 시장에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생명체와 시장은 목적과 계획과 안내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시장선택의 자생적 질서를 만들면서 진화한다. 수차례에 걸쳐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경제 위기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책임감 없고 비효율적인 자들의 부채에서 기인했거나,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집중 투자 때문이었고, 그런 위기는 항상 극복되면서 최적화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시장의 효율성과 합리성은 자연선택적인 작동원리이기 때문에 시장의 자유를 억제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1905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과점 노동자들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뉴욕주의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성인노동자의 노동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 자유에 대한 불합리하고 임의적인 간섭이고, 본인과 가족의 부양을 방해한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다. 본인과 가족의 부양 및 재산의 축적을 위해서 노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처럼, 시장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국방, 치안, 철도, 운하 등의 공공재를 위한 소비에 집중해야 한다. 시장을 재단하고 시장 종사자들을 통제하면 자연선택이라는 효율성이 붕괴된다.

[나]

다윈은 '적자'가 되지 못하는 개체와 최적화를 이루지 못하는 종의 사례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스펜서의 적자생존이라는 주장은 다윈의 자연선택이라는 생태적 개념을 인위적인 시장경제의 사회적 관계에 성급히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즉, 식민지의 시장을 도태시키는 제국의 시장을 자연스러운 자생적 질서로 합리화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자연계의 진화가 도태를 전제로 최적화의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하며 진실을 왜곡할 수 있겠는가? 사실 생명체의 세계는 바닥을 향한 거대한 경주의 연속이다. 나무를 생각해보라. 나무가 15미터씩 자라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렇게 자라려면 물과 양분 등 엄청난 자원을 땅에서 저 꼭대기의 이파리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해답은 물론 '나무는 햇빛을 받으려고 애쓴다'이다. 햇빛은 땅 가까이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다른 것들이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는 환경의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다른 모든 나무의 키가 3미터라면 크기가 4미터인 나무가 유리하다. 일조량이 이웃 나무보다 많아진다. 따라서 4미터짜리 나무가 슬슬 늘어난다. 그러나 모든 나무가 4미터라면 5미터짜리 나무가 유리하다. 과정은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괴테는 독일 속담을 인용해 "나무가 아무리 자란다고 하더라도 천국까지 자랄 수는 없다."라고 소회한다.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경쟁이 나무라는 종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비생산적이라는 사실이다. 나무들이 더 자라려면 결국 지나치게 연약해지거나 양분 공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햇빛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키가 작은 경우보다 좋아진 것이 없다. 신체동작, 의식, 심지어 사회적 지능발달에 관해서도 유사한 설명이 가능하다. 만약 자연선택이 항상 최적화한다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한 꺼풀의 부드럽고 균일한 박테리아일 것이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생태계의 엄청난 다양성은, 종의 적응도라는 기준에서 자연선택이 최고만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사실상 개체에게 좋은 것이 종 전체에게 좋은 일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자연선택은 경쟁을 부추기고 그 결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력은 그것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경쟁력을 획득하고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자연선택은 경쟁구조와 경쟁방법에 대해 총체적이고 다양한 한계와 엄밀한 환경을 조성한다.

[다]

아래 표를 보면, 사냥꾼 두 사람의 선택의 경우가 나온다. 두 사냥꾼은 덫을 놓는 일로 오후를 보낼 것이냐 아니면 밀렵을 할 것이냐 하는 결정에 직면해 있다. 만약 두 사람 모두 덫을 놓는다면 포획량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덫을 놓는데 다른 사람은 오후 내내 밀렵을 한다면 밀렵한 사람은 포획량을 세 배로 늘릴 수 있다. 대신 덫을 놓은 사람은 아무 것도 잡지 못한다. 따라서 상대방도 밀렵을 하는 수밖에 없고, 두 사람 모두 밀렵을 하면 포획량은 훨씬 감소하여 무엇을 위해 사냥을 하는지의 목적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자유로운 이익 추구를 위한 경쟁을 쫓아간다는 욕구의 선택을 따르면 '경우 (3)'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경우	두 사냥꾼의 행위의 조합	사냥 결과
(1)	두 사냥꾼 모두 덫을 놓을 때	각각 2마리
(2)	한 사냥꾼은 밀렵을 하고 다른 사냥꾼은 덫을 놓을 때	밀렵 사냥꾼 3마리 덫 사냥꾼 0마리
(3)	두 사냥꾼 모두 밀렵을 할 때	각각 1마리

[라]

시장의 시스템을 자생적 질서로 합리화하려면, 적자생존이 자연선택에 의해 이룩된다는 선거 구호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최소한 시장은 인위적인 산물이고, 그 안과 밖에서 경쟁하는 인간들은 동종 내 개체 간 경쟁에 몰두한다는 사실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시장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적도 없고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붕괴된 적도 없다. 자연계에서도 동종 내 경쟁에 몰입하여 한계를 넘는 욕구에 집착할 때, 집합적 자멸을 자초할 수 있는 현상은 상당부분 관찰된다.

시장은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야 하며, 다양한 한계와 엄밀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그 규칙을 강제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본 문제에 대한 이해와 그 해결을 위한 세밀한 실행 방안이 필수적이다. 첫째, 농작물을 옆집에서 훔칠 수 있다면, 누가 스스로 농사를 짓겠는가? 둘째, 합의한 노동이나 용역의 가격을 누군가가 맘대로 변경할 수 있다면, 누가 노동이나 용역을 제공하겠는가? 시장의 자유를 신봉하면서 철두철미하게 그것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의 자동차는 종국에 브레이크가 고장 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의미의 진화 체계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질서나 환경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우리 인간은 외부 요인 탓만 하면서 개인으로든 집단으로든 자기 불행의 입안자라는 사실을 무시한다.

➜ 아래 주어진 1, 2, 3, 4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글 [가]의 주장과 근거를 비판하고, 글 [다]의 '경우 (1)'이 추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1300∼1500자, 70점)

1.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는 논술문을 작성하시오.
2. 글 [가]와 [나]의 핵심 내용과 그 관계를 요약하시오.

3. 글 [다]의 세 가지 경우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시오.
4. 글 [라]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분석]

- **발문 :** 아래 주어진 1, 2, 3, 4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글 [가]의 주장과 근거를 비판하고, 글 [다]의 '경우 (1)'이 추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1300~1500자, 70점)

  1.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는 논술문을 작성하시오.
  2. 글 [가]와 [나]의 핵심 내용과 그 관계를 요약하시오.
  3. 글 [다]의 세 가지 경우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시오.
  4. 글 [라]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논제 분석	
what	how
글 [가]의 주장과 근거를 비판	[다]의 '경우 (1)'이 추구될 수 있는 방안 논술

- **요구사항(requirement)**
  - 논제에 주어진 1, 2, 3, 4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
  - 글 [가]의 주장과 논지를 파악하고 글[다]의 '경우(1)'이 어떤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 이해하도록 한다.

- [가]은 생태계의 자연선택을 적자생존을 위한 합리화로 적용하고 있고, [나]는 대조적으로 [가]의 논거 자료를 생태계 진화의 속성과 실증자료로 비판하고 있다.
- [다]의 '(경우 1)'은 개체의 적절한 이익을 공유하고, 전체생산을 최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 답안 예시

■ 문제 1 예시 답안

프랑스와 영국은 식민지 통치와 동화정책, 자국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이민

정책의 시행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반면 이민자들에 대한 동화정책에 있어 프랑스는 이민자들의 문화적 차이를 통합의 논리로 흡수하는 적극적 동화정책을 시행하고, 영국은 이민자 문화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자국 문화를 보존하려는 소극적 동화정책을 지향하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최근 들어 프랑스에서는 이주민들의 문화적 차이를 지우려는 동화정책으로, 영국에서는 자국 문화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차별적 이민정책으로 인해 사회불안과 갈등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글 [나]에 제시된 문화의 혼종은 중심과 주변부라는 위계질서 속에서 고정된 문화의 정체성 대신, 교차와 섞임의 과정 속에서 늘 변화할 수밖에 없는 문화의 속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문화의 혼종적 속성에 대한 인식은 문화적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삼으려는 경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문화의 혼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와 영국의 이민 · 동화정책의 문제점은 통합과 공존을 이야기하면서도 결코 자국의 문화를 혼종의 과정 속에서 늘 변화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와 영국의 이민자 동화정책은 공통적으로 자국 문화의 우월성을 내세우며, 이로 인한 뿌리 깊은 차별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 프랑스와 영국은 자국의 문화를 차이를 흡수하는 '중심'으로서, 그리고 문화의 상호작용 속에서 보존되고 전승되어야 할 '기원'으로 여기는 자국문화중심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두 나라 모두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각종 조치들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언제 수면 위로 떠오를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자문화중심주의와 문화적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삼으려는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혼종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차이들 사이의 새로운 연대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문제 2 예시 답안

인간의 사회 · 경제 관계에서 드러나는 적자생존의 문제를 자연계에 존재하는 진화 체계의 원리를 통해 비판하고 이를 근거로 바림직한 시장 경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인류의 공생과 번영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자유 시장 경제 체계에서의 적자생존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개인의 무한한 이익 추구만을 위해 존재할 수 없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개인의 이익 추구는 필연적으로 타자 혹은 공공의 이해관계 속에서 정립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논리가 공생을 목적으로 추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글 [가]와 [나]는 이러한 관계에 대해 비교적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먼저 글 [가]는 허버트 스펜서의 진화의 최적성, 다시 말하면 적자생존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원리의 요체는 생명계의 자연선택이 적자생존을 통해 진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장을 자연스럽게 방임해주면, 시장은 개인의 이익 추구라는 생명 활동을 통해 사회의 최적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개인의 이익 추구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적자생존의 원리는 다윈의 진화체계의 원리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글 [나]는 자연계에서의 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계에서의 진화는 적자생존의 방향으로만 진행되지 않고 다양한 종의 선택과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글 [나]는 글 [가]에 대한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거리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글 [나]의 논리대로라면 글 [가]에서 말하고 있는 적자생존의 원리는 개인의 자기 이익 추구에 대한 병적인 집착에 불과하며 그것은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라는 암시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글 [가]에서 말하는 개인의 이익에 대한 몰두와 그것이 야기하는 결과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글 [다]이다. 글 [다]의 표는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등장한다. 경우 (1)에서는 두 사냥꾼이 덫을 놓을 때이고, 경우 (2)는 한 사냥꾼은 밀렵을 다른 사냥꾼은 덫을 놓을 때이며, 경우 (3)은 두 사냥꾼 모두 밀렵을 할 때이다. 이 각각의 결과는 2마리씩 사냥, 밀렵 사냥꾼 3마리 덫 사냥꾼 0마리, 1마리씩 사냥으로 드러난다. 세 가지 경우의 수에서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경우 (1)이다. 이 선택은 적자생존이 아닌 둘 사이의 공생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공생의 관계는 경우 (3)으로 갈수록 약화된다. 경우 (2)는 둘 중 한쪽이 적자생존의 욕구를 보일 때 다른 한쪽은 철저하게 소외되는 예를 보여준다.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경우 (3)은 두 사냥꾼 모두 적자생존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모두가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진화의 최적성에 대한 집착, 다시 말하면 적자생존의 원리에의 집착이 결국에는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경우 (3)은 가장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경우 (1)로의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이것은 결국 개인의 적자생존의 욕구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관리하는 국가체제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개입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농작물을 옆집에서 훔칠 수 있다면 누가 스스로 농사를 짓겠는가?' 와 '합의한 노동이나 용역의 가격을 누군가가 맘대로 변경할 수 있다면, 누가 노동이나 용역을 제공하겠는가?' 라는 의문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전자는 '재산과 소유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체제와 법적 제도의 확립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계약 이행과 규칙 준수를 위한 환경 구축과 제도의 시행' 등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 시장의 효율성은 극대화되고 국가총생산량 또한 증대되어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적자생존의 방향으로만 진행되지 않고 다양한 종의 선택과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야말로 자연계의 진화의 원리가 인간의 사회·경제적인 원리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논리가 추구되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논술교육 길라잡이Ⅴ | 인문계열

2010년 8월 일 인쇄
2010년 8월 일 발행

발 행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전형지원실**
121-27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1 KGIT 상암센터 11층
전 화 : 02)6393-5257
인쇄처 : 삼영문화사
전 화 : 02)2274-1381

* 이 책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논술교육 길라잡이 V

비매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ISBN 978-89-93935-36-3